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00-000828-0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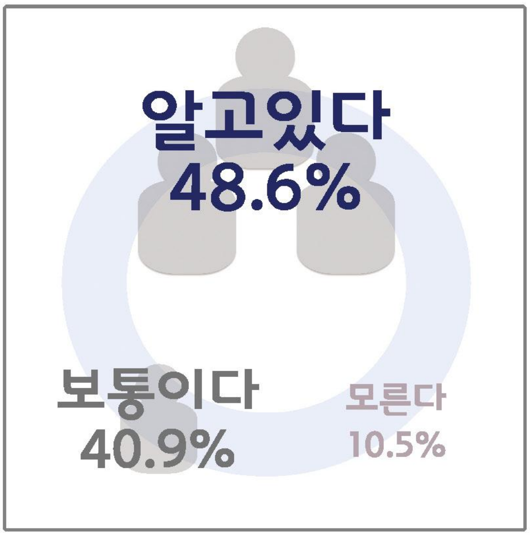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김 정 만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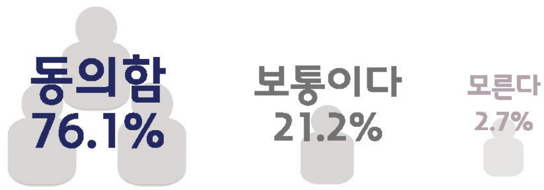
1. 조사목적	일반국민과 소수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인식수준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지원정책과 기반여건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조사대상	- 대국민조사 : 만 19세 이상 남녀 2,100명 - 소수자 인식조사 : 외국인근로자 300명, 결혼이주민 300명, 북한이탈주민 300명 -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조사 : 17개 시·도 (미제출기관 제외 : 대구광역시)
3. 조사기간	2017년 10월 15일 ~ 11월 30일
4.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대국민), 1:1 대면 면접조사(소수자), 공문발송 후 자료취합(지자체)
5. 조사내용	문화다양성의 개념 이해, 가치 평가,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정책효과성, 자원 인프라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과 구현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

문화다양성 인식수준(대국민)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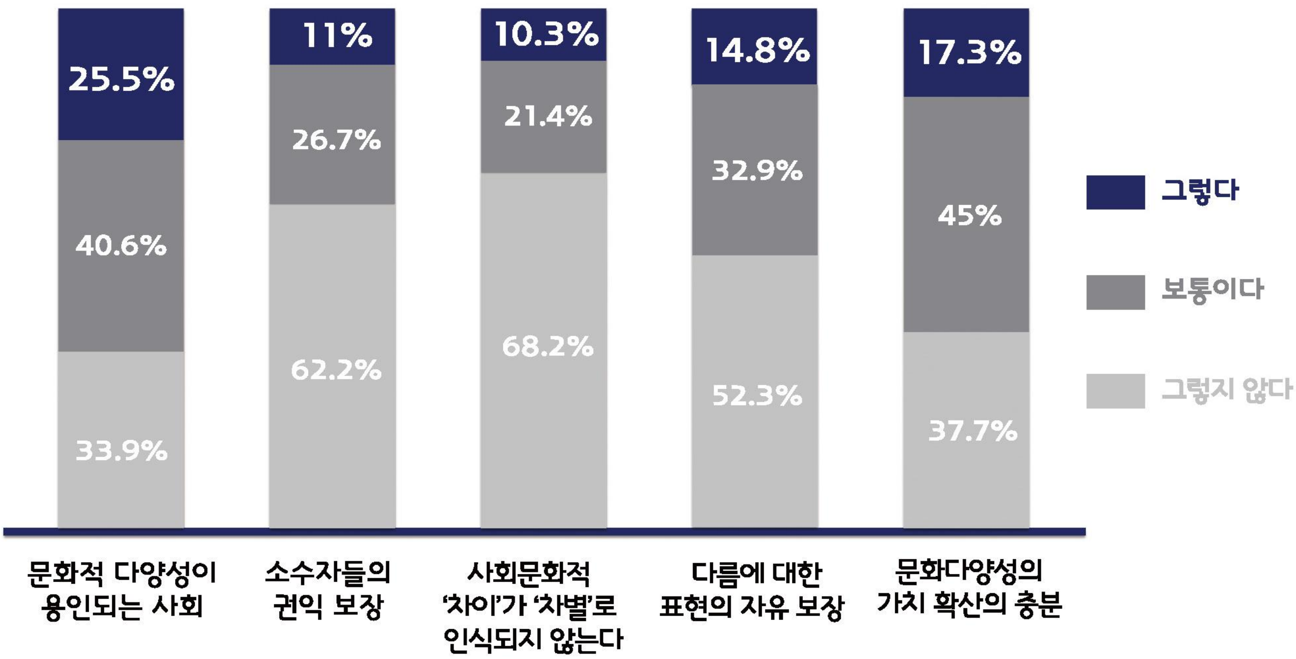


문화다양성의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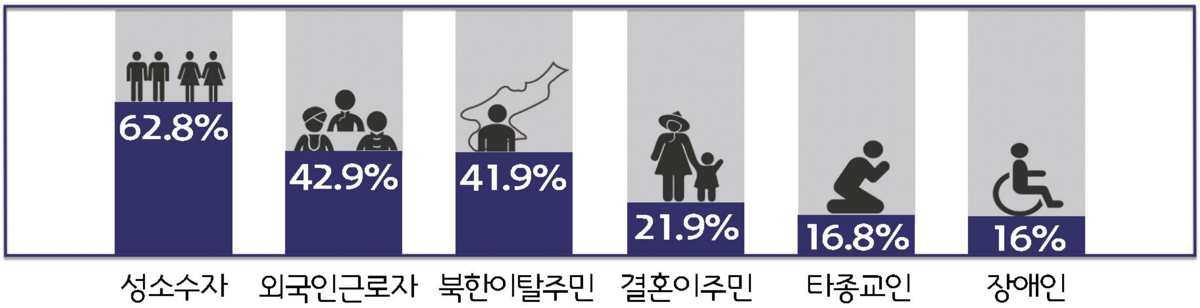
국내 환경 필요성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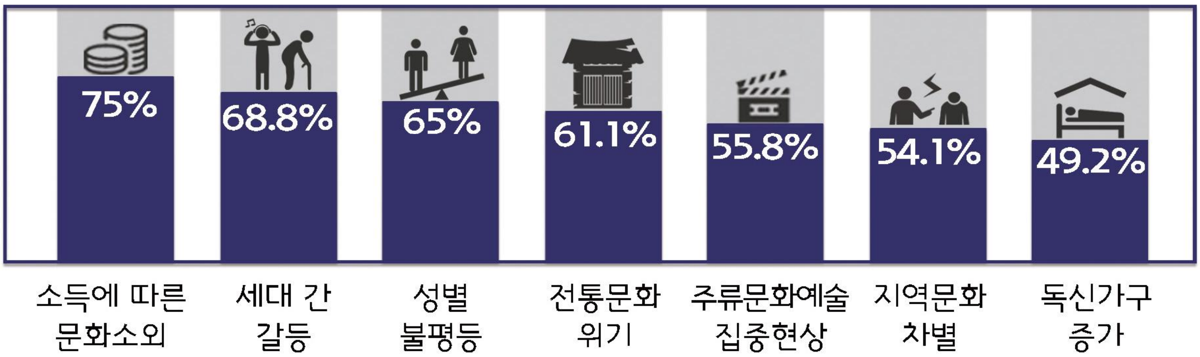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구현수준(대국민)

구성원에 대한 거리감이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외국인근로자

-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68.8%
- 가족으로 수용가능 29.3%

결혼이주민

-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74.3%
- 가족으로 수용가능 50.2%

북한이탈주민

-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66.4%
- 가족으로 수용가능 38%

성소수자

-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36.5%
- 가족으로 수용가능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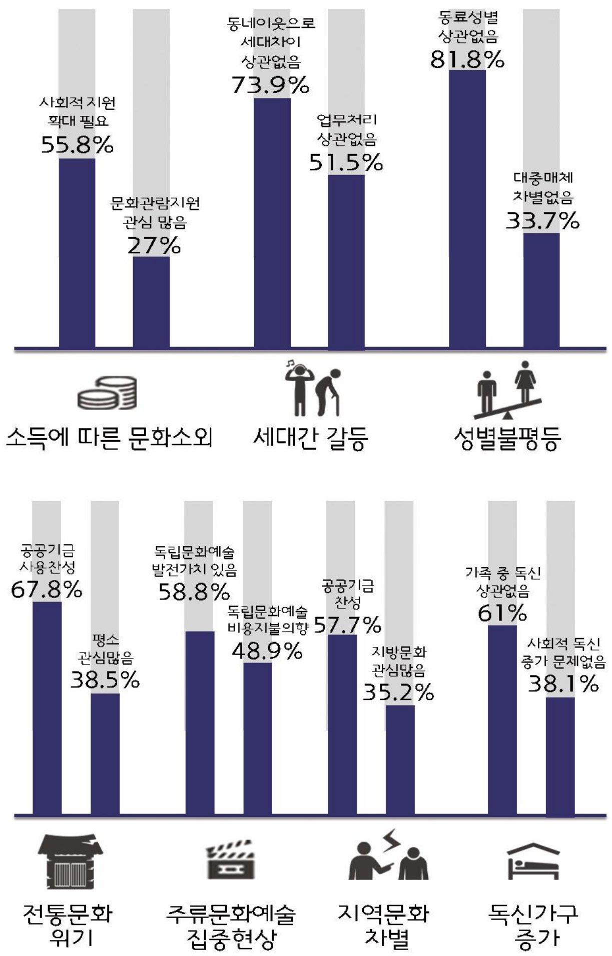
장애인

-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77.7%
- 가족으로 수용가능 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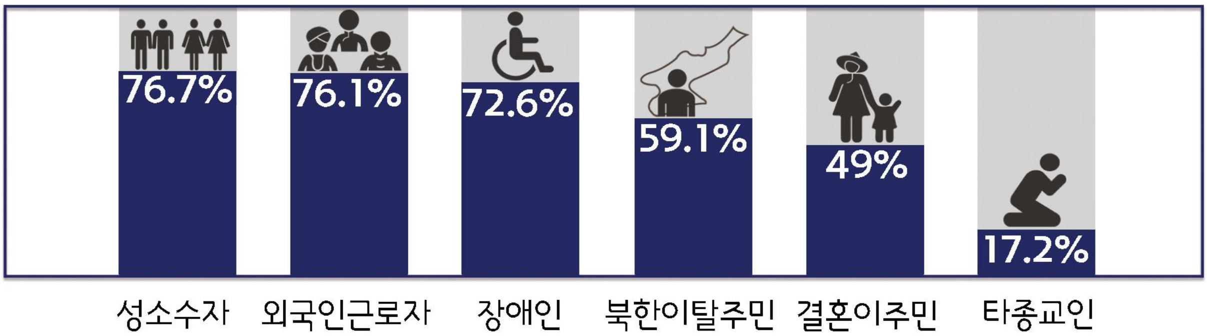
타종교인

- 동네이웃으로 수용가능 71.4%
- 가족으로 수용가능 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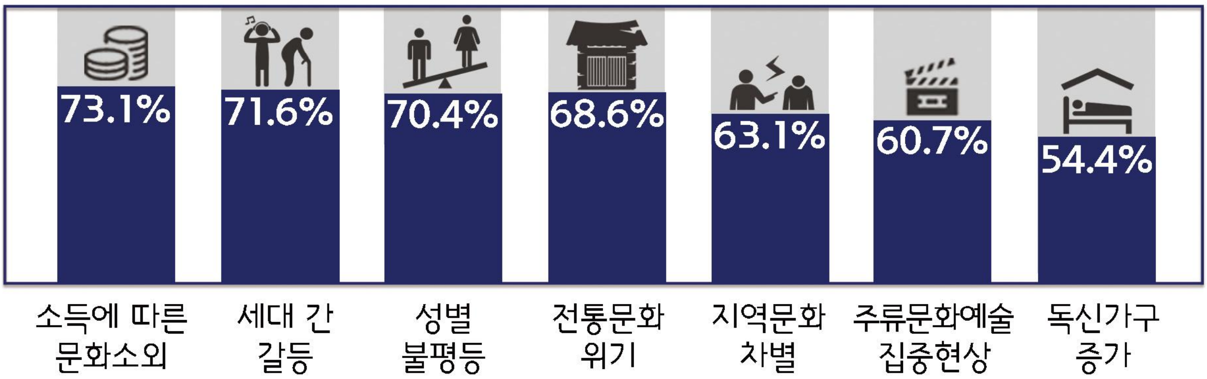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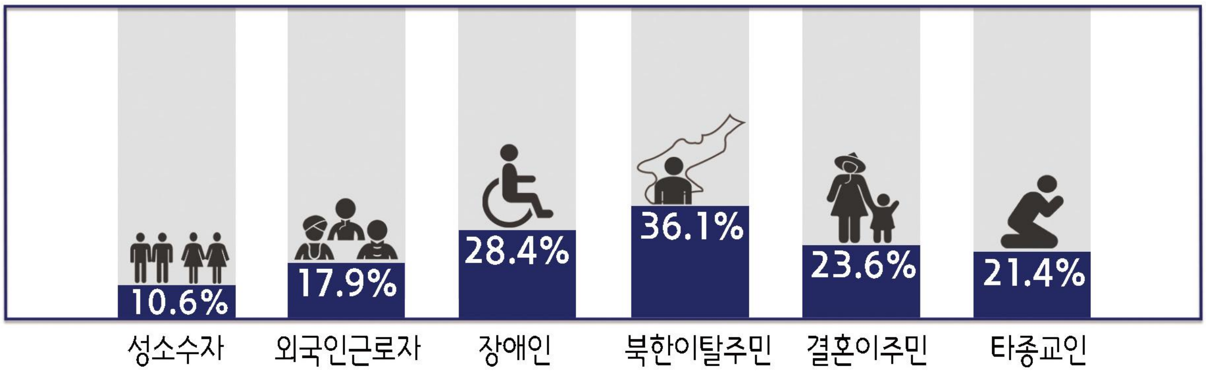
우리사회로부터 차별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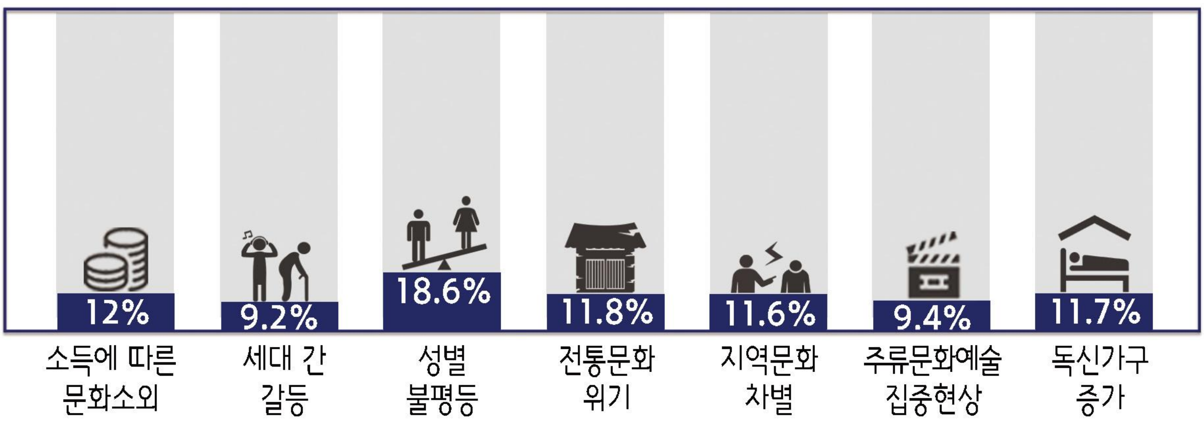
어떤 사회현상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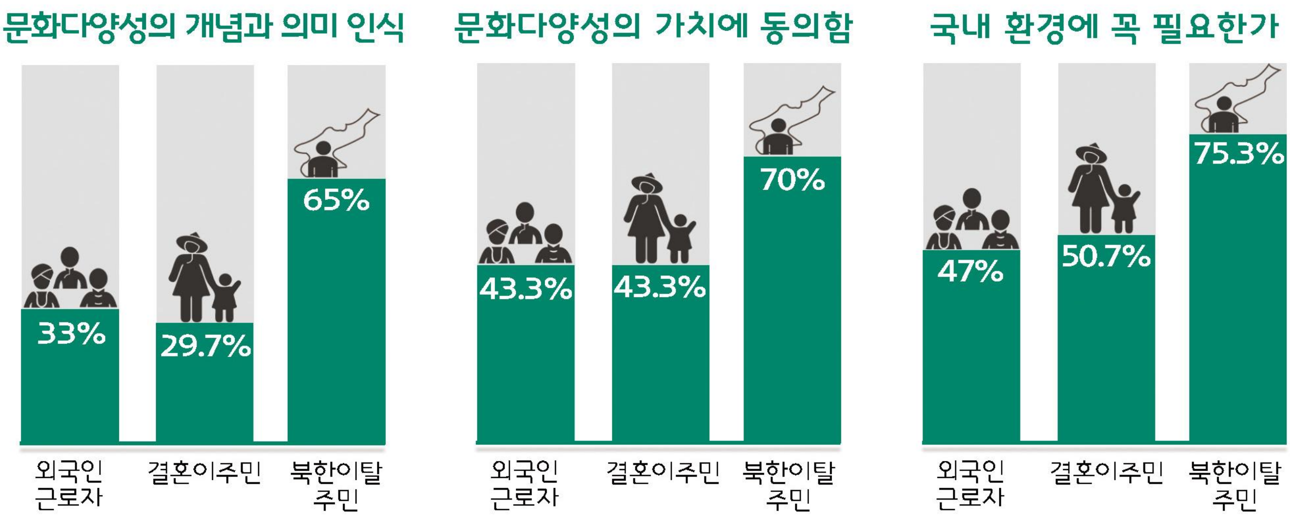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다양성 인식수준(소수자)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생각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이다	41.3%	53.7%	73.3%
소수자들의 권익이 보호된다	32%	37%	55%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	29.3%	32%	44.7%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34%	34.7%	64%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 중이다	37.3%	28.7%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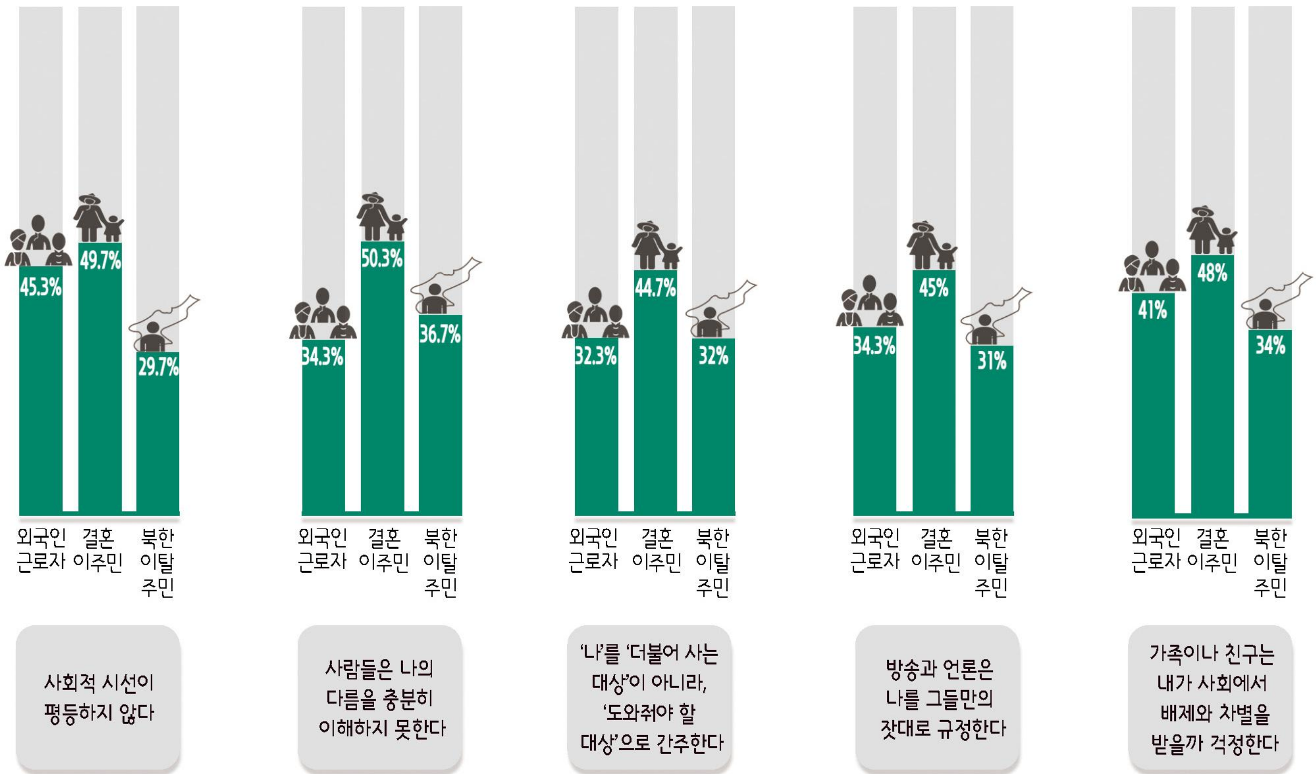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구현수준(소수자)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우리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낀다	41%	42.3%	38%

소수자들의 시각에서 느끼는 수용정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일상생활 속 사람들이 불편해 함	47.7%	50.7%	41.3%
모임활동 중 불공정, 불평등 대우 받음	40.3%	41.7%	33.3%
소수자라는 이유로 행동, 작품 폄하 경험있음	33.7%	34.7%	27.3%
여가활동 중 시선이 곱지 않을 때 있음	37%	33%	34.7%
어울리는 자리를 스스로 불편해 피할 때 있음	43%	36%	33.3%

소수자들의 시각에서 느끼는 우리사회 포용정도



소수자들의 시각에서 바라 본 정부지원 만족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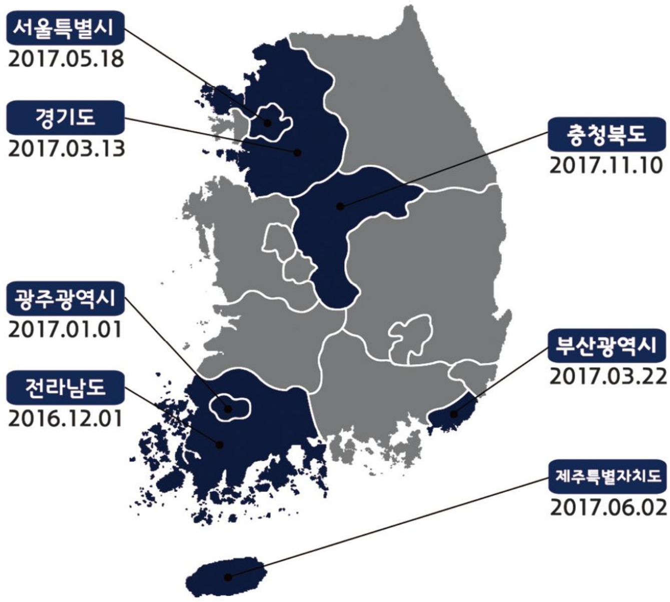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동등한 수준의 일상 생활 영위를 지원함	37.7%	37.7%	51%
자유로운 여가활동을 위한 지원을 함	31.3%	33.3%	51%
정부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33.3%	39%	55%
일상생활 차별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춤	31.3%	33%	54%
여가생활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춤	34.7%	40%	52.7%
여가, 문화생활에 불편함이 없음	36%	35.7%	49.7%
정부, 민간단체 문화 프로그램에 만족함	32.3%	42.3%	52%

지방자치단체 조사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외국인근로자 지원	50 건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64 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54건
성차별 근절	65 건
성소수자 관련 사업	1 건
장애인 문화지원	44 건
세대 간 갈등 해소	37 건
전통문화 보존	115건
지역문화 발전	266건
예술의 다양성 확보	57 건
종교의 다양성	4 건
가족의 다양성	63 건
저소득층 문화 지원	47 건
문화다양성/종합	22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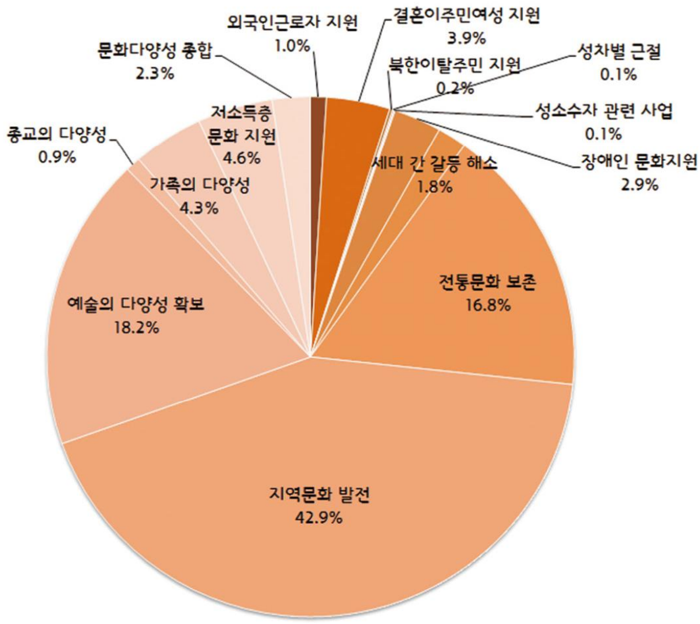
지자체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수(2015-16년)

외국인근로자 지원	90 건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416 건
북한이탈주민 지원	128 건
성차별 근절	60 건
성소수자 관련 사업	19 건
장애인 문화지원	252 건
세대 간 갈등 해소	117 건
전통문화 보존	873 건
지역문화 발전	2,000 건
예술의 다양성 확보	1,033 건
종교의 다양성	81 건
가족의 다양성	104 건
저소득층 문화 지원	203 건
문화다양성/종합	109 건

문화다양성 부문별 지원예산 비율 (2015-16년)



지방자치단체 조사의 경우, 담당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 이해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는 질적수준과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목 차

표 목차

그림 목차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제1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요

문화체육관광부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이주민 200만 명 시대가 되고 사회 내 인적구성이 다원화되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다양한 소수자집단의 사회문제 대응 필요성 및 문화다양성 정책의제가 대두되고 있음

- 국제이주의 확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성적 지향에 따른 인권문제 대두, 젠더문제와 여권의식, 장애인 권리신장, 연령차별문제와 세대갈등, 지역편차 및 전통문화의 위기 같은 사회적 환경변화를 겪고 있음
- 제 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음을 지적하면서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함 이에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모니터링 할 것을 권고함
-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일반 시민과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사회적 인식, 소수문화현황 그리고 다양한 집단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국내 및 국외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2005년 10월 20일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4월 1일 주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됨
- 협약을 기초로 2014년 5월 ‘문화다양성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통해 국민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이바지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법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법률 제12691호 제정]

➡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과 국제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향후 국내 정책방향 및 정책적 개선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6월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 총회 정부 간 위원회에서 한국이 위원국으로 선출된 바, 유네스코 정책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검토하여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 주소를 진단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임

- 현재까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수행된 바 없으며, 선행연구는 ‘문화다양성 지표연구’ 및 특정지역(광주, 인천 등)의 문화다양성 연구만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대국민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보여줌

- 향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문화 간 이질감 해소와 문화통합의 정책적 대응방안들을 도출하기 위한 실증적 진단이 요구됨

<표 1-1>「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내용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2조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의 정의)
①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②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
시행령 제8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이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조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2.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 자원 및 인력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에 근거한 대국민 인식조사 및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함

- 문화다양성법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수준과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법률 제12691호, 2014.5.28, 제정]

- 법률에 의하면,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 문화 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 관련 시설·자원 및 인력, 정책 및 제도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됨

- 현재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수용성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대국민 인식과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책 효과 및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현황인식과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국내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실천적인 사업보다는 문화정책 목표로서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왔기에, 실증적인 진단을 기초로 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및 범위를 재정립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대상을 분명히 설정한 정책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연구>(2015)를 통해 문화다양성의 정책성과 및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을 진단하였던바, 기존 선행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연구체계에 대한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2017년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변화를 파악, 효율적인 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에는 기존 연구보고서 체계를 유지하되 평가지표 보완 및 기술방식 개선을 통해 국민 인식과 사회적 소수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함

- 또한 문화다양성 관련 제반 사항을 통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재까지 수행된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방향 설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필요시 향후 통계분야의 검증과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통계보고서 제정을 통해 정책기반마련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정책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 개발된 지표들을 검토하고 조사지표들을 보완 및 설정함

- 국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수준과 구현 수준을 분석하고 소수자의 활동분석, 지원 정책분석, 기반 여건분석에 대한 실태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함
- 대국민 인식조사, 사회적 소수자 집단 인식조사, 시·도 지방자치단체 대상 행정자료 수집을 통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함
- 관심도, 친밀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의 기준에 따라 13개 유형의 지표를 설정함
  -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의 13개 유형의 지표를 설정함
- 문화다양성지표의 체계 개편과 보완과정을 거쳐 정기적으로 문화다양성 현상의 변화와 현실을 파악하고 방향성을 모색함

<표 1-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구내용

구분	지표 항목	세부 지표 항목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관심도	–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포용도	–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 사회차별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필요도	–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실태조사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포용도	–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 정도
	만족도	– 구성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구분	지표 항목	세부 지표 항목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수용도	- 구성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포용도	- 구성원에 대한 사회 포용 정도
	만족도	- 구성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 정도
시·도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조례·규칙	- 해당사항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 및 규칙의 총 개수
	지원사업	- 최근 2년 동안 해당사항별 지원을 위해 실시한 사업
	예산	- 최근 2년 동안 해당사항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총액
	공공기관	- 해당사항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정보
	민간단체	- 해당사항별 문화예술 관련 민간 활동 단체

➡ 문화다양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파악하여 현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 차별 철폐 등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는 대국민 2,100명을 대상으로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4가지의 통계 지표에 따라 분류 항목을 구성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평가함

- 대국민 설문조사는 크게 2가지인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평가와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의 평가로 이루어짐
  -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조사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 가치 등의 평가 항목으로 이루어짐
  -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조사는 소수 구성원들의 거리감 정도와 수용 및 차별 정도, 사회 현상에 따른 문제 정도, 정책의 필요성 등으로 이루어짐

➡ 국내 소수문화지원 정책사업 추진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 소수자 집단의 사회에 대한 인식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함

- 본 실태조사 대상으로 대표적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총 900명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분석하고, 소수자의 문화 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을 평가함

-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다양성 정책 인식수준과 사회 친밀도, 국민 수용도, 사회 포용도,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분류 항목을 구성함

➡ 문화다양성 관련 인프라의 적절한 수준을 파악하고자 각 지자체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의 제반여건 현황을 파악함

- 모든 수집 목록은 조례·규칙/지원사업/예산/공공기관/민간단체 부문으로 13개

의 유형을 각각 구분하여 수집함

- 광역시도의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소수자별 지원관련 조례 및 규칙의 총 개수, 실시한 사업 목록, 예산 총액, 문화예술 활동 지원기관명 및 인원 수, 문화예술 관련 민간 활동 단체명을 조사함

2. 연구방법

➡ 문화다양성 정책 상황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2015)를 기반으로 한 지표들을 검토하고 보완함

- 2015년 개발된 지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개선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수준 평가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다양성 지표 체계를 개선함
  - 대국민 문화다양성 수용성, 사회적 소수그룹 실태, 문화다양성 시설인프라 및 제도현황으로 세부영역의 범주를 구분하여 조사함

- 문화다양성의 사회적 인식현황, 소수자 활동운영, 관련 시설 및 제도현황의 정책인프라 부문, 정책 제도 개선방향 및 전략 등 크게 4부분으로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함
  - 문화다양성 관련학계 인사 및 교수, 관련학계 회원, 연구기관 업무 담당자, 문화기획사 관계자, 관련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함

➡ 대국민 인식조사의 목표 표본을 2,100명으로 설정하고 온라인조사를 실시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조사로 이루어지도록 함

- 2017년 9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에 따른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또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 추출을 활용해 표본을 추출함

➡ 소수자그룹 900명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각 300명씩 할당하여 대면조사를 진행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조사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주민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한 조사를 진행함

- 북한이탈주민은 2017년 6월 기준 북한이탈주민 현황(통일부),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은 2016년 체류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법무부)을 따라 모집단을 설정함

- 엄밀한 확률표집에 따른 조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통계 및 조사 전문가에 의해 4가지 기준(지역, 소수자 유형, 성, 출신국)을 기본적인 표집틀로 설정한 후, 비례할당함

제3절 연구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1. 연구추진체계

<표 1-3> 연구의 체계

세부 연구내용	주요 연구내용	조사 및 연구 계획
- 기본 방향 설정 - 조사 범위 설정	과업의 방향 및 목표 설정	- 기본 방향 및 목표 정립
- 문화다양성 정책의 특징 분석 - 한국사회의 소수문화 현황 분석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 기초 통계자료 조사 - 문헌 및 기존보고서 조사
- 2013년 시범지표 분석 - 2015년 지표조사 분석 - 2017년 지표, 문항설정	문화다양성 조사지표 보완 및 문항개발	- 기존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문항 보완하여 2017년 지표, 문항개발
- 대국민 인식조사 - 소수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인식 조사 - 지자체 현황조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실시	- 대국민 인식조사 - 소수자 인식조사 - 지원사업 제반여건 현황 조사
- 사회적 인식, 소수자 활동, 정책 및 제도 결과분석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분석	- 실태조사를 통한 결과 도출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 자문회의 개최
- 문화다양성 가치증대를 위한 정책 개선 및 발전방안 제시	종합분석 및 발전방안 제안	- 실태결과 및 자문회의를 통한 도출
	최종보고서 작성	- 최종보고회

2. 기대효과

- 문화다양성 정책사업의 추진성과를 파악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음
  - 2017년 국민과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다양성의 수용 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현황을 진단하여 정책의 방향과 대상을 설정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함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와 수준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형태로 지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그 결과에 기초해 관련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향후 보다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 연구는 궁극적으로 소수자문화의 문화다양성 가치증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문화다양성 정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서 국민인식 제고 및 개인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함
  - 실태조사의 근거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소수자 집단별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소외계층의 변화양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회변화의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현황자료를 확보함
- 실태조사 연구에서 합리적인 효과성 연구를 검토하여 정책의 적절성,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 기반을 마련함
  - 단순한 보고서 작성 및 제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재 국내 다양한 부처 및 기관에서 수행하는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에 대한 향후 방향성 정립 및 정책 제언을 유도함
  - 중기적인 국내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함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새로운 문화다양성 정책영역을 발굴함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제2장

문화다양성 정책환경 분석

문화체육관광부

제1절 국내환경 분석

1. 한국사회의 환경변화와 정책흐름

1) 문화다양성 정책의 흐름

➡ 2005년부터 한·미 FTA 협상 및 문화산업 영역에서부터 문화적 예외가 논의되기 시작함

- 한·미 FTA 협상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로 문화산업 영역에서의 문화적 예외 논의가 발생하였으며, 문화산업영역에서의 시장개방과 관련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기는 하였으나 정책적인 구상은 구체적이지 않았음
-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에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됨

<표 2-1>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유

법령명	제정이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7.5.17.)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고, 대한민국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2008.9.22.)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2010년부터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문화다양성 측면의 접근을 논의하였으며, 기존 방향과 철학을 공존으로 전환하였음

- 2010년 한국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되면서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함
- 기존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정착에서 공존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함
- 다양한 논의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론화한 점에 의의를 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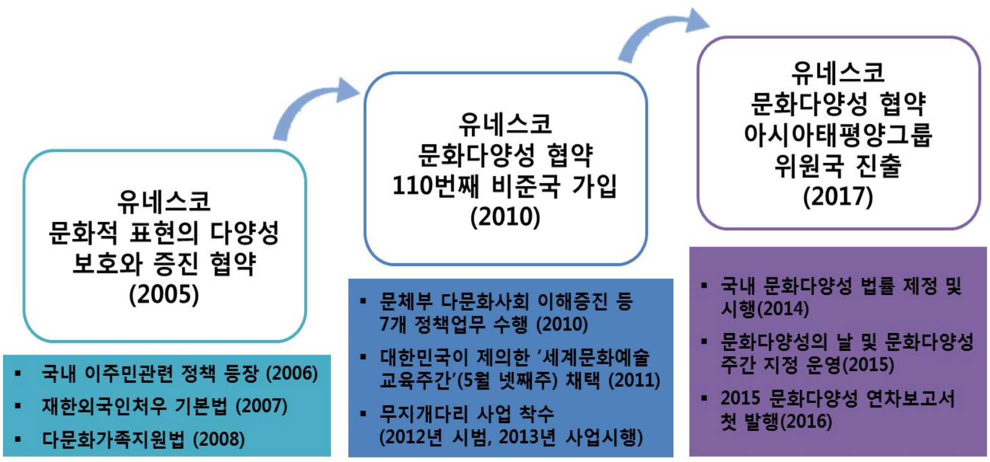
➡ 2014년부터 현재까지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함

- 2014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의「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소수에 대한 문화권 보장 및 사회갈등 해소로 영역이 확대됨
- 그간 소수 특히 이주민에 대한 복지 차원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 제고로 정책방향을 전환함

<표 2-2>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관련 법적근거 정비 내용

법령명	제정이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2014.5.28.,제정)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 발효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기본법 (2013.12.30. 제정)	현행 문화 또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 교육 및 관련 산업 진흥에 치우쳐 있어,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던 바,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명시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지역문화진흥법 (2014.1.28.,제정)	현행법 체계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함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그림 2-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과정

➡ 소수 문화권 보장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의 ‘표현의 자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문화비전을 수립하는 등 자율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 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배제당한 문화예술계 피해사례가 조사됨
  - 블랙리스트로 검열이나 지원 배제 등의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1,012명, 문화·예술 단체는 320곳, 총 피해 건수는 2,670건으로 조사됨

- 이에 지난 12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있는 문화’로 문화정책 기조를 발표하여 비전2030의 의미를 짚어보고, 문화청책포럼, 문화자치연속포럼, 콘텐츠발전분과회의, 체육청책포럼, 열린관광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음

➡ 새 문화정책의 3대 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하고 8가지 정책 의제를 설정하여 문화, 예술, 콘텐츠,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분야를 포괄함

- 8가지 정책의제로 ①개인의 창작과 향유 권리 확대, ②문화예술인의 지위, 권리 보장, ③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④공정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조성, ⑤지역문화 분권 실현, ⑥문화 자원의 융합적 역량 강화, ⑦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 혁신, ⑧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가 발표됨

- 이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 사람의 생명과 권리는 중시하는 문화가 원리의 중심이며,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영역에서 창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대하고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지향하는 것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2-2]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발표　　[그림 2-3] 문화청책포럼

2) 문화산업의 다원화

➡ 문화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콘텐츠의 생산과 유통에 융복합 현상이 일어나며 다원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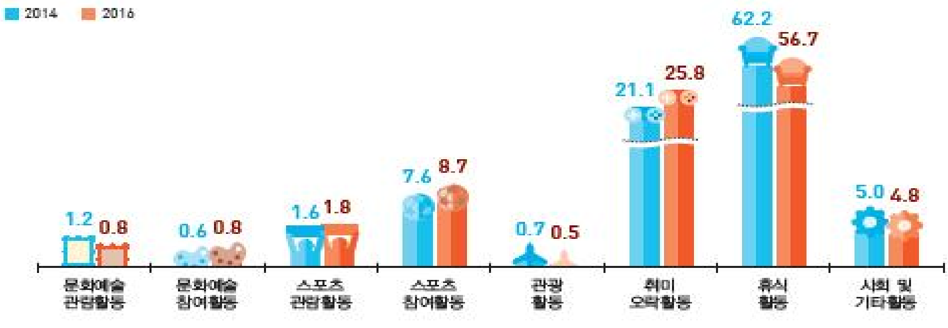
-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0만 5,014개, 종사자 수는 총 62만 1,928명, 매출액은 100조 4,863억 원, 부가가치액은 39조 9,789억 원, 부가가치율은 39.8%로 나타남. 수출액은 56억 6,137만 달러, 수입액은 11억 8,282만 달러로 44억 7,855만 달러의 흑자를 보임

<표 2-3> 콘텐츠산업통계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 가치율(%)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수출입 차액 (천 달러)
출판	25,505	190,277	20,509,764	8,806,324	42.9	222,736	277,329	△54,593
만화	8,145	10,003	919,408	362,028	39.4	29,354	6,715	22,639
음악	36,770	77,490	4,975,196	1,808,677	36.4	381,023	13,397	367,626
게임	13,844	80,388	10,722,284	5,047,597	47.1	3,214,627	177,492	3,037,135
영화1)	1,111	30,100	5,112,219	1,714,319	33.5	29,374	61,542	△32,168
애니메이션	376	4,728	610,175	218,202	35.8	126,570	7,011	119,559
방송2)	954	42,378	16,462,982	5,978,111	36.3	320,434	146,297	174,137
광고3)	5,841	52,971	14,439,925	5,241,693	36.3	94,508	323,604	△229,096
캐릭터	2,069	30,128	10,080,701	3,987,458	39.6	551,456	168,237	383,219
지식정보	8,671	77,809	12,342,103	5,212,037	42.2	515,703	652	515,051
콘텐츠솔루션	1,728	25,656	4,311,563	1,602,423	37.2	175,583	544	175,039
콘텐츠산업 합계	105,014	621,928	100,486,320	39,978,869	39.8	5,661,368	1,182,820	4,478,548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p.3

-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79.3%로 나타남.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는 휴식활동(56.7%), 취미오락활동(25.8%), 스포츠 참여활동(8.7%) 순으로 나타남. 이는 여가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향유율과 여가활동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예술이 다원화되고 있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2-4] 가장 많이 참여한 유형별 여가활동(1순위)

<표 2-4>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역사, 철학강의/역사탐방 포함)

문화예술행사 관람	2003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62.4%	65.8%	67.3%	67.2%	69.6%	71.3%	79.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6),「2016 문화향수실태조사」

- 또한 문화기술의 고도화,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문화예술 욕구 증가, 그에 따른 문화예술과 첨단기술의 접목 및 다양화,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에 따른 융합콘텐츠의 유통과 소비의 용이 등으로 콘텐츠의 비즈니스가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융합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1)]
  - 사진이나 음악, 영상, 게임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되고 스마트 기기의 주요 앱들과 연동된 소셜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2017)

[그림 2-5] AR을 활용한 디즈니 색칠공부 화면

- 동남아와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 프로젝트의 신설,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발판으로 한 국내 콘텐츠의 현지화 전략,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데스크 운영의 고도화, 해외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 민관협력 해외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한류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

자료: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한류 Now 한류심층분석보고서」, vol.21

[그림 2-6] 해외에서 흥행하고 있는 한류문화

1) 김규찬(2017),「문화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p.172-174

2. 국내 소수문화의 현황과 과제

1) 다인종, 다민족사회로의 가속화

<표 2-5> 외국인주민 현황 (2016.12.31.기준)

구분	계	국적미취득자 (1,363,712명, 79.7%)					국적취득자 (149,751명, 8.8%)		외국인 주민 자녀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 동포	기 타 (기업투자, 취재 등)	혼인 귀화	기 타 (일반귀화, 입양 등)	
외국인주민(명)	1,711,013	573,378	144,912	82,181	216,213	347,028	93,249	56,502	197,550
비율(%)	100.0	33.5	8.5	4.8	12.6	20.3	5.4	3.3	11.5

자료: 행정안전부(2017),「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정보통계담당관실

➡ 2016년 12월 기준 외국인주민은 171만 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3.4%로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음

- 국적취득자는 149,751명으로 8.8%를 차지하며 국적미취득자는 1,363,712명으로 79.7%를 차지함. 국적취득자의 경우, 혼인귀화인은 93,249명으로 5.4%, 일반귀화, 입양 등은 56,502명으로 3.3%를 차지함

- 국적미취득 외국인주민은 외국인근로자(33.5%), 기타(20.3%), 외국국적동포(12.6%), 결혼이민자(8.5%), 유학생(4.8%) 순임

- 국적별 외국인주민은 한국계중국> 중국> 베트남> 남부아시아(인도권)> 태국> 필리핀> 미국> 중앙아시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몽골 등의 순으로, 해가 지날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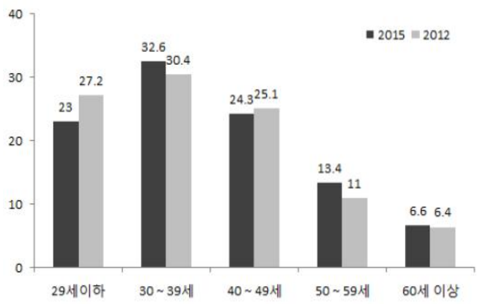
- 외국인주민 자녀는 11.5%를 차지하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등 기존 다문화 정책의 내용과 범위를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다문화가구는 55.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만 30~39세가 32.6%로 가장 많고 국내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이 3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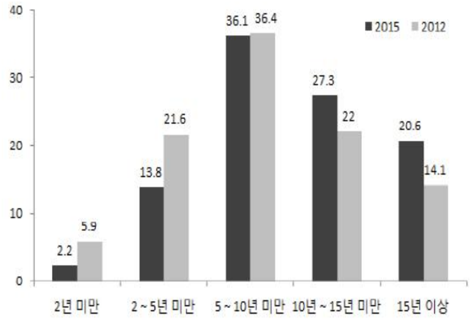
- 다문화가구의 시도별 분포는 서울 21.6%, 경기 27.8%, 인천 6.1%로 55.5%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음

-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만 30~39세가 32.6%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만 40~49세(24.3%), 만 29세 이하(23%), 만 50~59세(13.4%), 60세 이상(6.6%) 순으로 나타남

- 국내 거주기간은 5~10년 미만이 36.1%로 가장 많으며, 10년~15년 미만(27.3%), 15년 이상(20.6%), 2~5년 미만(13.8%), 2년 미만(2.2%)로 나타남



[그림 2-7]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연령대 분포



[그림 2-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국내 거주기간 분포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정해숙), p.51

➡ 다문화이주민의 가장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교육·일자리 소개(3.30점)'와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3.13점)'임

- 다문화이주민의 54.9%가 한 가지 이상의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받은 비율이 51.2%로 가장 높고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40.7%),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23.1%) 순으로 나타남
-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종류별 요구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일자리 교육 · 일자리 소개가 3.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이 3.13점, 가정 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이 3.06점으로 나타남

<표 2-6>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이용한 서비스(복수응답)

(단위: %)

구분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 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활동 지원 (자조모임 등)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아이 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 서비스
전체	40.7	51.2	5.5	22.7	5.7	9.7	20.7	5.0	10.4	23.1	9.2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정해숙), p.222

<표 2-7>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교육 및 지원 서비스 요구도

(단위: 점)

구분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통·번역 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부모 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 교육	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 교육	자녀 생활 및 학습 지원	사회활동 지원 (자조모임 등)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일자리 소개	아이 돌보미 등 자녀양육 도우미 파견 서비스
전체	3.11	2.97	2.44	2.47	2.43	2.72	3.13	2.70	2.89	3.30	2.78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정해숙), p.224

➡ 다문화이주민의 모임·활동 참여시 어려움을 느낀 비율은 68.5%로 나타났으며, 어려움을 느낀 이유는 ‘일을 해야 하므로(45%)’가 가장 많았음

-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이 모임, 활동 참여시 어려움을 느낀 비율은 68.5%, 어려움이 없음은 31.5%로 나타남
- 여성(70.6%)이 남성(59.5%)보다 어려움을 겪었으며, 출신 국적별로는 필리핀, 베트남, 그 외 동남아 국가 출신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모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일을 해야 하므로(45%)’가 가장 많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30.4%)’,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20.2%)’,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16.2%)’,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10.6%)’,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8.5%)’,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3.4%)’, ‘기타(2.1%)’의 순임

<표 2-8>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의 모임·활동 참여시 어려운 점(복수응답)

(단위: %)

구분	한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배우자 및 가족의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족을 돌봐야 하므로	일을 해야 하므로	모임을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참여하고 싶은 모임이 없어서	기타
전체	30.4	3.4	8.5	20.2	45.0	10.6	16.2	2.1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정해숙), p.160

➡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의 경험을 한 다문화이주민은 40.7%에 달하며, 고용 부문에서 가장 많은 차별을 겪음

- 다문화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성별로는 남성(43.3%)이 여성(40.1%)에 비해 사회적 차별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다문화가족과 이민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차별을 경험하는 영역은 고용 부문으로 55.6%가 응답했고, 시설이용(26.2%), 교육(9.5%), 성희롱 및 성차별(5.6%), 기타(3.2%) 순으로 나타남
- 다문화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개선 또한 중요함

➡ 외국인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규모 또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외국인 취업자 증가폭 둔화와 함께 그 비중 증가도 주춤

- 2016년 기준 외국인취업자는 96만 2천 명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2만 5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취업자 증가폭의 감소로 외국인 고용률은 전년대비 0.7% 감소함

<표 2-9> 외국인의 경제활동상태 현황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구 분	2013년	2014년	증감	2015년	증감	2016년	증감
취업자	760	852	92	938	86	962	25
(고용률)	(67.5)	(67.9)		(68.3)		(67.6)	
실업자	33	44	11	48	4	43	-5
비경제활동인구	333	360	27	387	28	420	32
전체	1,126	1,256	130	1,373	118	1,425	51

자료: 윤정혜(2017),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외국인 취업자 구성 변화와 특징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3

- 외국인 취업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규모 또한 확대되었으나, 2016년에는 외국인 취업자 증가폭 둔화와 함께 그 비중 증가도 주춤함
  - 2016년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외국인 취업자의 규모는 3.6%이며, 임금근로자 대비 4.9% 수준으로 전년과 동일 (전체 취업자 26,450,000명)

- 직종별 외국인 취업자는 서비스·판매종사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비중은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39%), 단순노무종사자(31.7%), 서비스·판매종사자(12.6%),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10.8%), 사무종사자(3.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8%) 순으로 나타남

<표 2-10> 직종별 외국인 취업자 현황

(단위: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2.2	11.4	11	10.8
사무종사자	3.2	2.9	3.3	3.2
서비스·판매종사자	11.5	11.7	11.3	12.6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3.0	2.8	2.5	2.8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37.3	42.0	40.1	39.0
단순노무종사자	32.9	29.2	31.8	31.7

자료: 윤정혜(2017), 「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외국인 취업자 구성 변화와 특징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p.11

➡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을 경험한 이주민은 88%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모국어보다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는 응답자일수록 경험비율이 높음

- 미혼(27.3%), 자영업(25%)과 생산근로직(21.1%) 계층에서는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참여도는 관람, 견학, 체험 프로그램(67.5%), 동호회 프로그램(58.7%), 연습 중심 프로그램(52.2%), 교육 프로그램(51.8%), 자조모임 프로그램(51.1%) 순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의 장르는 축제가 49.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학(35.9%), 음악, 미술(33.4%), 대중예술(32.1%) 순으로 나타남

<표 2-11> 이주민의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경험여부

(단위: %)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507	88.0	12.0
성별	남성	52	80.8	19.2
	여성	455	88.8	11.2
연령	20대	216	90.7	9.3
	30대	206	86.4	13.6
	40대 이상	82	84.1	15.9
	무응답	3	100.0	0.0
거주기간	2년 미만	152	84.2	15.8
	2년-3년 미만	68	86.8	13.2
	3년-5년 미만	121	90.9	9.1
	5년-7년 미만	59	84.7	15.3
	7년 이상	104	93.3	6.7
	모름/무응답	3	66.7	33.3
혼인상태	미혼	33	72.7	27.3
	결혼	459	89.8	10.2
	이혼/사별/별거/동거	11	63.6	36.4
	기타	4	75.0	25.0
학력	중학교이하	110	90.0	10.0
	고등학교	220	85.9	14.1
	대학이상	170	90.6	9.4
	모름/무응답	7	57.1	42.9
직업	자영업	12	75.0	25.0
	생산근로직	76	78.9	21.1
	사무/전문직	66	90.9	9.1
	주부	304	90.8	9.2
	기타	46	82.6	17.4
	모름/무응답	3	100.0	0.0
월평균 가계소득	150만원 미만	134	85.1	14.9
	150-260만 미만	173	88.4	11.6
	260만원 이상	102	92.2	7.8
	잘모름	98	86.7	13.3
출신 국가	중국(조선족)	63	81.0	19.0
	중국(한족,기타)	90	93.3	6.7
	베트남	205	85.9	14.1
	필리핀	60	91.7	8.3
	일본	16	87.5	12.5
	기타아시아권	68	91.2	8.8
	기타지역	5	80.0	20.0
주사용 언어	한국어더많이사용	222	89.2	10.8
	한국어/모국어반반	212	88.2	11.8
	모국어더많이사용	57	80.7	19.3
	기타	16	93.8	6.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연구책임: 전경옥)

<표 2-12>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 성격에 따른 참여도

구분	사례수	관람, 견학, 체험 프로그램 참여도	교육 프로그램 참여도	동호회 프로그램 참여도	자조모임 프로그램 참여도	연습 중심 프로그램 참여도
전체	446	67.5%	51.8%	58.75	51.1%	52.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연구책임: 전경옥)

➡ 문화예술 다문화 프로그램은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55.6%)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었으며, 참여자들과의 관계형성(4.03점)의 효과가 가장 큼

-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55.6%), 도서관(10.5%), 문화원(9.9%), 문화회관(5.2%), 종교기관(4.3%) 순으로 응답함
- 프로그램의 유용성은 참여자들과의 관계형성(4.03점)이 가장 높았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친근감(4.01점), 다양한 문화이해(3.97점), 지역주민과의 만남(3.96점), 문화예술 지식습득, 정서적 안정감(3.87점), 모국문화향유(3.84) 순으로 응답함

<표 2-13> 문화예술 다문화프로그램의 유용성

구분	문화예술에 대한 친근감	문화예술 지식습득	다양한 문화이해	정서적 안정성	모국문화 향유	참여자들과의 관계형성	지역주민과의 만남
전체	4.01점	3.87점	3.97점	3.87점	3.84점	4.03점	3.96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연구책임: 전경옥)

2)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 2017년 9월 기준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 수는 31,09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청년층인 20-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북한이탈주민은 1998년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탈북 여건 악화 등의 원인으로 입국 인원이 감소함
-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에는 8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됨. 연령별로 분류 시 남·여 합계는 총 30,799명 중 8,931명을 차지하는 30대가 가장 많았고, 8,769명을 차지하는 20대가 그 다음으로 많았음

<표 2-14> 북한이탈주민 입국현황 (2017.09. 기준)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9 (잠정)	합계
남 (명)	5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53	8,958
여 (명)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98	1,145	1,092	1,024	1,116	728	22,135
합계 (명)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881	31,093
여성 비율	46%	55%	63%	67%	69%	75%	78%	78%	77%	75%	71%	73%	76%	78%	80%	79%	83%	71%

자료: 통일부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거주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울시에 24.2%, 경기도에 30.5%, 인천시에 9.5%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수도권 거주율이 64.1%에 육박하며 수도권 인구밀집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보임

➡ 통일부는 주택을 알선, 주거지원금 지급,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등을 통해 안정적 사회정착을 도모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생계급여 수급률과 초·중·고 중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2016년에는 1,096세대가 주택을 알선 받았으며, 누적 9,239세대가 보급되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함
-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는 전국 23개(서울 4개, 경기 4개, 강원 2개, 그 외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2016년에는 주거지원금을 1,311명에게 19,98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지방거주 장려금을 443명에게 952백만 원을 지급함

•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0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6년에는 24.4%로 측정되었으며, 초·중·고 중단율은 2013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2.1%로 집계되었음

<표 2-15> 2016년도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설치 지역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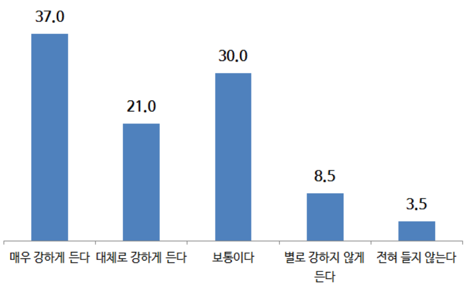
지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경북	경남	광주
개수	4	4	1	2	1	1	1	1
지역	부산	대구	울산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개수	1	1	1	1	1	1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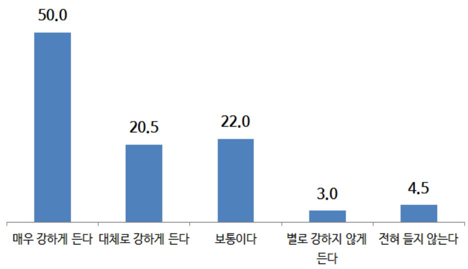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2017), 「2017 통일백서」,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소속감 조사에서 긍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지역사회에 58%, 국가에 70.5%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일반 인식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 ‘매우 강하게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37%, ‘대체로 강하게 든다’는 21%, ‘보통이다’는 30%, ‘별로 강하지 않게 든다’는 8.5%, ‘전혀 들지 않는다’는 3.5%로 집계되어 대체로 소속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이 ‘매우 강하게 든다’고 응답한 비율은 50%, ‘대체로 강하게 든다’는 20.5%, ‘보통이다’는 22%, ‘별로 강하지 않게 든다’는 3%, ‘전혀 들지 않는다’는 4.5%로 집계되어 대체로 소속감이 강하게 드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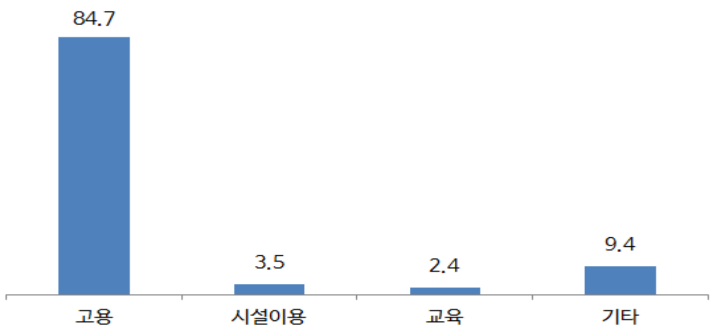
[그림 2-9]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의 소속감 [그림 2-10]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7), 「국민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 현재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은 고용으로 84.7%를 차지함

• 사회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84.7%가 ‘고용’ 부문이

가장 많았으며, '시설이용3.5%', '교육2.4%', '기타 9,4%' 순으로 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음



자료: 국민대통합위원회(2017), 「국민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그림 2-11] 차별받는다고 느낀 영역

➡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은 활발해지는 추세이며 월평균 임금은 162.9만 원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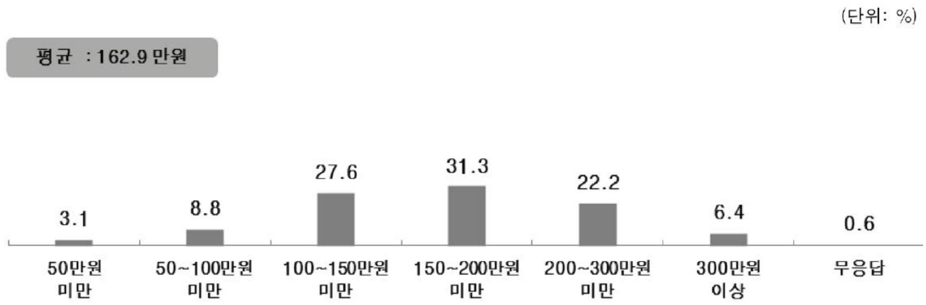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5년에 비해 2016년에 소폭 하락하였으나 2014년 이전에 비해 상승하였으며, 고용률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며 실업률은 하락하며 경제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 중 월 소득이 '월 150~200만원 미만'인 응답자는 31.3%로 가장 많았으며 월 평균 162.9만원의 소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됨
- 일반국민 대비 주된 일자리에서 본인의 직업유형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탈주민 서비스 종사자 비율은 27.3%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 노무 종사자는 26.9%를 차지하였으나 사무 및 전문가의 비율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표 2-16>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현황

(단위 : %)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경제활동 참가율	49.6	48.6	42.6	56.5	54.1	56.9	56.6	59.4	57.9
고용률	44.9	41.9	38.7	49.7	50	51.4	53.1	54.6	55.0
실업률	9.5	13.7	9.2	12.1	7.5	9.7	6.2	4.8	5.1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림 2-12]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을 돕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기본금 수령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 관련 장려금과 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은 전체적으로 감소함

- 기본 생활을 위하여 지급되는 기본금 수령자는 5년 동안 1,000명 이상 감소하였으며, 1인당 평균적으로 수령하는 기본금 또한 감소하는 추세임
- 직업훈련장려금, 자격취득장려금, 우선선정직종, 취업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활동을 증진하고 있으나 수령자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 취업장려금 수령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됨
-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면 업체에 지급하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나, 이를 수령하는 업체는 2012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급인원과 지급액 또한 현저히 낮아짐
-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사회적 자립심을 증진하기 위하여 기본금 지원정책보다는 취업지원정책을 적극적 추진 및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17> 기본금 지급 현황

(단위 : 명/백만 원)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2,417	1,524	1,307	1,601	1,171	1,311
기본금	13,815	12,167	9,173	9,429	7,609	8,277
1인 기본금 (평균)	5.72	7.98	7.02	5.89	6.5	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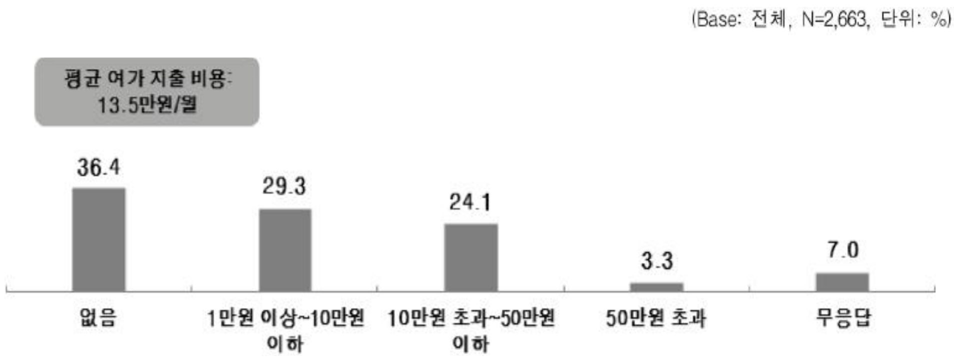
자료: 통일부(2017), 「2017 통일백서」,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은 여가활동에 월 평균 13.5만 원을 소비하는데 이는 전 국민 월 평균 136만 원에 비해 적으며, 주로 종교단체, 사교단체, 취미·여가단체에 참여함

- 북한이탈주민이 여가활동에 지출하는 월 평균 금액은 13.5만원이며 한 달 동안 여가활동에 쓰는 비용이 '없다'는 비율은 36.4%에 육박하는데, 이는 전 국민의 월 평균 지출비용이 136만원인 것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문화향유 현황을 보여줌
  - 전 국민 대상으로 한 달 평균 지출 금액을 조사한 결과 '3만원 미만'은 5.9%, '3~9만원'은 31.9%, '9~15만원'은 24.7%, 15만 원 이상은 37.5%로 집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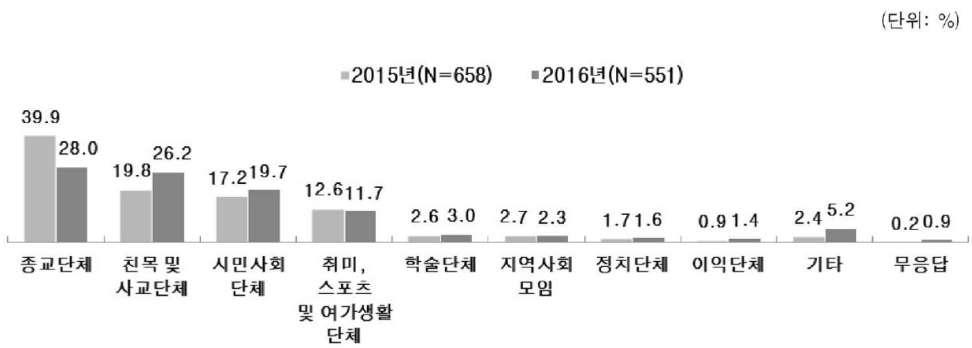
- 문화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단체 유형을 조사한 결과, '종교단체'에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친목 및 사교단체', '시민사회 단체', '취미, 스포츠 및 여가생활 단체'가 그 뒤를 이었음
  - 문화여가 관련 단체 활동은 11.7%의 낮은 참여율을 보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향유를 확산시키고 증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사회적 부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관련 통계자료가 많은 편이나, 문화생활에 관한 연구 자료는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문화예술향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림 2-13] 여가활동 지출비용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그림 2-14] 참여단체 유형

3) 장애인 문제

➡ 최근 전국 등록 장애인은 4.9%로 측정되었으며, 국민 대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등록 장애인 추이를 살펴 본 결과 2016년에는 2,511,051명이 집계되었으며, 2009년에 장애인구 비중이 4.9%로 측정된 이후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긍정적 의견(계속 확대+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 비율이 더 높아짐
  - 2015년 긍정적 의견(계속 확대+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은 74.5%, 2017년에는 76.9%로 집계됨

<표 2-18>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

(단위 : %)

	계	계속 확대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	충분함	잘 모르겠음
2015년	100.0	24.8	49.7	9.2	16.2
2017년	100.0	27.5	49.4	8.2	14.9
장애인*	100.0	40.4	43.6	6.9	9.1
비장애인	100.0	26.8	49.7	8.3	15.2

자료: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p.15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유한 등록장애인을 지칭함

-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로는 2017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2015년보다 반대 응답 비율이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반대하지 않음이 85.5%로 나타남

➡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문화·체육·예술 교육’의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 홍보 강화를 통해 참여도 상승을 도모해야 함

-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으나 ‘문화·체육·예술 교육’이 2.6%로 가장 높았고 ‘학력보완교육’이 0.3%로 가장 낮았음

-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항목으로는 ‘프로그램 홍보의 강화’가 28.3%로 집계되었고, 참여율 저조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 향후 참여하고 싶은 교육영역은 ‘없음’이 67.7%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체육·예술 교육’이 13%로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높았음

<표 2-19>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여부

(단위 : %, 명)

구분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전체
학력보완교육																
있음	0.2	0.2	0.0	0.4	0.0	0.9	4.2	1.1	0.9	0.0	0.0	0.0	0.0	0.0	0.0	0.3
없음	99.8	99.8	100.0	99.6	100.0	99.1	95.8	98.9	99.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성인 기초 및 문자해득교육																
있음	0.3	0.2	0.4	0.2	1.2	1.3	0.0	1.1	0.0	0.0	2.1	0.0	0.0	0.0	0.0	0.4
없음	99.7	99.8	99.6	99.8	98.8	98.7	100.0	98.9	100.0	100.0	97.9	100.0	100.0	100.0	100.0	99.6
직업능력 향상교육																
있음	1.1	0.4	1.9	0.2	1.2	5.0	11.3	5.0	1.2	0.0	0.0	0.0	21.6	2.7	5.4	1.4
없음	98.9	99.6	98.1	99.8	98.8	95.0	88.7	95.0	98.8	100.0	100.0	100.0	78.4	97.3	94.6	98.6
인문교양 교육																
있음	0.9	0.7	0.4	0.2	0.0	1.0	2.5	1.3	2.9	0.0	0.0	0.0	0.0	2.2	0.0	0.8
없음	99.1	99.3	99.6	99.8	100.0	99.0	97.5	98.7	97.1	100.0	100.0	100.0	100.0	97.8	100.0	99.2
문화·체육·예술 교육																
있음	2.7	1.2	3.5	2.6	0.9	3.0	15.7	1.4	2.6	0.0	3.2	6.5	0.0	0.0	0.0	2.6
없음	97.3	98.8	96.5	97.4	99.1	97.0	84.3	98.6	97.4	100.0	96.8	93.5	100.0	100.0	100.0	97.4
시민참여 교육																
있음	0.3	0.2	0.6	0.0	0.0	0.4	0.0	0.2	0.3	0.0	0.0	0.0	0.0	0.0	0.0	0.3
없음	99.7	99.8	99.4	100.0	100.0	99.6	100.0	99.8	99.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88

➡ 장애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223.5만원, 지출액은 170.6만원이며 전체가구의 월평균 소득과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18.9%를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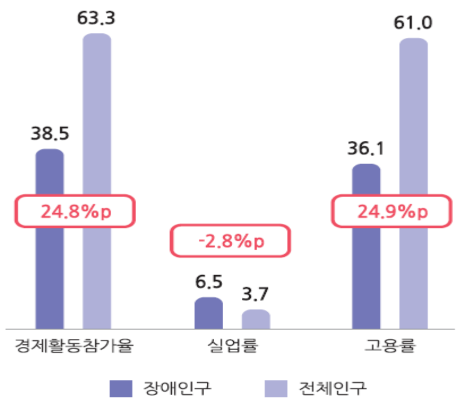
- 장애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223.5만원이며 전체가구 대비 52%에 불과하고, 월평균 지출액은 170.6만원이며 전체가구 대비 66.9%로 조사됨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는 2015년 18.9%(191,723명)로 집계되었으며 2014년도에 비하여 3%가 소폭 하락하였으나 가구 수는 증가함

➡ 15세 이상 장애인구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1%이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 장애인 고용에 영향을 끼침

- 15세 이상 장애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 고용률은 36.1%이며 이는 전체인구의 수치들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2016년 조사된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도움정도에서 가장 많이 응답한 항목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이었으며, 제도적인 효과로 인해 장애인 고용증진이 유발됨
  - 정부부문에서 90.8%가 이행되었으나 민간부문에서는 46.9%가 이행되어 전체 평균은 47.9%가 되므로,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률을 전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2)]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

(단위 : %)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 「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 p.8

[그림 2-15] 15세 이상 장애인구와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비교 (2016)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공공시설 이용 시 감액혜택' 등의 장애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문화향유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 제14892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문화생활 항목은 'TV시청'[3])이며 이는 경제적·신체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표 2-20> 「장애인복지법」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계팀, p.22
3) 위의 글,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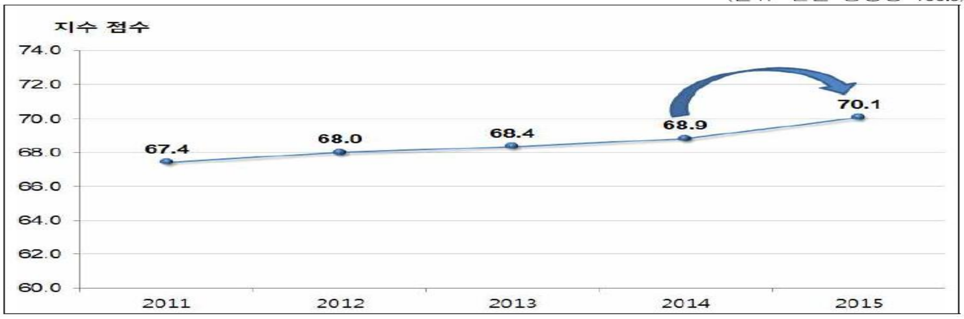
4) 젠더문제

➡ 총 인구 수는 51,696,216명, 남여 비율은 1로 나타나며,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70.1임(완전 성평등=100.0)

- 2016년 12월 기준, 남자인구 수는 25, 827,594명, 여자인구 수는 25,868,622명으로 남여 비율은 1.00임[4]

- 2016년 한국 성평등보고서(2011–2015년까지의 국가성평등지수 산정)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지수는 70.1로 전년 대비 1.2p 상승함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김태홍), p.49

[그림 2-16] 국가 성평등지수 변화 추이

➡ 국가 성평등지수의 분야별 현황에 따르면, 가족분야와 의사결정 분야 평등지수 값이 증가하였고 안전분야는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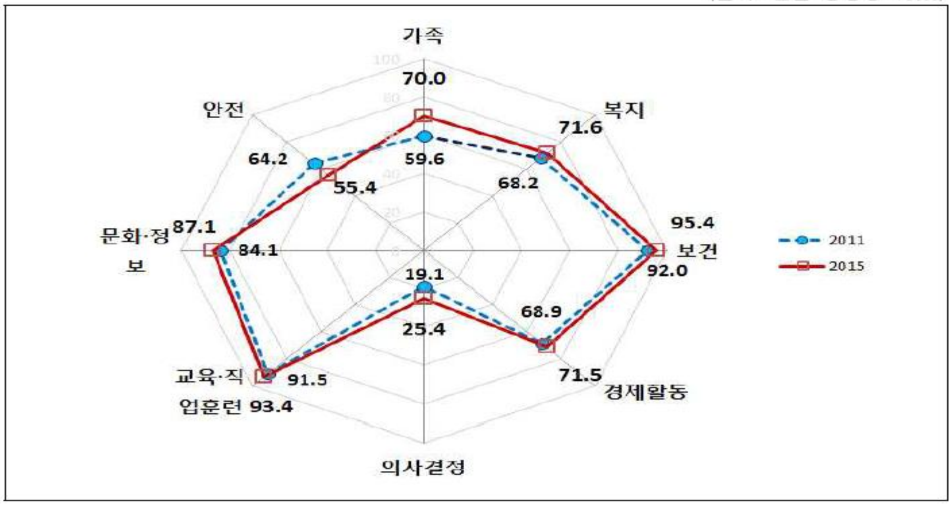
- 성평등 수준이 2011년 이후 가장 많이 개선된 분야는 가족 분야로 평등지수 값이 10.4p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의사결정 분야가 6.3p,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도 각각 3.4p 증가함

- 안전분야는 성평등 수준이 악화된 분야로 지수 값이 8.8p 하락함. 이는 2012년을 제외하고 2010년 이후 여성 강력범죄 피해자는 증가하는데 비해 남성은 소폭 감소하는데 기인함[5]

---

4)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 인구통계」
5) 강력범죄피해자의 경우 여성 2011년 23,544명에서 2015년 29,617명, 남성은 2011년 4,553명, 2015년 3,528명이었음

(단위: 완전 성평등=100.0)



자료: 여성가족부(2016), 「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 김태홍), p.50

[그림 2-17] 2011년과 2015년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과 변화 분석

➡ 국가 성평등지수 중 의사결정 부문이 25.4%로 가장 낮았으며, 국회위원과 중앙직, 지방직 공무원 및 관리직의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낮음

- 정부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2010년(22.7%)보다 2016년(34.6%)에 11.9% 상승함
- 중앙직과 지방직 공무원 및 관리직은 여성보다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중앙직(남성 50.6%, 여성 49.4%), 지방직(남성 63.4%, 여성 36.6%)
- 여성권리 신장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제활동, 사회참여, 문화향유 등에서 여성의 활동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자료: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7),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42

[그림 2-18] 정치 및 사회참여 비율

➡ 여성차별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차별 부문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여성전용 주차공간, 여성전용 좌석 및 차량 등 여성전용 시설과 공간이 증가하면서 남성도 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오히려 남녀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 또한 이스라엘이나 북한과 같이 징병제는 남성,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함. 실제로 여성징병제에 대한 청원이 제기되었음
- 2016 결혼비용 실태 보고서[6]에서도 지출비용에 있어 남성은 63%, 여성은 37%를 지출하고 있음에 성평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남성들이 존재함

> 약자인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하철 여성전용칸'이 피해의식을 치유해주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오히려 '남녀갈등'이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기정사실화하고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료: 브릿지경제(2016. 06. 20), "부산 지하철 여성전용칸 찬반논란"

➡ 남성,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나는 연령계층이 발생함

- 2016년 여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1,529,000명, 남성은 15,718,000명으로 남녀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6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2.1%로 전년대비 0.3%p 상승하였으나, 성별차이는 21.8%p로 나타남
-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경력 단절 현상이 나타남. 경력 단절 현상으로 인해 하락하는 최저 경제활동참여율은 2000년 30-34세에서 나타난 반면 2016년은 35-39세에서 나타나고 있음

<표 2-21>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여성		남성		남녀차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경제활동인구	참가율
2010	10,256	49.4	14,492	73.0	4,236	23.6
2015	11,370	51.8	15,543	73.8	4,173	22.0
2016	11,529	52.1	15,718	73.9	4,189	21.8

자료: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7), 「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74

6) 듀오(https://www.duo.co.kr/)

➡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은 62.8%이며, 임금근로자 기준 남성은 정규직의 근로형태가 73.6%, 여성은 비정규직의 근로형태가 59.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남녀 임금수준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 임금증가율이 남성보다 더 높아, 성비는 점진적 개선을 보였으나 2015년 62.8%로 소폭 하락함
  - 2015년 기준 남성은 평균 월급여총액이 2,837천 원이며, 여성은 1,781천 원으로 나타남

- 2016년 임금근로자 19,627,000명 중 남성은 비정규직 26.4%, 정규직 73.6%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비정규직 59.0%, 정규직은 41.0%인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들은 최근에도 임금, 정규직, 고위직 등의 부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성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함

➡ 여성취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45.9%)으로 나타남

- 육아부담으로 인해 여성취업에 장애가 있음은 남성(43.9%) 응답률보다 여성(47.9%)이 응답률이 더 높음.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부담이 더 큼을 시사함

- 육아부담 이외 사회적 편견관행이 23.4%로 높았으며, 남성과 여성의 응답은 각각 23.9%, 22.9%임

<표 2-22> 여성취업 장애 요인

(단위: %)

	계	사회적 편견관행	직업의식 책임감 부족	불평등한 근로여건	일에 대한 여성 능력부족	구인정보 부족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기타
2015년	100.0	21.5	4.6	10.8	2.2	1.2	47.5	5.9	6.3
2017년	100.0	23.4	4.0	10.3	1.8	1.3	45.9	4.9	6.1
남자	100.0	23.9	5.6	9.2	2.3	1.2	43.9	4.6	7.4
여자	100.0	22.9	2.5	11.3	1.3	1.5	47.9	5.3	4.9

자료: 통계청(2017), 「2017년 사회조사 결과」

➡ 분야별 성평등지수에서 유일하게 안전 부문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강력범죄피해자 여성이 증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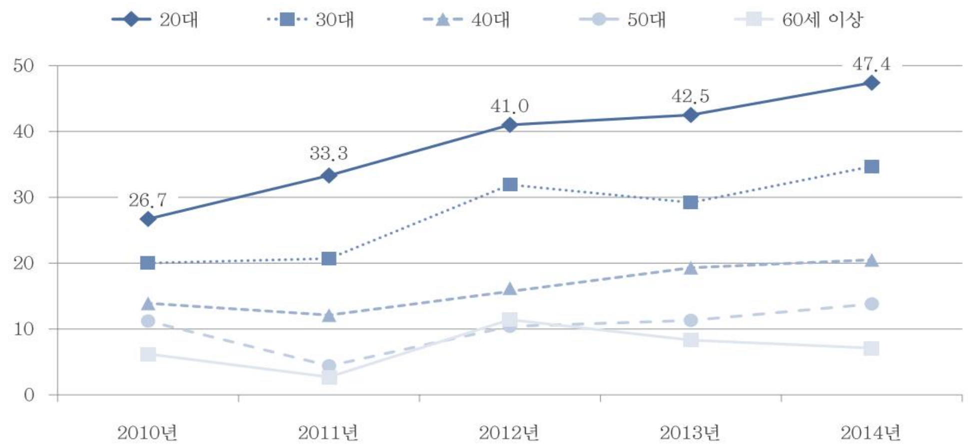
- 여성 안심 귀가, 여성 범죄안전 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들의 안전을 높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인식개선과 함께 성평등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5) 성소수자 인권 차별

➡ 한국에는 약 150만~250만 명 사이의 성소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며, 무지개지수가 12.32%로 측정되어 성소수자의 인권이 차별받는 것으로 나타남

- 전 세계 LGBTI[7] 활동가들은 '어느 국가에나 약 3~5%의 성소수자가 존재한다'고 보며 한국에 약 150만~250만 명의 성소수자가 존재한다고 추정됨[8]
- 무지개지수 측정 결과,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국가가 100%일 때 한국은 12.32%로 측정되었으며 2015년 13.0%보다 0.68% 포인트 감소함
  - 무지개지수는 '평등과 차별금지', '가족',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변경과 신체적 온전성' 등 성소수자들의 인권현안에 대한 평가 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지수가 낮을수록 심각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나타냄

➡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며, 20대에서 동성애에 관한 관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19] 세대별 동성애에 대한 관용

자료: 아산정책연구원(2015), 『한국 유권자와 이슈 III: 성소수자(LGBT) 인식』, p.4-5

-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23.7%가 되었으며,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도도 꾸준히 상승하여 28.5%로 집계됨
- 세대별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는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4년 기준으로 20대가 47.4%로 가장 높으며, 60대가 10% 미만으로 가장 낮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동성애에 대한 관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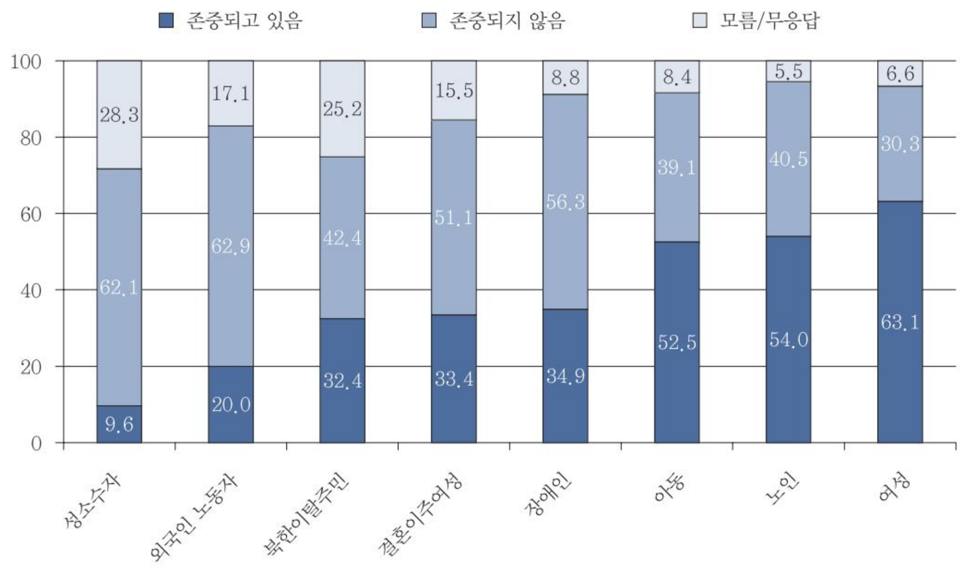
7)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8) 한국일보(2017.05.03), "대선 토론회 '동성애'이슈 후폭풍"

➡ 성소수자가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1%에 달하여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주변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율이 55.8%로 나타남

•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소수자 유형 중 성소수자는 62.1%의 응답을 얻어 2위를 차지하였음

• 성소수자에 대한 포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나의 배우자, 절친한 친구, 직장동료, 이웃이 되는 것에 관한 응답비율은 각각 0.2%, 6.1%, 10.8%, 27.1%였으며,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55.8%로 가장 많았으나 2015년 57.7%에 비하여 하락함

(단위 : %)



자료: 아산정책연구원(2015), 『한국 유권자와 이슈 III: 성소수자(LGBT) 인식』, p.6

[그림 2-20] 인권문제 인식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례들은 세계적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

• 문화재청의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궁궐 입장 시 각 성별에 맞는 한복을 착용하면 무료관람의 대상이 되지만, 이는 성별표현을 근거로 한 성별 이분법적인 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을 받음[9)]

9) 여성신문(2016.10.04.),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고궁 한복 무료입장 젠더차별 논란"

- 최근에도 한 연예인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논란이 일었음. 또한 성소수자인 유명인이 구청장에 출마를 준비한다는 발언에 비난이 잇따르기도 함

> 한서희와 하리수의 설전은 한서희의 글에서부터 시작됐다.
> 한서희는 자신의 SNS에 "트랜스젠더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벗으려고 하는 온갖 코르셋들을 벗지는 못할망정 더 조이기만 하고, 여성들의 여성상을 그들이 정한 '여성스러움'이라는 틀 안에 가두고 그들만의 해석으로 표현함으로써 진짜 여성들이 보기에 불편함만 조성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료: MBN(2017.11.14.), "'한서희 저격' 하리수, 사과에도 논란→결국 SNS 비공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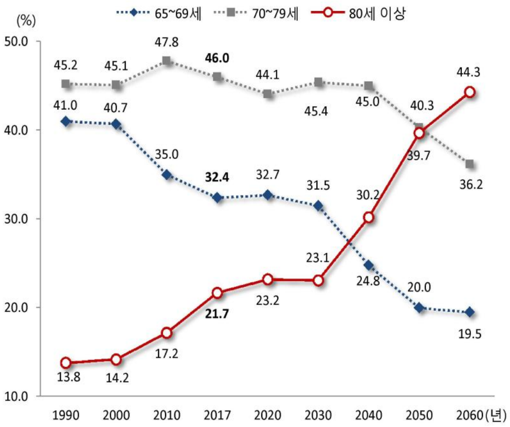
➡ 성소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주변인으로의 포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성소수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그러나 배우자, 절친한 친구, 직장동료,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55.8%에 육박하는 등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전히 제도적·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으나, 여러 행사와 축제를 통해 차별을 극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포용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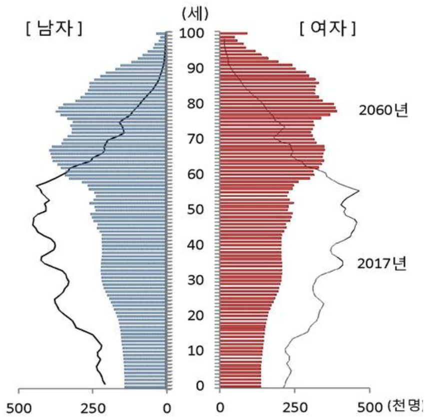
- 제도적·사회적으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낮은 무지개지수와 공무원·군대 등 사회적인 분야에서의 차별사례에서 알 수 있음
-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비판하기 위해 '퀴어페미니스트 파티 슬램파티 기획단' 소속 회원들은 남성한복 차림으로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플래시몹 행사를 2016년 10월 16일 경복궁 앞에서 진행함
- 이처럼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포용도를 높이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6) 세대 간 갈등



자료 : 통계청,「장래인구추계」

[그림 2-21] 고령자의 연령대별구성비



[그림 2-22] 인구피라미드

- 2017년 기준 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고령층이 증가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 또한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2017년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0%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노령화지수 또한 높아지고 있음. 2017년 노령화지수는 104.8이며,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현재의 4배 수준인 434.6으로 증가할 전망임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낮은 수준으로 감소하여 세계 최저수준이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이와 같은 출산율 추이로 세대 간 인구규모의 차이가 커질 뿐 아니라 인구구조 또한 불안정한 양상을 나타냄
- 저출산·고령화, 급속한 정보화사회, 경제의 저성장 등이 세대통합을 억제하고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10]
  - 미국의 대표적인 세대연구자 Bengston(1993)은 고령화라는 인구학적 추세가 새로운 유형의 세대갈등을 출현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더 이상 청년층 대 노년층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년층 대 청·중년층의 문제로 전이될 것으로 전망함(박재홍, 2005:123)
  - 정보화는 사회관계와 소통의 일대 변혁을 가져오면서 기존 세대들은 젊은 세대로부터 재사회화에 필적하는 초유의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인터넷 공간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 연령주의(ageism)를 재생산하는 대표적인 기제로 작동함[11]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 황여정), p.25-29

- 저성장으로 인해 분배할 몫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근로계층이 감당해야 하는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대 간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둘러싼 이해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
  - 지난 10여 년 동안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에서 41.7%로 3.6%p 감소한 반면, 고령층(55~79세)의 고용률은 49.3%에서 53.9%로 4.6%p 증가함

➡ 전 세대에 걸쳐 대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이 세대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일정 부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수연 외(2010)의 연구에서 노인세대 775명과 비노인세대 773명 등 총 1,54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인 세대의 79.5%, 비노인세대의 80.1%가 우리 사회에 세대갈등이 있다고 응답함

자료: 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그림 2-23] 세대갈등의 인지 및 심각성 인식 수준

- 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세대갈등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66.6%가 앞으로 심해질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매우 심해질 것이다 23.5%, 약간 심해질 것이다 43.1%로 응답

-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이슈는 ‘결혼, 부모 부양 등 가족제도 이슈’가 23.6%로 가장 높았고, ‘선거, 이념 등 정치적 이슈’가 16.8%, ‘자리양보, 예의 등 일상적 이슈’가 16.4%, ‘인터넷 등 정보 기술 격차 이슈’ 13.2%, ‘연금, 교통비 지원 등 복지 이슈’와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이슈’가 12.6%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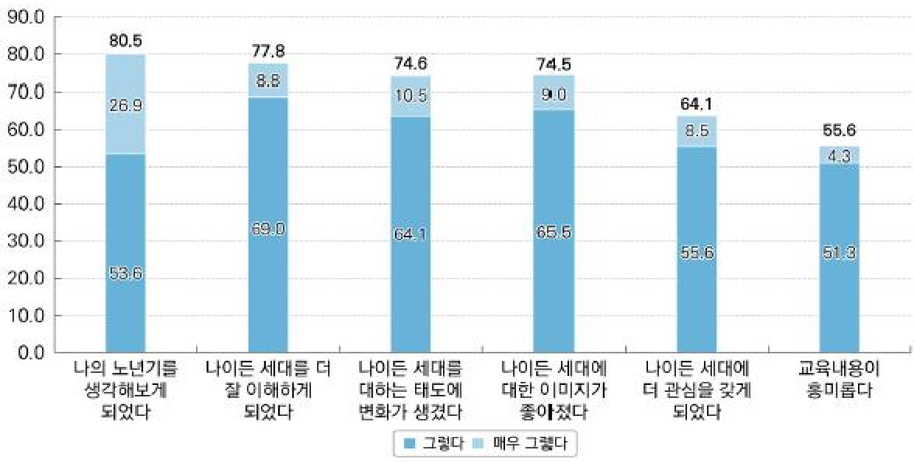
11) 이삼식 외 7명(2011),「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출처: 국민대통합위원회 보도자료(2015.11.), 58쪽.

[그림 2-24] 노인세대와 젊은세대의 갈등 주제

➡ 세대통합교육 및 활동은 학교와 복지시설 및 지역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나의 노년기를 생각해보게 되었다(80.5%),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77.8%)'등의 효과가 나타남

(단위:%)



[그림 2-25]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 효과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 「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 황여정)

- 학교에서 경험한 세대통합교육은 교과서를 통한 교육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외부 전문가 특강(41.2%), 체험활동(15.5%), 학교행사에 어르신이 함께 참여(9.8%), 어르신이 일일선생님으로 참여(7.3%) 순으로 많았음
- 학교 교육 및 활동을 통하여 '나의 노년기를 생각해보게 되었다'가 80.5%로 가장 많았으며, '나이든 세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77.8%)', '나이든 세대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겼다(74.6%)', '나이든 세대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다(74.5%)', '나이든 세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64.1%)', '교육 내용이 흥미롭다(55.6%)'

순으로 응답함

- 학교 이외에는 노인복지 시설(74.0%), 지역사회 시설(26.5%), 종교시설(17.8%), 주민센터(8.0%), 청소년시설(7.1%)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 및 활동이 이뤄졌으며, 취약한 어르신 돌봄(55.2%), 방문 공연 및 선물 제공(38.0%), 함께 요리·운동·제작 활동(13.4%) 등의 활동을 함

➡ 세대갈등이 증가됨에 따라 세대 간 문화적 차이의 이해와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문화다양성 정책의 필요함

- 세대 간 존재하는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거나 축소시키고 서로의 문화가 가진 다양성과 창조성을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함

- 현재 세대통합교육 및 활동이 학교 및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해·태도 변화의 효과가 있음을 보아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

7)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보호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174명, 국가무형문화재 145개, 시·도 무형문화재 605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151개임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2006년에는 총 200명에서 2015년에는 174명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임
- 2016년 문화재청 기준 국가무형문화재는 종묘제례악, 판소리 등 145개, 시·도 무형문화재는 정선아리랑, 해녀노래 등 605개로 나타남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51개소가 건립되어 있으나, 전남과 경남이 각 22개로 가장 많으며 지방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있음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국립국악원, 국립국앙 중·고등학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을 두고 있음

<표 2-23>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황(2016)

(단위 : 개소)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전수교육관수	4	4	0	2	1	4	0	18	14
시·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전국
전수교육관수	10	16	13	22	16	22	5	0	151

자료: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전통문화의 보존을 중요시하지만 전통문화의 전승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전통문화의 생활화 및 인문적 가치 발굴, 창조적 계승을 위한 융합적 생태계가 필요함

- 2016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결과, '전통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원래대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89.0%가 '그렇다'라고 응답함
- 도시문화 정체성에 대한 결과, 응답자의 23.5%가 도시문화 정체성에서 전통문화를 가장 중시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전통문화는 정체성의 형성에도 중요한 기능을 함[12)]
- 전통문화산업 주요 4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문화체육관광부, 2011), 소비자들은 '사회적 요구와 개인 욕구의 간극', '가격중심의 소비 양극화', '특정 계층 의존형 소비구조', '가수요와 실수요 간의 큰 간극' 등을 전통문화산업 침체에 중요

12) 중앙SUNDAY 제391호(2014. 09.05), "전통문화가 도시 정체성 좌우 … 기억 잃은 도시엔 미래 없어"

원인으로 꼽음

- 초기 전통문화 정책에서는 단절된 전통의 회복을 위하여 전통문화의 원형 발굴과 보존이 중요 흐름을 형성하여 왔으나, 지금은 '현재'와 '미래'의 시각에서 전통문화에 접근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며, 전통문화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융합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13)]

➡ 각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 및 증진을 위해 지역축제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축제를 통해 각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 및 증진을 도모하였으며, 이는 1994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급격히 증가함
  - 현재 개최축제는 900개, 많게는 2,000여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한국관광신문 2014; JB축제연구소, 2016)[14)]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부터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지역 인력자원을 발굴하고, 지역문화콘텐츠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전문 인력으로 양성·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함
  - 권역별로 지정된 인력양성 기관들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교육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반 교육, 강사의 멘토링 등을 활용하여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시행하는 경향이 일반적으로 나타남[15)]

<표 2-24>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 지역주관 기관

2015년	2017~18년
광주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강원문화재단
대전문화재단	충북문화재단
전북대학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광주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	울산문화재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 또한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통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서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지속이 요구됨

13) 윤소영(2017), 「문·화·공·감 2017 문화정책포럼 결과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49
14)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 1990년대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지역 및 중앙 단위의 지역문화정책이 증가하고,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향유권이 지역문화정책의 주요 의제가 되어 왔으나, 지역 간·계층 간 문화격차는 지속되고 있음
-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16]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문화 종합지수 및 도농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격차는 2012년보다 완화되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지속

<표 2-25> 2012년과 2014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균

(단위: 억 원, %)

연도	수도권·비수도권 종합지수		도농별 종합지수		
	수도권	비수도권	도시	도농통합	농촌
2012	0.140	−0.057	0.414	0.134	−0.116
2014	0.028	−0.011	0.187	0.098	−0.04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 2017년도 기준 균형발전사업 편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31개의 균형발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한 지역 간 문화격차의 해소와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의 지속 및 강화가 전망됨

<표 2-26> 문화체육관광부 균형발전사업

1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경제)	17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경제)
2	관광두레 조성사업	18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
3	관광자원개발(생활)	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4	관광자원개발(세종)	20	제주관광진흥지원(제주)
5	관광자원개발(제주)	21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
6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경제)	22	중부내륙권 관광개발(경제)
7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 조성(경제)	23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생활)
8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24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9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25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경제)
1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26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11	산업관광 활성화	27	체육진흥시설지원(생활)
12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생활)	28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13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세종)	29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개발
14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30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5	생활체육 광장 조성	31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경제)
16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자료 :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7), 「2017년도 균형발전사업 편람」, pp115-185

16)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8) 비주류 문화예술의 감소

➡ 대표적인 비주류문화예술로 독립·예술영화가 있으며, 과거에 비해 소비 방식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으나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 2016년 개봉한 독립·예술영화 편수는 434편으로 전년 349편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차지하는 비율은 28.6%로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2014년에 독립·예술영화 흥행 1위를 기록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385만 명)과 <비긴 어게인>(343만 명) 두 편의 영화로 이례적인 관객 수를 기록하였지만 2015년과 2016년 관객 수는 감소함

<표 2-27> 최근 5년간 독립·예술영화 개봉편수 및 관객 수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개봉 편수	전체	631	905	1,095	1,176	1,520
	독립·예술영화	232	333	367	349	434
	독립·예술영화 비율	36.8%	36.8%	33.5%	29.7%	28.6%
전국 관객 수	전체	194,892,244	213,324,223	215,056,852	217,288,819	217,024,355
	독립·예술영화	3,692,507	3,723,352	14,283,284	8,307,266	8,142,506
	독립·예술영화 비율	1.9%	1.7%	6.6%	3.8%	3.8%

자료: 영화진흥위원회(2017), 「2017한국영화연감」, p.45

➡ 그밖에 장르의 다양화를 위해 독립예술, 대안예술, 다원예술 등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음

- 문화예술의 복합장르, 탈장르, 종다양성을 위해 독립예술, 실험예술 등으로 불리다가 다원예술 개념이 가진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정책적 연구가 진행됨
- 다원예술은 장르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창작활동으로서, 탈장르예술, 복합장르예술, 새로운 장르의 예술, 비주류예술, 문화다원주의적 예술, 독립예술 등을 중심적 대상으로 하는 개념임17)
- 독립영화나 커뮤니티아트와 같은 대안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험적예술 및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집합적 기획, 축제, 워크숍, 교육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서울 프린지페스티벌과 같이 연극, 무용, 음악, 퍼포먼스,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예술축제가 진행되기도 하며, 거리예술, 생활예술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

17)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

<표 2-28> 다원예술 지원대상 활동의 내용 및 형식 분석 기준

구분	세부척도	정의와 범주
매체 실험성	장르실험	기존 장르에서 출발했으나, 장르 규범 밖에서 형식 실험을 하는 경우
	복합장르	기존 장르예술의 형식과 내용이 여러 층위가 겹치고, 다른 장르 예술가와 공동창작을 하는 경우
	탈장르	다른 학문이나 과학 기술과의 리서치 및 공동작업을 통해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양식을 보여주는 경우
	기타	장르실험, 복합장르, 탈장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새로운 미학적 형식 실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프로젝트
가치 지향성	사회참여	현장을 기반으로 사회현실에 대해 고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직접적인 사회참여적 예술실천과 문화행동
	공공성	지역문화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한 예술 활동을 벌이는 작업과정
	종다양성	다양한 창작 결과물을 병렬적으로 보여주는 프로젝트와 기성예술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자생적 예술활동
	미학중심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부각하지 않으며, 미학적 관점에서 예술표현양식의 실험과 확장을 프로젝트의 우선가치로 삼는 경우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다원예술의 현황과 전망 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구책임: 이승엽)

➡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보호 및 증진시키기 위한 창작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 복지법 등 다양한 문화예술 및 예술가를 보호 및 증진하는 법·제도 이외 독립예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예술장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비주류문화예술의 질적 다양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2-26] 안산거리극축제(거리예술)

자료: 내일신문(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36369)

[그림 2-27] 프린지페스티벌(독립예술)

자료: 서울프린지페스티벌(https://www.seoulfringefestival.net:5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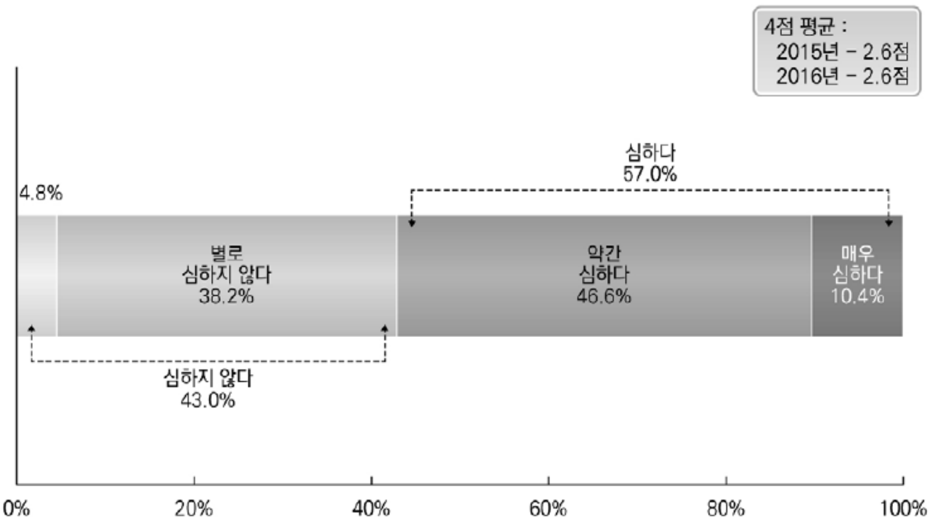
9) 종교 간 갈등

➡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7%이며, 종교단체들이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중이 약간 더 높음

- 2016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갈등 정도가 ‘심하다(매우 심하다+약간 심하다)’라고 답한 비율은 57%로 집계되었으며, 국민의 반 이상이 종교 간 갈등을 인식하고 있음
  - 2015년과 2016년의 종교 간 갈등 정도는 변동이 없음

- 종교단체가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노력한다’는 응답보다 우세하였으므로 종교로 인해 유발되는 분열과 대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노력함(매우 노력한다+약간 노력한다)’으로 응답한 비율은 22.8%, ‘노력하지 않음(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별로 노력하지 않는다)’은 32.9%로 집계됨

(단위 :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2016), 『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p.183

[그림 2-28] 우리 사회 갈등 정도-종교 간

➡ 최근 국내에서 종교 간 갈등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종교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할랄푸드 식품단지 조성 반대’,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반대’[18]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산됨

- 할랄시장의 급속한 글로벌화 추세로 할랄 식품 단지 조성 등 무슬림 관광객 유치를 전망하는 가운데 개신교 보수진영을 주축으로 반대 시위가 이어짐
- 지난해 1월 전라북도 익산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할랄 전용 단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포털사이트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서명하기도 함

• 외국인 이주 증가 추세에 따라 종교의 다양화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추측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 그러므로 타 종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10) 가족형태의 다양화

➡ 핵가족화,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여가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가구 규모의 축소와 형태의 다양성을 초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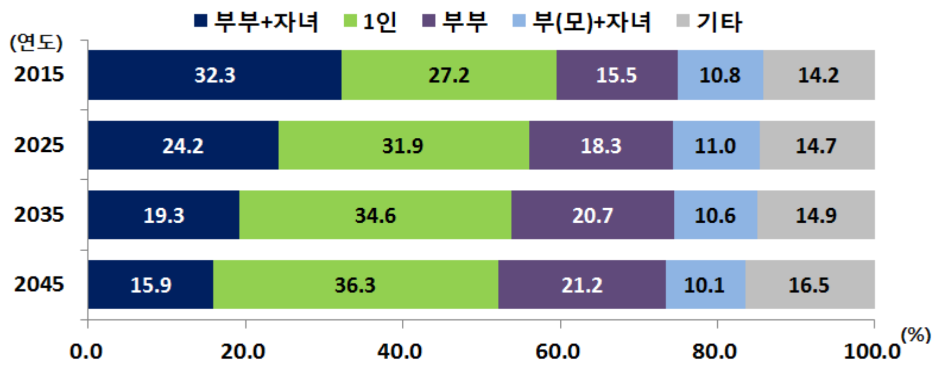
•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특히 '결혼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응답률은 1998년 33.6%에서 2016년의 경우 12.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19)]

• 2015년 가구원수별 가구 비중은 1인가구가 27.2%로 가장 높고, 2인 26.1%, 3인 21.5%, 4인 18.8% 순임. 2045년에 1인가구 36.3%, 2인가구는 35%까지 증가하는 반면, 4인가구 비중은 7.4%까지 감소할 전망임
- 2015년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7.2%(518만 가구)에서 2045년 36.3%(809만 8천 가구)로 9.1%p(291만 9천 가구) 증가할 전망임

• 서울대 소비 트렌드 연구센터가 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17>에서 2017년 10대 소비 트렌트 키워드 중 하나가 '혼족(혼자 사는 사람)'으로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먹기) 등 나 홀로 삶의 형태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음
- '프로혼밥러'. '싱글슈머(1인 소비자)', '1코노미(1인+Economy)', '얼로너(Aloner) 등 다양한 신조어가 양산되고 있으며, 이에 1인 식당, 1인용 가구, 솔로 여행 상품, 쉐어하우스 등의 용어들도 등장하고 있음

---

18) 천지일보(2017.11.13.), "종교 간 갈등으로 번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추진 논란"
19) 변수정(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30



자료: 통계청(2017), 「장래가구추계」

[그림 2-29]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2015-2045)

➡ 1인 가구 이외에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재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20]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 문화 조성이 필요함

- 한부모가족은 지난 15년간 증가추세였으며, 향후 급속하게 증가하기보다는 현재의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의 비중은 2000년 7.8%에서 2010년 9.2%, 2020년 9.7%로 전망됨

- 다문화가족 수는 2007년 328,000명에서 2015년 818,000명으로 증가하였고, 다문화가족의 출생 자녀 수는 2008년 2.9%에서 2014년 4.9%로 증가함

- 다양한 가족구성에 대한 변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는 포용적 가족관 형성과 사회문화 조성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

[그림 2-30] 1인용 식당

자료: 쿠키뉴스(2017.11.14.), "입장휴게소, 1인 전용 식사테이블'혼밥존' 인기

[그림 2-31] 1인용 가구

자료: 매일신문(2017.6.27), "나홀로족 취향저격하는 1인용 가구"

20) 홍승아(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1) 소득에 따른 문화향유 격차

➡ 경제적 소득 및 사회적 소외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향유율의 격차가 발생함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이 높아지며, 600만원 이상 가구의 관람률은 89.5%, 100만원 미만의 가구는 30.9%로 격차가 58.6%로 나타남
- 대도시(81.2%)의 관람률보다 읍면지역(65.7%)의 관람률이 높으며, 격차는 15.5%로 나타남

➡ 국민의 문화향유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정책의 중요성과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2004년부터 문화예술분야에 복권기금을 활용한 문화복지사업이 시작됨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은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특수한 소외 여건으로 문화적 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문화예술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양극화를 줄이고 창의적 힘과 문화적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 제3항 제4호와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 3을 법적 근거로 함
  - 통합문화이용권, 사랑티켓, 소외계층문화순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등의 사업이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협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에서 주관함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을 통해 2016년 기준 1,737,880명이 수혜를 받았으며, 보다 효과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예산운영의 효율성 증진, 서비스 체계의 제고, 참여기관들의 협력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21)]

➡ 문화소외계층의 발생에 따라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해 문화나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문화향유 격차를 개선하고자 함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경비지원 등을 통해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마다 수혜자가 증가하고 있음
- 그밖에 서울시, 경기도 등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적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우선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면), p.309

<표 2-29>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명	사업 목적	지원내용	주관처
통합문화 이용권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인한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향유기회 제공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사랑티켓	어르신(65세 이상) 및 아동/청소년(24세 이하) 등 공연·전시관람료 지원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1인당 공연 (개인_미취학 5,000원, 개인_그 외 10,000원, 단체_미취학 3,000원, 단체_그 외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지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소외계층 문화순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예술단체의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문화예술 순회프로그램 개최 경비지원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화소외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공연행사 개최 경비지원	한국문화예술 회관연합회
생활문화 공동체만들기	소외지역주민들의 자율적 문화활동 형성 및 활성화 계기 마련	자생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행사경비 지원	한국문화원연 합회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조사 연구」, 숭실대학교(연구책임: 정무성), p20

[그림 2-32] 소외계층 문화순회 공연 [그림 2-33]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제2절 국제환경 분석

1. 국제사회의 문화다양성 논의

➡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발전해 온 과정에는 유네스코의 활동과 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민권 운동의 역할과 공헌이 있었음

- 소수자 민권운동의 흐름을 보면,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인종 혹은 종족적 소수자 집단의 권리 보호 운동 발전 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문화주의가 인종이나 종족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문화적 소수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함

- 유네스코는 창립 이래 문화다양성에 대한 강조를 지속해왔고, 문화다양성 논의에서 문화의 개념 자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발전시켜 옴. 이후 문화와 정체성, 문화와 발전, 문화와 인권 및 민주주의 등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음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선언(2001)을 발표하여 문화다양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본격적으로 확장됨

-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95년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에서 시작되었고, 2001년 10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31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채택, 같은 해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UNESCO 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을 발표함

- 유네스코 164개 회원국은 미국 주도의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대응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며, 각 국가,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선언을 채택함

- 문화다양성 선언에서 문화는 "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 물질적, 지적, 감성적 특성의 총체이며,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뿐 아니라 함께 하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 가치, 전통과 신앙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함

- 주요내용은 문화다양성을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규정, 문화다양성 보호와 인간존엄성 존중 및 소수집단과 원주민의 자유와 인권보장, 문화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적 권리의 보호, 창의성의 원천인 문화유산 보존,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특수성 인정, 문화산업의 육성 및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공협력 등임

➡ 2005년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33차 정기총회에서 유네스코는‘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음

- 협약안은 찬성 148개국, 반대 2개국(미국, 이스라엘), 기권 4개국(니카라과,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호주)의 표결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고, 협약 제29조에서 최소 30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3개월 후 발효가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2006년 12월 18일 협약 비준국이 30개국이 넘으면서 2007년 3월 18일 협약이 발효됨

-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4월 1일 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서를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했고, 협약의 110번째 비준국이 됨

➡ ‘문화다양성 협약’은 총 35개 조문과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됨

- 협약의 주요 내용은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9개 목적(제1조)과 8개의 원칙(제2조)이 설정되어 있고, 다음으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조항들이 있으며, 특히 국가적 수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당사국의 여러 국내 조치들(제6조~제8조)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제협력(제12조~제17조), 국제 문화다양성 기금(제18조), 협약의 기관(제22조~제24조)에 관한 규정이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협약은 기본적으로 문화는 시간과 공간을 걸쳐 다양한 양식을 가지며, 그 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사람의 정체성과 문화적 표현의 독특성과 다원성에서 구현된다고 규정함

- 문화다양성이 인류공동의 유산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문화다양성은 선택의 범위를 넓히고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육성해주는 풍요롭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함으로써 공동체와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을 천명함

<표 2-30>「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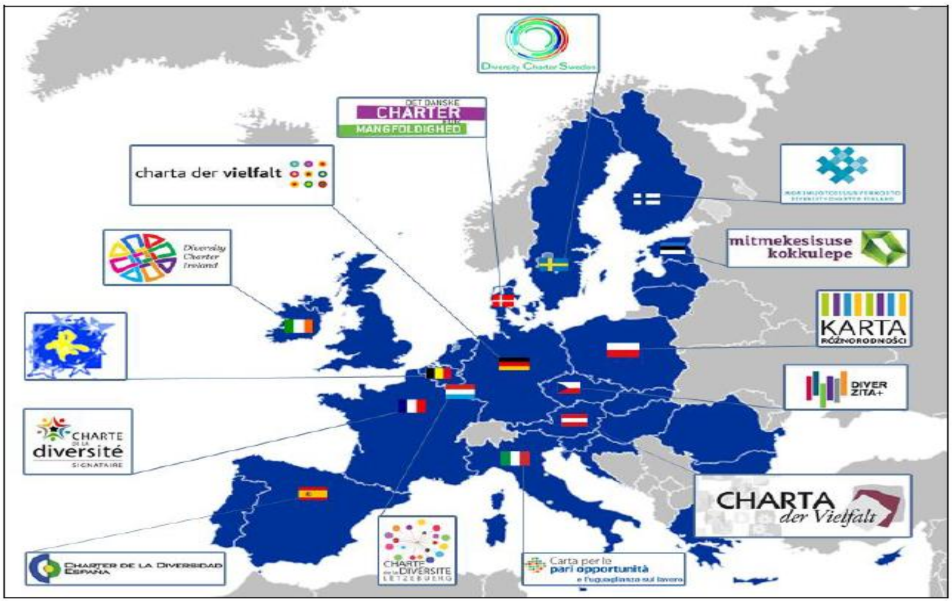
「문화다양성 협약」 전문(前文)
•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공동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이며,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중히 하고 보존되어야 한다. • 민주주의, 관용, 사회 정의, 그리고 사람과 문화 간의 상호 존중의 틀 안에서 번성하는 문화다양성이 지역적, 국가 간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다. • 정체성, 가치, 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는 경제적 속성과 문화적 속성을 함께 지니며, 그러므로 단순한 상업적 가치로 취급되지 않아야 한다.
「문화다양성 협약」 제2조(협약의 지도 원리)
• 발전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리 문화는 발전의 원천이므로 발전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 지속가능한 발전 원리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풍요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복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정의)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 및 사회의 내부 또는 집단 및 사회 상호간에 전해진다. 문화다양성은 여러 가지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류의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풍요롭게 하며,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식뿐 아니라, 그 방법과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화적 표현의 다양한 형태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나타난다. • "문화 콘텐츠"는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되거나 이를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그리고 문화적 가치를 말한다. • "문화적 표현"은 문화 콘텐츠를 지닌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 "문화 활동, 문화상품 및 서비스"는 그 상업적 가치와 상관없이 그 당시 문화적 표현을 사용하고 목적으로 하며, 또 그것들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활동,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문화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문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한다. • "보호"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존, 보호,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조치들의 채택을 의미한다. "보호하다"는 이러한 조치들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다양성 협약」 제5조(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 당사국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 그리고 보편적으로 승인된 인권 문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조치를 채택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주권적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 당사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고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동 정책과 조치는 이 협약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자료: 유네스코(http://portal.unesco.org/en)

2. 국제 문화다양성 범주와 특성

➡ 2000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이 채택되고, 2004년부터 유럽 내 국가들은 다양성 헌장을 제정함에 따라, 2010년 유럽위원회에서의 다양성 헌장(EU Platform of Diversity Charters)이 강령으로서 시행됨

- 유네스코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 이후, 2004년부터 유럽 내 14개 국가가 다양성 헌장을 제정하여 나이, 신체능력, 인종/민족,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부문에서 다양성과 평등한 기회를 증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및 서명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5), 「Practical guide to launch and implement a Diversity Charter」, p.26

[그림 2-34] 다양성 헌장 제정 유럽 국가

자료: Charta der vielfalt(2017), 「Factbook Diversity」, p.6

[그림 2-35] 유럽 다양성 헌장의 6가지 핵심범주

➡ 유럽의 다양성 헌장은 소수자의 기본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선언과 협약에 기초함

- 제2차 세계대전이후 소수자 인권의 보호와 차별금지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음. 소수자 권리 보호와 비차별의 원칙을 국제인권문서로 보장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음
  - 세계인권선언(1948)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Everyone is entitled to all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Declaration, without distinction of any kind, such as race, colour, sex,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유럽인권협약(1950) 제14조: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 소속, 재산,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등에 의해 차별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 향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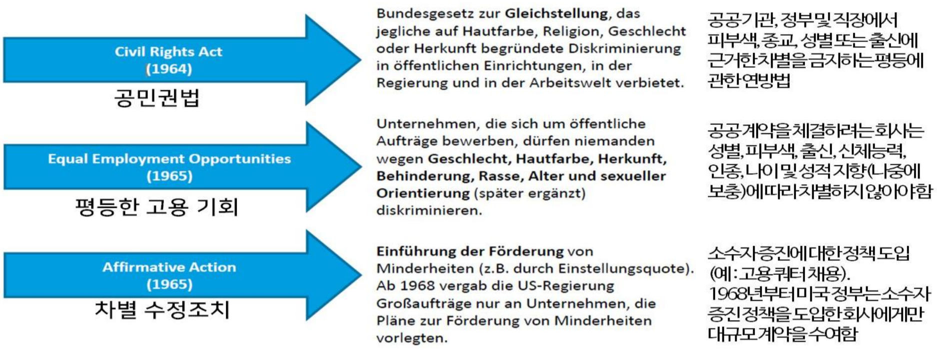
    The enjoyment of the rights and freedoms set forth in this Convention shall be secured without discrimination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language, relig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national or social origin, association with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or other status.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2000) 제21조: “성별, 인종, 피부색, 종족 또는 사회적 출신,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소수민족, 재산, 출생, 신체능력, 연령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모든 차별은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y discrimination based on any ground such as sex, race, colour, ethnic or social origin, genetic features, language, religion or belief, political or any other opinion, membership of a national minority, property, birth, disability, age or sexual orientation shall be prohibited.

➡ 유럽의 다양성 정책은 미국 내 민권운동에 기원하여 제정 및 실행됨

- 1960년대 사회 내 다양성 인식과정, 다양한 국가, 문화와 종교의 이민국가, 공민권, 호모섹스 및 여성 해방운동과 관련하여 공민권법(Civil Rights Act, 1964)과 차별수정조치(Affirmative Action, 1965)가 제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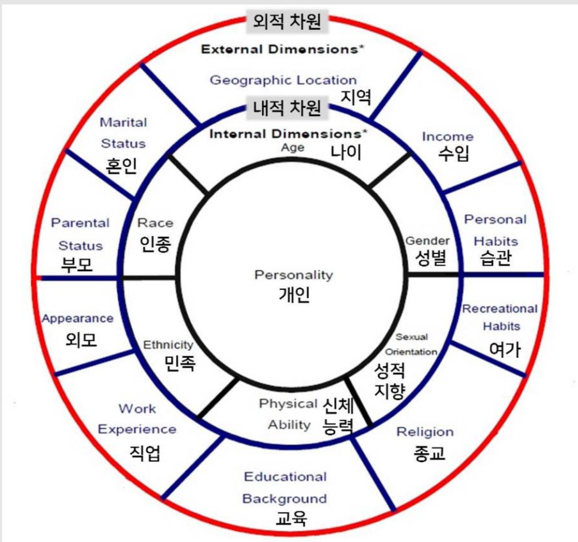
자료: Charta der vielfalt(2017), 「Factbook Diversity」 p.31

[그림 2-36] 미국 내 차별금지 정책의 흐름

독일의 다양성 헌장(2006)

- 독일의 다양성 헌장은 당시 연방정부 이주·난민·통합부 장관직인 마리아 뵈머(Maria Böhmer)의 재청으로 2006년 12월 출범함
- 프랑스 헌장에 영향 받아, 독일 헌장은 9개 차별분야인 '성별', '인종', '국적', '인종', '종교', '철학', '신체능력', '나이', '성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음
- 독일 헌장의 후원자(patron)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임
- 독일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관심은 변화된 인구 상황으로 생겨났으며, 외국인이주민 유입과 동서독 통일에 대한 사회통합문제를 거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이루어짐. 즉,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민족, 나이, 성별, 신체능력,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이 등장함. 독일 2000년 국적법, 2005년 이주법, 2006 동등처우법에서 사회, 경제, 정치에서 문화 다양성 정책을 도입하였음

charta der vielfalt



* Sources: Diverse Teams at Work, Gardenswartz & Rowe
* Internal Dimensions and External Dimensions are adapted from Marilyn Loden and Julie Rosener, Workforce America; Business One Irwin, 1991

자료: consortium(http://www.lacrosseconsortium.org/)

[그림 2-37] 독일 문화다양성 범주

제3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절 실태조사 추진방향

➡ 실태조사를 통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성 및 대응성을 확보하고자 함

- 2017년 국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정책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행함
- 국내 일반국민과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정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을 진단함

➡ 4개 영역의 지표개선을 통해 조사의 실현가능성을 제고시켜 문화다양성 정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함

- 사회적 인식, 소수자 활동, 지원 정책, 기반 여건 4개 영역에서 실시됨
- 국민과 소수자그룹의 문화다양성 인식수준을 측정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정책 실행 및 예산 조사, 기반 시설의 인프라 자원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시행과정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함

➡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여 지표를 구성하고 실태조사의 타당성을 확보함

- 문화다양성 지표는 한국 정책의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하기에, 국제기준의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따라 지표를 개선하고 기본영역 6개 범주와 환경영역 6개 범주를 구성함
-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준거하여 진단하고 문화다양성 발전 정도를 평가함으로써 그에 따른 향후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함

➡ 실증적 국민 인식조사와 소수자 면접조사에 기초한 정보제공 기능 제고[22)]

- 다양한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이 수요자의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맞춤형 지원 촉진 및 질적 향상을 통한 정책 효과성을 제고함
-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을 구분한 뒤 조사항목을 구성하여, 집단 특성에 따른 '정체성 차별문제'와 '소수문화의 배제문제'를 차별화하여 조사하였음. 이를 활용해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선된 세부 운영방향으로 도출하고자 함

---

22) 소수자 집단조사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장애인 차별, 세대 갈등, 성차별 등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은 대국민 인식조사 차원에서 조사 및 연구됨을 밝힘

제2절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 구성

1. 선행 지표연구 검토

1) 2013년 문화다양성 시범지표 분석

①「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의 특징

➡ 정량적 연구(현황조사와 실태조사 관련 통계활용)와 정성적 연구(대국민 설문과 소수자 대상 설문)를 병행하여 지표 항목 구성

- 정량적 연구는 현황조사와 실태조사 관련 통계를 통해서 가능한 지표를 구성하되 현대 문화다양성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조사 진행
- 일반 국민설문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들의 문화다양성의 인식 수준과 수용 정도를 판단하고, 소수자 집단 설문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집단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진행
- 지표영역은 사회문화, 문화정체성, 문화예술로 구분되며, 세부영역으로 환경, 제도, 인식 등 세 가지 관점을 교차시킴

➡ 다문화, 문화다양성,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한 지표 평가 진행 및 시범 지표 결정

- ‘중요도’와 ‘측정가능성’의 두 차원에 대해서 5점 척도로 평가된 결과를 종합해 지표별 장단점을 검토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다양성 지표 총 107개를 시범 지표로 결정함
- 사회문화, 문화정체성, 문화예술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세부영역 지표 구성
- 사회문화영역(19개): 국적(6),권역(4),종교(4), 언어(5) 등 총 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영역은 환경, 제도, 인식의 층위로 구분되어 평가됨
- 문화정체성영역(46개): 여성(9),성소수자(9),장애(8), 유아아동(6), 청소년(7), 노인(7) 등 총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영역은 환경, 제도, 인식의 층위로 구분되어 평가됨

- 문화예술영역(42개): 독립문화예술(20), 다원문화예술(6), 커뮤니티문화예술(8), 다국적 문화예술(8) 등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부영역은 환경, 제도, 인식의 층위로 구분되어 평가됨

<표 3-1>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의 주요특징

<table>
<tr><td rowspan="5">사회문화측정</td><td rowspan="2">지표공간
세부영역</td><td rowspan="2">환경</td><td rowspan="2">제도</td><td colspan="2">인식</td></tr>
<tr><td>선주민(일반인)</td><td>이주민(소수자)</td></tr>
<tr><td>국적 및 권역
(중국, 베트남, 몽골,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td><td rowspan="3">일반 현황 및 적응 실태조사</td><td rowspan="3">국가 및 시민사회활동에 대한 실태조사</td><td rowspan="3">일반 국민의 소수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td><td rowspan="3">이주민의 일반주민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td></tr>
<tr><td>종교
(기독교, 가톨릭, 불교, 이슬람교 등)</td></tr>
<tr><td>언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등)</td></tr>
<tr><td rowspan="2"></td><td rowspan="2">지표공간
세부영역</td><td rowspan="2">환경</td><td rowspan="2">제도</td><td colspan="2">인식</td></tr>
<tr><td>일반 국민</td><td>소수자</td></tr>
<tr><td rowspan="3">문화정체성</td><td>성다양성 (여성, 성소수자)</td><td rowspan="3">일반 현황 및 매체환경에 대한 실태조사</td><td rowspan="3">국가 및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td><td rowspan="3">일반 국민의 소수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td><td rowspan="3">소수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설문조사</td></tr>
<tr><td>장애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td></tr>
<tr><td>세대 (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td></tr>
<tr><td rowspan="3">문화예술</td><td rowspan="2">지표공간
세부영역</td><td rowspan="2">환경</td><td rowspan="2">제도</td><td colspan="2">인식</td></tr>
<tr><td>일반인</td><td>문화예술인
(전문가)</td></tr>
<tr><td>독립문화예술(음악, 영화, 미술 등)/다원문화예술(거리예술, 융합예술 등)/커뮤니티 문화예술(예술마을공동체, 공유문화, 메이커문화 등)/다국적문화예술(공연, 축제, 공간, 음식 등)</td><td>일반 현황 및 실태조사</td><td>국가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태조사</td><td>일반인의 문화예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td><td>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td></tr>
</tabl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연구책임: 류정아), p.20

②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의 한계

➡ 지표값 추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표가 다수 존재함

- 지표는 지표값을 측정할 수 있어야 향후 표준화 과정을 거쳐 지수를 확보할 수 있으나,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는 정성적 판단 이외에는 현황을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이거나 해당 지표의 데이터가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음

- 이 경우 당초 계획되었던 지표값 추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즉 지표의 개수가 과도하게 많은 것을 보다 상호배타적인 지표로 재정리하면서 수를 대폭 축소해야 함

➡ 광의의 문화 개념과 협의의 문화 개념 간 구분이 불분명함

- 문화다양성에서 말하는 문화는 협의의 문화(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여가활동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장르별 활동 등)와 광의의 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서로 구분하여 지표를 구성해야 하지만,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는 이러한 두 가지 문화의 개념을 혼합·사용해 문화다양성의 개념을 모호하게 처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조사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한 지표들이 존재함

- 지표는 특정한 집단의 특성을 객관적인 측정치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지수란 측정된 지표를 비교가능한 수치로 전환해 놓은 것으로 지표와 지수 모두 일정한 대상의 존재를 근거로 하고 있어야 함
- 그러나 기 개발된 지표는 이러한 측정 대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매번 조사 때마다 대상이 바뀔 경우 도출된 지수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음

➡ 지표를 과도하게 세밀화 하여 지표 간 배타성이 부족하거나 결여되어 있음

- 지표는 최소한의 판단기준으로 가능한 광범위한 분야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 개발된 지표안은 지나치게 세부적이며 미시적인 차원에서 제시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조사해야 할 항목으로서는 적당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판단기준으로서의 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지표’와 지표값을 추출하기 위한 구체적 ‘자료’가 혼재되어 있음

- 각 소수자 집단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상적 조건, 제도적 조건, 이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를 각각 판단하기 위해서 「2013 문화다양성 시범지표」에서는 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가능성 판단을 주 목적으로 지표들이 개발되었음
- 문화다양성 정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추출하기 위한 지표와 그 지표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활용하는 조사자료, 질문내용, 관련통계수치 등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개발된 지표들 중 실태조사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은 보다 더 상위의 추상화 단계를 거쳐 지표체계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2)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분석

①「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의 특징

➡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에서는 '정책지표', '여건지표', '활동지표', '인식지표'로 대분류지표를 확정하였고, 그 안에서 중분류지표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지표 조사항목을 설정하였음

➡ 정책지표의 분류지표는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으로 구분됨

- 정책지표는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 등 3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됨
- [정책수립] 각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 구상 및 체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값 추출을 위한 조사항목은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 수립 건수',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규칙 수' 등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 수립 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체계적·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자료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규칙 수'는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정책실행]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의 수립단계에서 나아가 실제로 얼마나 실행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지자체의 의지 및 성과 획득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지표값 추출을 위한 세부 조사항목은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는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 지원 역량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정책예산]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얼마나 확보 및 운용하고 있는지 조사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중과 위상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세부 조사항목은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소수자 집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여건지표의 분류지표는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으로 구분됨

- 여건 지표는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적절한 수준으로 조성되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기반시설여건, 자원여건, 지원인력여건 등 3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됨

- [기반시설여건] 각 지자체가 소수자별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지표값 추출을 위한 세부 조사항목은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는 각 지역의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 수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자원여건] 각 시도 내에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자원(단체, 협회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세부 조사항목은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 단체 수'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 단체 수'는 각 지역 내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이 얼마나 활성화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지원인력여건] 각 지자체 내에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이 얼마나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진흥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며, 세부 조사항목은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임
  -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다양성 지원에 대한 관심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

➡ 활동지표의 중분류지표는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로 구분됨

- 활동지표는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인 소수자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동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떤지 등을 조사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지원정책의 성과를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참여도, 친밀도, 만족도, 포용도, 평등도 등 5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됨

- [참여도] 11개 소수자 집단별로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비용 및 수입,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단체 참여 정도 등을 조사함

- [친밀도] 소수자 집단별로 체감하는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민/주류예술인의 호감 정도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가 국민 및 주류예술인들로부터 느끼는 친밀함 정도와 불편함 정도 등을 조사함

- [만족도] 11개 소수자 집단별로 문화예술 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정책지원에 대한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창의성 발현 여건 및 기회에 대한 만족도, 인프라 만족도 등을 조사함
- [포용도] 소수자 집단별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사회적 포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예술 활동 시 부당한 이유로 거부나 배제 당하지 않고 충분히 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함
- [평등도]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문화예술 활동 시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폄하 및 평가절하 당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조사함

➡ 인식지표의 분류지표는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로 구분됨

- 인식지표는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지니고 있는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 정도와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 등 5개의 세부지표(중분류지표)로 구성됨
- [친밀도] 11개 소수자 집단 및 그들의 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친숙함과 호감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 집단별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달리 구성함
- [수용도] 11개 소수자 집단 및 그들의 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 집단별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달리 구성함
- [필요도] 국민들이 11개 소수자 집단별로 공공 지원정책 및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 집단별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달리 구성함
- [포용도] 11개 소수자 집단별 국민들의 포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집단별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달리 구성함
- [평등도] 11개 소수자 집단별 국민들의 평등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소수자 집단별 특성에 맞게 조사항목을 달리 구성함

<표 3-2> 2014 문화다양성 지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지표 조사항목
정책지표		정책수립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조례·규칙 수
		정책실행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건수
		정책예산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여건지표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관·시설 수
		자원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관련단체 수
		지원인력여건	소수자 집단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인력 수
활동지표	향유활동	참여도	문화예술 향유활동 비용
			문화예술 향유활동 참여도
		친밀도	소수자가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문화예술 프로그램 만족도
			문화예술 향유 인프라 만족도
		포용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창조활동	참여도	문화예술 창조활동 소득
			문화예술 창조활동 참여도
		친밀도	하위/비주류문화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사회적 호감도
		만족도	문화예술 활동 관련 정책지원 만족도
			창의성발현 여건 및 기회 만족도
			문화예술 창작 관련 인프라 만족도
		포용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포용성 정도
		평등도	문화예술 향유과정에서 느끼는 평등성 정도
인식지표		친밀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호감정도
		수용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수용가능정도
		필요도	각 소수자 집단별 공공 지원예산 필요정도
		포용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포용성 정도
		평등도	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평등성 정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류정아)

②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의 한계

➡ 조사대상의 표본 수는 현황을 파악하기에 다소 한계가 있음

- 문화다양성 활동지표에서 조사대상 표본을 1,030개로 설정하였고, 문화다양성 인식지표에서 조사대상 표본을 1,000개로 설정하였음. 대상별로 37개(대안문화예술)~189개(여성) 표본 수를 통해 활용하였기에, 집단별 100개 내외의 표본 수는 전국의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을 노출함
-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기 설정한 11개 소수자 집단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 집단의 경우 조사표본을 찾기 어렵고 조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활동지표 조사대상에서 인위적으로 제외하였음

➡ 소수자 집단대상과 문화 자원 간 동일영역의 일률적 조사문제가 있음

- 대국민 설문지에서 다문화이주민, 장애인, 여성, 청소년과 같은 소수자 집단과 전통문화, 지역문화,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과 같은 문화자원영역을 일률적으로 '친밀도', '수용도', '필요도', '포용도', '평등도' 조사항목에 함께 설정함으로써 비교조사에 문제점이 있음
- 실태조사 시 층위가 다른 항목을 단순히 한 지표로 일원화하기가 어렵고 불가능하기에, '소수자집단별' 비교 및 '소수문화' 간 비교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표구성의 타당성 확보가 필요함

➡ 해외 문화다양성 실태자료와의 연계가 어려움

- 선행된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는 소수자(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하위문화(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비주류문화예술(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로 나누어 소수자 집단을 구분하였기에, 국내 특수성을 중심으로 국제 문화다양성 지표항목과 차이를 나타냄
- 2015 문화다양성 지표는 표준화된 기준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고, 광주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016)와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조사(2017)의 분류체계가 전부 다르기에, 국외 문화다양성 지표를 고려한 표준분류체계를 설정하여 객관적인 비교,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 설문 지표에서 실효성 있는 조사항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선행 조사에서 소수자집단에 대한 '향유활동 설문지'와 '창조활동 설문지'를 별도로 세분화하여 구성하였으나, 집단별 설문조사 시 종합적인 활동현황을 진단할 수 있는 단일지표로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정책지표 및 여건지표에서 항목을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사항목으로 설정하여, 17개 지역 문화다양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문화다양성사업에 대한 설문문항을 통해 관련 현장의 기반시설 및 사업운영을 조사함

2. 예비 지표구성 및 선정원칙

1) 자문회의 검증 및 지표 확정과정

➡ 2017 문화다양성 지표는 기존 지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설정함

- 문화다양성 지표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안한 실질적 항목들을 지표로 구성하여 정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함

- 전문가 자문회의와 설문조사를 거쳐 2017 문화다양성 지표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하고 조사지표의 체계, 조사항목, 조사방식 등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함

- 문화다양성 지표의 체계 개편과 보완과정을 거쳐 실증적으로 문화다양성 현상의 변화와 현실을 파악하고 정책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토대를 구성함

<표 3-3>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이름	소속	직위		이름	소속	직위
1	김수경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8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2	윤광식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9	류민희	희망법	변호사
3	한건수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10	김현숙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책임연구원
4	오정은	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1	윤지영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5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12	이재은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6	송경희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교수	13	이헌경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7	성욱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 기존 조사지표의 보완사항

➡ 2017년 문화다양성 지표에 포함된 대상의 범위와 조사방식을 실태조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구성함

- (개념범위의 조정) 독립문화예술과 대안문화예술을 주류문화예술 독점현상영역으로 통합함. 그 외 독신가구의 증가,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설문을 구성함

- (조사대상과 사회현상의 설문조정) 여성을 단순한 소수자집단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성별 불평등의 현상으로 조정하였고, 또한 노인 및 청소년을 소수자 집단관련 문항에서 세대갈등관련 문항으로 설문을 수정함

- 외국인 이주민의 설문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설문지를 제작하고 설문조사에 투입하여 언어로 인한 참여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함

➡ 기존 지표조사에서 설정된 조사항목을 수정함

<표 3-4> 기존 지표조사 항목을 보완한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항목

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다문화이주민	소수자집단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결혼이주민
성소수자		성소수자
장애인		장애인
청소년		타 종교인
노인	사회문화 현상	성별 불평등
전통문화		독신가구의 증가
지방문화		세대 간 갈등
독립문화예술		주류 문화예술 독점
대안문화예술		전통문화 위기
-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는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친밀도 조사에서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집단과 전통문화, 지역문화, 비주류문화예술 같은 문화자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여 조사하였기에 수정이 필요함

- 본 연구조사는 사회적 소수자집단인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

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종교인'을 지표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인 '성별 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예술 독점', '전통문화위기', '지방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를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였음

3. 지표 개선 방향

➡ 문화다양성 지원정책의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태조사 대상별 비례할당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함

- 문화다양성 법률에 의거해 실시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대국민 설문조사, 소수자 대상 설문조사, 정책제도 조사 및 기반시설조사로 추진되어 지원정책의 다각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도임
- 대국민 인식조사의 목표표본을 2,100명으로 설정하고, 소수자 그룹 900명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대상별 각 300명으로 비례할당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함

➡ 실태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표항목을 별도로 구분하고 새로운 지표항목들을 추가함

- 기존 지표조사 시 일원화되어있던 소수자집단별 지표항목을 '소수자집단별'과 '사회적 소수문화 현상'으로 별도로 구분하여 소수문화 실태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지표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및 '타 종교인' 지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소수자대상과 함께 비주류문화에 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에 있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2015년

구분	분류영역
소수자	다문화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하위문화	청소년
	노인
	전통문화
	지방문화
비주류 문화예술	독립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2017년

구분	분류영역
기본 영역 (1차적 범주)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
환경 영역 (2차적 범주)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 문화다양성 정책대상 분류체계를 기본범주와 환경적 범주로 구분하는 등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함

- 문화다양성 지표는 당초에는 다문화지표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주로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나, 현재 그 범위가 확대되어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노인, 청소년, 다원예술인 등 한국사회의 중심세력의 주도집단에서 벗어나 있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예술적 삶의 만족도와 인지도에 대한 조사 및 평가 분석 연구로 확대되었음
-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범위는 일차적 기본범주로 민족, 국적, 성별, 신체능력(장애), 성적 지향, 세대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구분하였고, 환경적 범주로 종교, 혼인, 소득, 전통, 지역, 예술취향에 따른 문화적 갈등으로 구분하여 문화다양성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음

<표 3-5> 문화다양성 분류체계(Dimensions of Cultural Diversity) 및 내용구성

구분	분류영역	내용구성
기본 영역 (1차적 범주)	민족 (Ethnicity; Race)	한국사회에 이주한 타민족, 타인종 집단으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귀화자 및 결혼 이주자 등
	국적 (Nationality)	국내 이주한 집단으로 타국적 소지자로, 외국인 外 외국적 동포, 북한에서 이탈한 새터민 포함
	성별 (Gender)	성별에 따라 집단별로 공유되고, 창조되는 문화
	장애문화 (Disability)	신체 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활동에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성적 정체성이 다른 집단으로,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등 포함
	세대 (Age)	연령에 따라 세대별로 형성하는 집단문화로, 아동문화, 청소년문화, 노인문화 등
환경 영역 (2차적 범주)	종교 (Religion)	다양한 신앙, 교리 및 영적 생활을 수행하는 집단들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원불교 등 포함
	소득 (Income)	가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상대적 소득수준의 격차와 분포에 따라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혼인 (Marital Status)	남녀 간 혼인을 이루거나 결혼을 하지 않고 독립가구를 이루는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보임
	전통 (Tradition)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는 민족의 고유문화
	지역 (Geographic Location)	각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고유성을 가진 문화
	예술취향(Arts)	기존 문화예술 장르 및 주류예술을 벗어나 다양한 예술형태와 취향을 표현하며, 순수문화, 대안문화, 독립문화, 인디문화 등 포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국 정책의 효과와 수준을 국제사회와 비교 진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어야 하며, 대상의 범위도 국제적 수준으로 하여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특정사회에 맞는 소수자 집단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효과적·실증적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함

- 각 지역별로 문화다양성 정책제도현황 및 기반시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평가지표의 보완이 요구되기에, 개선방향을 기준으로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고자 함
- 특정사회에서 소수자로 간주되는 대상은 사회적, 시대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다각적 검토를 통해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하고 소수자 집단별 현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소수자 집단에 국한하지 않고 조사가 어려운 비주류문화의 인식지표를 포함하여 단순 통계축적의 목적을 떠나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사가 되어야 함

4. 문화다양성 지표의 확정에 따른 조사

1) 대국민 인식조사

➡ 2017년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의식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태도에 대한 조사를 종합적으로 실시함

- 문화다양성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파악하여 문화다양성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문화적 차별 철폐 등의 긍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설문조사는 대국민 2,100명을 대상으로 수용성, 공존정도, 정책인지도, 참여활동 및 통계 지표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 "일반인의 소수자 집단 수용도", "문화다양성 정책효과성 평가", "소수자에 대한 차별정도 인지도", "인구학적 특성" 등 분류 항목으로 구성함

<표 3-6> 평가지표 구성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문화다양성에 대국민 인식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국민의 문화다양성 가치 평가
	소수자 문화와의 거리감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효과성 평가
	일반인의 소수자 집단 수용도
	소수자에 대한 차별정도 인지도

• 설문조사는 6개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소수문화현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5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됨
 - [관심도] 국민들이 갖는 소수집단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소수문화에 대한 관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수용도] 소수문화에 대해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필요도] 소수문화에 대해 공공지원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느끼는지 파악하기 우한 지표임
 - [포용도] 소수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포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인지도]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국민이 지니고 있는 인식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임

2) 사회적 소수자 집단 인식분석

➡ 본 실태조사 대상으로 외적 문화다양성 대표 3그룹인 “외국인이주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세부조사를 실시함

<표 3-7> 대표 소수자그룹 현황

외국인 이주자 그룹	결혼이주자 그룹	북한이탈주민 그룹
• 외국인주민 171만 명 • 외국인근로자 57만 명/ 외국국적동포 21만 명 • 동아시아지역출신, 非전문 근로자라는 특징 갖음	• 결혼이주자 23만 명 (결혼이민자 14만 명, 혼인귀화 9만 명) • 외국인주민 자녀 19만 명	• 북한이탈주민 3만 명 • 혈연적 동질성에도 문화 차이로 이질적 존재 • 여성의 입국비율은 전체 71%에 이름

• 사회적 소수자의 문화 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에 대한 소수민의 인식과 태도 및 소수민의 활동경험 등을 평가하기 위해 세부지표 내용을 설정

<표 3-8> 소수자그룹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소수자의 문화 향유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소수자에 대한 사회 포용도
	국민의 소수문화 수용도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

• 모집단 분석시 조사대상별 표본의 양적, 질적 조정을 통해 이주민 내적 다양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900명 소수문화조사에서 출신국, 인종, 소수자 유형 등 비례할당하여 표본조사방법을 진행·보완함

• 설문조사는 6개 소수자 집단과 사회적 소수문화현상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인지도, 관심도, 수용도, 포용도, 필요도 등 5개의 세부지표를 구성함
  - [친밀도] 소수자 집단별로 체감하는 국민의 호감 정도 및 인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수용도] 소수자 집단별로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필요도] 소수자 집단별로 공공지원정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가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 [포용도] 소수자 집단별로 느끼는 사회적 포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임

3) 문화다양성 관련 기반시설, 자원, 지원인력의 인프라 및 정책활동 지원사업 조사

➡ 소수자별 문화활동과 관련된 인프라를 적절한 수준을 파악하고자 여건지표를 설계하고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의 제반여건의 현황을 조사함

• 문화기반시설의 문화다양성 정책운영 활성화를 평가하기 위해 소수자별 문화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소수자별 문화활동 관련 단체 수, 소수자별 문화활동 지원인력 수를 조사함
  - 지역에 속해있는 지원기관의 특성, 시설 수, 관련 담당 단체에 대한 기본정보,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매개인력활용에 대한 정보를 조사함

• 정책활동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지자체 및 지원기관의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역량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실행지표를 활용하고자 함

<표 3-9> 시설, 자원 및 인력 세부지표 내용

평가항목	세부지표 내용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시설, 자원 및 인력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인력 수

- 본 조사는 문화기반시설을 거점으로 소수자집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님
  - [기반시설여건] 각 지자체가 소수자별 문화활동과 관련된 인프라가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자원여건] 각 시도 내에 소수자 문화활동과 관련된 자원(단체, 협회)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지표
  - [지원인력여건] 각 지자체내에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인력이 얼마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문화다양성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지표
  - [정책실행] 각 지자체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실행에서 소수자 집단별 문화활동 지원사업 건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

제3절 조사 분석의 틀

1) 실태조사 항목

➡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현행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2017 문화다양성 조사지표는 2015년 지표조사에 사용된 지표분류를 통합, 보완한 4개 대분류와 16개 중분류로 구성됨
- 본 조사지표는 선행된 지표조사를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이후 진행될 실태조사에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일관성을 유지시킬 예정임

<표 3-10>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분류와 세부지표 확정

<table>
<tr><th>구분</th><th>대분류</th><th>중분류</th><th>세부 지표 항목</th></tr>
<tr><td rowspan="5">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td><td rowspan="5">인식 지표</td><td>인지도</td><td rowspan="5">•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 국민의 문화다양성 가치 평가
• 소수자 문화와의 거리감
•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효과성 평가
• 일반인의 소수자 집단 수용도
• 소수자에 대한 차별정도 인지도</td></tr>
<tr><td>관심도</td></tr>
<tr><td>필요도</td></tr>
<tr><td>수용도</td></tr>
<tr><td>포용도</td></tr>
<tr><td rowspan="5">소수자의 문화 향유활동 및 창조활동에서의 다양성</td><td rowspan="5">활동 지표</td><td>인지도</td><td rowspan="5">•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 일상생활에서 소수자의 사회적 거리감
•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 국민의 소수문화 수용도
•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td></tr>
<tr><td>친밀도</td></tr>
<tr><td>포용도</td></tr>
<tr><td>수용도</td></tr>
<tr><td>만족도</td></tr>
<tr><td rowspan="3">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현황</td><td rowspan="3">정책 지표</td><td>정책수립</td><td rowspan="3">•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수
•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사업 수
• 문화다양성 예산</td></tr>
<tr><td>정책실행</td></tr>
<tr><td>정책예산</td></tr>
<tr><td rowspan="3">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설, 자원 및 인력</td><td rowspan="3">여건 지표</td><td>기반시설여건</td><td rowspan="3">•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수
•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수
•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인력 수</td></tr>
<tr><td>자원여건</td></tr>
<tr><td>지원인력여건</td></tr>
</table>

➡ 조사 및 데이터 구축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표항목 선정

- 소수문화를 총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대표적인 지표선정
- 하위문화가 균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정도를 측정 가능한 지표를 선정함

2) 조사수행 방법

- 대국민 인식조사의 목표 표본을 2,100명으로 설정하고, 소수자그룹 900명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비례할당하여 표본조사를 진행함
  - 엄밀한 확률표집에 따른 조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통계 및 조사전문가에 의해 네 가지 기준(지역, 소수자 유형, 성, 출신국)을 기본적인 표집틀로 설정한 후, 비례할당을 하도록 하였음
  - 지역(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소수자 유형(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자, 북한이탈주민), 성(남,녀), 국적(중국 비조선족, 중국 조선족, 북한,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기타)
  - 설문항 작성 및 분석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실태조사와 관련된 지침안을 마련함, 현장작업은 조사전문업체 기관이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함
  -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국민인식) 및 면접조사(소수자집단)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 17개 광역시도의 행정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지표와 여건지표에 따라 실태를 파악함
  - 문화다양성 지표측정을 위하여 지자체에 직접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수집하고, 소수자 집단별로 비교 분석함
  - 지자체 행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17개 광역시도의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자료 수집 목록과 증빙자료 제출양식을 배포함
  -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동안 문화다양성 및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된 정책연구 수립건수, 2016년 12월 기준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과 관련된 조례 및 규칙의 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함
  - 2016년 12월 기준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 기관 및 시설의 수, 소수자 문화활동단체 수, 소수자 문화활동 지원인력 수 등을 각각 조사함으로써 여건지표에 따라 현황을 조사함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제4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제1절 조사 개요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구성					
대상	국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시·도 지방자치단체
표본 수	2,100명	300명	300명	300명	17개 시·도
조사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대국민 인식조사

1) 조사목적 및 설계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 활용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1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음
- 2주 동안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를 할당하여 추출함

<표 4-1> 대국민 인식조사 설계

조사 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표본수	○ 2,1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2.1%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방법	○ 성/연령/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조사 기간	○ 2017년 10월 23일~ 11월 3일 (2주간)

2) 응답자 특성

<표 4-2> 대국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2100)	100.0
성별	남자	(1068)	50.9
	여자	(1032)	49.1
연령별	만19~29세	(415)	19.8
	30대	(416)	19.8
	40대	(485)	23.1
	50대	(473)	22.5
	60세 이상	(311)	14.8
거주 지역별	서울	(418)	19.9
	경기/인천	(644)	30.7
	부산/울산/경남	(325)	15.5
	대구/경북	(207)	9.9
	광주/전북/전남	(201)	9.6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10.4
	강원/제주	(86)	4.1
학력별	고졸 미만	(37)	1.8
	고졸	(472)	22.5
	전문대 졸	(296)	14.1
	대졸	(1073)	51.1
	대학원 이상	(222)	10.6
혼인 상태	기혼	(1362)	64.9
	미혼	(698)	33.2
	재혼	(8)	0.4
	기타	(32)	1.5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22.1
	천주교	(232)	11.0
	불교	(351)	16.7
	이슬람교	(1)	0.0
	기타	(5)	0.2
	없음	(1046)	49.8
직업별	전문직	(225)	10.7
	사무직	(780)	37.1
	기능직	(126)	6.0
	판매직	(56)	2.7
	서비스직	(140)	6.7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0.4
	공무원	(75)	3.6
	군인	(5)	0.2
	주부	(348)	16.6
	학생	(150)	7.1
	무직	(153)	7.3
	기타	(33)	1.6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4.6
	100만원 미만	(86)	4.1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2.2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17.2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20.1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15.3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11.5
	600만원 이상	(313)	14.9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6.6
	없음	(1961)	93.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11.7
	없음	(1855)	88.3

2. 소수자 인식조사

2.1. 외국인근로자

1) 조사목적 및 설계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보완 및 사업 활용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함

- 본 조사는 외국인근로자(비자 E-9 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2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국적, 성별 인구비례를 할당하여 추출함

<표 4-3> 외국인근로자 인식조사 설계

조사 대상	○ 국내에 E-9 비자(비전문취업비자)로 거주중인 외국인근로자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기타 동남아시아 국적 근로자)
표본수	○ 3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5.65%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면접조사
표본추출 방법	○ 국적/성별 비례 할당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조사 기간	○ 2017년 11월 03일~ 11월 17일 (2주간)

2) 응답자 특성

<표 4-4> 외국인근로자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300)	100.0
국적	중국	(75)	25.0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26.3
	베트남	(99)	33.0
	기타	(47)	15.7
성(性)	남자	(238)	79.3
	여자	(62)	20.7
연령	만19~29세	(60)	20.0
	30대	(94)	31.3
	40대	(66)	22.0
	50대	(60)	20.0
	60세 이상	(20)	6.7
학력	고졸 미만	(57)	19.0
	고졸	(161)	53.7
	전문대 졸	(28)	9.3
	대졸	(53)	17.7
	기타 교육	(1)	0.3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15.0
	천주교	(20)	6.7
	불교	(40)	13.3
	이슬람교	(16)	5.3
	기타	(8)	2.7
	무교	(171)	57.0
거주 지역	서울	(70)	23.3
	경기/인천	(170)	56.7
	부산/울산/경남	(14)	4.7
	대구/경북	(15)	5.0
	광주/전북/전남	(14)	4.7
	대전/세종/충북/충남	(17)	5.7
직업	전문직	(6)	2.0
	사무직	(7)	2.3
	기능직	(155)	51.7
	판매직	(27)	9.0
	서비스직	(67)	22.3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2.7
	학생	(1)	0.3
	무직	(13)	4.3
	기타	(16)	5.3
혼인 상태	기혼	(249)	83.0
	미혼	(47)	15.7
	기타	(4)	1.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5.7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39.0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48.7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6.0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7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6.7
	없음	(280)	93.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5.3
	없음	(284)	94.7

2.2. 결혼이주민

1) 조사목적 및 설계

➡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보완 및 사업 활용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함

- 본 조사는 결혼이민자(비자 F6 소지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함
- 2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외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국적, 성별 인구비례를 할당하여 추출함

<표 4-5> 결혼이주민 인식조사 설계

조사 대상	○ 국내 혼인 이민 비자(F6)로 거주중인 외국인 (중국,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
표본수	○ 3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5.65%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면접조사
표본추출 방법	○ 국적/성별 비례 할당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조사 기간	○ 2017년 11월 03일~ 11월 17일 (2주간)

2) 응답자 특성

<표 4-6> 결혼이주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300)	100.0
국적	중국	(105)	35.0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23.7
	베트남	(124)	41.3
성(性)	남자	(40)	13.3
	여자	(260)	86.7
연령	만19~29세	(70)	23.3
	30대	(117)	39.0
	40대	(59)	19.7
	50대	(33)	11.0
	60세 이상	(21)	7.0
학력	고졸 미만	(66)	22.0
	고졸	(155)	51.7
	전문대 졸	(19)	6.3
	대졸	(60)	20.0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18.7
	천주교	(3)	1.0
	불교	(41)	13.7
	기타	(6)	2.0
	무교	(194)	64.7
거주 지역	서울	(79)	26.3
	경기/인천	(159)	53.0
	부산/울산/경남	(15)	5.0
	대구/경북	(15)	5.0
	광주/전북/전남	(15)	5.0
	대전/세종/충북/충남	(17)	5.7
직업	사무직	(4)	1.3
	기능직	(71)	23.7
	판매직	(28)	9.3
	서비스직	(54)	18.0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1.3
	주부	(129)	43.0
	무직	(9)	3.0
	기타	(1)	0.3
혼인 상태	기혼	(292)	97.3
	기타	(8)	2.7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6.3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19.0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53.3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16.7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4.0
	500만원~600만원 미만	(2)	0.7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17.0
	없음	(249)	83.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5.0
	없음	(285)	95.0

2.3. 북한이탈주민

1) 조사목적 및 설계

➡ 북한이탈주민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보완 및 사업 활용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함

- 본 조사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1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2주간 실시되었으며, 표본은 성별, 지역별 인구비례를 할당하여 추출함

<표 4-7>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설계

조사 대상	○ 북한이탈주민
표본수	○ 300명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 ±5.63%p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1:1 대면 면접조사
표본추출 방법	○ 성별/지역 임의 할당
자료 처리 방법	○ 수집된 자료는 Editing-Coding을 거쳐 자료 파일 산출 ○ 산출된 자료파일은 통계패키지인 SPSS에 의해 통계처리
조사 기간	○ 2017년 11월 03일~ 11월 17일 (2주간)

2) 응답자 특성

<표 4-8>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체		(300)	100.0
성별	남자	(72)	24.0
	여자	(228)	76.0
연령별	20대 이하	(22)	7.3
	30대	(68)	22.7
	40대	(88)	29.3
	50대	(66)	22.0
	60세 이상	(56)	18.7
학력별	고졸 미만	(65)	21.7
	고졸	(154)	51.3
	전문대 졸	(42)	14.0
	대졸 이상	(38)	12.7
	기타	(1)	0.3
혼인 상태	기혼	(181)	60.3
	미혼	(89)	29.7
	재혼	(16)	5.3
	기타	(14)	4.7
종교	기독교	(125)	41.7
	천주교	(19)	6.3
	불교	(21)	7.0
	없음	(135)	45.0
거주 지역별	서울	(42)	14.0
	경기/인천	(154)	51.3
	부산/울산/경남	(28)	9.3
	대구/경북	(27)	9.0
	광주/전북/전남	(28)	9.3
	대전/세종/충북/충남	(21)	7.0
직업별	전문직	(16)	5.3
	사무직	(17)	5.7
	기능직	(43)	14.3
	판매직	(14)	4.7
	서비스직	(44)	14.7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2.0
	공무원	(1)	0.3
	주부	(68)	22.7
	학생	(14)	4.7
	무직	(77)	25.7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44.7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31.3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17.0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4.3
	400만원 이상	(8)	2.7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25.0
	없음	(225)	75.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21.7
	없음	(235)	78.3

3.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실태조사

1) 조사목적 및 설계

➡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실태조사를 위해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을 파악하고,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함

- 조례·규칙, 지원사업, 예산, 공공기관, 민간단체 부문 13개 유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수집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관련 자료를 17개 시·도에게 제출요청 후 취합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 시·도 지방자치단체 실태는 크게 지원정책 부문과 기반여건 부문으로 나뉘어 조사를 진행함

- 지원정책 부문은 정책수립, 정책실행, 정책예산으로 구성되어 각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에 관련 정책 구상 및 체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임
- 기반여건 부문은 지원인력, 자원여건으로 구성되어 각 지자체가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를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임

2) 제출 현황

<표 4-9>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 제출현황

제출기관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미제출기관	대구광역시

제2절 사회적 인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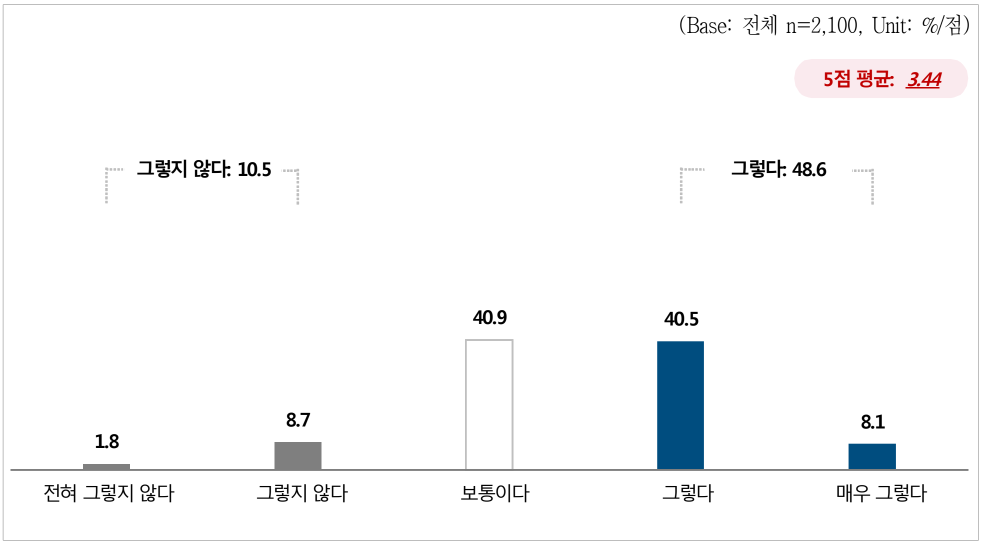
1. 개별 항목별 분석

1) 대국민 인식 수준

①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44점(48.6%)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8.6%,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0.5%로 나타남



[그림 4-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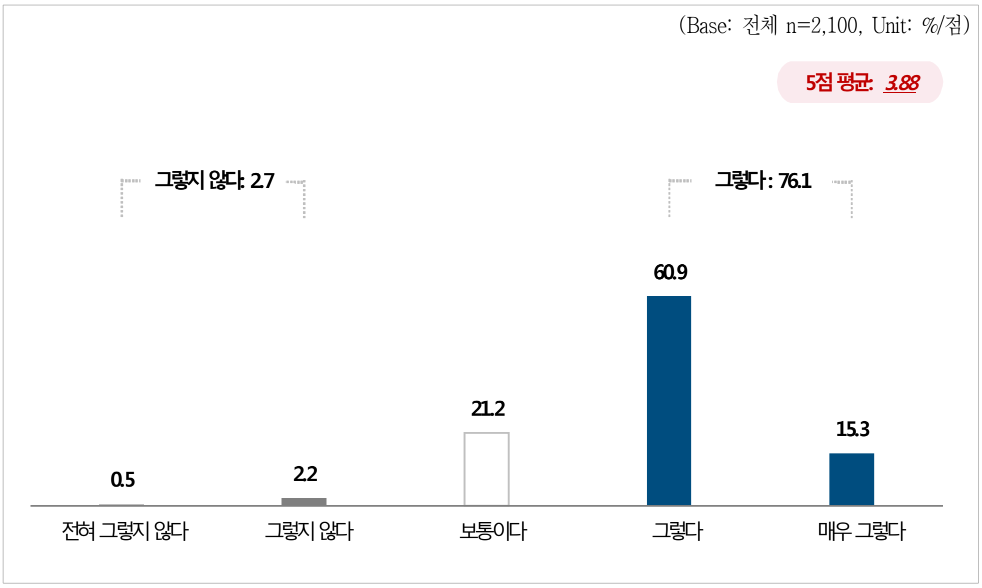
<표 4-10>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구분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8	8.7	40.9	40.5	8.1	10.5	40.9	48.6	3.44

②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88점(76.1%)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6.1%,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2.7%로 나타남



[그림 4-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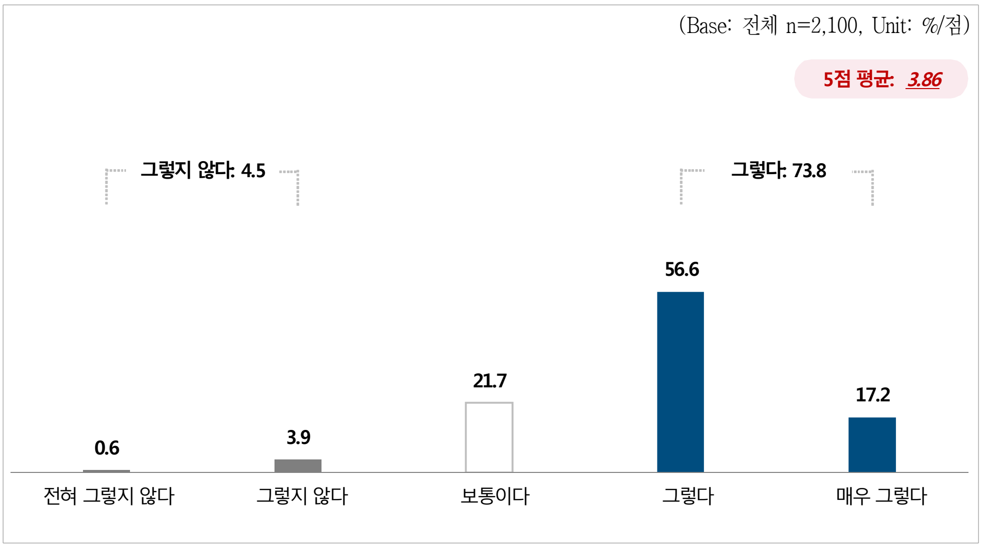
<표 4-11>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구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5	2.2	21.2	60.9	15.3	2.7	21.2	76.1	3.88

③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86점(73.8%)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3.8%,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4.5%로 나타남



[그림 4-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표 4-12>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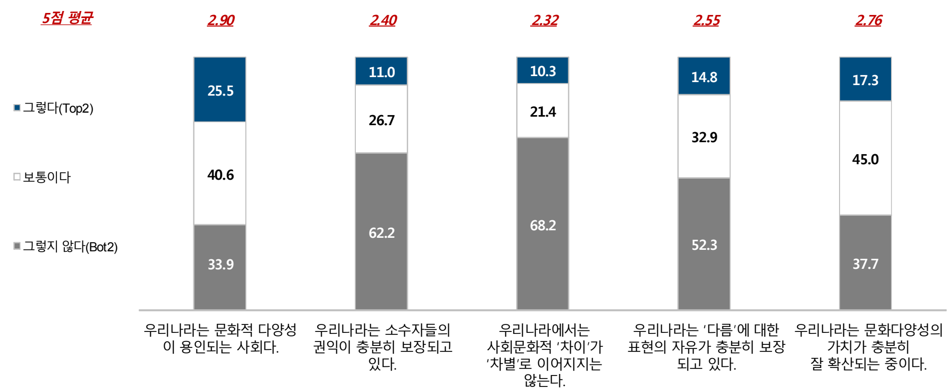
구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6	3.9	21.7	56.6	17.2	4.5	21.7	73.8	3.86

④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에 대한 응답이 2.90점(25.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2.76점),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2.55점),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2.40점)의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2.32점(10.3%)으로 의식수준을 묻는 타 문항보다 다소 낮게 나타남. 이 문항의 '그렇지 않다'는 68.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Base: 전체 n=2,100, Unit: %/점)



[그림 4-4]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표 4-1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구분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2.7	31.2	40.6	24.3	1.2	33.9	40.6	25.5	2.90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0.7	51.5	26.7	9.4	1.6	62.2	26.7	11.0	2.40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1.5	56.8	21.4	9.3	1.0	68.2	21.4	10.3	2.32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9.4	43.0	32.9	13.1	1.7	52.3	32.9	14.8	2.55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5.2	32.5	45.0	16.0	1.2	37.7	45.0	17.3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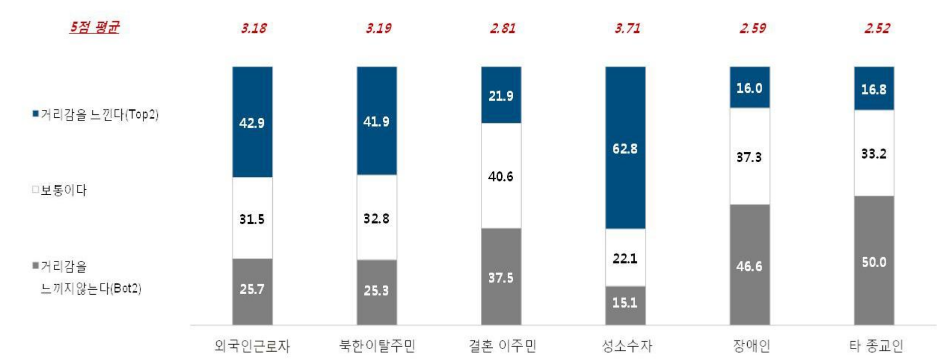
2) 대국민의 구현 수준

① 관심도

➡ 국민들이 소수자를 대상으로 느끼는 호감 정도에 따라 거리감을 조사해본 결과, ‘성소수자’에 대한 응답이 3.71점(6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이 3.19점으로 타 소수자에 비해 거리감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외국인근로자’(3.18점), ‘결혼이주민’(2.81점) 순으로 거리감을 느낀다고 응답함
- ‘장애인’(2.59점), ‘타 종교인’(2.52점)은 다른 소수자들보다 거리감이 낮게 나타남

(Base: 전체 n=2,100, Unit: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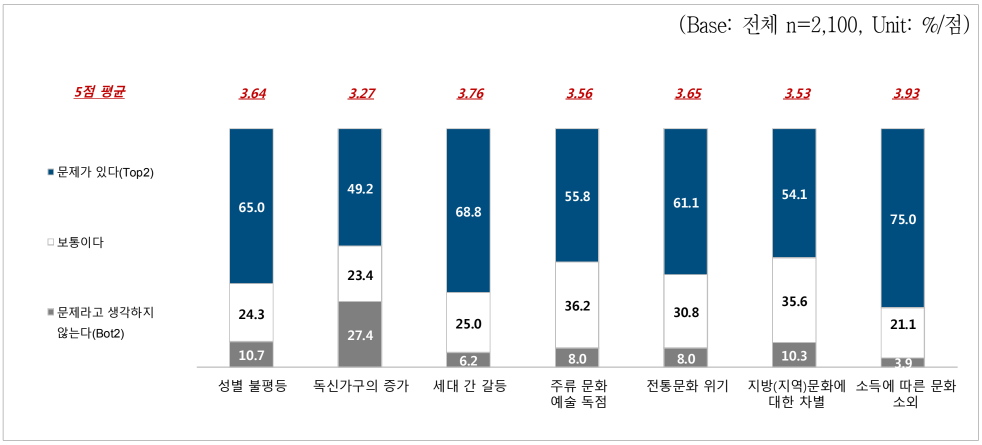
[그림 4-5]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표 4-14>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구분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n=2100, %, 5점 평균)								
	거리감 전혀 느끼지 않는다	거리감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	거리감 느낀다	매우 거리감 느낀다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보통】	【거리감을 느낀다】	[5점 평균]
외국인근로자	2.7	23.0	31.5	39.4	3.4	25.7	31.5	42.9	3.18
북한이탈주민	3.7	21.6	32.8	35.2	6.6	25.3	32.8	41.9	3.19
결혼 이주민	5.4	32.1	40.6	20.1	1.8	37.5	40.6	21.9	2.81
성소수자	2.8	12.3	22.1	37.1	25.7	15.1	22.1	62.8	3.71
장애인	11.4	35.2	37.3	15.1	1.0	46.6	37.3	16.0	2.59
타 종교인	16.9	33.1	33.2	14.2	2.5	50.0	33.2	16.8	2.52

➡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에 대한 응답이 3.93점(7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세대 간 갈등'(3.76점), '전통문화 위기'(3.65점), '성별 불평등'(3.64점), '주류 문화예술 독점'(3.56점),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3.53점)의 순으로 나타남
- '독신가구의 증가'는 3.27점으로 다른 사회현상보다 문제 인식 정도가 낮게 응답됨



[그림 4-6]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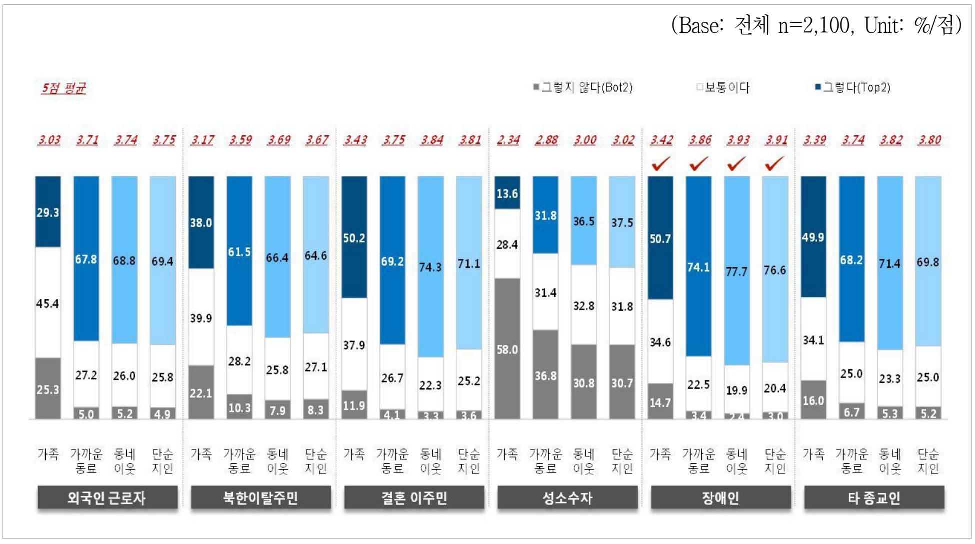
<표 4-15>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구분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매우 심하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보통]	[문제임]	[5점 평균]
성별 불평등	2.0	8.7	24.3	53.5	11.5	10.7	24.3	65.0	3.64
독신가구의 증가	5.0	22.4	23.4	39.0	10.3	27.4	23.4	49.2	3.27
세대 간 갈등	0.4	5.8	25.0	55.0	13.8	6.2	25.0	68.8	3.76
주류 문화예술 독점	1.0	7.0	36.2	46.2	9.5	8.0	36.2	55.8	3.56
전통문화 위기	0.6	7.4	30.8	49.0	12.1	8.0	30.8	61.1	3.65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1.1	9.1	35.6	43.9	10.3	10.3	35.6	54.1	3.53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0.4	3.5	21.1	53.2	21.8	3.9	21.1	75.0	3.93

② 수용도

➡ 대부분 ‘가족’이나 ‘동료’와 같은 가까운 사이보다는 ‘동네 이웃’이나 ‘단순지인’ 정도의 거리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각 구성원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장애인’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 반면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가장 낮게 나타남
  -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의 그렇지 않다 응답은 58%임
  - 가족으로 수용정도는 ‘장애인’(50.7%), ‘결혼이주민’(50.2%), ‘타종교인’(49.9%)이 대체로 높게 나타남



[그림 4-7]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표 4-16>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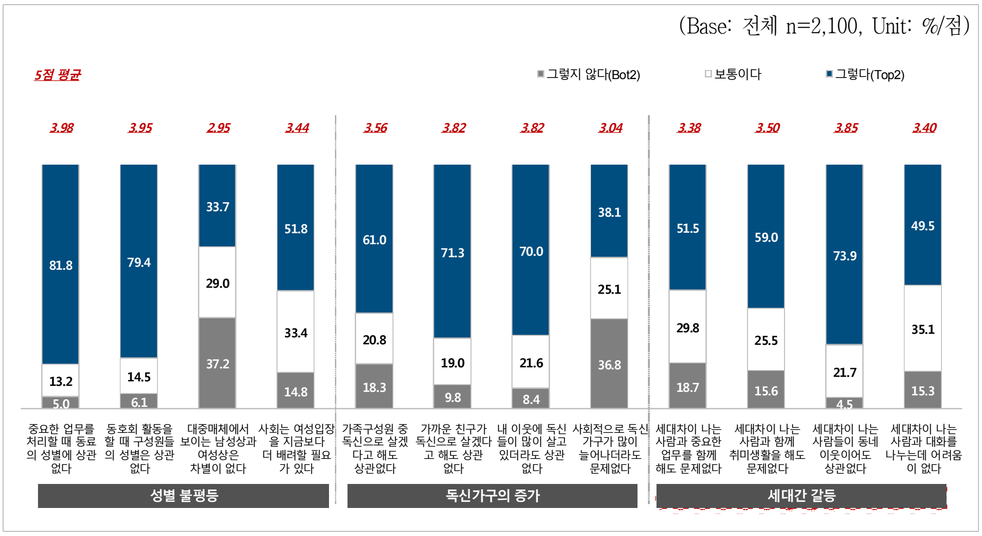
구분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외국인 근로자	가족	3.3	22.0	45.4	26.9	2.4	25.3	45.4	29.3	3.03
	가까운 동료	1.2	3.9	27.2	58.7	9.1	5.0	27.2	67.8	3.71
	동네 이웃	1.5	3.7	26.0	57.2	11.6	5.2	26.0	68.8	3.74
	단순 지인	1.0	3.9	25.8	57.7	11.7	4.9	25.8	69.4	3.75
북한 이탈주민	가족	4.3	17.8	39.9	32.8	5.1	22.1	39.9	38.0	3.17
	가까운 동료	2.2	8.1	28.2	51.9	9.6	10.3	28.2	61.5	3.59
	동네 이웃	1.8	6.0	25.8	54.3	12.1	7.9	25.8	66.4	3.69
	단순 지인	1.9	6.4	27.1	52.1	12.5	8.3	27.1	64.6	3.67
결혼 이주민	가족	1.8	10.1	37.9	43.9	6.4	11.9	37.9	50.2	3.43
	가까운 동료	0.5	3.7	26.7	58.8	10.4	4.1	26.7	69.2	3.75
	동네 이웃	0.5	2.9	22.3	60.8	13.5	3.3	22.3	74.3	3.84
	단순 지인	0.5	3.1	25.2	57.4	13.7	3.6	25.2	71.1	3.81

구분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성소수자	가족	24.5	33.5	28.4	11.0	2.7	58.0	28.4	13.6	2.34
	가까운 동료	14.0	22.8	31.4	25.3	6.5	36.8	31.4	31.8	2.88
	동네 이웃	12.9	17.9	32.8	29.0	7.4	30.8	32.8	36.5	3.00
	단순 지인	12.8	18.0	31.8	29.2	8.3	30.7	31.8	37.5	3.02
장애인	가족	3.0	11.7	34.6	41.3	9.4	14.7	34.6	50.7	3.42
	가까운 동료	0.8	2.6	22.5	58.4	15.7	3.4	22.5	74.1	3.86
	동네 이웃	0.7	1.8	19.9	59.1	18.6	2.4	19.9	77.7	3.93
	단순 지인	0.7	2.3	20.4	58.1	18.5	3.0	20.4	76.6	3.91
타 종교인	가족	4.2	11.7	34.1	40.8	9.1	16.0	34.1	49.9	3.39
	가까운 동료	2.1	4.6	25.0	53.6	14.6	6.7	25.0	68.2	3.74
	동네 이웃	1.9	3.4	23.3	54.1	17.3	5.3	23.3	71.4	3.82
	단순 지인	1.9	3.3	25.0	52.6	17.2	5.2	25.0	69.8	3.80

- 성별 불평등에 대해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에 상관없다'(81.8%)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중매체에서의 성 차별이 없다'는 33.7%로 대중매체에서의 수용도는 낮게 응답됨

- 독신가구의 증가로 '가까운 친구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71.3%)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으로 문제없다' 물음에 38.1%만이 대답하여 독신가구 증가는 사회문제로서 인식이 높게 나타남

- 세대 간 갈등은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73.9%)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한 업무를 해도 문제없다'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8.7%로 수용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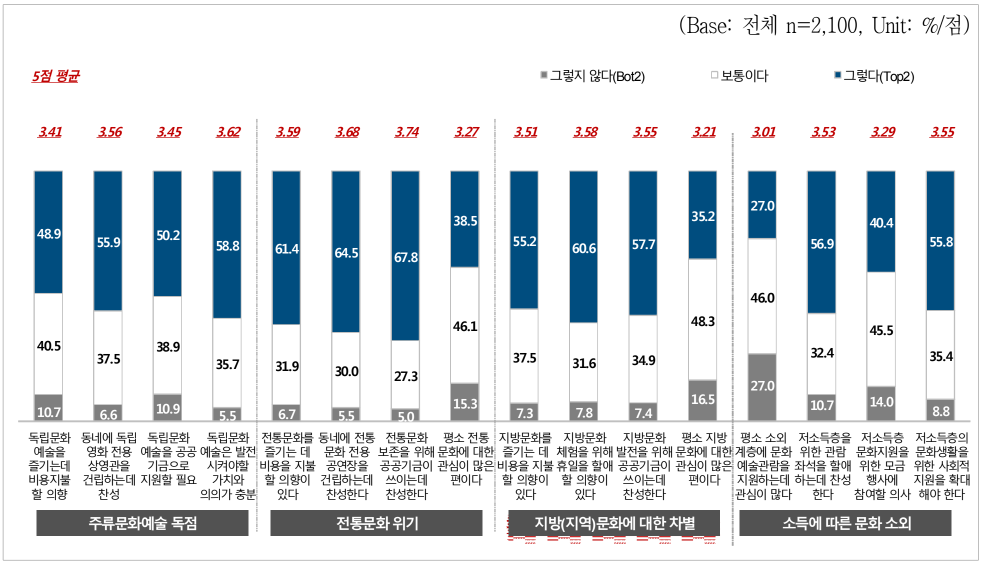
[그림 4-8]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주류문화예술이 독점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 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58.8%)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독립문화예술 비용지불 의향’에 대한 질문에서는 48.9%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통문화 위기에 대해서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67.8%)는 의견이 가장 높으나, ‘전통문화 관심’에 대한 물음은 38.5%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로 ‘지방문화 체험을 위해 휴일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60.6%)는 의견에 대해 개인적 수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지방(지역)문화 관심’에 대한 의견은 3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관람 좌석을 할애하는 데 찬성한다’(56.9%)는 의견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소외계층 문화예술관람 지원에 대한 관심’은 27.0%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9]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표 4-17>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구분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성별 불평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에 상관없다	0.7	4.3	13.2	60.1	21.7	5.0	13.2	81.8	3.98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의 성별은 상관없다	0.6	5.5	14.5	57.0	22.4	6.1	14.5	79.4	3.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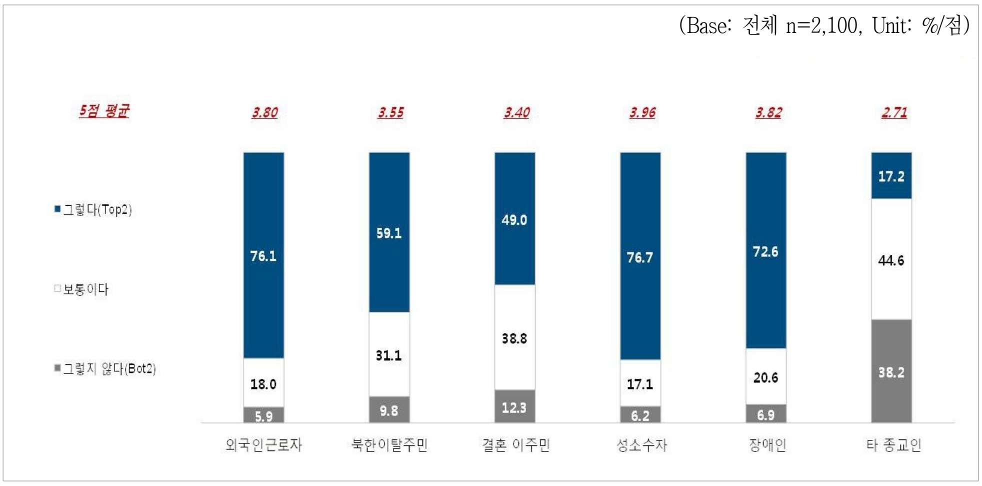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5점 평균)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남성상과 여성상은 차별이 없다	7.8	29.5	29.0	27.1	6.6	37.2	29.0	33.7	2.95
	사회는 여성입장을 지금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4.0	10.8	33.4	40.9	10.9	14.8	33.4	51.8	3.44
독신 가구의 증가	가족구성원 중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2.4	15.9	20.8	45.3	15.7	18.3	20.8	61.0	3.56
	가까운 친구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0.8	9.0	19.0	50.1	21.1	9.8	19.0	71.3	3.82
	내 이웃에 독신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다	0.9	7.5	21.6	49.0	21.1	8.4	21.6	70.0	3.82
	사회적으로 독신가구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문제없다	8.1	28.6	25.1	27.3	10.8	36.8	25.1	38.1	3.04
세대 간 갈등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해도 문제없다	1.7	17.0	29.8	44.9	6.6	18.7	29.8	51.5	3.38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해도 문제없다	2.3	13.3	25.5	49.6	9.3	15.6	25.5	59.0	3.50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	0.8	3.7	21.7	57.8	16.0	4.5	21.7	73.9	3.85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다	2.3	13.0	35.1	41.2	8.3	15.3	35.1	49.5	3.40
주류 문화 예술 독점	독립문화예술을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8	8.9	40.5	44.5	4.4	10.7	40.5	48.9	3.41
	동네에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1.4	5.1	37.5	47.6	8.3	6.6	37.5	55.9	3.56
	독립문화예술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1.8	9.1	38.9	42.3	7.9	10.9	38.9	50.2	3.45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	1.3	4.1	35.7	49.2	9.6	5.5	35.7	58.8	3.62
전통 문화 위기	전통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1	5.6	31.9	55.6	5.8	6.7	31.9	61.4	3.59
	동네에 전통문화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0.9	4.6	30.0	55.0	9.5	5.5	30.0	64.5	3.68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1.1	3.8	27.3	55.9	11.9	5.0	27.3	67.8	3.74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2.1	13.2	46.1	32.7	5.9	15.3	46.1	38.5	3.27
지방 (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	지방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5	5.8	37.5	51.0	4.3	7.3	37.5	55.2	3.51
	지방문화 체험을 위해 휴일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	1.5	6.3	31.6	54.1	6.5	7.8	31.6	60.6	3.58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1.7	5.8	34.9	51.0	6.8	7.4	34.9	57.7	3.55

구분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평소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2.4	14.1	48.3	30.2	5.0	16.5	48.3	35.2	3.21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	나는 평소 소외계층에 문화예술관람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다	2.7	24.4	46.0	23.3	3.7	27.0	46.0	27.0	3.01
	즐겨 찾는 공연장에 저소득층을 위한 관람좌석을 할애하는데 찬성한다	2.1	8.6	32.4	48.1	8.8	10.7	32.4	56.9	3.53
	저소득층 문화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2.6	11.5	45.5	34.8	5.7	14.0	45.5	40.4	3.29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4	7.4	35.4	46.0	9.7	8.8	35.4	55.8	3.55

③ 포용도

➡ 소수자가 차별당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포용되고 있는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응답이 3.96점(76.7%)으로 가장 차별을 받고 있음

- 다음으로 장애인(3.82점), 외국인근로자(3.80점) 순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 북한이탈주민(3.55점), 결혼이주민(3.40점)은 타 대상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종교인은 2.71점으로 차별 인식 정도가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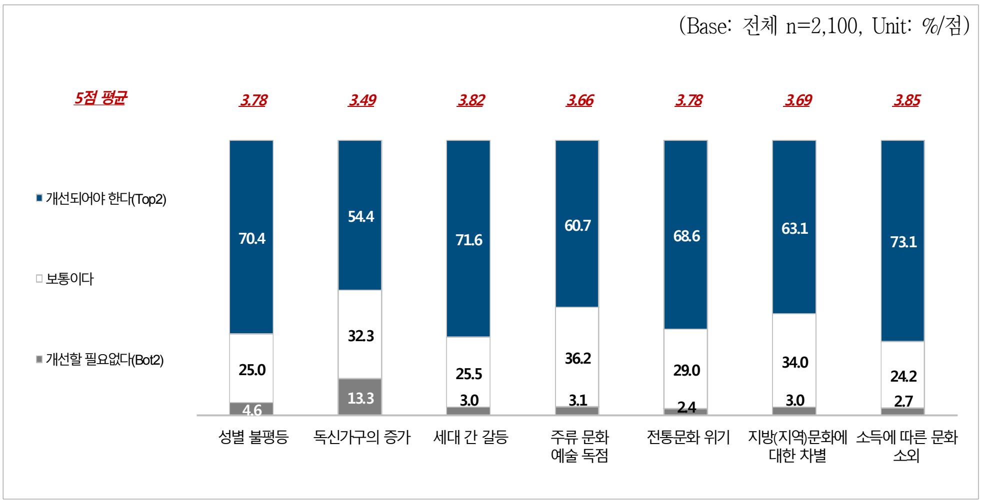
[그림 4-10]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표 4-18>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구분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외국인근로자	1.3	4.6	18.0	64.6	11.5	5.9	18.0	76.1	3.80
북한이탈주민	1.4	8.4	31.1	52.0	7.0	9.8	31.1	59.1	3.55
결혼이주민	1.5	10.8	38.8	44.5	4.4	12.3	38.8	49.0	3.40
성소수자	1.6	4.6	17.1	49.7	27.0	6.2	17.1	76.7	3.96
장애인	0.7	6.1	20.6	55.4	17.1	6.9	20.6	72.6	3.82
타 종교인	9.9	28.3	44.6	14.9	2.3	38.2	44.6	17.2	2.71

➡ 사회적 차별 개선에 대한 포용도를 묻는 질문에서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에 대한 응답이 3.85점(7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세대 간 갈등'(3.82점), '성별 불평등'(3.78점), '전통문화 위기'(3.78점),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3.69점), '주류 문화예술 독점'(3.66점)의 순으로 나타남
- '독신가구의 증가'는 3.49점으로 다른 사회현상보다 개선 필요 정도가 낮게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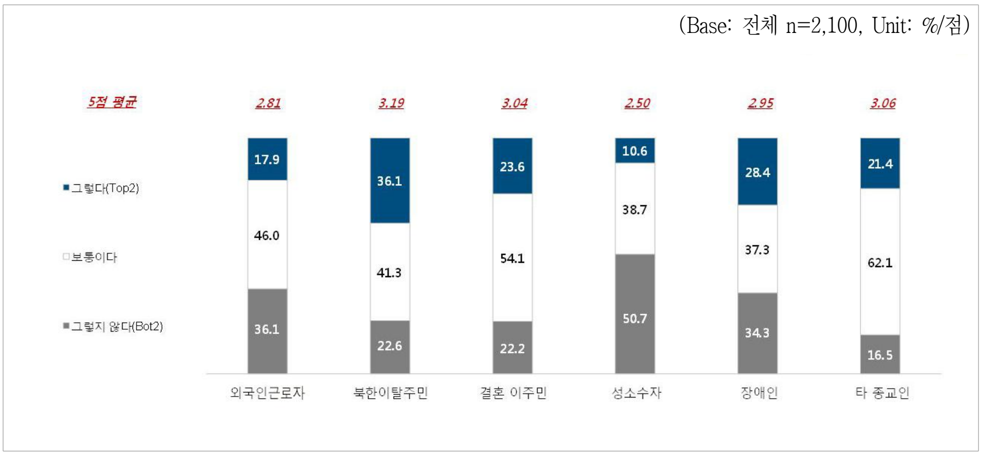
[그림 4-11]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

<표 4-19>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인식 정도

구분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인식 정도 (n=2100, %, 5점 평균)								
	개선할 필요가 없다	개선 되지 않아도 된다	보통 이다	개선 되어야 한다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한다	【개선 불필요】	【보통】	【개선 필요】	[5점 평균]
성별 불평등	1.4	3.2	25.0	57.2	13.1	4.6	25.0	70.4	3.78
독신가구의 증가	3.1	10.2	32.3	43.2	11.1	13.3	32.3	54.4	3.49
세대 간 갈등	0.7	2.3	25.5	57.8	13.8	3.0	25.5	71.6	3.82
주류 문화예술 독점	0.4	2.7	36.2	52.0	8.7	3.1	36.2	60.7	3.66
전통문화 위기	0.5	1.9	29.0	56.0	12.6	2.4	29.0	68.6	3.78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0.8	2.2	34.0	53.9	9.2	3.0	34.0	63.1	3.69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0.5	2.2	24.2	57.8	15.4	2.7	24.2	73.1	3.85

④ 필요도

-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응답이 3.19점(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타 종교인’(3.06점), ‘결혼이주민’(3.04점), ‘장애인’(2.95점), ‘외국인 근로자’(2.81점) 순으로 나타남
  - ‘성소수자’는 2.50점으로 정부 지원의 충분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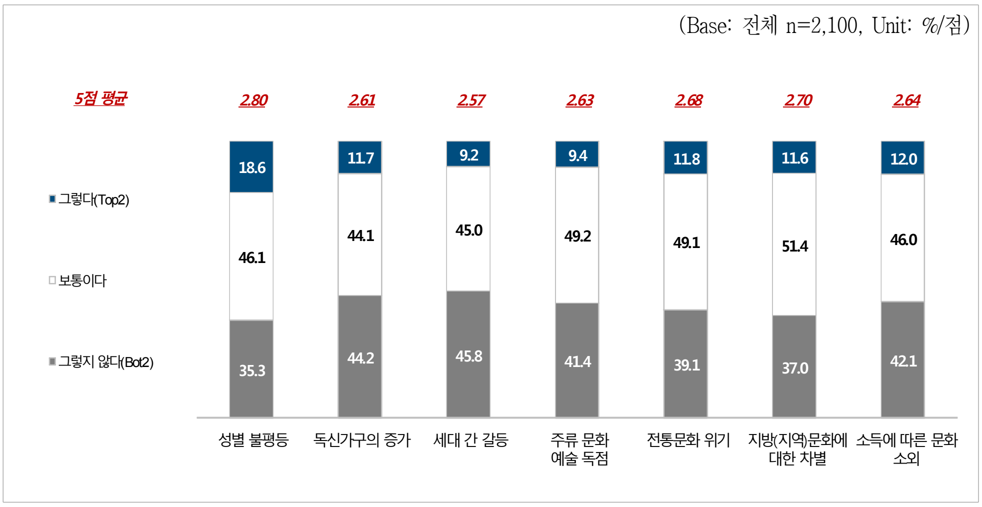
[그림 4-12]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표 4-20>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구분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외국인근로자	3.8	32.3	46.0	14.7	3.2	36.1	46.0	17.9	2.81
북한이탈주민	1.6	21.0	41.3	28.8	7.3	22.6	41.3	36.1	3.19
결혼 이주민	1.6	20.7	54.1	19.9	3.7	22.2	54.1	23.6	3.04
성소수자	12.7	38.0	38.7	8.0	2.5	50.7	38.7	10.6	2.50
장애인	5.2	29.1	37.3	22.7	5.7	34.3	37.3	28.4	2.95
타 종교인	3.1	13.3	62.1	16.7	4.7	16.5	62.1	21.4	3.06

➡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응답이 2.80점(18.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2.70점), '전통문화 위기'(2.68점),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2.64점), '주류 문화예술 독점'(2.63점), '독신가구의 증가'(2.61점) 순으로 나타남
- '세대 간 갈등'은 2.57점으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향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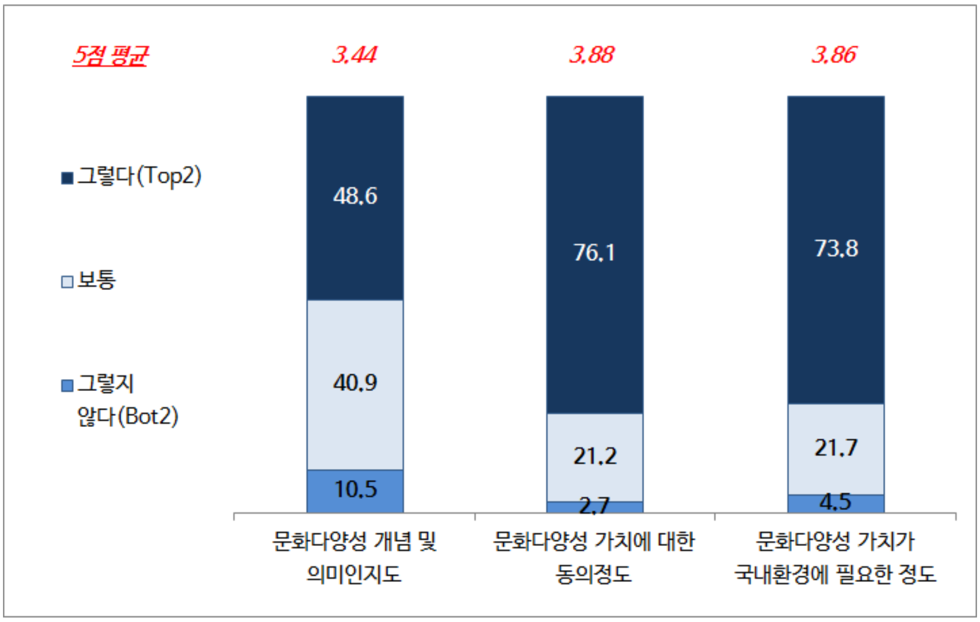
[그림 4-13]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표 4-21>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구분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 (n=21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성별 불평등	5.3	30.0	46.1	16.7	1.9	35.3	46.1	18.6	2.80
독신가구의 증가	7.3	36.9	44.1	10.7	1.0	44.2	44.1	11.7	2.61
세대 간 갈등	7.2	38.6	45.0	8.4	0.8	45.8	45.0	9.2	2.57
주류 문화예술 독점	5.4	36.0	49.2	8.5	0.9	41.4	49.2	9.4	2.63
전통문화 위기	6.0	33.0	49.1	10.6	1.1	39.1	49.1	11.8	2.68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5.2	31.8	51.4	10.5	1.0	37.0	51.4	11.6	2.70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7.0	35.1	46.0	10.8	1.2	42.1	46.0	12.0	2.64

2. 종합 분석

1) 대국민의 일반인식 분석



[그림 4-14] 대국민 문화다양성 인식수준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한 문항에서 일반국민은 낮은 점수(3.44)로 응답하였음. 응답자 48.5%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60세이상(52.1%), 광주・전라지역(52.7%), 대학원 이상(55.4%),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경험(70.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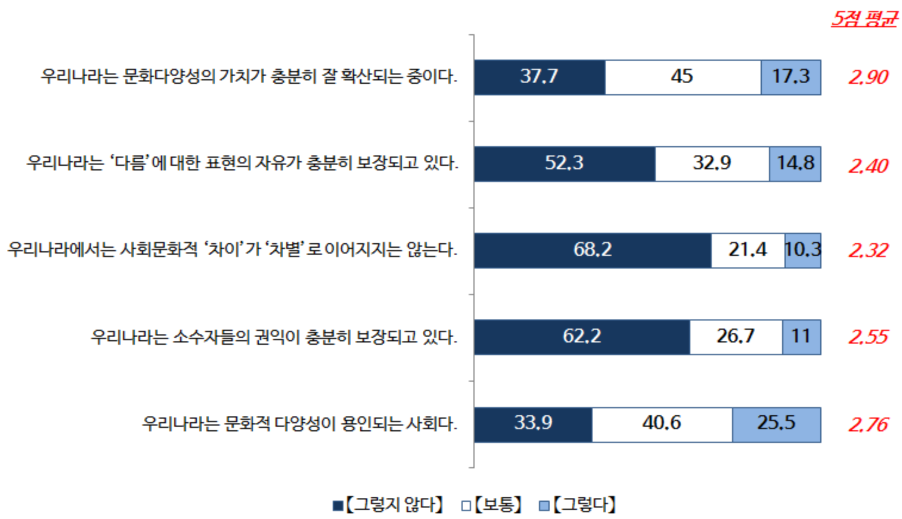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에 대한 문항에서 76.1%가 가치에 동의한다고 답했으며, 만 29세 이하(79.5%), 강원・제주(84.9), 대학원 이상(79.7%),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경험(87.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환경에 필요한 것이라는 물음에 대하여 73.8%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음. 연령별 50대(76.5%), 지역별 광주・전라지역(80.1%), 학력별 대학원 이상(78.8%),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경험(85.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76.1%)및 문화다양성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73.8%)에 비하여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48.6%)가 낮은 상황은 문화다양성 정책이 보다 명확히 정립되고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함

- 문화다양성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사회가 어떤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 구체적 방향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 진정한 문화적 풍요성을 증진하려면 다양성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체득을 통해 문화다양성이 실천적으로 보다 확산되는 것에 치중할 필요가 있어야 함을 보여줌

(단위 : %)



[그림 4-15] 대국민 문화다양성 구현수준

- 우리나라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라는 문항에 25.5%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연령별 60세 이상(36.3%), 지역별 대구・경북(28%), 학력별 고졸(32.4%), 직업별 주부(32.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가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문항에 11%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연령별 60세 이상(13.5%), 지역별 대전・충청지역(28%), 학력별 고졸미만(18.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문항에 10.3%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연령별 60세 이상(15.4%), 지역별 광주・전라지역(13.9%), 학력별 고졸미만(2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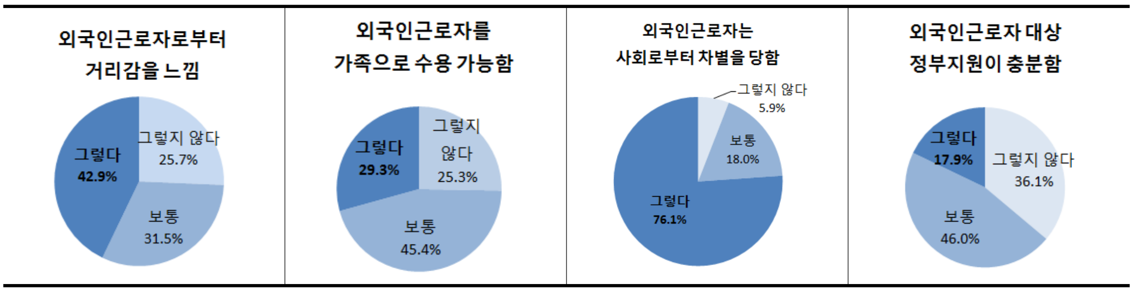
- 우리나라에서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는 문항에 14.8%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연령별 60세 이상(25.1%), 지역별 광주・전라지역(17.4%), 학력별 고졸미만(29.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라는 문항에 17.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연령별 60세 이상(28.9%), 지역별 대구・경북지역(21.3%), 학력별 고졸미만(35.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의 낮은 인지도 조사결과는 사회전반에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문화다양성 정책 수준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10~25%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기에, 향후 문화다양성의 전반적인 인식제고와 전체국민과의 공감을 이끌며 사회 내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대국민의 정책구현 분석

① 외국인근로자



[그림 4-16]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외국인근로자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은 42.9%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6.1%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여성(43.7%)이 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30대(72.3%)가 높고 60세 이상(30.5%)이 낮게 답했음. 지역별로 경기・인천지역(44.9%)이 높은 반면 부산・경남지역(38.5%)이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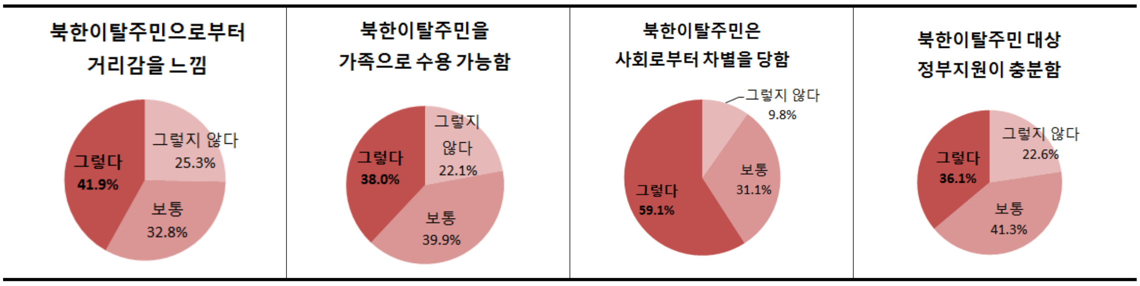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용정도 물음에 대해 '단순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69.4%,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68.8%가 답했음. 반면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29.3%만이었고, 연령별로 30대, 지역별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76.1%가 답했으며, 연령별로 20대가 80.5%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 서울지역이 81.1%로 가장

두드러졌음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지원 충분하다는 응답이 17.9%에 불과함. 반면에 충분치 않다고 36.1%가 답했으며, 연령별 50대(38.3%), 지역별 서울지역(41.1%), 학력별 대학원졸(38.7%)이 높았음

② 북한이탈주민



[그림 4-1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북한이탈주민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은 41.9%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59.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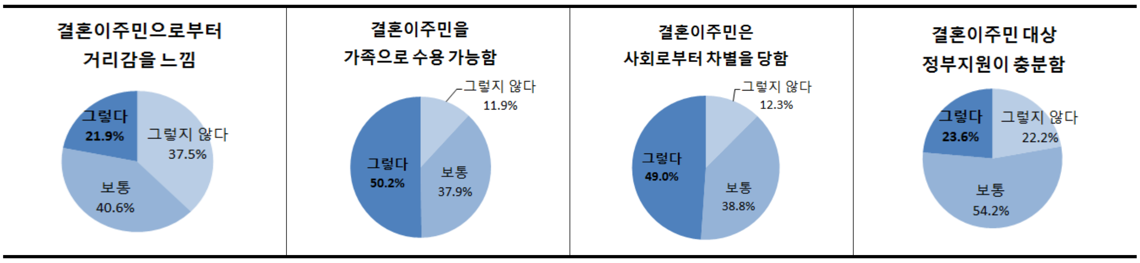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여성(46.6%)이 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중장년 30대(53.1%)가 높고 60세 이상(28%)이 상대적으로 낮게 답했음.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43%)이 높은 반면 강원·제주지역(38.4%)이 낮았고, 학력별로 대졸(44.5%)이 높았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정도 물음에 대해 '단순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64.6%,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66.4%가 답했음. 반면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38%만이었고, 성별로 남성(47.5%), 연령별로 60대 이상(47.6%), 지역별 강원·제주(46.5%)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59.1%가 답했음. 연령별로 40대가 63.3%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 강원·제주지역이 62.8%로 가장 두드러졌고, 학력별로 대학원이상(63.5%)이 높았음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6.1%로 나왔으며, 연령별 20대(44.3%), 지역별 대구·경북(39.1%), 학력별 대졸(38%)이 높았음

③ 결혼이주민



[그림 4-18] 결혼이주민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결혼이주민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은 21.9%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민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4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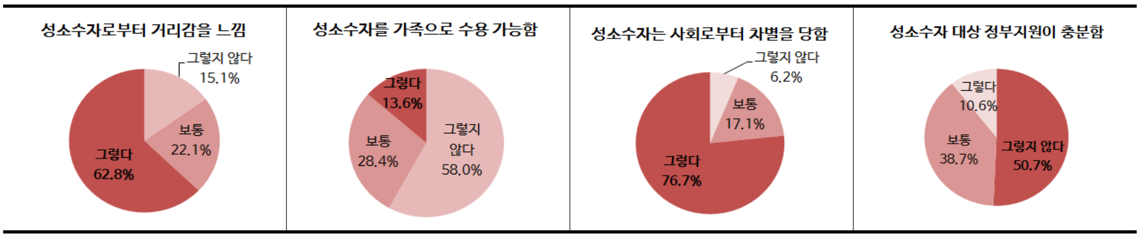
- 결혼이주민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21.9%, 연령별로 30대(27.6%)가 높았고 60세 이상(18.6%)이 보다 낮게 답했음.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25.6%)이 높은 반면 광주・전라지역(19.4%)이 낮았음

- 결혼이주민에 대한 수용정도 물음에 대해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74.3%,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69.2%가 답했음. 반면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50.2%이었고, 성별로 남성(55.9%)이, 연령별로 40대(52.6%), 지역별 강원・제주(61.6%), 학력별 고졸미만(54.1%)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결혼이주민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49%가 답했으며, 성별로 여성(51.2%), 연령별로 30대(51.4%)가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 서울지역이 55.7%로 가장 두드러졌음

-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부지원 충분하다는 응답은 23.6%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30대(27.6%), 지역별 대전・충청권(27.4%), 학력별 대학원이상(53.2%)이 높았음. 반면에 정부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22.2%가 답했음

④ 성소수자



[그림 4-19] 성소수자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성소수자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은 62.8%로 나타났으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6.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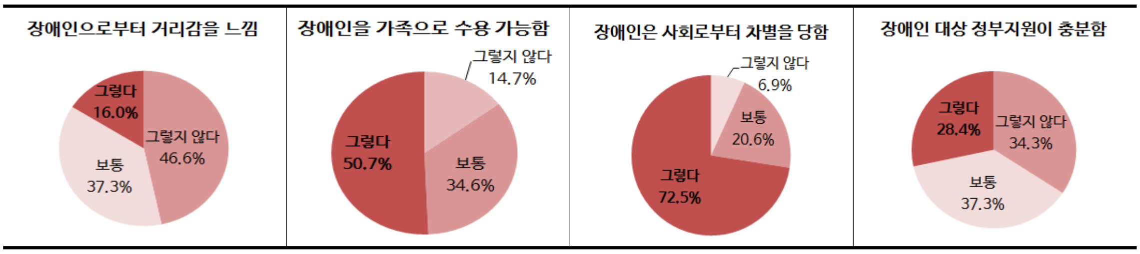
- 성소수자에 거리감을 느낀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69.6%)이 여성(55.8%)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중장년 50세 이상(72.3%)이 높고, 29세 이하(44.6%)가 상대적으로 낮게 답했음.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69.6%)이 높은 반면 강원・제주지역(54.7%)이 낮았음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정도 물음에 대해 '단순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37.5%,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36.5%가 답했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13.6%만이었음. 반면 58%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 60세이상, 지역별 대구・경북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성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76.7%가 답했으며, 연령별로 30대가 79.3%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 강원・제주지역이 81.4%로 가장 두드러졌음

-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지원 충분치 않다고 50.7%가 답했으며, 연령별 20대(57.1%), 지역별 강원・제주(57%), 학력별 대졸(53.2%)가 높았음

⑤ 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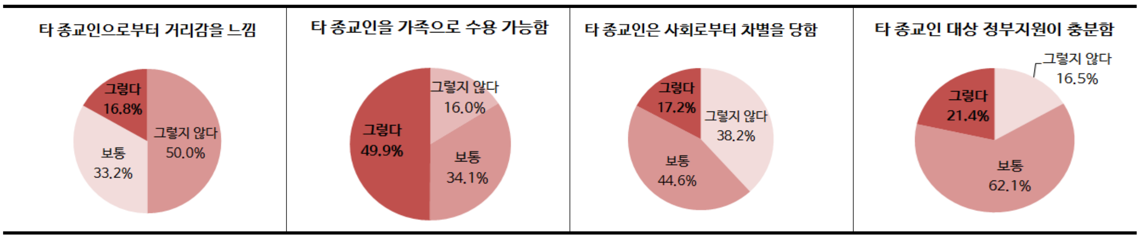


[그림 4-20]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장애인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은 16%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2.6%로 나타남

- 장애인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응답자(16%) 중 연령별로 30대(20.7%), 지역별로 서울지역(18.7%)가 가장 높음. 반면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는 46.6%이며 60대 이상(53.4%), 부산・경남지역(50.5%)이 높았음
- 장애인에 대한 수용정도 물음에 대해 ‘단순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76.6%,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가 74.1% 답했음. 반면에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50.7%였고, 14.7%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 30대가 상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답변이 높았음
-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의 인식정도는 72.6%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문항은 6.9%로 나타남
- 장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한 정도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은 28.4%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60세 이상, 지역별로 광주・전남북,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정부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34.3%로 나타났음

⑥ 타 종교인



[그림 4-21] 장애인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타종교인에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의 응답은 50%로 나타났으며, 타종교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하다고 21.4%가 답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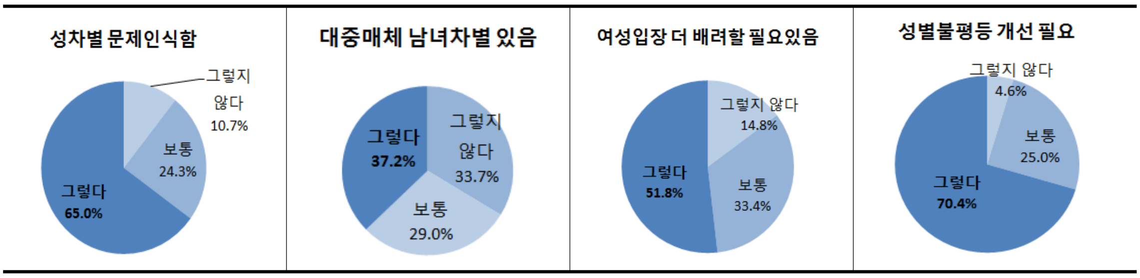
- 타종교인에 ‘거리감을 느낀다’는 16.8%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50%로 연령별로 2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지역,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타종교인에 대해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한 응답이 71.4%,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에 대해 68.2%로 나타났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응답은 49.9%로 나타남

• 타종교인의 사회적 차별의 인식정도는 17.2%로 낮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2%로 나타남

• 타종교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충분한 정도에 대해 '그렇다'의 응답은 21.4%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 30대, 지역별로 대전・충청권역, 학력별로 대학원 이상이 높게 나타났음. 반면에 정부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16.5%로 나타났음

⑦ 성별 불평등



[그림 4-22] 성별 불평등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성별불평등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 가 65.0%로 나오고, 성별불평등에 대한 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이 70.4%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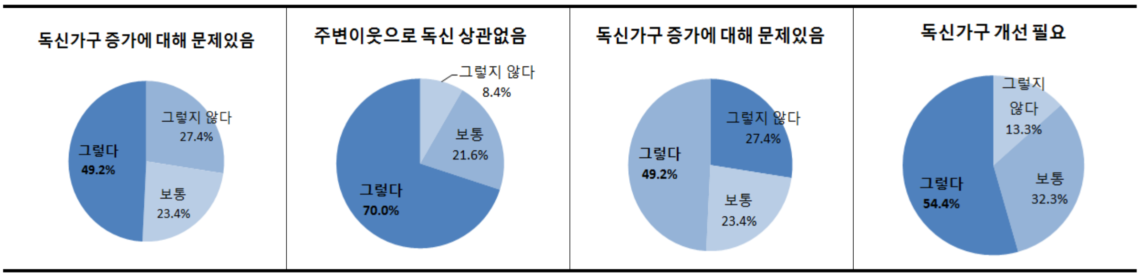
• 성별차별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이들은 남성(55.2%)보다 여성(75.1%)이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60.1%)보다 29세 이하(71.3%)가 높게 답했고, 지역별로 대구・경북지역(58%)이 낮은 반면 강원・제주지역(73.3%)이 높았음

•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성별차별에 대한 물음에 37.2%가 차별이 있다고 답했음. 여성(46.9%)이 남성(27.9%)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29세 이하(50.1%)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고, 지역별로 강원・제주지역(43%)이 가장 높았음

• 여성입장을 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은 51.8%로, 여성(64.6)이 남성(39.3%)보다 높았고, 지역별로 광주・전라지역(57.7%)이 가장 높았음

• 성별차별 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설문에 70.4%가 답했고, 20대가 74%가로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66.9%라고 낮게 답해서 대조를 이룸. 답변은 여성(80.7%)이, 지역별 강원・제주지역(43%)이 높았음

⑧ 독신가구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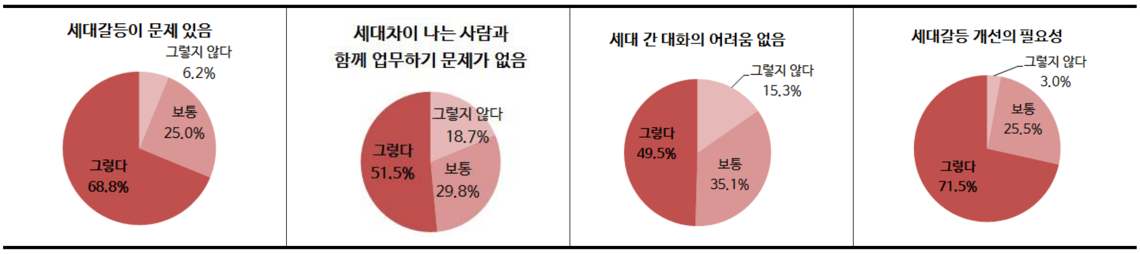


[그림 4-23] 독신가구 증가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독신가구의 증가에 대한 사회현상에 대해 ‘문제가 있다’를 49.2%가 답했고, 독신가구의 증가현상에 대한 대책 필요성은 54.4%로 나타남

- 독신가구의 증가현상이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29세 이하(30.4%)보다는 60세 이상(64.6%)에서 여성(42.3%)보다 남성(55.9%)이 높게 나옴
- ‘주변이웃에 독신들이 많이 살더라도 상관없냐’는 물음에 긍정적인 답변은 여성(75.9%)이 남성(64.4%)보다, 연령별로 20대(83.1)가 60세 이상(58.8%)보다, 지역별로 대구·경북(61.8%)이 두드러졌음
- 사회적으로 독신가구증가가 문제없지 않다는 답변이 36.8%로, 남성(40.1%), 60세 이상 노년층(51.4), 대전·충청권이 40.2%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독신가구의 대책 필요성은 60대 노년층에서 65.3%로 측정되었으며, 반면에 20대 청년층 27%는 독신가구의 사회현상에 대해 개선 필요가 없다고 보았음

⑨ 세대 간 갈등



[그림 4-24] 세대 간 갈등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세대 간 갈등 대한 사회 현상에 ‘문제가 있다’ 가 68.8%로 나오고, 갈등 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 가 71.5%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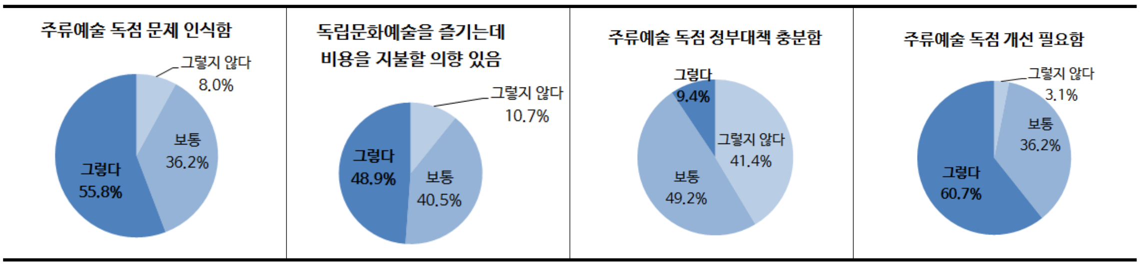
• 세대갈등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은 연령별로 60세 이상(81.4%)이 29세 이하(60.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별로 강원・제주지역(74.4%)로 높았음

•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내 이웃이어도 상관없다는 응답자가 73.9%이 반면에,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답변은 18.7%에 이름. 세대 간 중요한 업무를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답변은 여성(21.6%), 20대(25.8%)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고, 지역별로 광주・전라지역(23.4%)이 높게 나옴

• 세대 간 대화를 나누기 어렵지 않다는 답변은 49.5%이며, 남성(52.5%)이 여성(46.4%)보다 높았고, 연령별로 60세 이상(55.6%)이 가장 높게 측정됐음. 반면 20대, 30대 젊은층이 노년층보다 상대적으로 대화의 어려움을 느꼈음

• 세대 간 갈등에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45.8%가 답했고,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71.6%로 높았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에는 60대 이상,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음

⑩ 주류예술문화 독점



[그림 4-25] 주류예술문화 독점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주류예술문화의 독점에 대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55.8%)가 높게 나왔고, 주류예술문화 독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60.7%)이 두드러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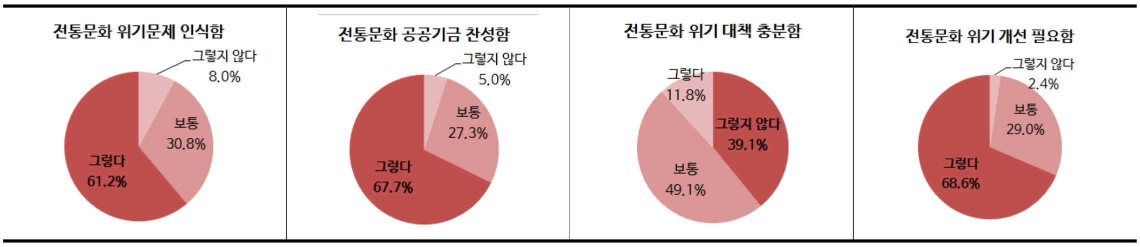
• 주류예술문화의 독점에 대해 문제있다는 평가는 연령별 40대(59.4%), 지역별 강원・제주권(70.2%)이 높았으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8%에 불과함

• 독립문화예술을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의 응답은 48.9%로, 20대 젊은층(56.4%), 강원・제주권에서 두드러졌음.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한다는 응답은 58.8%로, 지역별 강원・제주권(62.82%), 학력별로 대학원이상(65.8%)이 높았음

• 주류예술문화의 독점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9.4%였고,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41.4%로 큰 차이가 났음

• 주류문화예술 독점에 대한 개선 필요정도는 60.7%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강원・제주권(69.8%), 학력별로 대졸(64%)이 높았음. 개선할 필요없다는 의견은 3.1%로 조사됨

⑪ 전통문화 위기



[그림 4-26] 전통문화 위기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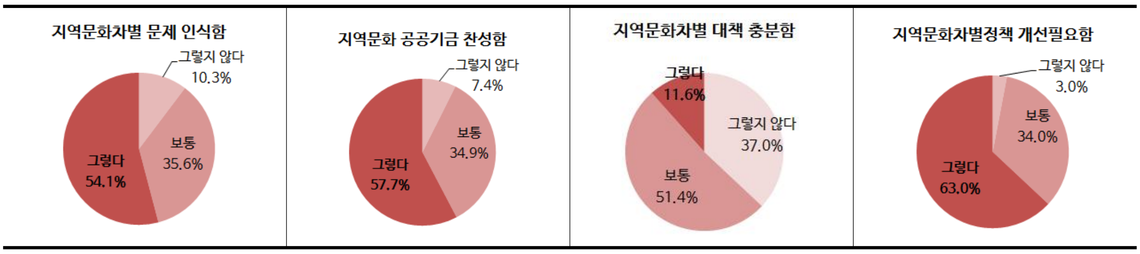
➡ 전통문화의 위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61.1%)고 답했고, 전통문화의 위기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성(68.6%)이 있다고 평가되었음

• 전통문화의 위기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는 답변은 연령별로 60세 이상(63.3%)이 29세 이하(56.4%)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별로 강원・제주지역(67.4%)이 두드러졌음

• 전통문화 보존에 공공기금이 쓰이는 데 찬성한다는 답변은 67.8%이었고, 전통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에 대한 답변은 61.4%였음. 응답자는 연령별로 50대, 지역별로 강원・제주에서 높았음

• 전통문화 위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는 답변이 11.8%였던 반면에, 충분치 않다는 답변은 39.1%로 조사됨. 전통문화의 위기 현상에 대한 개선필요성은 68.6%로 높게 나옴

⑫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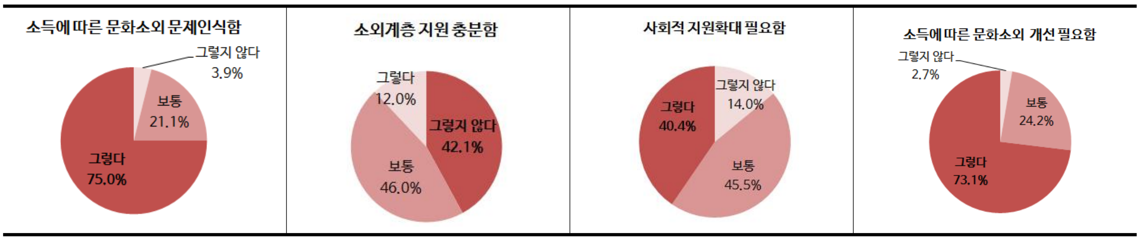


[그림 4-27] 지역문화 차별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지역문화에 대한 차별에 대한 설문에 '문제가 있다'(54.1%)가 높게 답했고, 지역문화차별에 대한 개선 필요성(63.1%)이 높게 나왔음

- 지역문화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역별로 광주・전남북(66.7%)이 높았고, 연령별로 30대(60.8%)가 높게 나왔음
- 지역문화의 차별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에 57.7%가 긍정적으로 답했고, 지역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55.2%로 조사되었음. 공공기금의 지원 문항은 연령별로 50대, 지역문화의 비용지출 문항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두 문항 모두 광주・전라권이 가장 높게 나왔음
- 지역문화 차별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1.6%인 반면에, 충분치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은 37%로 평가해서 대조를 이루었음
- 지역문화 차별에 대한 정책 개선 필요성은 63.1%, 30대(65.4%), 강원・제주지역(68.6%)에서 높게 나왔음. 51.4%는 '보통'으로 평가했고, 37%는 그렇지 않다고 했음

⑬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그림 4-28]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에 대한 대국민 문화다양성 조사결과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55.0%가 답했고,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관련 정책개선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평가는 73.1%로 나타남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관련 문제의식은 연령별 40대(79.4%), 지역별 강원・제주(81.4%)가 가장 높았음
-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지원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2%에 불과했음. 반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은 42.1%가 기록됐고, 광주・전남북(37.8%), 50대(45.9%)에서 높았음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사업의 모금행사 참여에 대해 남성(43.8%), 50대(45.9%), 대전・충청권(46.6%)이 높았음
-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73.1%였으며, 24.2%는 보통으로 답했고, 2.7%만이 개선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음

제3절 소수자 인식분석

1. 개별 항목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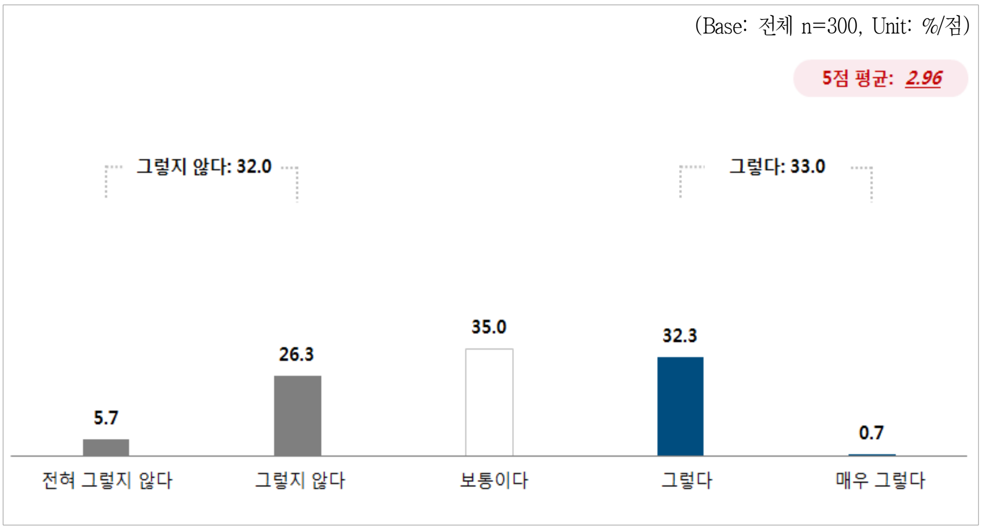
1) 외국인근로자

(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①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2.96점(33.0%)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33.0%,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32.0%로 나타남



[그림 4-29]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외국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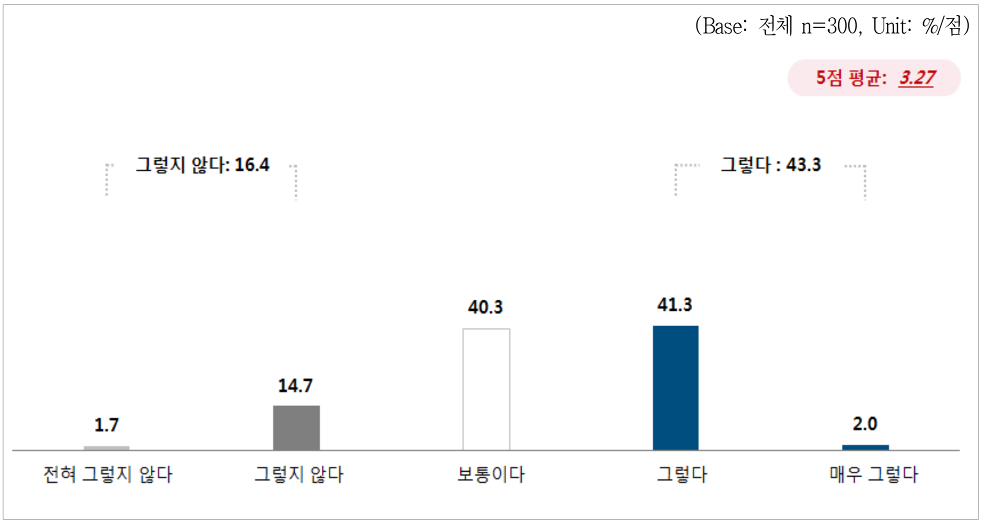
<표 4-22>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7	26.3	35.0	32.3	0.7	32.0	35.0	33.0	2.96

②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27점(43.3%)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3.3%,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6.4%로 나타남



[그림 4-30]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외국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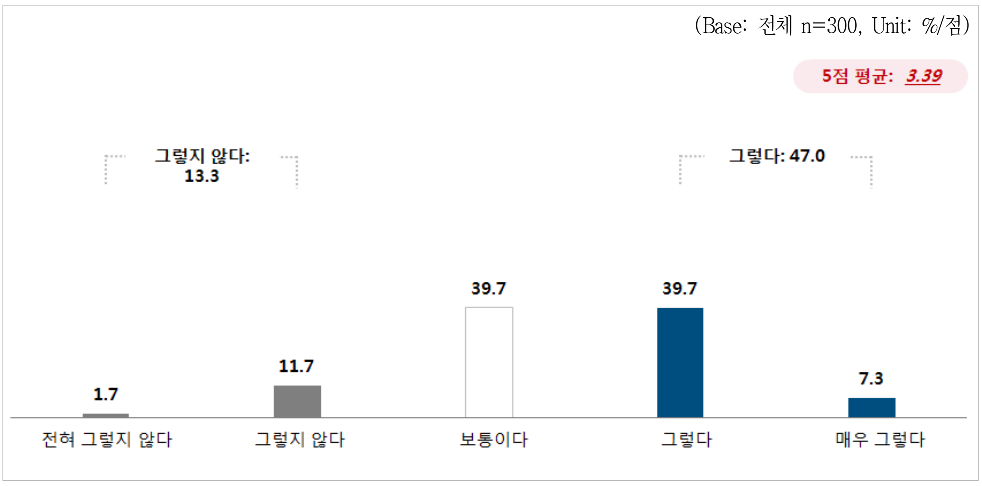
<표 4-23>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7	14.7	40.3	41.3	2.0	16.3	40.3	43.3	3.27

③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39점(47.0%)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7.0%,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3.3%로 나타남



[그림 4-31]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외국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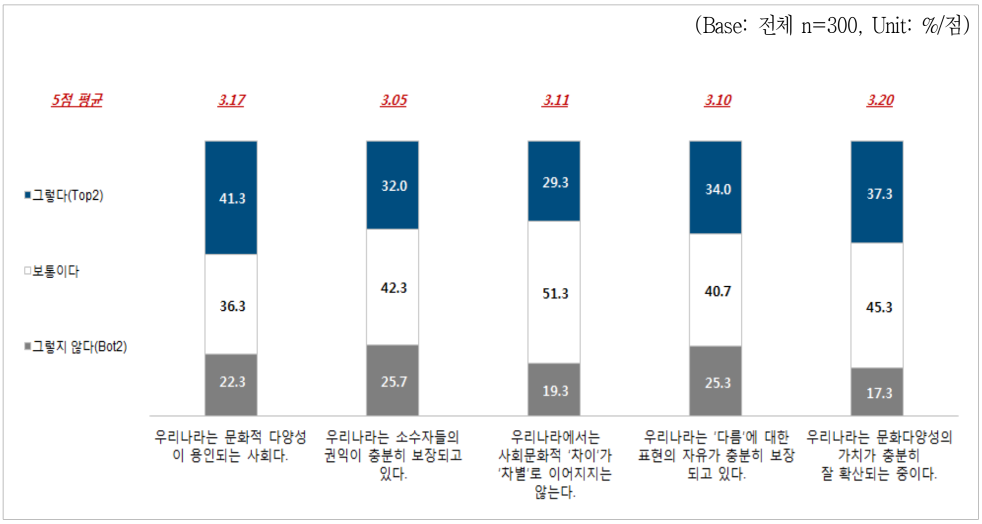
<표 4-24>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1.7	11.7	39.7	39.7	7.3	13.3	39.7	47.0	3.39

④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에 대한 응답이 3.20점(3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3.17점), ‘한국은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3.11점),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3.10점),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3.05점)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항목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32]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외국인근로자

<표 4-25>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외국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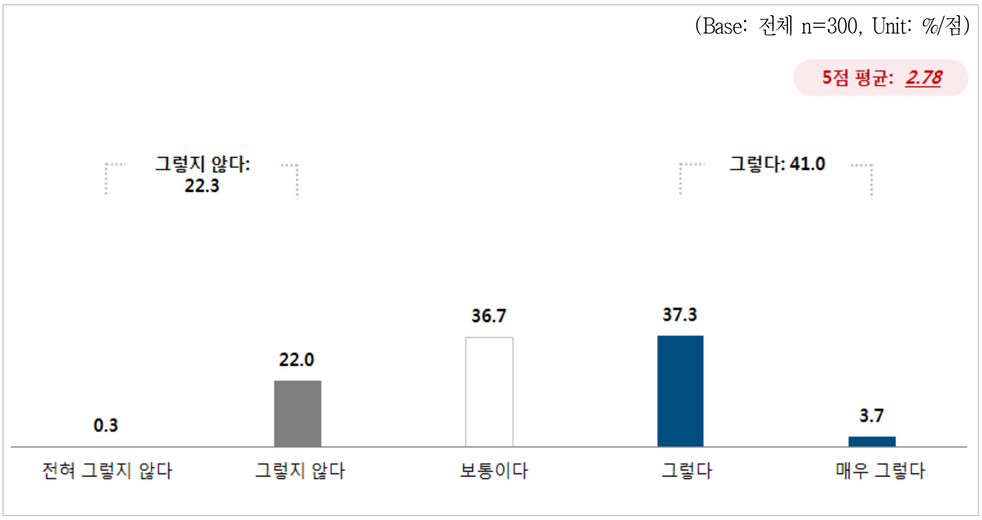
구분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2.7	19.7	36.3	40.7	0.7	22.3	36.3	41.3	3.17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2.3	23.3	42.3	30.7	1.3	25.7	42.3	32.0	3.05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3	17.0	51.3	26.0	3.3	19.3	51.3	29.3	3.11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0.7	24.7	40.7	32.3	1.7	25.3	40.7	34.0	3.10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3	16.0	45.3	36.0	1.3	17.3	45.3	37.3	3.20

(2)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①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2.78점(41.0%)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1.0%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22.3%로 나타남



[그림 4-33]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외국인근로자

<표 4-26>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3	22.0	36.7	37.3	3.7	22.3	36.7	41.0	2.78

② 수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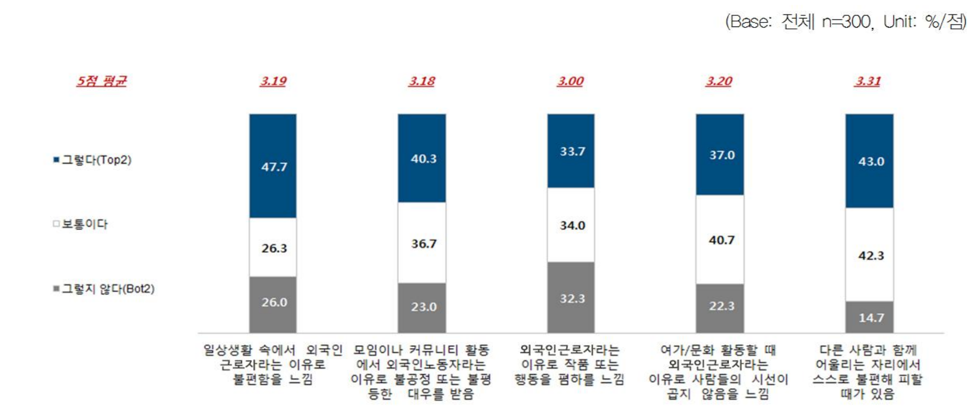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 수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에 대한 응답이 3.31점(43.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여가/문화 활동할 때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낌’(3.20점),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낌’(3.19점),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불공정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3.18점),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적 있다'(3.00점) 순으로 나타남

• 국민 수용 정도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의 비율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 있음' 항목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n=300, Unit: %/점)



[그림 4-3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외국인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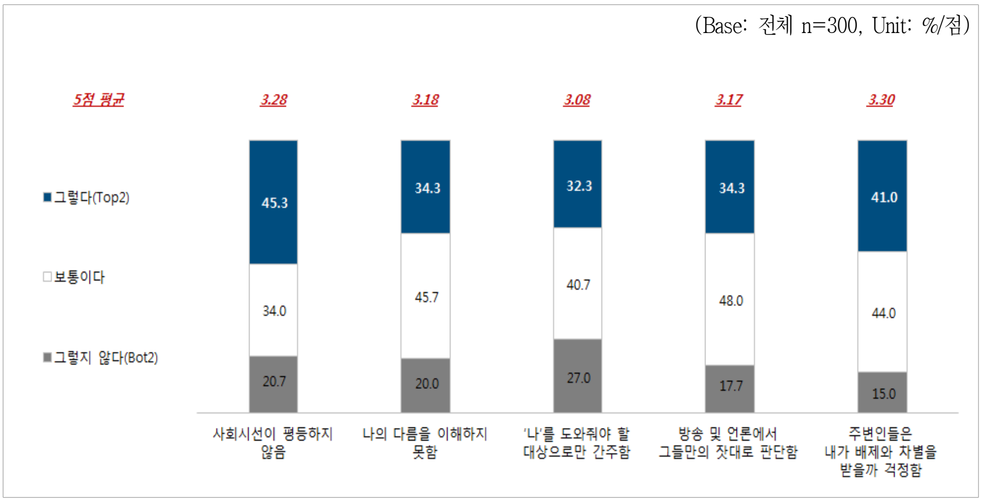
<표 4-2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국민 수용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낌	6.3	19.7	26.3	43.7	4.0	26.0	26.3	47.7	3.19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불공정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	6.3	16.7	36.7	33.3	7.0	23.0	36.7	40.3	3.18
외국인근로자 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음	4.7	27.7	34.0	30.7	3.0	32.3	34.0	33.7	3.00
여가/문화 활동할 때 외국인근로자 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낌	1.3	21.0	40.7	30.3	6.7	22.3	40.7	37.0	3.20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불편해 피할 때가 있음	0.3	14.3	42.3	39.7	3.3	14.7	42.3	43.0	3.31

③ 포용도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주변인들은 내가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에 대한 응답이 3.30점(41.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3.28점),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3.18점),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3.17점),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3.08점)의 순으로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35] 사회 포용정도 - 외국인근로자

<표 4-28> 사회 포용정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사회 포용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	1.3	19.3	34.0	41.0	4.3	20.7	34.0	45.3	3.28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	0.3	19.7	45.7	30.3	4.0	20.0	45.7	34.3	3.18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	0.3	26.7	40.7	29.0	3.3	27.0	40.7	32.3	3.08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	1.3	16.3	48.0	32.3	2.0	17.7	48.0	34.3	3.17
주변인들은 내가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	0.0	15.0	44.0	37.3	3.7	15.0	44.0	41.0	3.30

④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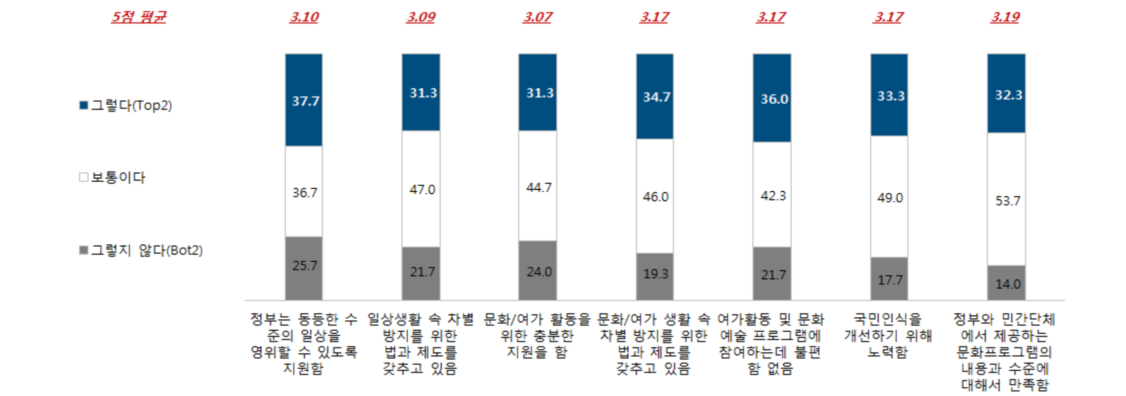
➡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만족한다'가 3.19점(3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3.17점,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3.10점,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 3.07점으로 나타남

- 정책적 인프라에 관한 만족도는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3.17점,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3.09점으로 각각 조사됨

-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 3.19점,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 3.17점으로 나타남

(Base: 전체 n=300, Unit: %/점)



[그림 4-36]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외국인근로자

<표 4-29>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외국인근로자

구분	지원정책 만족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4.3	21.3	36.7	35.3	2.3	25.7	36.7	37.7	3.10
일상생활속 차별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3.0	18.7	47.0	28.7	2.7	21.7	47.0	31.3	3.09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	2.3	21.7	44.7	29.0	2.3	24.0	44.7	31.3	3.07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2.7	16.7	46.0	30.7	4.0	19.3	46.0	34.7	3.17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	2.0	19.7	42.3	31.3	4.7	21.7	42.3	36.0	3.17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1.0	16.7	49.0	31.3	2.0	17.7	49.0	33.3	3.17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 만족함	0.3	13.7	53.7	31.0	1.3	14.0	53.7	32.3	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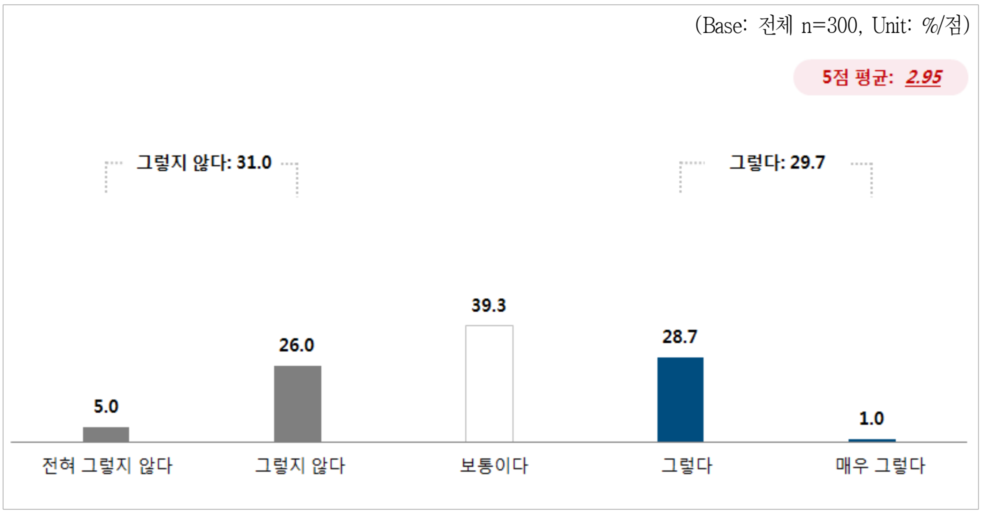
2) 결혼이주민

(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①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2.95점(29.7%)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29.7%,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31.0%로 나타남



[그림 4-37]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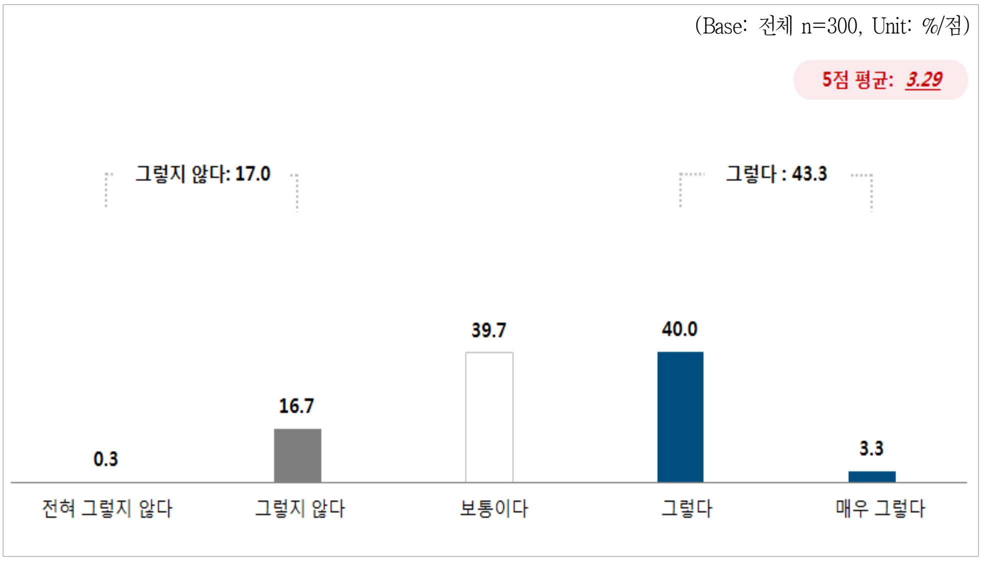
<표 4-30>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결혼이주민

구분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0	26.0	39.3	28.7	1.0	31.0	39.3	29.7	2.97

②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29점(43.3%)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3.3%,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7.0%로 나타남



[그림 4-38]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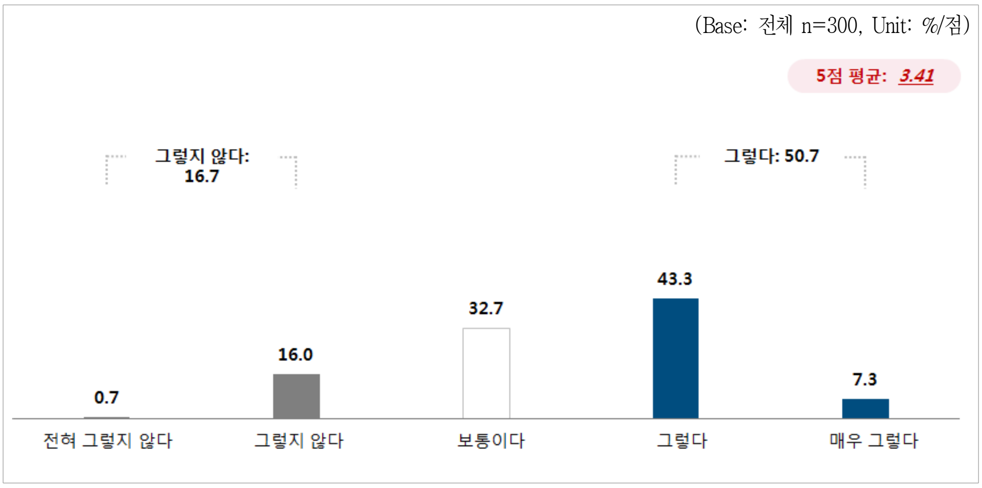
<표 4-31>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결혼이주민

구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3	16.7	39.7	40.0	3.3	17.0	39.7	43.3	3.29

③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41점(50.7%)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50.7%,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16.7%로 나타남



[그림 4-39]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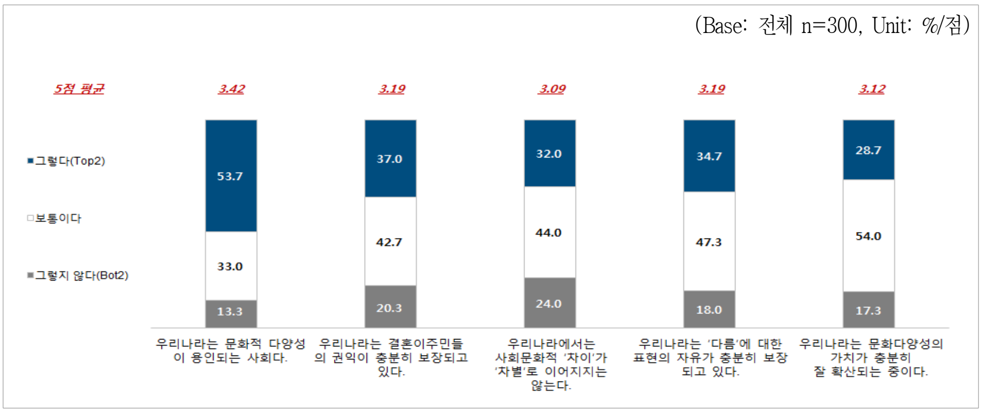
<표 4-32>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결혼이주민

구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7	16.0	32.7	43.3	7.3	16.7	32.7	50.7	3.41

④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에 대한 응답이 3.42점(5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결혼이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와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가 각각 3.19점,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가 3.12점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가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0]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결혼이주민

<표 4-3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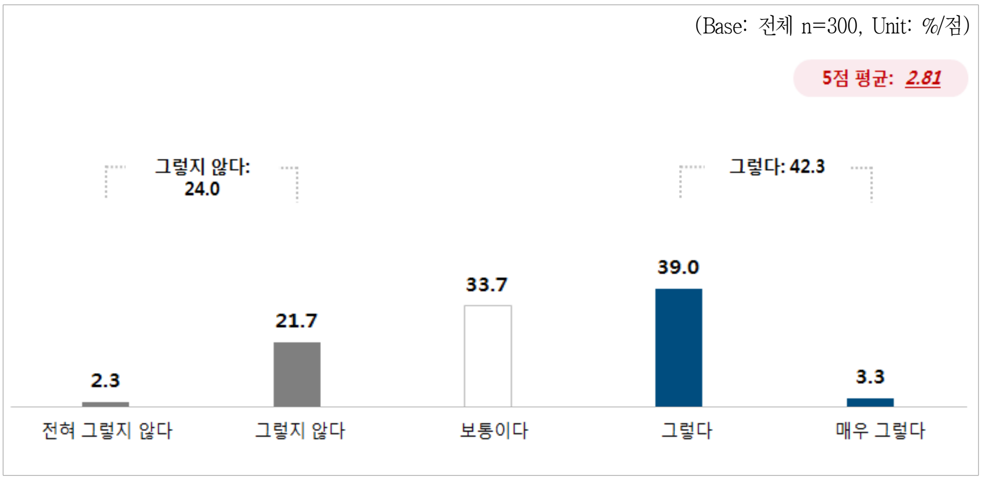
구분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1.3	12.0	33.0	50.7	3.0	13.3	33.0	53.7	3.42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0	19.3	42.7	33.7	3.3	20.3	42.7	37.0	3.19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7	22.3	44.0	29.0	3.0	24.0	44.0	32.0	3.09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0.7	17.3	47.3	32.0	2.7	18.0	47.3	34.7	3.19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0	16.3	54.0	26.7	2.0	17.3	54.0	28.7	3.12

(2)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①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2.81점(42.3%)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42.3%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24.0%로 나타남



[그림 4-41]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결혼이주민

<표 4-34>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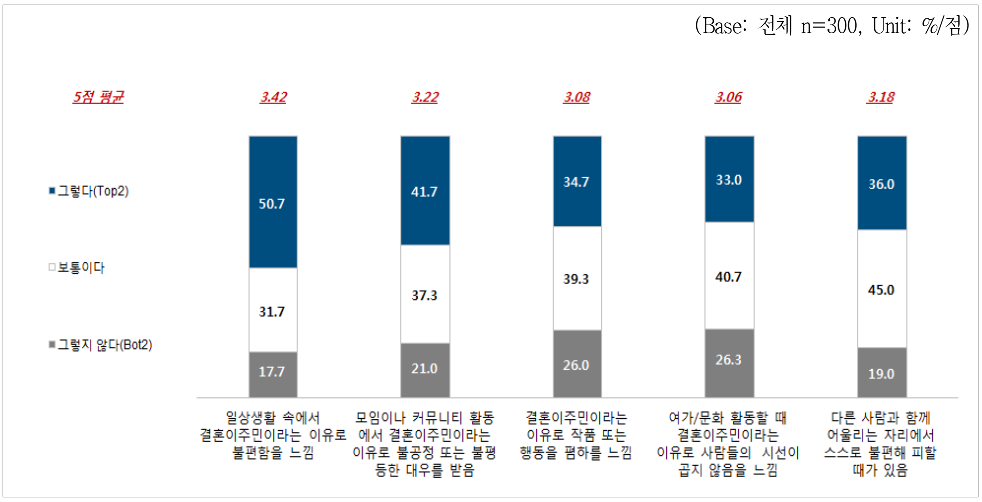
구분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3	21.7	33.7	39	3.3	24.0	33.7	42.3	2.81

② 수용도

➡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낌'에 대한 응답이 3.42점(50.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평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3.22점),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불편해 피할 때가 있음'(3.18점),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적 있다'(3.08점) 순으로 나타남

• 국민 수용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여가/문화 활동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의 문항이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42]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결혼이주민

<표 4-35>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 정도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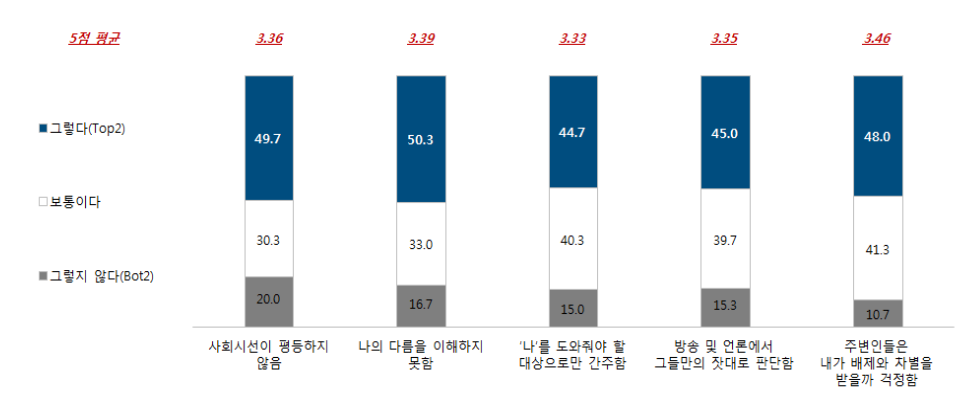
구분	국민 수용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낌	1.0	16.7	31.7	40.3	10.3	17.7	31.7	50.7	3.42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	2.3	18.7	37.3	37.7	4.0	21.0	37.3	41.7	3.22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음	4.0	22.0	39.3	31.7	3.0	26.0	39.3	34.7	3.08
여가/문화 활동할 때 결혼이주민이 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낌	2.7	23.7	40.7	30.7	2.3	26.3	40.7	33.0	3.06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불편해 피할 때가 있음	0.3	18.7	45.0	34.3	1.7	19.0	45.0	36.0	3.18

③ 포용도

➡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주변인들은 내가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에 대한 응답이 3.46점(48.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3.39점),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3.36점),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3.35점)의 순으로 나타남
-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은 3.33점으로 타 문항보다 낮게 나타남
- 사회 포용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이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n=300, Unit: %/점)



[그림 4-43] 사회 포용정도 –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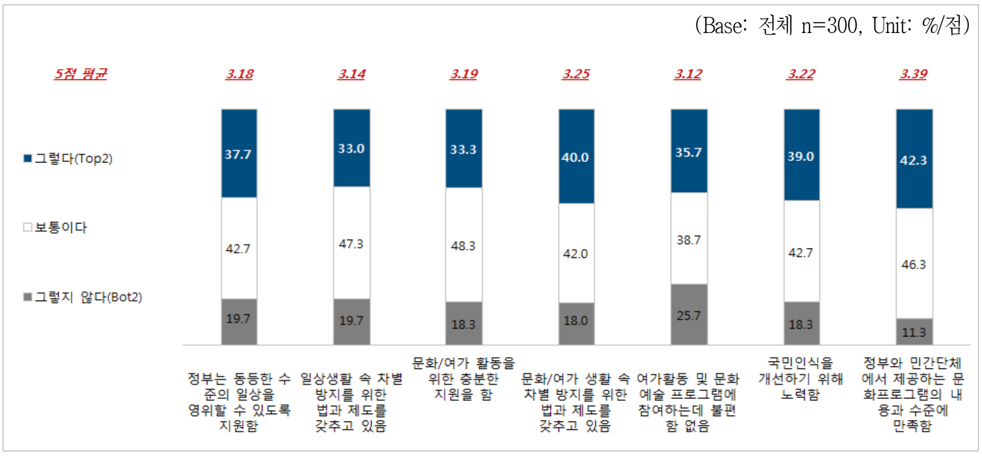
<표 4-36> 사회 포용정도 – 결혼이주민

구분	사회 포용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	1.3	18.7	30.3	42.0	7.7	20.0	30.3	49.7	3.36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	0.3	16.3	33.0	44.3	6.0	16.7	33.0	50.3	3.39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	0.3	14.7	40.3	40.7	4.0	15.0	40.3	44.7	3.33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	1.0	14.3	39.7	39.0	6.0	15.3	39.7	45.0	3.35
주변인들은 내가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	1.3	9.3	41.3	38.3	9.7	10.7	41.3	48.0	3.46

④ 만족도

➡ 결혼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만족한다’가 3.39점(42.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3.18점,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은 3.19점,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이 3.22점으로 나타남
- 인프라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은 3.25점, ‘일상생활 속 차별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은 3.14점으로 나타남
-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이 3.39점으로 가장 높았으나,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은 3.1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4-44]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결혼이주민

<표 4-37>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 - 결혼이주민

구분	지원정책 만족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2.3	17.3	42.7	35.3	2.3	19.7	42.7	37.7	3.18
일상 생활속 차별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1.7	18.0	47.3	30.7	2.3	19.7	47.3	33.0	3.14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	1.7	16.7	48.3	28.0	5.3	18.3	48.3	33.3	3.19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2.0	16.0	42.0	35.0	5.0	18.0	42.0	40.0	3.25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	3.0	22.7	38.7	30.7	5.0	25.7	38.7	35.7	3.12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1.7	16.7	42.7	35.7	3.3	18.3	42.7	39.0	3.22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	0.7	10.7	46.3	33.3	9.0	11.3	46.3	42.3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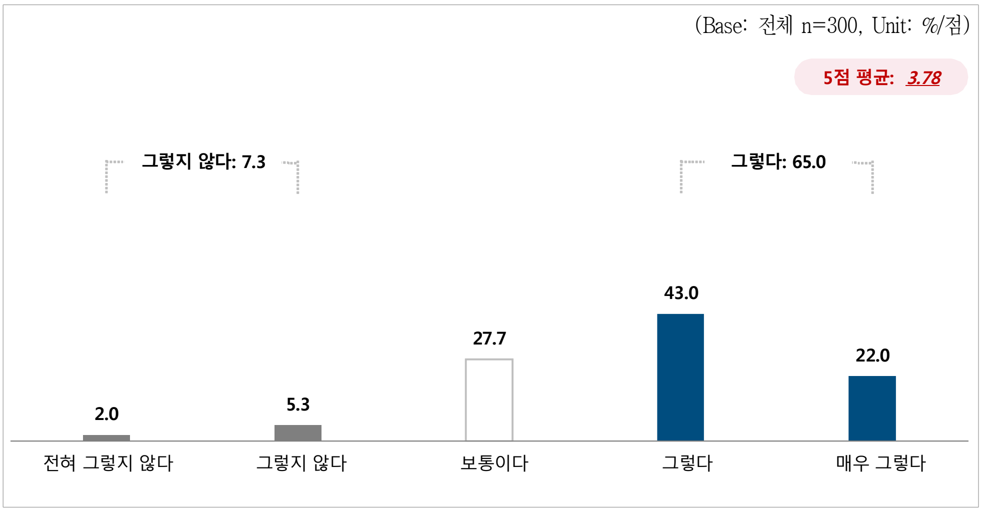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

(1)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①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78점(65.0%)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65.0%,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7.3%로 나타남



[그림 4-45]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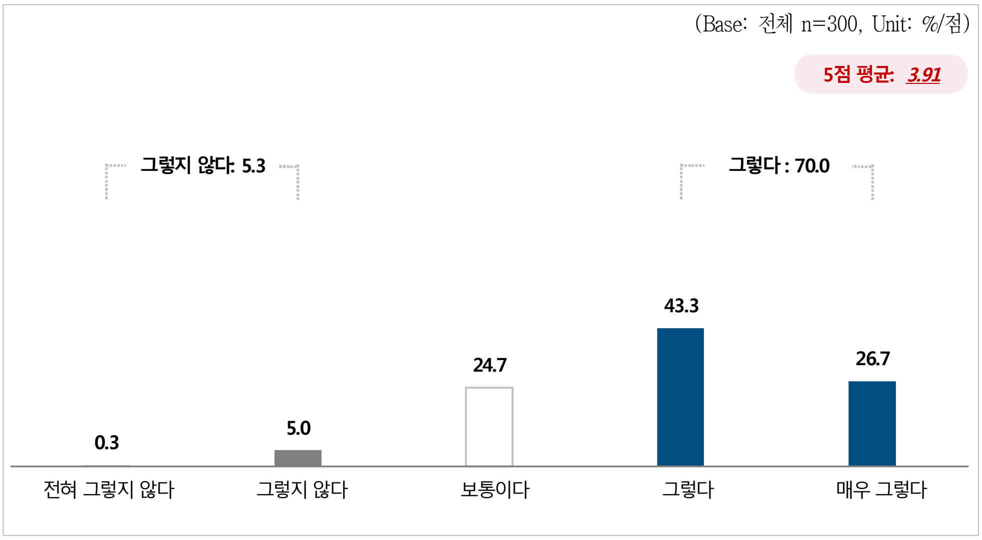
<표 4-38>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북한이탈주민

구분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0	5.3	27.7	43.0	22.0	7.3	27.7	65.0	3.78

②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91점(70.0%)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0.0%,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5.3%로 나타남



[그림 4-46]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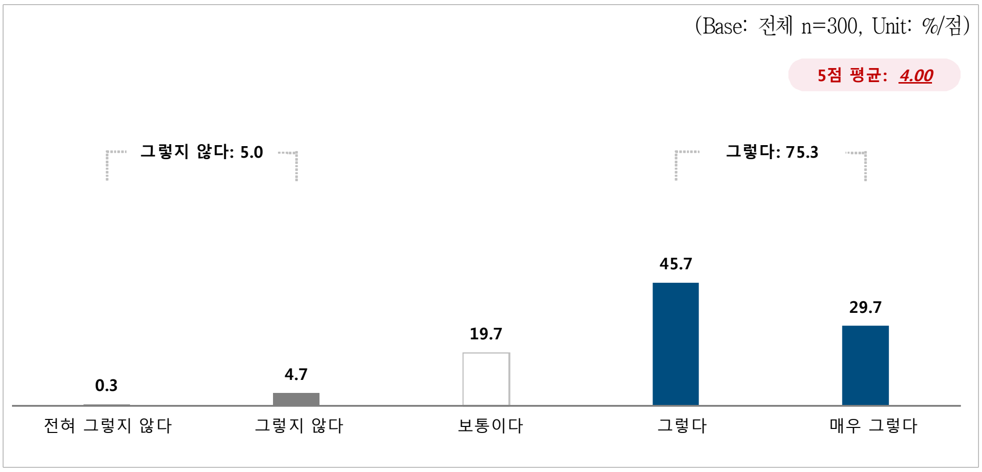
<표 4-39>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 북한이탈주민

구분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3	5.0	24.7	43.3	26.7	5.3	24.7	70.0	3.91

③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4.00점(75.3%)으로 나타남

- 세부 결과로 살펴보면,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75.3%,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는 5.0%로 나타남



[그림 4-47]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북한이탈주민

<표 4-40>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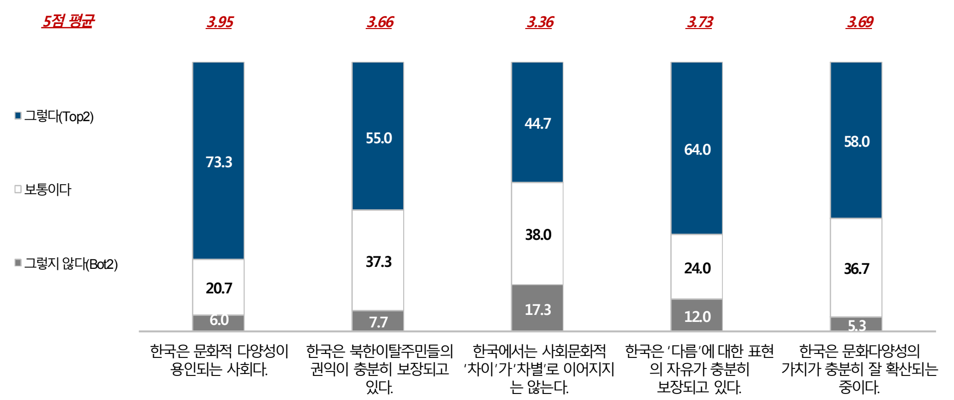
구분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0.3	4.7	19.7	45.7	29.7	5.0	19.7	75.3	4.00

④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에 대한 응답이 3.95점(7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한국은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3.73점),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3.69점),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3.66점),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3.36점)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가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남

(Base: 전체 n=300, Unit: %/점)



[그림 4-48]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북한이탈주민

<표 4-41>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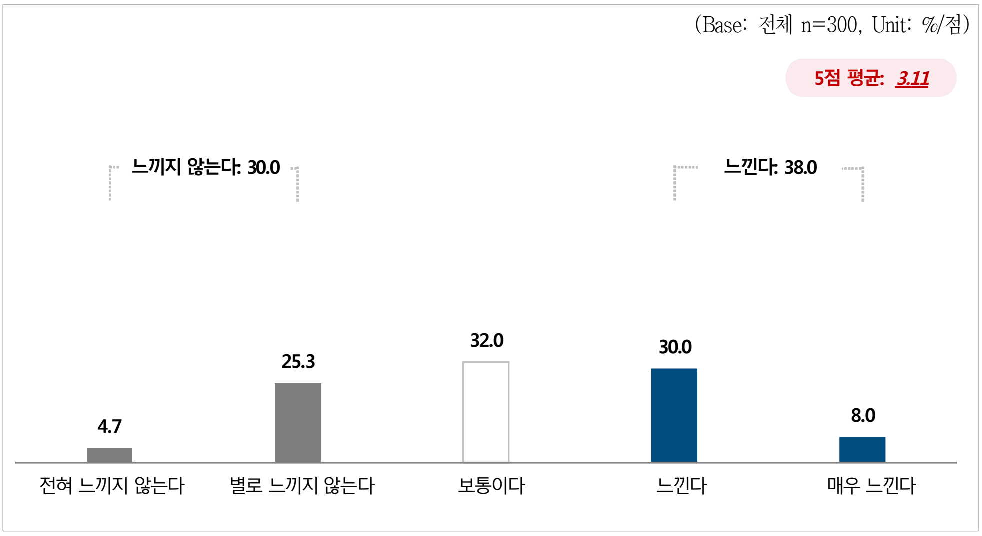
구분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0.7	5.3	20.7	45.3	28.0	6.0	20.7	73.3	3.95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3	6.3	37.3	35.3	19.7	7.7	37.3	55.0	3.66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7	14.7	38.0	33.0	11.7	17.3	38.0	44.7	3.36
한국은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3	10.7	24.0	42.0	22.0	12.0	24.0	64.0	3.73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0.7	4.7	36.7	41.3	16.7	5.3	36.7	58.0	3.69

(2)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① 친밀도

➡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5점 평균 점수는 3.11점(38.0%)으로 나타남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느낀다(느낀다+매우 느낀다)'는 38.0%로 나타났으며, '느끼지 않는다(별로 느끼지 않는다+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30.0%로 나타남



[그림 4-49]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북한이탈주민

<표 4-42>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 북한이탈주민

구분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느낀다	매우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보통】	【느낀다】	[5점 평균]
전체	4.7	25.3	32.0	30.0	8.0	30.0	32.0	38.0	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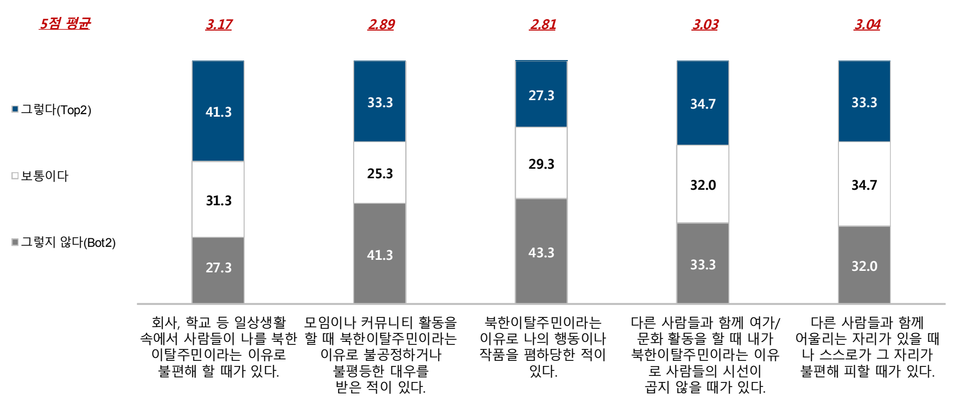
② 수용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할 때가 있다'에 대한 응답이 3.17점(41.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3.04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문화 활동을 할 때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다.'(3.0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2.89점)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다'(2.81점)는 타 문항에 비해 낮은 점수로 나타남

(Base: 전체 n=300, Unit: %/점)



[그림 4-50] 국민 수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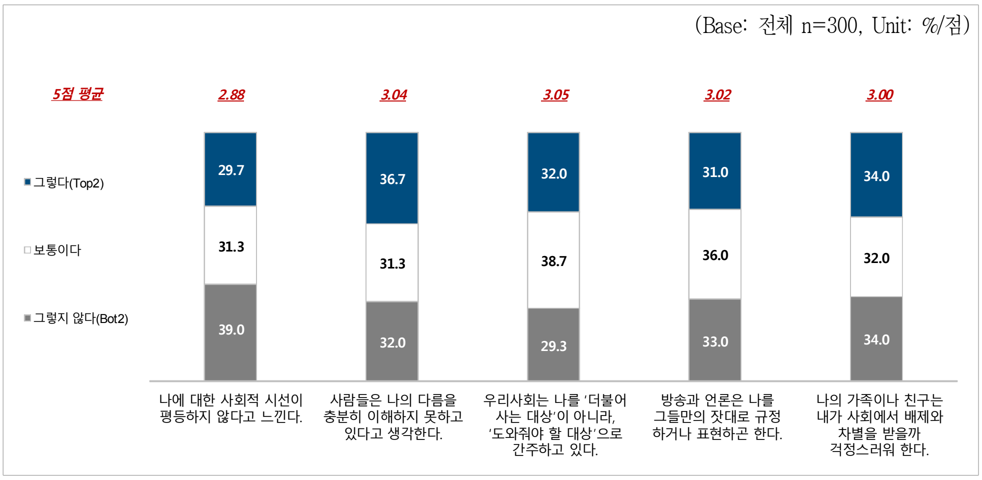
<표 4-43> 국민 수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구분	국민 수용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할 때가 있다.	5.3	22.0	31.3	33.0	8.3	27.3	31.3	41.3	3.17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9.0	32.3	25.3	27.7	5.7	41.3	25.3	33.3	2.89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다.	10.0	33.3	29.3	20.3	7.0	43.3	29.3	27.3	2.8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문화 활동을 할 때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다.	7.7	25.7	32.0	25.0	9.7	33.3	32.0	34.7	3.03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	7.7	24.3	34.7	23.0	10.3	32.0	34.7	33.3	3.04

③ 포용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사회는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주어야 할 대상을 간주하고 있다'에 대한 응답이 3.05(32.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한다'(3.04점),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한다'(3.02점),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한다'(3.00점),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2.88점) 순으로 나타남
- 사회 포용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응답한 결과를 살펴보면,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가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51] 사회 포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표 4-44> 사회 포용정도 – 북한이탈주민

구분	사회 포용정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	7.3	31.7	31.3	24.7	5.0	39.0	31.3	29.7	2.88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3	26.7	31.3	32.0	4.7	32.0	31.3	36.7	3.04
우리사회는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3.3	26.0	38.7	26.3	5.7	29.3	38.7	32.0	3.05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한다.	3.7	29.3	36.0	23.3	7.7	33.0	36.0	31.0	3.02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한다.	6.0	28.0	32.0	27.7	6.3	34.0	32.0	34.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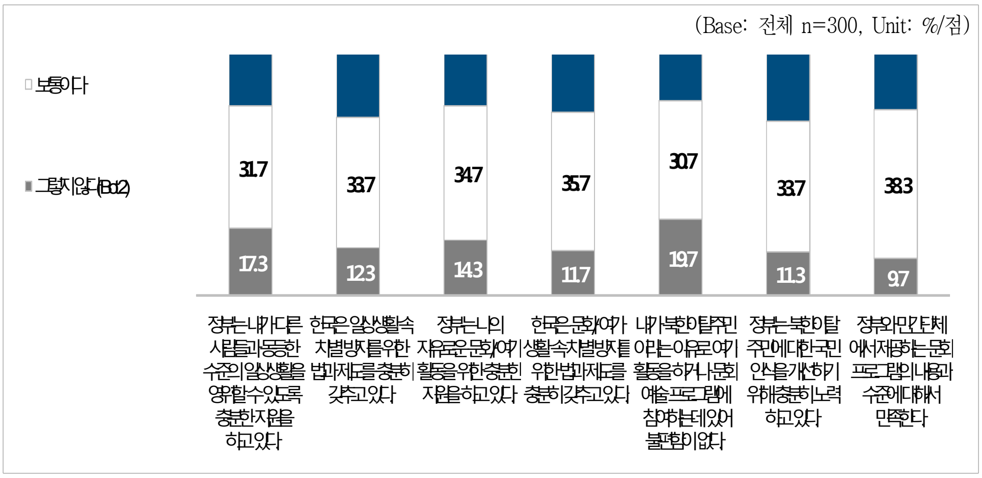
④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에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가 3.53점(5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함’ 3.53점,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 3.44점,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함’ 3.43점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인프라에 관한 만족도는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3.48점,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음’ 3.47점으로 각각 조사됨

-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만족도는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 3.51점,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 3.38점으로 나타남



[그림 4-52] 지원정책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

<표 4-45> 지원정책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

구분	지원정책 만족도 (n=300, %, 5점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정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3	15.0	31.7	39.7	11.3	17.3	31.7	51.0	3.43
한국은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2.0	10.3	33.7	45.7	8.3	12.3	33.7	54.0	3.48
정부는 나의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2.7	11.7	34.7	41.3	9.7	14.3	34.7	51.0	3.44
한국은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3.0	8.7	35.7	43.3	9.3	11.7	35.7	52.7	3.47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여가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	2.7	17.0	30.7	39.0	10.7	19.7	30.7	49.7	3.38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2.0	9.3	33.7	43.7	11.3	11.3	33.7	55.0	3.53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	2.0	7.7	38.3	41.7	10.3	9.7	38.3	52.0	3.51

2. 종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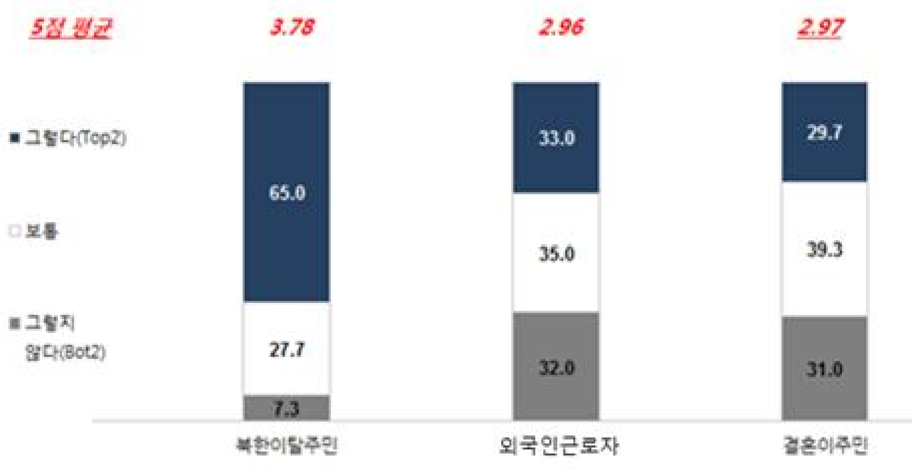
1) 소수자의 일반인식 분석

①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한 인지도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3.78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이주민(2.97점), 외국인근로자(2.96점)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를 인지(그렇다+매우 그렇다)하고 있는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5.0%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외국인근로자(33.0%)와 결혼이주민(29.7%)의 경우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에 대한 인지율(그렇다+매우 그렇다)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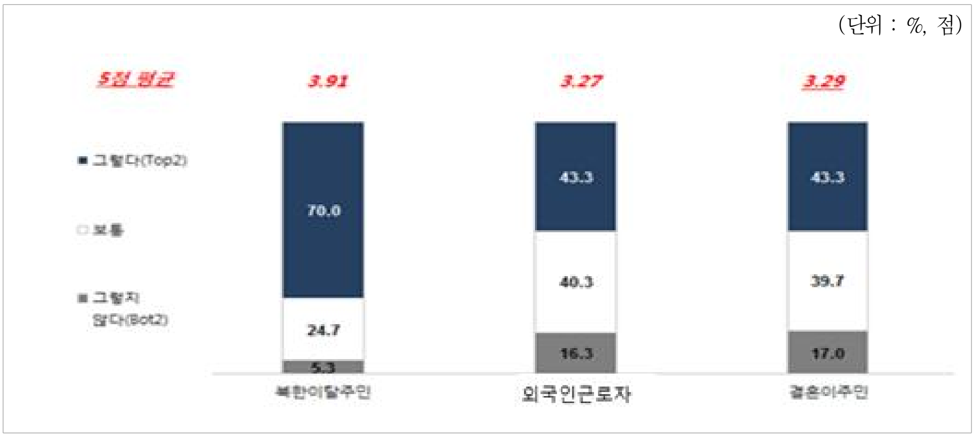
[그림 4-53]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교차분석)

②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3.91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이주민(3.29점), 외국인근로자(3.27점)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동의(그렇다+매우 그렇다)하고 있는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응답자의 70.0%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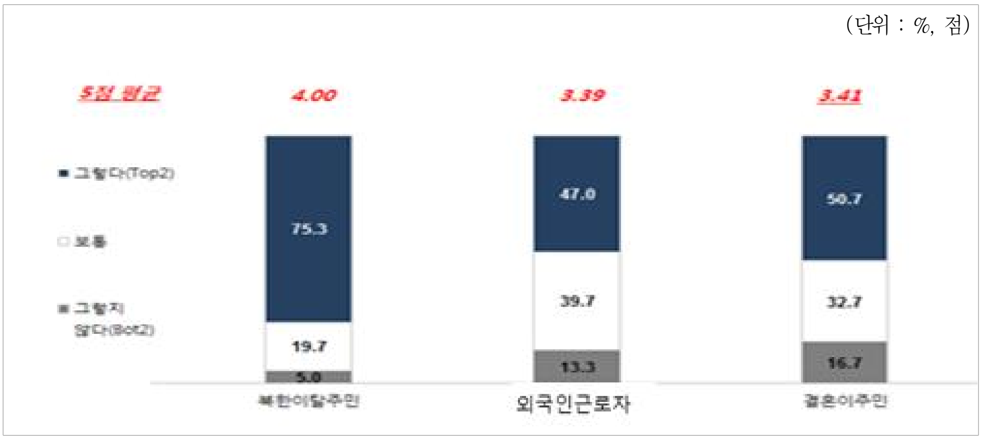
한편,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은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한 동의한다(그렇다+매우 그렇다, 각각 43.3%)는 전체 응답에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54]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교차분석)

③ 문화다양성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높은 4.00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결혼이주민(3.41점), 외국인근로자(3.39점)의 순으로 나타남
-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하다(그렇다+매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을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응답자의 75.3%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편,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47.0%)와 결혼이주민(50.7%)은 '그렇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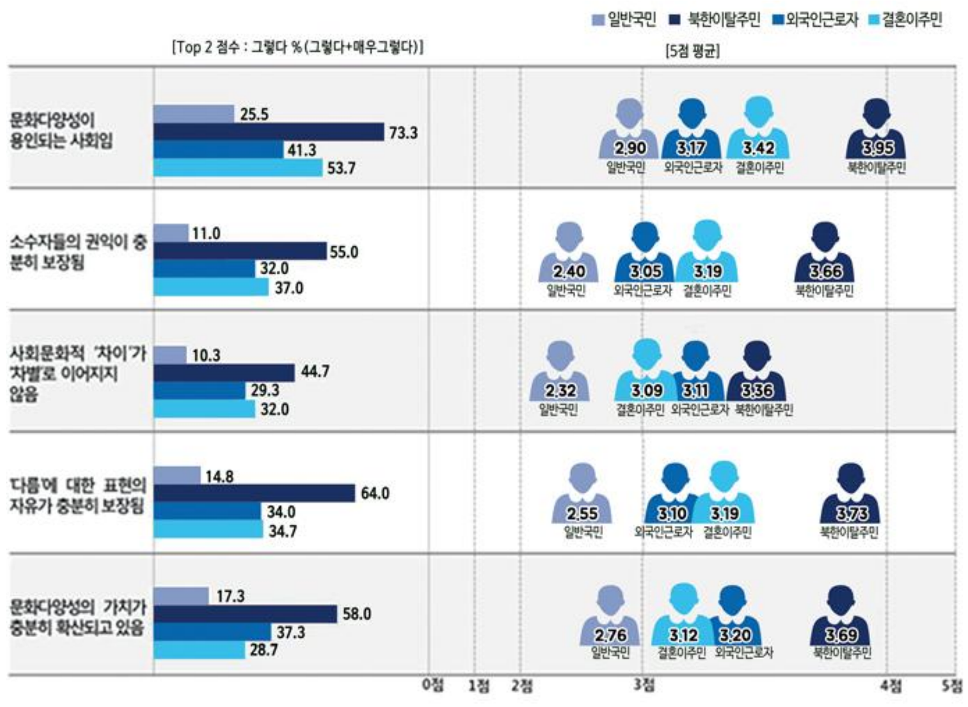


[그림 4-55] 문화다양성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교차분석)

④ 우리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을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5점 평균 기준) 모든 항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항목에서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이다'(3.95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3.36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항목에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고 있다'(3.20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3.05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결혼이주민의 경우 문화다양성 의식수준 항목에서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이다'(3.42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3.09점)에 대한 항목이 가장 낮게 나타남

(단위 : %, 점)



[그림 4-56]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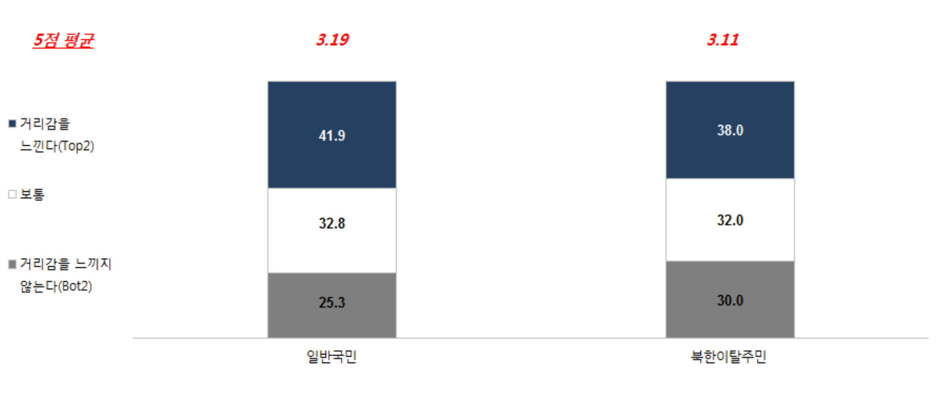
2) 소수자의 정책구현 분석

(1) 소수자에 대한 친밀도

①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친밀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로 물어본 결과, 일반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가 3.19점으로 나타난 반면,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느끼는 거리감은 3.11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됨
- 서로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거리감을 느낀다+매우 거리감을 느낀다)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국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느끼는 거리감이 41.9%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로부터 느끼는 거리감 38.0%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 %, 점)



[그림 4-57]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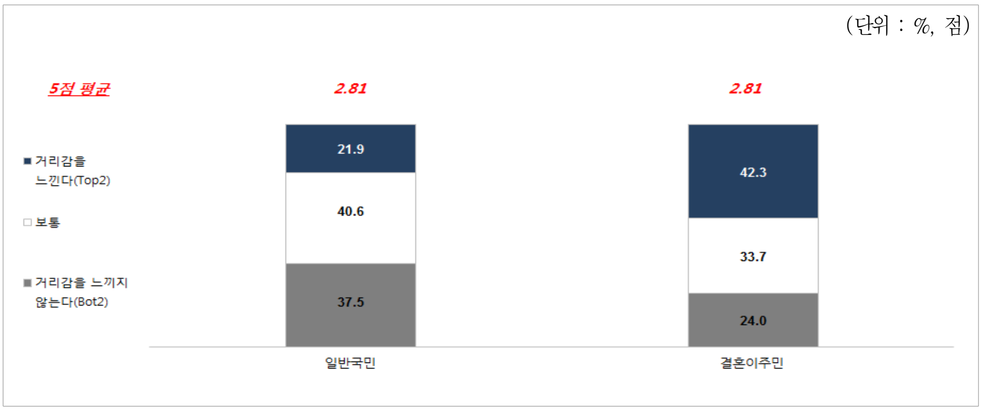
②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외국인근로자

-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친밀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로 물어본 결과, 일반국민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가 3.18점으로 나타난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스스로 느끼는 거리감이 2.78점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서로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거리감을 느낀다+매우 거리감을 느낀다)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국민이 외국인근로자에 느끼는 거리감이 42.9%로 외국인근로자가 우리 사회로부터 느끼는 거리감 22.3%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58]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외국인근로자(교차분석)

③ 친밀도 수준: 일반국민과 결혼이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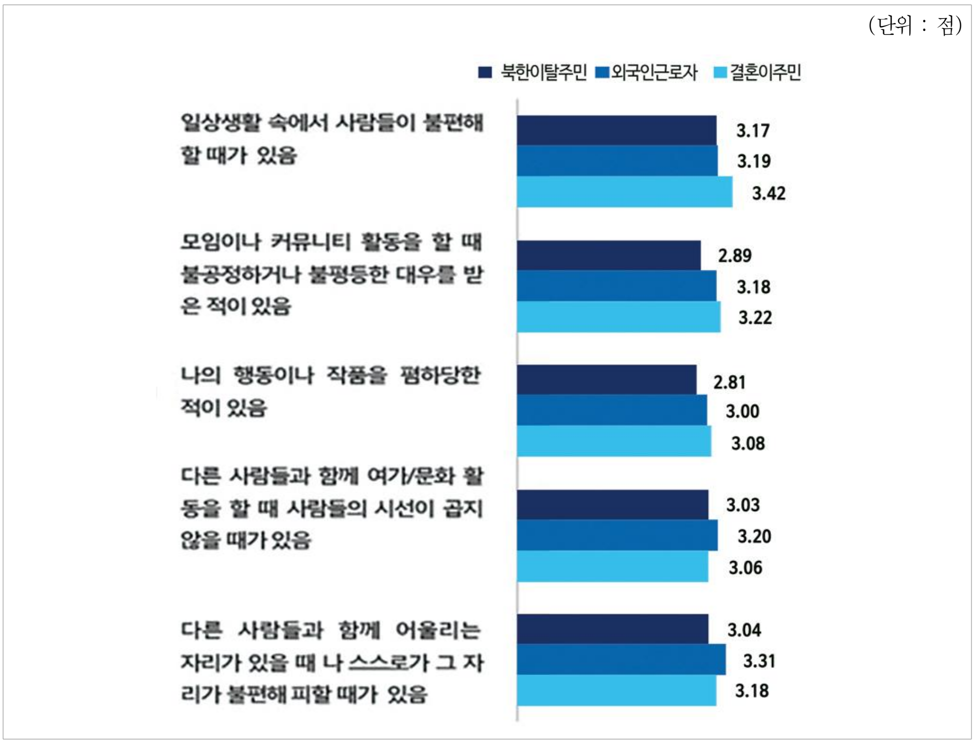
-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친밀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 사회로부터의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로 물어본 결과, 일반국민은 결혼이주민에 대해 거리감과 결혼이주민이 스스로 느끼는 거리감은 2.81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서로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거리감을 느낀다+매우 거리감을 느낀다)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국민이 결혼이주민에게 느끼는 거리감은 21.9%로 결혼이주민이 우리 사회로부터 느끼는 거리감은 42.3%와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4-59]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결혼이주민(교차분석)

(2) 소수자에 대한 수용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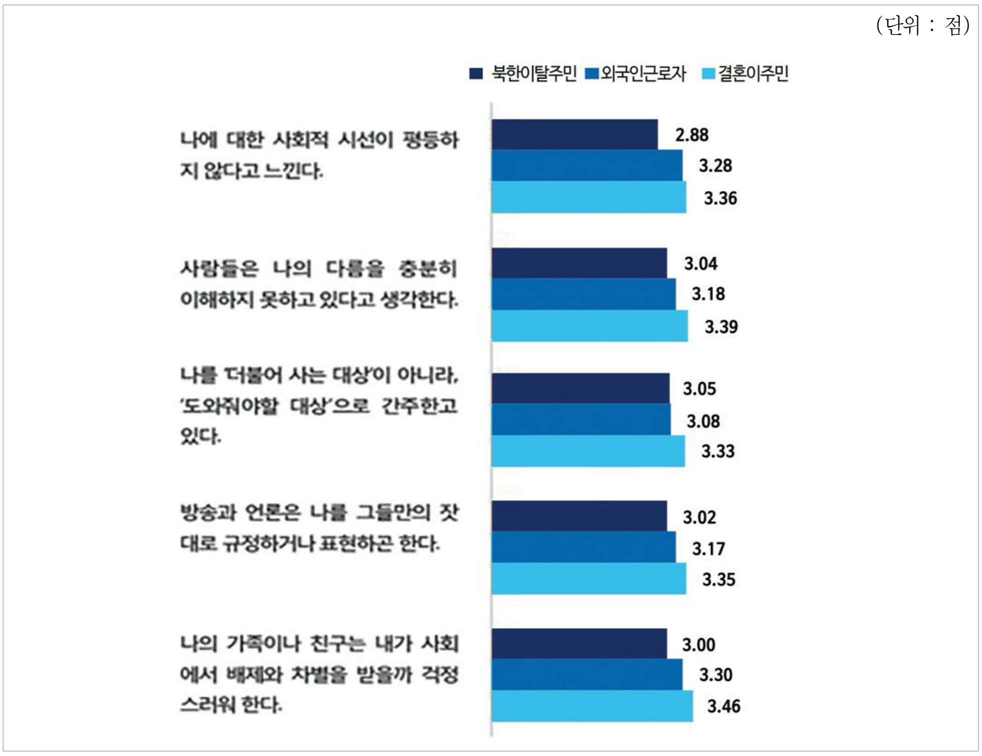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에 비해 일상 속에서 불편함 또는 폄하 등을 느낀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불편해 할 때가 있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42점)–'외국인근로자'(3.19점)–'북한이탈주민'(3.17점) 순으로 나타남
  -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22점)–'외국인근로자'(3.18점)–'북한이탈주민'(2.89점) 순으로 나타남
  -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08점)–'외국인근로자'(3.00점)– '북한이탈주민(2.81점)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문화활동을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다는 질문에서 '외국인근로자'(3.20점)–'결혼이주민'(3.06점)–'북한이탈주민'(3.03점) 순으로 나타남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는 질문에서 '외국인근로자'(3.31점)–'결혼이주민'(3.18점)–'북한이탈주민'(3.04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0]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수용도(교차분석)

(3) 우리사회의 차별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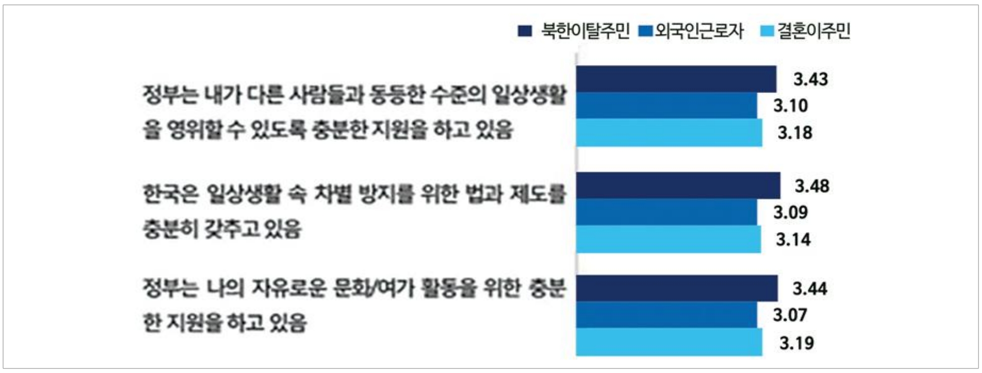
-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사회로부터 받는 차별이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36점)–'외국인근로자'(3.28점)– '북한이탈주민'(2.88점)순으로 나타남
  -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39점)–'외국인근로자'(3.18점)–'북한이탈주민'(3.04점) 순으로 나타남
  -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33점)–'외국인근로자'(3.08점)–'북한이탈주민'(3.05점) 순으로 나타남
  -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한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35점)–'외국인근로자'(3.17점)–'북한이탈주민'(3.02점) 순으로 나타남
  -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한다는 질문에서 '결혼이주민'(3.46점)–'외국인근로자'(3.30점)–'북한이탈주민'(3.00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1] 소수자 시각에서 바라본 우리 사회의 차별정도(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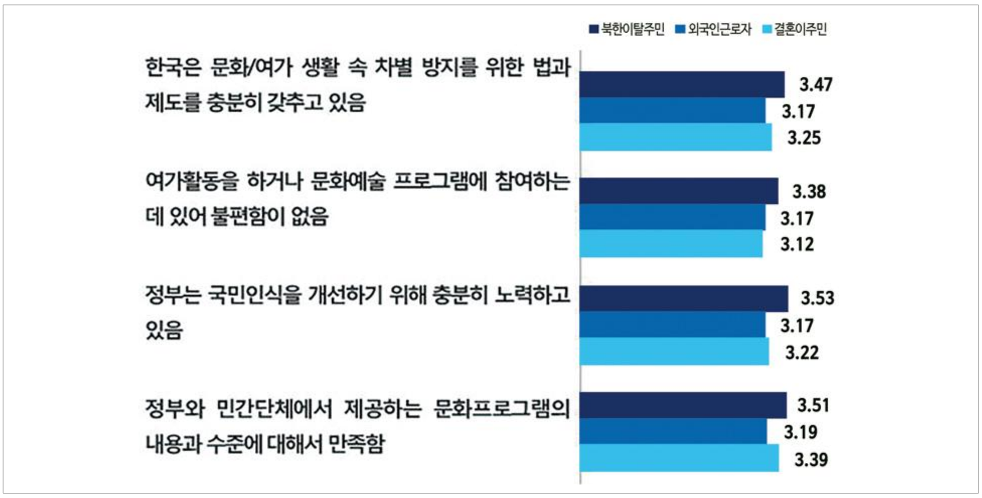
(4) 정부지원의 만족도

-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주민에 비해 정부지원 정책의 만족도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정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43점)–'결혼이주민'(3.18점)–'외국인근로자'(3.10점) 순으로 나타남
  - 한국은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48점)–'결혼이주민'(3.14점)–'외국인근로자'(3.09점) 순으로 나타남
  - 정부는 나의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44점)–'결혼이주민'(3.19점)–'외국인근로자'(3.07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2] 소수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지원 만족도(교차분석)

  - 한국은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47점)–'결혼이주민'(3.25점)–'외국인근로자'(3.17점) 순으로 나타남
  - 여가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38점)–'외국인근로자'(3.17점)–'결혼이주민'(3.12점) 순으로 나타남
  - 정부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53점)–'결혼이주민'(3.22점)– '외국인근로자'(3.17점) 순으로 나타남
  -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질문에서 '북한이탈주민'(3.51점)–'결혼이주민'(3.39점)–'외국인근로자'(3.19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4-63] 소수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지원 만족도(교차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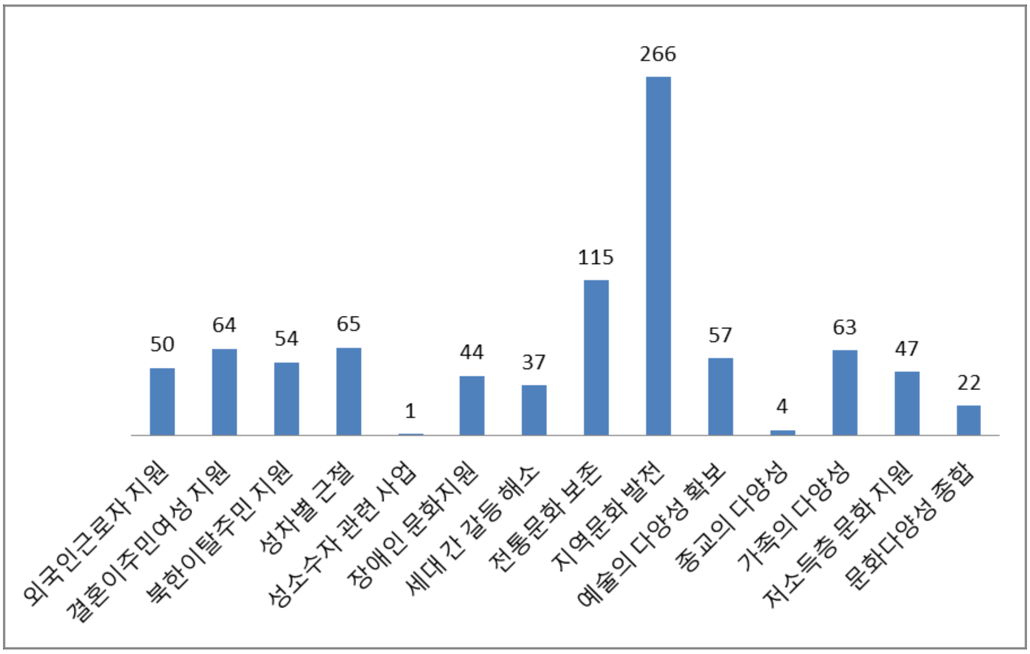
제4절 지원 정책분석23)

1. 정책수립

➡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 조례·규칙은 '지역문화 발전'부문이 가장 많음

- 지역문화 발전 부문은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통문화 보존 115건, 성차별 근절 65건,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64건 순으로 나타남

- 가족의 다양성 부문의 경우, 결혼이주민여성 지원의 조례 및 규칙과 중복 집계로 타 분야보다 높게 나타남. 대부분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조례임
  - 결혼이주민 지원사업이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64건, '가족의 다양성' 63건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결혼이주민 관련 조례 및 규칙이 타 소수자 및 소수문화의 조례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임



[그림 4-64]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관련 조례 및 규칙 수

23) 본 보고서에서 활용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는 국가통계로 제공된 자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놨던 것이 아니며,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새롭게 조사 및 집계된 자료임.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 이해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는 질적 수준과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 특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종합 조례 및 규칙 수 20건으로 집계된 것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뿐 만 아니라,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조례 등 다른 조례도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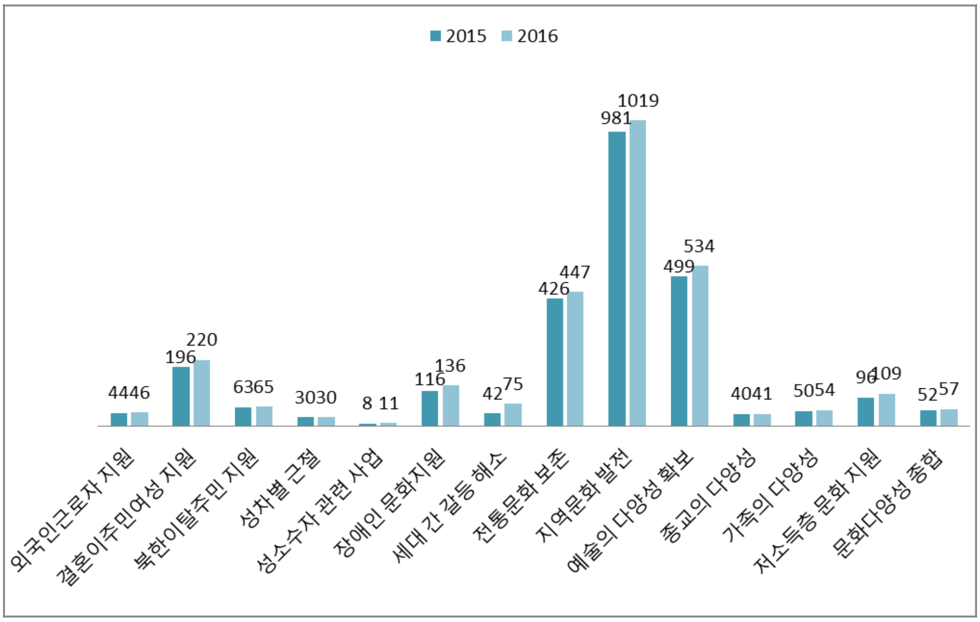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6년 전라남도를 시작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등 7개 시·도에서 제정됨

<표 4-46> 지자체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번호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공포일자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5.18.
2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22.
3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1.01.
4	경기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3.13.
5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11.10.
6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12.01.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06.02.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접속기준: 2017. 12)

2. 정책실행



[그림 4-65]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수

<표 4-47>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수

구분	외국인 근로자 지원	결혼이 주민여 성지원	북한이 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 지원	세대간 갈등 해소	전통 문화 보존	지역 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 층문화 지원	문화 다양성 종합
2015	44	196	63	30	8	116	42	426	981	499	40	50	94	52
2016	46	220	65	30	11	136	75	447	1019	534	41	54	109	57
합계	90	416	128	60	19	252	117	873	2,000	1,033	81	104	203	109

➡ 지난 2년 동안 지역문화 발전 사업(2,000건)이 가장 많았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19건), 성차별 근절 사업(60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 발전 사업이 2,00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의 다양성 확보 사업(1,033건), 전통문화 보존(873건), 결혼이주민여성 지원사업(416건) 순으로 나타남
- 타 지원사업에 비해 성소수자 관련 사업(19건), 성차별 근절 사업(60건), 종교의 다양성 사업(81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문화 발전 사업 이외 가장 많이 확대된 부문은 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세대 간 갈등 해소 사업임. 예술의 다양성 확보의 경우, 2015년 499건에서 2016년 534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세대 간 갈등해소 사업은 2015년 42건에서 2016년에는 75건으로 증가함

➡ 소수자 간, 소수문화 간 정책추진 사업의 격차가 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고령사회 진입, 세대 격차 심화, 다문화시대에 따른 인종·종교의 다양성,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 형태의 다양성 등 사회변화에 따라 정책추진 사업 부문이 다양화되어야 함
- 특히 소수자 중 다문화이주민, 장애인 집단 대비 성소수자의 정책실행 수준이 매우 낮으며, 소수문화에서는 성차별 근절, 가족의 다양성, 종교의 다양성 지원사업 건수가 저조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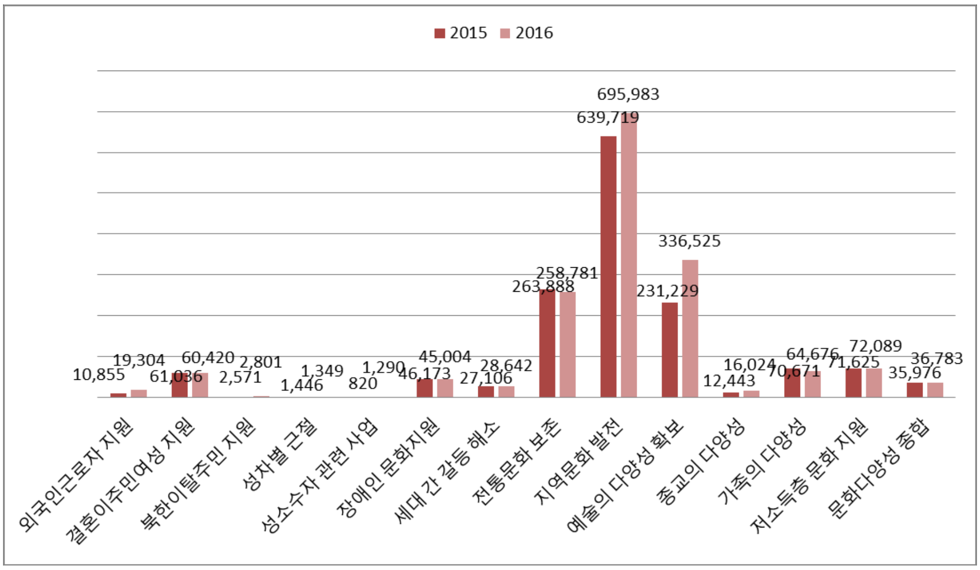
3. 정책예산

➡ 최근 2년 동안 전국 지자체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 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은 지역문화 발전 위주로 편성되어 있음

• 2년간 지역문화 발전 부문이 약 1조 3,35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의 다양성 확보(약 5,677억 원), 전통문화 보존(약 5,226억 원)순으로 나타남

• 타 부문 지원사업 예산에 비해 성소수자 관련 사업(약 21억 1천만 원), 성차별근절(약 27억 9천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약 53억 7천만 원) 예산이 적게 나타남

(단위: 백만 원)



[그림 4-66]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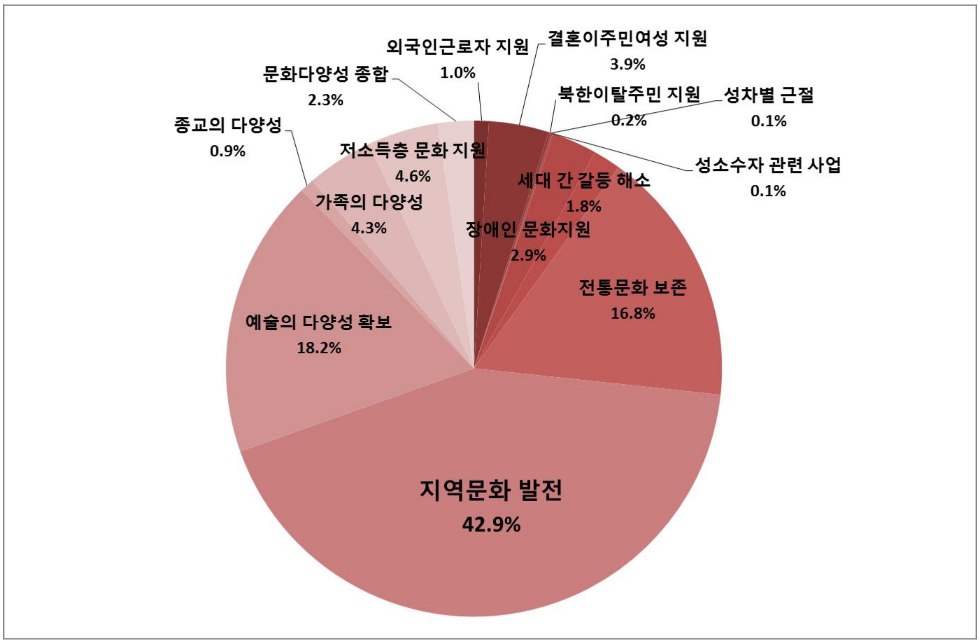
<표 4-48>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지원예산

단위: 백만 원

구분	2015	2016	합계
외국인근로자 지원	10,855	19,304	30,159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61,036	60,420	121,456
북한이탈주민 지원	2,571	2,801	5,372
성차별근절	1,446	1,349	2,795
성소수자 관련 사업	820	1,290	2,110
장애인 문화지원	46,173	45,004	91,177
세대 간 갈등 해소	27,106	28,642	55,749
전통문화 보존	263,888	258,781	522,669
지역문화 발전	639,719	695,983	1,335,702
예술의 다양성 확보	231,229	336,525	567,754
종교의 다양성	12,443	16,024	28,467
가족의 다양성	70,671	64,676	135,347
저소득층 문화지원	71,625	72,089	143,714
문화다양성 종합	35,976	36,783	72,759

➡ 현재까지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던 문화소외계층들을 정책적 범위 안으로 적극 포섭하여 지원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형평성 제고가 요구됨

- 소수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여성,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예산은 전체 예산 중 5.1%로 적은 실정임
- 지역문화 및 전통문화와 소수자 간 지원예산의 편차가 크므로 소수자와 소수문화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그림 4-67] 소수자 및 소수문화 간 지원예산 비율

제5절 기반 여건분석[24)]

1. 기반시설 여건

➡ 지자체별 문화다양성 관련 담당부서가 상이함과 하나의 부서에서 여러 소수자의 지원 사업을 담당함에 따라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함

- 결혼이주민 및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성차별근절, 가족의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대부분 복지(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분야에서 지원을 하며,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 사업은 문화(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등)분야에서 담당함
- 세대 간 갈등 해소 부문이나 저소득층 문화지원 부문의 경우, 문화 또는 복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각 지자체마다 다소 상이하므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 및 합의가 필요한 실정임
- 하나의 부서에서 여러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 성차별 근절과 성소수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이 타 소수자 지원사업보다 적은 것과 같이 소수자 집단 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표 4-49>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 담당 부서

구분	담당부서	분야
외국인근로자 지원	지역경제과, 행정교육과	경제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여성다문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래농업과, 행복나눔과, 주민행복지원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가족행복과	복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지원과, 행복나눔과, 행정교육과, 생활지원과	복지
성차별근절	여성다문화, 여성가족과, 행복나눔과, 주민행복지원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장애인 문화지원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문화관광과, 복지사업과, 주민행복지원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24) 본 보고서에서 활용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자료는 국가통계로 제공된 자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해놨던 것이 아니며,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새롭게 조사 및 집계된 자료임. 따라서 담당 공무원들의 관심과 참여의지, 이해도에 따라 수집되는 데이터는 질적 수준과 정확성에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구분	담당부서	분야
세대 간 갈등 해소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문화, 복지
전통문화 보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재종무과, 문화시설과	문화
지역문화 발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재종무과, 문화시설과	문화
예술의 다양성 확보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공보과, 전략산업과	문화
종교의 다양성	문화관광과, 문화재종무과	문화
가족의 다양성	여성가족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
저소득층 문화지원	아동청소년,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과	문화, 복지

➡ 소수자 및 소수문화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문화기반시설 및 사회복지시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문화기반시설은 주로 지역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소수자 및 소수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담당하고 있음
- 성소수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은 문화재단 1곳으로 가장 적었음
- 문화재단의 경우 소수자를 비롯하여 소수문화 분야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여성, 가족의 다양성 관련 공공기관 및 시설은 글로벌센터, 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음

<표 4-50> 소수자 및 소수문화 관련 공공기관 및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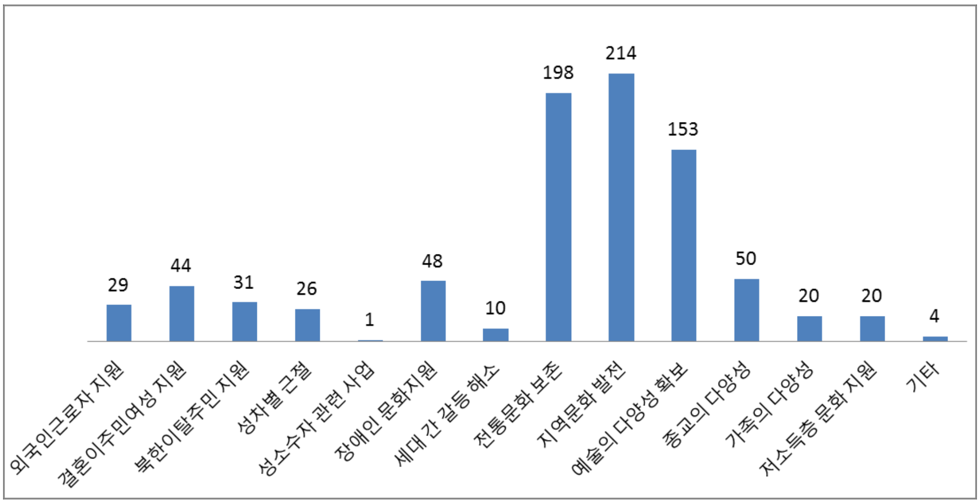
구분	공공기관 및 시설
외국인근로자 지원	문화재단,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국제교육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문화재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재단, 여성문화회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쉼터, 벗들의 집, 구립국제교육원, 글로벌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문화재단, 하나센터, 글로벌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차별근절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발전센터, 여성가족개발원,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
성소수자 관련 사업	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지원	문화재단, 장애인복지관, 학생점자도서관, 전화도서관,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모바일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장애인아동요양시설, 종합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세대 간 갈등	문화재단, 50+재단,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문화체육센터, 노인여가복지

구분	공공기관 및 시설
해소	시설, 노인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공부방, 진로직업체험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아동청소년센터, 유스센터, 시니어플라자, 청소년누리터
전통문화 보존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역사박물관, 지방문화원연합회, 자연사박물관, 형무소역사관, 한의약박물관, 역사한옥박물관, 민속교육박물관, 한옥마을, 전시안내센터
지역문화 발전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아트홀, 평생학습원, 도서관, 미술관, 예술교육센터, 교향악단,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문화복지센터, 아트갤러리, 관광정보센터, 어린이문화회관, 어린이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책문화관, 작은도서관
예술의 다양성 확보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아트홀, 연극센터, 창작스튜디오, 문학창작촌, 무용센터, 예술공장, 예술센터, 예술치유허브, 어린이창작놀이터, 미술창작스튜디오, 시문학파기념관, 아시아태평양 이해교육원
종교의 다양성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가족의 다양성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청소년문화의집,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저소득층 문화지원	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복지재단

2. 자원여건

➡ 2016년 12월 기준 전국의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단체는 약 848개이며, 지역문화 발전 및 전통문화 보존 관련 단체를 제외하고 예술의 다양성 확보와 관련하여 활동 단체가 가장 많음

- 지역문화 발전의 범주에 속하는 단체가 2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문화 보존(198개), 예술의 다양성 확보(153개)의 활동단체 수가 높았음
- 성소수자 관련 활동단체는 부산시에 1곳으로 나타났으며, 세대 간 갈등 해소 또한 지원사업 및 지원예산에 비해 활동단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10개)



[그림 4-68]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단체 수

<표 4-51>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단체 수

총 합계	외국인 근로자 지원	결혼 이주민 여성 지원	북한이 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 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 지원	세대간 갈등 해소	전통 문화 보존	지역 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 소득층 문화 지원	문화 다양성 종합
848	29	44	31	26	1	48	10	198	214	153	50	20	20	4

➡ 소수자 및 소수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체계적·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민·관 네트워크 구축과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별로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 단체 수를 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아 자료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소수자 문화예술 활동단체는 대부분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산발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각 지자체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제5장

발전방향 및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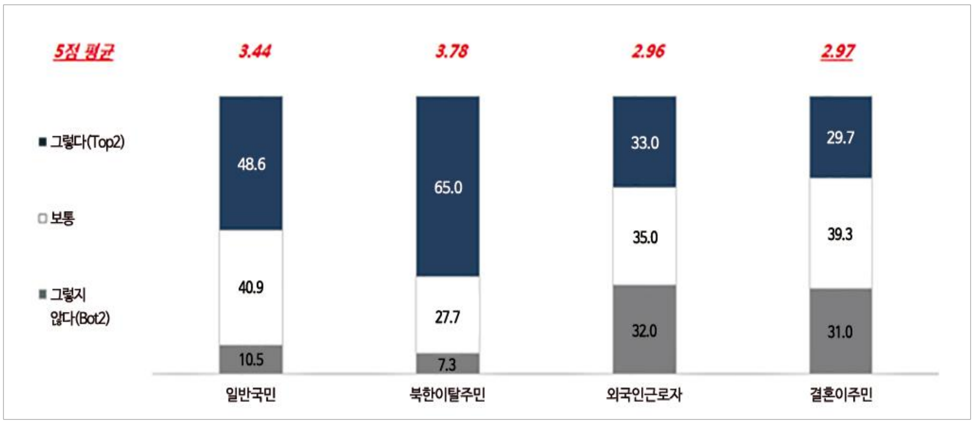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제1절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1.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제고

➡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해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70%이상,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43~50%가 긍정적인 응답을 보인 반면에, 문화다양성 개념 및 의미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됨

- 문화다양성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구성원들이 폭넓게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 다양성 개념의 깊이 있는 이해와 방향성 제시를 통해 문화다양성이 실천적으로 보다 확산되는 것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임
- 문화다양성 가치에 사회적 관심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여전히 개념 인식이 낮다는 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다양성 시민교육을 실시하고 문화다양성 구현활동에 참여토록 지향하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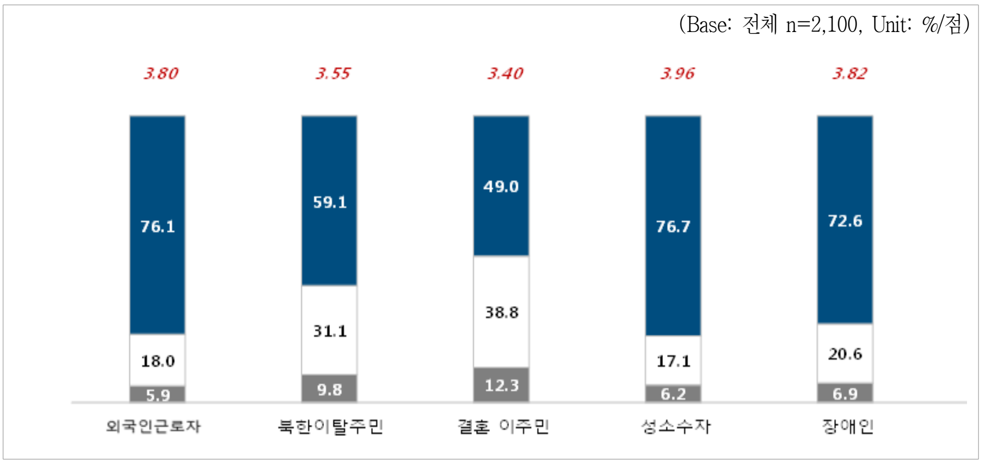


[그림 5-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 현 사회에 만연한 등급화, 권위주의적 차별의식 등을 극복해야하며,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평등주의 사고 함양 등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함

- 거리감을 느낀다는 결과가 성소수자(62.8%)−외국인근로자(42.9%)−북한이탈주민(41.9%)−결혼이주민(21.9%)순으로 조사됨
- 문화다양성이 확산되는데 등급화, 권위주의적 차별의식 등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소수자에 대한 개방성, 평등주의적 사고 함양 등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법적·제도적·정책적 노력들이 더해져야 함

•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리감을 느끼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으로의 수용도도 낮은 편이므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여 거리감을 좁힐 필요가 있음



[그림 5-2]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

➡ 국민 인식확대를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여 상호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차원에서 여러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의 후원 및 콘텐츠 보급 추진이 필요함

•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선행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인식변화를 가져오도록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며 공공학교 연계시스템 및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활용한 사업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으로 사회 내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는 맞춤형 교육활동을 촉진하며 다양한 소수문화의 이해를 위한 문화다양성 콘텐츠 및 교재를 제작, 교육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표 5-1> 문화다양성법 제13조

문화다양성법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여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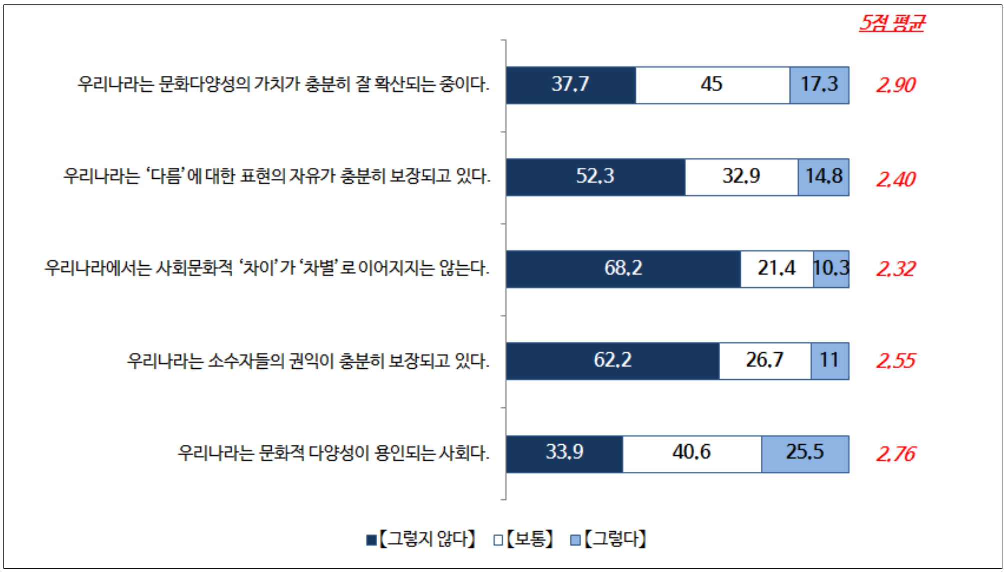
•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소수자와 일반시민이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여러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을 후원함으로써 거리감을 좁히고 상호 간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문화교차환경을 만들어야 함

2. 문화다양성 정책 인지도에 대한 제고

➡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참여도가 현저히 낮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확산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기회 확대 및 활동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 대국민 조사 대상 중 '문화다양성 가치의 동의정도' 및 '다양성 가치가 국내환경에 필요한 정도'에 '그렇다'는 응답자 중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에 참여 경험이 없는 비율은 각각 75.4% 및 73%로 높게 조사되었기에 관련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참여 유도가 요구됨

- 문화다양성에 대한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시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며 상담운영 센터운영을 통하여 다양성 프로그램 및 관련활동 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그림 5-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 국내 문화다양성 수준평가 및 기존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 문화다양성 가치의 확산정도,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 소수자들의 권익보장, 차이로 인한 차별 문제, 우리나라의 문화적 다양성 용인도에 대한 항목은 현재 국내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처한 위치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응답자들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10~25%에 불과하다고 평가했기에, 향후 문화다양성 관련 전반적인 인식제고와 전체 국민과의 공감을 이끌며 사회 내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2절 문화다양성 정책 지원방안의 개선

1. 대상 집단별 정책방안

1) 외국인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에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3.17점),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다’(3.10점)의 항목에서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보다 낮게 나타남
- 특히,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 라는 항목에 3.05점(5점 만점)으로 결혼이주민(3.19점), 북한이탈주민(3.66점)보다 낮은 점수로 나타남
-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59.1%, 결혼이주민 49.0%로 나타남

<표 5-2> 일반국민이 느끼는 차별정도 (그렇다+매우 그렇다의 비율)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59.1%	76.1%	49.0%

➡ 외국인근로자를 대하는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적·제도적 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함

- ‘일상 속에서 불편함을 느낌’(47.7%),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불편해 피할 때가 있음’(43%)관련 설문에서 나타나듯이, 이주자에 대한 생활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소수자의 일상문화관련 이해를 제고시키고 다문화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45.3%), ‘주변인들은 이주민이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41%)관련 설문에서 나타나듯이, 이주자에 대한 시민들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소수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보다 지원되어야 함
-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에 대한 설문에서 외국인근로자

34.3%, 결혼이주민 45%, 북한이탈주민 31%가 그렇다고 답했기에, 대중매체, 인터넷 및 다양한 홍보매체에 대한 미디어 다양성 보장 정책 추진이 요구됨

- 이주민에 대한 차별관행 감시를 위해 제도적으로 민관 모니터링 운영이 제안되며, 미디어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을 통해 소수자의 권리가 무시되거나 차별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표 5-3> 독일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주요사례] 이주민을 위한 협의회 ' (Rat für Migration)의 역할 (독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과 몰이해의 장벽을 허물고 이들이 지역사회구성원들과 연대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음. 2012년부터 “통합 미디어봉사단”(Mediendienst Integration)은 미디어의 왜곡된 보도양상이 범죄를 과장하거나 범죄자의 국적만을 강조하여 전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사회 내 나쁜 평판의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난민에 대한 올바른 언론보도를 위한 홍보봉사단으로 볼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결혼이주여성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정부 차원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책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문화다양성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 결혼이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정부 차원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위한 지원책이 매우 미약함.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지원, 문화프로그램의 만족도 제고 등 사회문화적 적응을 촉진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정책을 개선 및 시행해야 함

<표 5-4> 정부지원 만족도(5점 만점)

	북한이탈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음	3.44점	3.07점	3.19점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	3.51점	3.19점	3.39점

- 우선 기존의 다문화 프로그램들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보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출신국가별 커뮤니티 활동의 지원, 외국인근로자 출신국가의 날 행사 지원, 언어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활성화, 지역사회단체와의 연계 강화, 상호문화 체험활동 강화 등 사회활동 참여 조장 프로그램들을 고안해야 함

-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계에서 주관하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문화·여가 활동을 활성화시켜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음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자국으로 돌아가서 한국문화의 전도사로서 자신의 모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매개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

2) 결혼이주민

➡ 결혼이주민 대상 다문화정책 프로그램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생활공동체 단위의 소통을 강화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음

-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44.7%),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50.3%)이라는 조사결과가 나타내듯이, 결혼이주민 지원과 관련해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문체부외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유사정책 사업을 중복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자체 관련기관들이 제대로 된 연계나 조정체계 없이 일방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들을 공급하는 획일화된 사업이 많기에, 일괄적인 지원정책의 비효율적 결과를 지양하고 소수자의 특성 구분을 통해 정책을 마련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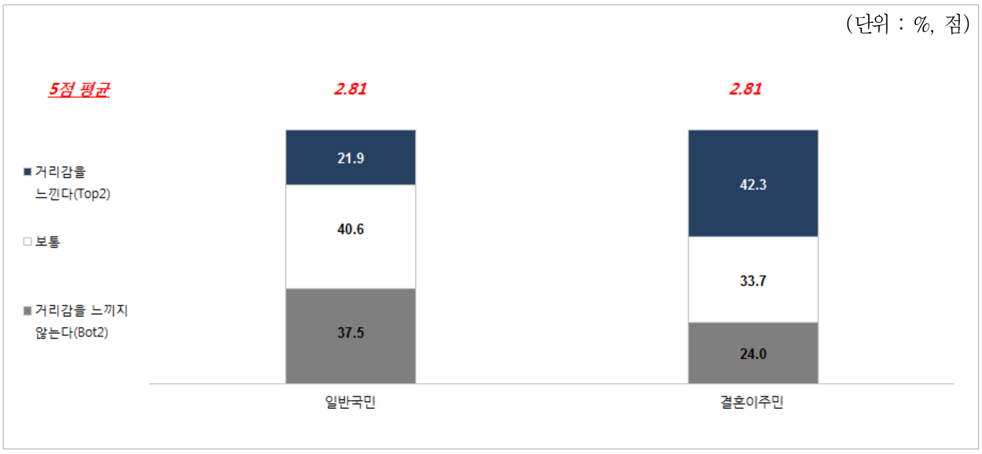
➡ 결혼이주민에 대한 정책 및 지원에 있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수요지향적 정책시행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커뮤니티 활동에서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41.7%), ‘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작품 또는 행동을 폄하를 느낌’ (34.7%)이라는 결과에서 보이듯,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참여, 활동하는 동력원을 제공해야 함

- 결혼이주민 대상 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데 거주지역, 학력수준, 서비스 욕구, 전문성 수준, 연령, 출신국가 등의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는 맞춤식이 되어야 함
  - 결혼이주민의 프로그램을 상대적으로 특성화별로 운영하게 되면 유사한 수준의 결혼이주민끼리 사회적 교류를 보다 촉진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공동체 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자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주체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해야함

➡ 우리사회로부터의 거리감 관련 문항에 일반국민 21.9%가 결혼이주민에 거리감을 느끼는 반면에, 결혼이주민 42.3%가 우리사회와 거리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5-4]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결혼이주민(교차분석)

- 기존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민에게 생활전반에 걸쳐 정책수혜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소수자 집단을 분리하여 사회 적응지원에 편중하는 한계를 보였고 자발적인 문화역량을 성장시키지 못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음
- 정책실행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권리주체를 가지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바라보고 이들의 문화권리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증진하는 관용성이 보다 필요함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에 비해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및 우리 사회 수용도가 높은 편이며, 차별정도는 낮은 편으로 조사됨

- 특히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이다' 항목에서 3.95점(5점 만점)으로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음
-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불편해 할 때가 있다'는 항목은 3.17점(5점 만점)으로 해당 조사문항들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항목의 점수는 3.05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보는 시선이 적은 편으로 분석됨

➡ 세 소수집단 중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심 향상을 위해 생활 지원보다는 고용을 연계한 지원정책으로의 개선 및 홍보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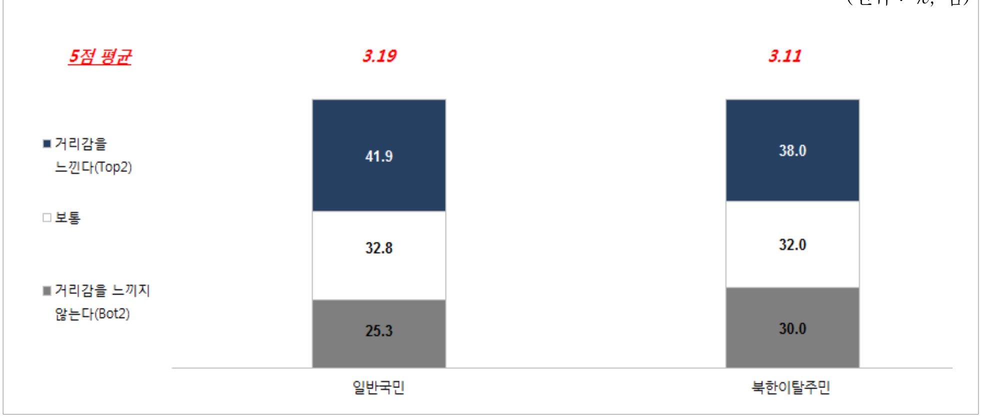
<표 5-5> 소수자들 시각에서 바라본 정부지원 만족도 (3개)

(단위 : 점)

문항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정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음	3.10	3.18	3.48
정부는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	3.17	3.22	3.53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함	3.19	3.39	3.51

- 정부의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 국민인식 개선 노력,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 문항들에서는 모두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임
- 그러나 기초생활비 등 정부 지원으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심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지원보다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을 지향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기여하도록 동기 부여가 요구됨

➡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의 배타성으로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여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는 데 노력해야 함



[그림 5-5] 친밀도 수준 :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해 폐쇄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강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음

- 또한 이로 인해 동일 민족임에도 일반국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각각 서로에게 거리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 및 30%에 불과함

•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하여,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향상시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해야 함

<표 5-6>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특성 비교

구 분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
개인적·인종적 특성	내국인과 인종적 차이 있음(동포출신 제외), 단독입국, 근로연령대, 대부분 남성(동포출신은 여성도 많음)	내국인과 인종적 차이 있음(동포출신 제외), 단독입국, 결혼연령대, 여성	인종적 차이 없음, 단독 혹은 가족단위 입국, 연령대 다양함, 남성 및 여성
사회문화적 특성	문화적 이질성이 매우 높음	문화적 이질성이 매우 높음	문화적 이질성이 매우 높음
이주 동기 및 목적	근로, 경제적 동기	결혼, 경제적 동기	탈출 후 입국, 정치적·경제적 동기
체류기간	단기거주(불법체류 문제 야기)	영구거주	영구거주
국적취득 가능성	취득 어려움	취득 가능	취득 가능
한국어 구사능력	매우 낮음(동포출신 제외)	매우 낮음(동포출신 제외)	높음
가정형성 유무	대부분 단독입국	가정형성 (결혼이 입국 조건임)	가정형성 (기(旣)형성 및 형성예정)

자료: 김순양(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 p.478

4) 성소수자

➡ 성소수자에 거부감은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 62.8%로 조사됐으며, 이들에 대한 차별 인식은 76.7%로 나타나,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 최소 권리보장이 필요함

<표 5-7> 성소수자 인식 및 수용정도

구분	문항	성소수자 (n=2100,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관심도	성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을 느낀다	15.1	22.1	62.8
수용도	성소수자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58.0	28.4	13.6
포용도	성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6.2	17.1	76.7
필요도	성소수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충분하다	50.7	38.7	10.6

- 성소수자에 대한 수용도에서 '단순지인' 37.5%, '동네이웃' 36.5%, '동료' 31.8%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으며, 반면 '가족'으로서 수용응답은 13.6%만이었고, 58%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음
- 성소수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76.7%가 답했고, 성소수자에 대한 정부지원 충분치 않다고 50.7%가 답했음
-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감과 차별은 본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되는 바, 그동안 사회내부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던 성소수자의 문제들이 점차 공론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들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의 문화적 최소권리 보장사례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파악하여 국내의 적용방안을 의미 있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5) 장애인

➡ 장애인에 대해 '거리감을 느낀다'의 응답이 16%로 거부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에 대한 차별에 대한 인식은 72.6%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됨

<표 5-8> 장애인 인식 및 수용정도

구분	문항	장애인 (n=2100, %)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관심도	장애인에 대한 거리감을 느낀다	46.6	37.3	16.0
수용도	장애인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4.7	34.6	50.7
포용도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	6.9	20.6	72.6
필요도	장애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충분하다	34.3	37.3	28.4

- 장애인에 대한 수용도 설문에 대해 '단순지인' 76.6%, '가까운 동료' 74.1%, '동네이웃' 77.7% 및 '가족' 50.7%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정도는 72.6%로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됨
- 장애인들은 많은 일터에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며,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국민인식의 개선 및 제도적 대책방안이 요구되기에, '신체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열등한 존재나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사회주체로서 평가받도록 국민의 이해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정부지원에 있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활동 및 시민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며 자긍심을 고취하는 정책이 장려되어야 함

2. 다양한 소수문화권 증진방안

➡ 다양한 소수문화의 문화 향유권 최소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소수 구성원 및 비주류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도를 묻는 설문에 북한이탈주민(36.1%), 장애인(28.4%) 대상 정책지원은 비교적 높은 반면에, 성소수자(10.6%), 세대 간 갈등(9.2%),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12%), 주류예술의 독점(9.4%)은 낮은 평가를 받기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확인됨

- 주류와 비주류 간 문화적 차이가 심화되고 사회갈등 현상에 대한 정책적 처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과 관련 사업에 집중되는 정책지원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양한 소수자의 문화권리를 일정부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 차별관행으로 경시되었던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일정부분 보호함으로써 소수자의 잠재력과 역량실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으며, 단기성과 위주의 정책 집중을 방지하고 소수자의 문화권 보호 및 증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문화 간 소통 및 교류 확대를 통해 다양성 이해를 증진시키는 결과가 요구됨

-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데 어려움(15.3%),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무관심(15.3%), 평소지방문화에 대한 무관심(16.5%), 독립문화예술에 대한 공공기금 지원 불필요(10.9%)에서 나타나듯이, 폭넓은 문화 간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구성원 간 상호교류의 단절과 갈등의 심화는 사회문제를 파생시키기에, 문화교류의 정책추진은 소수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선입견을 깨고 이해도의 증진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의 공감대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성별 불평등의 현상에 대해 여성차별에 대한 비판이 남성 사이에서 역차별의 불안으로 나타나는 반응도 발견되고 있는 바, 성별 간 상호인정과 긍정을 바탕으로 억압적인 의식의 고착화를 타파하는 것이 우리문화의 창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확산시키는 것이 요구됨

➡ 사회현상의 개선을 위한 매개인력의 활성화 방안 추진

-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주류예술 독점(60.7%), 전통문화 위기(68.6%),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73.1%), 성별 불평등(70.4%), 세대 간 갈등(71.6%)이 높게 확인되는 바,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다양성 증진

및 확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적 자원관리가 필요함

- 각 분야별 기존 문화 인력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교육연수를 통해서 다양성 사업에 전문 활동가로 양성하여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사업의 전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존 인력과 별도로 전문인력들을 새로 선발하여 문화다양성 교육 및 프로그램 전문가로 신규 양성하는 것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일반시민 및 초·중·고등학생 대상 문화다양성 커리큘럼, 콘텐츠 개발 및 교재 제작 보급을 병행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 예산 확보

-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의 충분한 정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42.1%), ‘세대 간 갈등’(45.8%), ‘성별 불평등’(35.3%), ‘주류예술 독점’ (41.4%), ‘전통문화위기’(39.1%), ‘지방문화 차별’(37%)에서 높게 확인됨
-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하는데 각 영역별로 필요한 예산의 구체적 규모를 산출한 뒤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의 확보체계를 구축해야함
- 지난 2년간 정책실행에 있어 ‘지역문화 발전사업’(2,000건)이 가장 많고 ‘예술의 다양성 확보’(1,033건), ‘전통문화 보존’(873건)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바, 소수문화 간 정책 추진 사업의 지원격차가 크기에 국한된 사업만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정책투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 장기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선결요건인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대상에 대한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재원구조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집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

제3절 정책내용의 내실화와 장기적 시계의 확보

1.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 협력체계 구축

➡ 문화다양성 정책은 어느 정책영역에 비해서도 장기적인 시야가 필요한 분야로 정책 컨트롤타워를 통해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집단인 결혼이주민은 여성가족부,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북한이탈주민은 통일부가 전담부처로 기능하고 있어 집단별 행정체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지만, 이들 담당부처들 외에도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양한 부처들이 사안별로 관여하게 됨.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어느 정책영역보다도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통합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성정책에 대해 부처별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유사 중복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 또한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간 연계가 부족하며, 담당공무원의 경우 잦은 순환보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유동이 매우 큼. 실제로 지방자치단체 실태조사시, 담당자의 이해도에 따라 정책 사업 분류 등이 지역별로 상이했음

- 이에 문화다양성위원회 역할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매우 시급하며, 컨트롤타워를 통해 예산확보, 문화다양성 지침서 개발, 정책 담당자 대상 교육, 중복 및 유사 사업 개선 등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법 제7조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가 가능함

<표 5-9> 문화다양성법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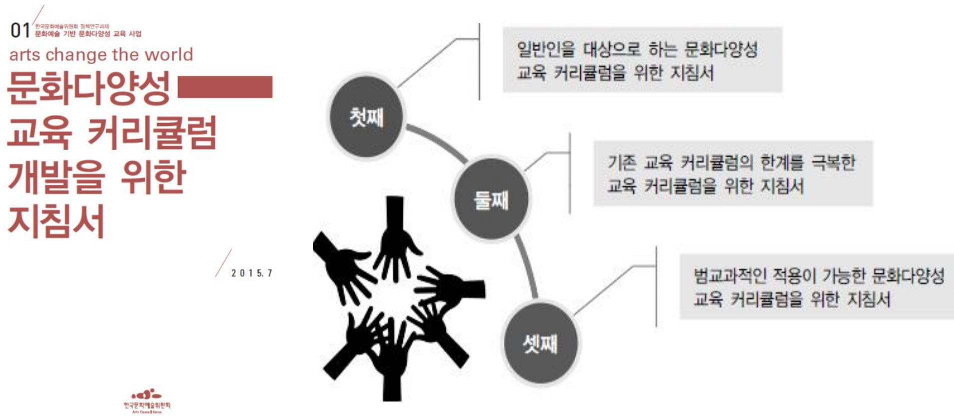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문화다양성법)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자체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자체별 행정자료 구축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균형잡힌 사업추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지자체는 정부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뒤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무원들 간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 있어야 실효적이고 균형잡힌 사업추진이 가능함

- 현재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모두 지자체 담당자들의 협조를 통해 이뤄지는 바 문화다양성 개념, 범주, 지원사업 등 공통된 합의를 위해 지침서 및 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한 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2015)」를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의 비전과 목적', '문화다양성 교육의 요구 및 수요 분석', '교과영역', '교수법', '평가', '유의사항 및 제안'을 담은 지침서를 개발함. 이를 통해 기존의 문화다양성 교육 관련 커리큘럼 및 연수자료가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문화다양성 교육이 여타의 교육과정 및 비교과 활동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그림 5-6]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 소수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중 상당수는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산발적으로 조직 및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지자체는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 시기 뿐만 아니라, 효과적은 사업 지원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침서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함

- 각 지자체는 문화다양성 구현과 관련된 지역별 현황을 체계적·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축적함으로써, 정책 추진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은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단체와도 긴밀한 연계로 지역사회 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사회복지관, 의료기관, 지역사회단체 등 다양한 민간부문들이 제각기 문화다양성 정책의 시행과정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들의 활동들이 제대로 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좋은 취지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한다고 해도 행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부실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움. 따라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질 좋은 문화다양성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역사회별 행정체계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 긴요함

- 거버넌스의 구축단위는 이주민들이 현지에서 생활하고 정책이 실제로 시행되는 단위인 시군구 단위의 로컬 거버넌스가 적절함. 지역사회단위에 존재하는 자원봉사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부문들 간 자발적인 협력과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함

2.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 도입

➡ 한국사회의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고, 양질의 지원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일반국민과 문화소외계층 대상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인식수준을 분석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성과평가를 체계화해야 함

- 문화다양성 현황을 식별하고 분석하기 위한 도구로서 소수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진단하기 위한 측정항목 설계 및 사회변화에 따른 주기적인 지표수정·보완이 요구됨

- 평가항목에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일반 수용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소수자문화의 문화향유활동이나 창조활동에 관한 성과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문화다양성 정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

➡ 모니터링 시스템 및 평가제도 도입은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의 양적인 측면에 치중하는데 탈피하여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지원 사업 운영 수, 수료생 수 등을 평가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정도,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지원 사업의 목표 달성도 등에 대한 질적인 평가도 중시되어야 함

- 또한 전수조사를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지원 사업의 일부를 선정하여 유용성, 만족도 등에 대한 현장조사가 필요함. 이에 예산분배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벤트성의 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음

- 일종의 일몰(sunset)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프로그램의 타당도 평가를 거치게 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음[25)]

- 본 조사에서 소수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였으나, 추후 타 소수자 및 소수문화에 대한 실태 또한 추가·보완되어 문화다양성 환경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음

- 본 조사는 향후 문화다양성 정책 발전을 위한 실증적 검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음. 필요시 향후 통계분야의 검증과 지속적인 보완을 거쳐 최종 승인통계 보고서 제정을 통해 정책기반마련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5) 김순양(2017),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 p.441

참고문헌

단행본

김순양(2013), 『한국 다문화사회의 이방인: 사회적 배제와 정책적 대응』, 집문당

김난도·전미영·이향은 외 3명, 『트렌드 코리아 2017』, 미래의창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Charta der vielfalt(2017), 「Factbook Diversity」

EUROPEAN COMMISSION(2015), 「Practical guide to launch and implement a Diversity Charter」

SOGI 법정책연구회(2017),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국민대통합위원회(2017), 「국민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북한인권정보센터

국민대통합위원회(2017), 「국민통합을 위한 탈북민, 다문화가족, 이민자 의식조사」,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책임: 윤여상)

김규찬(2017), 「문화산업 정책 패러다임 변화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문화예술을 활용한 다문화프로그램 실태조사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책임: 전경옥)

문화체육관광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책임: 류정아)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4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분석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연구책임: 윤소영)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2016), 「한국지역축제 실태조사 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변수정(2016), 「다양한 가족의 출산 및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2014),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7), 「2016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아산정책연구원(2015),「한국 유권자와 이슈 III: 성소수자(LGBT) 인식」

여성가족부(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정해숙)

여성가족부(2016),「2016년 한국의 성평등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 김태홍)
영화진흥위원회(2017),「2017한국영화연감」
윤소영(2017),「문·화·공·감 2017 문화정책포럼 결과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정혜(2017),「고용동향 브리프– 최근 외국인 취업자 구성 변화와 특징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이삼식 외 7명(2011),「저출산·고령화와 사회갈등」,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수연·최인희·김인순(2010),「남녀 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재선·송치선·박건표(2017),「2016 한국의 성인지 통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지역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2017), 「2017년도 균형발전사업 편람」
통계청(2017),「2017년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
통계청(2017),「장래가구추계」
통일부(2017),「2017 통일백서」, 통일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5),「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2017),「한류 Now 한류심층분석보고서」, vol.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다원예술의현황과전망연구」,한국문화예술위원회(연구책임: 이승엽)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5),「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수혜대상[문화소외계층] 수요조사 연구」, 숭실대학교 (연구책임: 정무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6),「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성과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6). 2016년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사업계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7),「한 눈에 보는 2017 장애인 통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청소년의 세대통합역량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 연구」(책임연구: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6),「청소년의 세대문제인식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2016),「2016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행정안전부(2017),「주민등록 인구통계」
행정안전부(2017),「2017 행정자치통계연보」, 행정안전부 정보통계담당관실

홍승아(2016), 「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내일신문(2017.05.04.),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세월호 아픔 함께 합니다’”
여성신문(2016.10.04.),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고궁 한복 무료입장 젠더차별 논란”
MBN(2017.11.14.), “‘한서희 저격’ 하리수, 사과에도 논란→결국 SNS 비공개 전환”
매일신문(2017,6.27), “나홀로족 취향저격하는 1인용 가구”
브릿지경제(2016. 06. 20), “부산 지하철 여성전용칸 찬반논란”
중앙SUNDAY 제391호(2014. 09.05), “전통문화가 도시 정체성 좌우 … 기억 잃은 도시엔 미래 없어”
천지일보(2017.07.25.), “할랄산업이 ‘적폐’?… 한국교회 보수진영, 또 반 이슬람 감정 표출”
천지일보(2017.11.13.), “종교 간 갈등으로 번진 ‘한국불교문화체험관’ 추진 논란”
쿠키뉴스(2017.11.14.), “입장휴게소, 1인 전용 식사테이블 ‘혼밥존’ 인기
한국일보(2017.05.03), “대선 토론회 ‘동성애’이슈 후폭풍”

웹사이트

consortium(http://www.lacrosseconsortium.org/)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국민대통합위원회(https://www.facebook.com/pcnc11)
듀오(https://www.duo.co.kr/)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서울프린지페스티벌(https://www.seoulfringefestival.net)
유네스코(http://portal.unesco.org/en)
장애인활동지원(http://www.ableservice.or.kr/)
통계청(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통일부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statistics/)
한국교육개발원(https://www.kedi.re.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https://www.arko.or.kr/)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부 록

1. 대국민설문지
2.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설문지
3. 북한이탈주민 설문지
4. 시도별 행정자료 수집양식
5. 통계표

문화체육관광부

1. 대국민설문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국민인식)

◆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예술적 창작, 생산, 유통 및 향유방식 등의 다양성을 포함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존을 이루도록 추구하는 정책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우리나라 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1	2	3	4	5
4-2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소수자란? 한 사회 안에서 문화적, 신체적으로 구별되어,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차별받는 사람들**	1	2	3	4	5
4-3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	2	3	4	5
4-4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	2	3	4	5
4-5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	2	3	4	5

◆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5. 귀하께서는 다음의 구성원들에 대해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구 분		거리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거리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	거리감을 느낀다	매우 거리감을 느낀다
5-1	외국인근로자	1	2	3	4	5
5-2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5-3	결혼 이주민	1	2	3	4	5
5-4	성소수자	1	2	3	4	5
5-5	장애인	1	2	3	4	5
5-6	타 종교인	1	2	3	4	5

6 귀하께서는 다음 사회 현상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별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매우 심하다
6-1	성별 불평등	1	2	3	4	5
6-2	독신가구의 증가	1	2	3	4	5
6-3	세대 간 갈등	1	2	3	4	5
6-4	주류 문화예술 독점	1	2	3	4	5
6-5	전통문화 위기	1	2	3	4	5
6-6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1	2	3	4	5
6-7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1	2	3	4	5

7. 다음은 각 구성원들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외국인근로자를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외국인근로자를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7-2	북한 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북한이탈주민을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북한이탈주민을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북한이탈주민을 단순 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3	결혼 이주민	결혼 이주민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결혼 이주민을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결혼 이주민을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결혼 이주민을 단순 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7-4	성 소수자	성소수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성소수자를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성소수자를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성소수자를 단순 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7-5	장애인	장애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장애인을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장애인을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장애인을 단순 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7-6	타 종교인	타 종교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타 종교인을 가까운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타 종교인을 동네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타 종교인을 단순 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2	3	4	5

8. 다음은 각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성별 불평등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에 상관없다.	1	2	3	4	5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구성원들의 성별은 상관없다.	1	2	3	4	5
		대중매체에서 보이는 남성상과 여성상은 차별이 없다.	1	2	3	4	5
		사회는 여성입장을 지금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8-2	독신 가구의 증가	가족구성원 중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1	2	3	4	5
		가까운 친구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1	2	3	4	5
		내 이웃에 독신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다.	1	2	3	4	5
		사회적으로 독신가구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문제없다.	1	2	3	4	5
8-3	세대 간 갈등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해도 문제없다.	1	2	3	4	5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해도 문제없다.	1	2	3	4	5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	1	2	3	4	5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다.	1	2	3	4	5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4	주류문화예술 독점	독립문화예술을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동네에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1	2	3	4	5
		독립문화예술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	1	2	3	4	5
		주류 문화란? 한 사회의 성원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독립 문화란? 주류 대중문화와 달리, 상업성에 동조하지 않고 자신들의 문화를 실험적으로 추구하는 것					
8-5	전통문화 위기	전통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동네에 전통문화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1	2	3	4	5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1	2	3	4	5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8-6	지방(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	지방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지방문화 체험을 위해 휴일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	1	2	3	4	5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1	2	3	4	5
		평소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1	2	3	4	5
8-7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	나는 평소 소외계층에 문화예술관람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다.	1	2	3	4	5
		즐겨 찾는 공연장에 저소득층을 위한 관람좌석을 할애하는데 찬성한다.	1	2	3	4	5
		저소득층 문화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1	2	3	4	5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귀하께서는 아래의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로부터 차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1	외국인근로자	1	2	3	4	5
9-2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9-3	결혼 이주민	1	2	3	4	5
9-4	성소수자	1	2	3	4	5
9-5	장애인	1	2	3	4	5
9-6	타 종교인	1	2	3	4	5

10.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회현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개선할 필요가 없다	개선되지 않아도 된다	보통이다	개선되어야 한다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0-1	성별 불평등	1	2	3	4	5
10-2	독신가구의 증가	1	2	3	4	5
10-3	세대 간 갈등	1	2	3	4	5
10-4	주류문화예술 독점	1	2	3	4	5
10-5	전통문화 위기	1	2	3	4	5
10-6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1	2	3	4	5
10-7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1	2	3	4	5

11. 귀하께서는 아래 구성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1	외국인근로자	1	2	3	4	5
11-2	북한이탈주민	1	2	3	4	5
11-3	결혼이주민	1	2	3	4	5
11-4	성소수자	1	2	3	4	5
11-5	장애인	1	2	3	4	5
11-6	타 종교인	1	2	3	4	5

12. 귀하께서는 아래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1	성별 불평등	1	2	3	4	5
12-2	독신가구의 증가	1	2	3	4	5
12-3	세대 간 갈등	1	2	3	4	5
12-4	주류 문화예술 독점	1	2	3	4	5
12-5	전통문화 위기	1	2	3	4	5
12-6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1	2	3	4	5
12-7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1	2	3	4	5

응답자 기본정보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최종학력** ① 고졸 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 재혼 ④기타( )

■ **종교** ① 기독교(개신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 ⑥ 없음

■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직업**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기능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농림어업 관련 직종
⑦ 공무원 ⑨ 군인 ⑩ 주부 ⑪ 학생 ⑫ 무직 ⑬ 기타( )

■ **월 평균 소득**

① 소득없음 ②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⑥ 400만원~500만원 미만
⑦ 500만원~600만원 미만 ⑧ 600만원 이상

■ **다음 중 귀하의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모두 √ 체크해 주십시오.**
① 외국인 근로자 ② 북한이탈주민 ③ 결혼 이주민
④ 장애인 ⑤ 비주류문화예술인 ⑥ 성소수자

■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나 교육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회) ② 없다

■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캠페인 등)**

① 있다 (회) ② 없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주민 설문지

1) 한국어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 · 결혼이주민 인식)

◆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예술적 창작, 생산, 유통 및 향유방식 등의 다양성을 포함함.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존을 이루도록 추구하는 정책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한국 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1	2	3	4	5
4-2	한국은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	2	3	4	5
4-3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	2	3	4	5
4-4	한국은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	2	3	4	5
4-5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	2	3	4	5

◆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5. [친밀도]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느낀다 ②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6. [수용도] 다음은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할 때가 있다.	1	2	3	4	5
6-2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6-3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6-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문화 활동을 할 때 내가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5
6-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	1	2	3	4	5

7. [포용도] 다음은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7-2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3	우리사회는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1	2	3	4	5
7-4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한다.	1	2	3	4	5
7-5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한다.	1	2	3	4	5

8. [만족도] 다음은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정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2	3	4	5
8-2	한국은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1	2	3	4	5
8-3	정부는 나의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2	3	4	5
8-4	한국은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1	2	3	4	5
8-5	내가 (외국인근로자·결혼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여가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	1	2	3	4	5
8-6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8-7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언어교육, 생활문화, 문화예술 등)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응답자 기본정보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최종학력**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졸 이상

⑤ 기타 교육기간 (________년)

■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재혼 ④ 기타( )

■ **종교**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 ⑥ 없음

■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직업**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기능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농림어업 관련 직종
⑦ 공무원 ⑨ 군인 ⑩ 주부 ⑪ 학생 ⑫ 무직 ⑬ 기타( )

■ **월 가구 총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나 교육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회) ② 없다

■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권익보호운동, 캠페인 등)**

① 있다 (회) ② 없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 영어

A Survey on Cultural Diversity (Im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Perceptions)

◆ Awareness Level of Cultural Diversity

1. Are you well aware of the concept and meaning of cultural diversity?

- Cultural diversity means that the cultures of groups and societies are expressed in various ways and includes diversity, such as artistic creation, production, distribution, ways of enjoying.
- A cultural diversity policy is a policy that pursues the sound coexistence of members with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in one society.

① High level of awareness ② Yes, I am. ③ Normal level of awareness
④ No, I am not. ⑤ Not at all.

2. Do you agree with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① I highly agree. ② Yes, I do. ③ To a moderate extent ④ No. I don't.
⑤ Not at all.

3. Do you think that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s essential in the Korean society?

① Highly necessary ② Necessary ③ To a moderate extent ④ Unnecessary
⑤ Not at all.

4. These are questions for exploring the level of cultural diversity in our society. For each question, put a check mark (√) to the number that applies to you.

Division		To a high extent	Yes	To a moderate extent	No	Not at all
4-1	Korea is a society where cultural diversity is accepted?	1	2	3	4	5
4-2	In Korea,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are being adequately guaranteed?	1	2	3	4	5
4-3	In Korea,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do not lead to "discrimination"?	1	2	3	4	5
4-4	In Korea, the freedom to express "otherness" is being adequately guaranteed?	1	2	3	4	5
4-5	In Korea,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is spreading well?	1	2	3	4	5

◆ The Level of Cultural Diversity

5. [Intimacy] Do feel distant from our society?

① Yes, I do very much. ② Yes, I do. ③ To a moderate extent
④ Not really. ⑤ Not at all.

6. [Acceptance] These are questions for investigating how well im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are accepted by Korean people. For each question, put a check mark (√) to the number that applies to you.

Division		To a high extent	Yes	To a moderate extent	No	Not at all
6-1	Sometimes Korean people feel uncomfortable with me in my daily life (at the workplace, school, etc.) because I am an immigrant worker.	1	2	3	4	5
6-2	As an immigrant worker and married immigrant, I have been treated unfairly or unequally during a gathering or a community activity before.	1	2	3	4	5
6-3	As an immigrant worker and married immigrant, my behavior or work (e.g. literary work) has been disparaged before others.	1	2	3	4	5
6-4	As an immigrant worker and married immigrant, I sometimes draw unwelcome attention from others when doing a leisure or cultural activity with them.	1	2	3	4	5
6-5	When I have an opportunity to socialize with others, I sometimes feel uncomfortable and avoid the gathering.	1	2	3	4	5

7. [Inclusion] These are questions for investigating the level of social inclusion for im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For each question, put a check mark (√) to the number that applies to you.

Division		To a high extent	Yes	To a moderate extent	No	Not at all
7-1	I feel that the Korean society gives unequal attention to me.	1	2	3	4	5
7-2	I think that Korean people are failing to have a sufficient understanding of my otherness.	1	2	3	4	5
7-3	The Korean society is regarding me as 'an object in need of help', a person with whom they can live.'	1	2	3	4	5
7-4	Broadcasting and the media sometimes depict me by their own standards.	1	2	3	4	5
7-5	My family members and friends worry that I may be an outcast or be discriminated.	1	2	3	4	5

8. [Satisfaction] These are questions for investigating how much im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are satisfied with policies for them. For each question, put a check mark (√) to the number that applies to you.

Division		To a high extent	Yes	To a moderate extent	No	Not at all
8-1	The government is providing adequate support for me so I can have the same standard of living as others.	1	2	3	4	5
8-2	Korea has adequate laws and systems for the prevention of daily life discrimination.	1	2	3	4	5
8-3	The government is providing adequate support for my free cultural/leisure activities.	1	2	3	4	5
8-4	Korea has adequate laws and systems for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that occurs in leisure/cultural life.	1	2	3	4	5
8-5	It is not inconvenient for me as an immigrant worker and married immigrant to do a leisure activity or participate in a cultural art program.	1	2	3	4	5
8-6	The government is making a sufficient effort to improve the public perception of immigrant workers and married immigrants.	1	2	3	4	5
8-7	I am satisfied with the contents and standards of cultural programs provided by the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e.g. language education, living culture, cultural art).	1	2	3	4	5

The Basic Information about the Respondent

■ **Gender** ① Male ② Female

■ **Age** ① Teens ② Twenties ③ Thirties

④ Forties ⑤ Fifties ⑥ Sixties or older

■ **Academic background**

① Less than high school education ② High school graduate

③ Community college graduate ④ College graduate or higher

⑤ The duration of other education (________ years)

■ **Marital status** ① Married ② Unmarried ③ Remarried ④ Other (   )

■ **Religion** ① Protestant Christian ② Roman Catholic ③ Buddhist

④ Muslim ⑤ Other (   ) ⑥ Not applicable

■ **The area where you live**

① Seoul ② Busan ③ Daegu ④ Incheon ⑤ Gwangju ⑥ Daejeon ⑦ Ulsan
⑧ Sejong ⑨ Gyeonggi ⑩ Kangwon ⑪ Chungbuk ⑫ Chungnam ⑬ Jeonbuk
⑭ Jeonnam ⑮ Gyeongbuk ⑯ Gyeongnam ⑰ Jeju

■ **Occupation**

① Professional ② Office worker ③ Technical post ④ Sales ⑤ Service
⑥ A job related to agriculture, forestry or fishery ⑦ Public official ⑨ Soldier
⑩ Housewife ⑪ Student ⑫ Unemployed ⑬ Other (   )

■ **Your household's monthly gross income**

① Less than 1 million won
② From 1 million won to less than 2 million won
③ From 2 million won to less than 3 million won
④ From 3 million won to less than 4 million won
⑤ From 4 million won to less than 5 million won
⑥ From 5 million won to less than 6 million won
⑦ 6 million won or higher

■ **Have you participated in any business or education relating to cultural diversity in the last 3 years?**

① Yes (time(s)) ② None

■ **Have you experienced any activity relating to cultural diversity in the last 3 years (e.g. rights-protection movement, campaign)?**

① Yes (time(s)) ② None

- Thank you for your time and cooperation! -

3) 중국어

文化多样性实况调查((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认识)

◆ 文化多样性认识水平

1. 你是否熟悉文化多样性的概念和意义？

·文化多样性指的是以各种方式表达群体和社会文化，包括艺术创作、生产、分配和享受等多种元素。
·文化多样性政策是在社会中具备多种文化背景的成员所追求健康共处的政策。

① 非常熟悉 ② 熟悉 ③ 一般 ④ 不熟悉 ⑤ 完全不熟悉

2. 你是否充分认同文化多样性的价值？

① 非常认同 ② 认同 ③ 一般 ④ 不认同 ⑤ 完全不认同

3. 你认为文化多样性的价值对韩国来说是必要的吗？

① 非常必要 ② 必要 ③ 一般 ④ 不必要 ⑤ 完全不必要

4. 以下是调查社会文化多样性体现水平的问题，请用√标记下您对每个问题的看法。

区分		非常是	是	一般	不是	完全不是
4-1	韩国是一个容纳文化多样性的社会。	1	2	3	4	5
4-2	韩国充分保障了(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的权益。	1	2	3	4	5
4-3	在韩国，社会文化差异不会导致"歧视"。	1	2	3	4	5
4-4	韩国充分保障"不同"人士的言论自由。	1	2	3	4	5
4-5	韩国文化多样性的价值正在充分扩大。	1	2	3	4	5

◆文化多样性的体现水平

5. [亲密度] 你感觉与我们的社会有距离感吗？

① 非常有　② 有　③ 一般　④ 没有太大感觉　⑤ 完全感觉不到

6. [接受度]以下是调查（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的国民接受程度，请用√标记下您对每个问题的看法。

区分		非常是	是	一般	不是	完全不是
6-1	在我的日常生活中，如公司、学校等处，人们有时候因为我是(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而感到不舒服。	1	2	3	4	5
6-2	在参加聚会或社交活动时，因为我是(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而受到过不公平或不平等的待遇。	1	2	3	4	5
6-3	曾经因为我是(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所以我的行为或作品被贬低。	1	2	3	4	5
6-4	与其他人进行休闲/文化活动时，有时候因为我是(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所以人们的视线并不友善。	1	2	3	4	5
6-5	与别人相处的时候，我自己会觉得不舒服，所以有时候会避开这样的场合。	1	2	3	4	5

7. [包容度]以下是调查（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的社会包容程度，请用√标记下您对每个问题的看法。

区分		非常是	是	一般	不是	完全不是
7-1	我觉得社会对我的评价是不平等的。	1	2	3	4	5
7-2	我认为人们不完全了解我的不同之处。	1	2	3	4	5
7-3	我们的社会认为我不是应该共同相处的对象，而是需要帮助的对象。	1	2	3	4	5
7-4	广播与媒体常常以自己的标准来界定或表达我。	1	2	3	4	5
7-5	我的家人和朋友都担心我会在社会中被排斥和歧视。	1	2	3	4	5

8. [满意度]以下是调查对（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支援政策的满意程度，请用√标记下您对每个问题的看法。

区分		非常是	是	一般	不是	完全不是
8-1	政府提供了足够的支持，使我能够与他人保持同等水平的日常生活。	1	2	3	4	5
8-2	韩国有足够的法律和制度来防止日常生活中的歧视。	1	2	3	4	5
8-3	政府为我自由的文化/休闲活动提供充分的支持。	1	2	3	4	5
8-4	韩国有足够的法律和制度来防止文化/休闲生活中的歧视。	1	2	3	4	5
8-5	我没有因为是(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而在休闲活动或参与文化艺术活动中感觉不便。	1	2	3	4	5
8-6	政府正在充分努力改善公众对(外国人劳动者、结婚移民)的看法。	1	2	3	4	5
8-7	我对政府和民间团体提供的文化课程（语言教育、生活文化、文化艺术等）的内容和水平感到满意。	1	2	3	4	5

应答者基本信息
■ **性别** ①男 ②女 ■ **年龄** ① 10岁年龄段 ② 20岁年龄段 ③ 30岁年龄段 ④ 40岁年龄段 ⑤ 50岁年龄段 ⑥ 60岁以上 ■**最高学历** ①高中毕业以下 ②高中毕业 ③大专毕业 ④大学毕业以上 ⑤其他教育期间 (_________年) ■ **婚姻状态** ①已婚 ②未婚 ③再婚 ④其他( ) ■ **宗教** ①基督教 ② 天主教 ③佛教 ④ 伊斯兰教 ⑤其他( ) ⑥ 无 ■**居住地区** ①首尔 ②釜山 ③大邱 ④仁川 ⑤光州 ⑥大田 ⑦蔚山 ⑧世宗 ⑨京畿 ⑩江原 ⑪忠北 ⑫忠南 ⑬全北 ⑭全南 ⑮庆北 ⑯庆南 ⑰济州 ■ **职业** ①专业工作 ②公司文员 ③技能工作 ④销售 ⑤服务 ⑥农林渔业相关行业 ⑦公务员 ⑨军人 ⑩主妇 ⑪学生 ⑫无职 ⑬其他( ) ■**月家庭总收入** ①低于100万韩元 ②100万韩元~低于200万韩元 ③200万韩元~低于300万韩元 ④300万韩元~低于400万韩元 ⑤400万韩元~低于500万韩元 ⑥500万韩元~低于600万韩元 ⑦600万韩元以上 ■ **您在过去3年里是否参加过文化多样性相关的事业或培训?** ①参加过 (次) ②没有 ■ **您在过去3年里是否有过参加文化多样性相关活动的经验? (维权运动、宣传运动等)** ①参加过 (次) ②没有

- 感谢您参与我们的调查。 -

4) 베트남어

Điều tra sự đa dạng văn hóa trên thực tế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Mức độ nhận thức và sự đa dạng văn hóa

1. Bạn có biết rõ về ý nghĩa và khái niệm về tính đa dạng hóa văn hóa không?

· Tính đa dạng văn hóa là nói đến sự biểu hiện thông qua phương thức đa dạng về văn hóa của xã hội và của tập đoàn, bao gồm cả tính đa dạng của những sáng tạo trong nghệ thuật, sản xuất, lưu thông và phương thức hưởng thụ.
· Tính đa dạng văn hóa có vai trò thúc đẩy sự cộng sinh lành mạnh của những thành viên trong bối cảnh văn hóa đa dạng của xã hội.

① Rất đúng ② Đúng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đúng
⑤ Hoàn toàn không đúng

2. Bạn có đồng ý về giá trị đạt được của tính đa dạng văn hóa không?

① Rất đúng ② Đúng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đúng
⑤ Hoàn toàn không đúng

3. Bạn có nghĩ là giá trị của tính đa dạng văn hóa rất cần thiết trong hoàn cảnh xã hội Hàn Quốc hiện tại không?

① Rất đúng ② Đúng ③ Bình thường ④ Không đúng
⑤ Hoàn toàn không đúng

4.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để điều tra cụ thể hóa những tiêu chuẩn về tính đa dạng văn hóa của xã hội chúng ta. Hãy tích dấu √ vào những mục mà bạn đồng ý.

Nội dung		Rất đúng	Đúng	Bình thường	Không đúng	Hoàn toàn không đúng
4-1	Hàn Quốc là một xã hội tiếp nhận tính đa dạng văn hóa.	1	2	3	4	5
4-2	Hàn Quốc đảm bảo đầy đủ quyền lợi cho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1	2	3	4	5
4-3	Ở Hàn Quốc "khoảng cách" văn hóa xã hội không thể hiện sự khác biệt.	1	2	3	4	5
4-4	Hàn Quốc đảm bảo có cho việc tự do thể hiện " sự khác biệt".	1	2	3	4	5
4-5	Giá trị của tính đa dạng văn hóa đang được lan rộng tại Hàn Quốc.	1	2	3	4	5

◆ **Tiêu chuẩn cụ thể về tính đa dạng văn hóa**

5. [Mức độ cảm nhận] Bạn có cảm nhận được sự cách biệt của xã hội chúng ta không?

① Cảm nhận rất rõ ② Cảm nhận được ③ Cũng bình thường
④ Không cảm nhận được ⑤ Hoàn toàn không cảm nhận được

6. [Mức độ tiếp nhận]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điều tra về mức độ tiếp nhận của người dân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Hãy đánh dấu √ vào những nội dung bạn đồng ý.

Nội dung		Rất đúng	Đúng	Bình thường	Không đúng	Hoàn toàn không đúng
6-1	Xã hội, trường học trong sinh hoạt đời thường mọi người vì lí do tôi l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mà có khi cảm thấy không thoải mái.	1	2	3	4	5
6-2	Trong các hoạt động tập thể, cộng đồng vì lí do tôi l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mà tôi bị đối xử không công bằng hoặc chưa được ưu đãi đúng mực.	1	2	3	4	5
6-3	Vì lí do tôi l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nên những hành động của tôi hoặc những tác phẩm của tôi đã từng bị coi thường.	1	2	3	4	5
6-4	Khi tham gia các hoạt động văn hóa, hoạt động tự do với người khác vì lí do tôi là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nên tôi đã từng bị mọi người dò xét.	1	2	3	4	5
6-5	Khi ở cùng một chỗ với người khác tôi đã từng phải tránh đi vì không thấy thỏai mái.	1	2	3	4	5

7. [Mức độ chịu đựng] Dưới đây là những câu hỏi điều tra về mức độ chịu đựng của người dân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Hãy đánh dấu √ vào những nội dung bạn đồng ý.

Nội dung		Rất đúng	Đúng	Bình thường	Không đúng	Hoàn toàn không đúng
7-1	Tôi cảm nhận được sự không công bằng của xã hội đối với tôi.	1	2	3	4	5
7-2	Tôi nghĩ rằng mọi người không hiểu cho sự khác biệt của tôi.	1	2	3	4	5
7-3	Xã hội Hàn Quốc coi chúng tôi như là "đối tượng cần được giúp đỡ" hoặc là "đối tượng sống nhờ".	1	2	3	4	5
7-4	Truyền hình và ngôn luận thì thể hiện hay quy ước rằng tôi chỉ theo được tiêu chuẩn như vậy mà thôi.	1	2	3	4	5
7-5	Gia đình và bạn bè tôi thì lo lắng rằng tôi bị nhận sự phân biệt và tách biệt của xã hội.	1	2	3	4	5

8. [Mức độ hài lòng] Sau đây là câu hỏi để điều tra mức độ hài lòng về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Bạn hãy đánh dấu √ vào phần mình chọn.

Nội dung		Rất hài lòng	Hài lòng	Bình thường	Không hài lòng	Hoàn toàn không hài lòng
8-1	Chính phủ đang hỗ trợ đầy đủ để tôi có mức sống sinh hoạt bình đẳng với người khác.	1	2	3	4	5
8-2	Hàn Quốc có hệ thống pháp luật và chế độ đầy đủ để ngăn chặn sự phân biệt trong cuộc sống sinh hoạt thường ngày.	1	2	3	4	5
8-3	Chính phủ đang hỗ trợ đầy đủ để tôi có thể tự do hoạt động văn hóa và vui chơi.	1	2	3	4	5
8-4	Hàn Quốc có hệ thống pháp luật và chế độ đầy đủ để ngăn chặn sự phân biệt trong cuộc sống vui chơi giải trí, văn hóa.	1	2	3	4	5
8-5	Tôi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không khó khăn khi tham gia chương trình nghệ thuật văn hóa hay vui chơi giải trí.	1	2	3	4	5
8-6	Chính phủ đang cố gắng để cải thiện nhận thức của người dân về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người kết hôn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1	2	3	4	5
8-7	Tôi hài lòng về tiêu chuẩn và nội dung của chương trình văn hóa(dạy ngôn ngữ, văn hóa sinh hoạt, văn hóa nghệ thuật...) của chính phủ và tổ chức cộng đồng cung cấp.	1	2	3	4	5

Thông tin cơ bản của người được điều tra
■ **Giới tính** ① Nam ② Nữ ■ **Tuổi** ① Trên 10 ② Trên 20 ③ Trên 30 ④ Trên 40 ⑤ Trên 50 ⑥ Trên 60 ■ **Học vấn** ① Dưới cấp 3 ② Cấp 3 ③ Trường nghề ④ Đại học trở lên ⑤ Trường hợp khác thời gian đào tạo (__________năm) ■ **Tình trạng hôn nhân** ① Kết hôn ② Độc thân ③Tái hôn ④ Khác( ) ■ **Tôn giáo** ① Cơ đốc giáo ② Thiên chúa giáo ③ Đạo phật ④ Hội giáo ⑤ Khác( ) ⑥ Không có ■ **Nơi cư chú** ① Seoul ② Busan ③ Daegu ④ Inchoen ⑤ Kwangju ⑥ Daechoen ⑦ Ulsan ⑧ Sejong ⑨ Gyonggi ⑩ Kangwon ⑪ Chungbuk ⑫ Chungnam ⑬ Jeonbuk ⑭ Jeonnam ⑮ Gyeongbuk ⑯ Gyeongnam ⑰ Jeju ■ **Nghề nghiệp** ① Nghề chuyên môn ② Văn phòng ③ Nghề năng khiếu ④ Buôn bán ⑤ Dịch vụ ⑥ Nghề liên quan đến nông lâm ngư nghiệp ⑦ Nhân viên nhà nước ⑨ Quân đội ⑩ Nội trợ ⑪ Học sinh ⑫ Thất nghiệp ⑬ Khác( ) ■ **Tổng thu nhập gia đình trong 1 tháng** ①Dưới 1 triệu won ② 1 triệu won~dưới 2triệu won ③ 2 triệu won~ dưới 3 triệu won ④ 3 triệu won~ dưới 4 triệu won ⑤ 4 triệu won~ dưới 5 triệu won ⑥ 5 triệu won~ dưới 6 triệu won ⑦ Trên 6 triệu won ■ **Trong 3 năm gần đây bạn đã từng tham gia đào tạo hay công việc liên quan đến tính đa dạng văn hóa?** ① Có (số lần) ② Không ■ **Trong 3 năm gần đây bạn đã tham gia hoạt động liên quan đến tính đa văn hóa? (Bảo vệ nhân quyền, vận động...)** ① Có (số lần) ② Không

- Cám ơn bạn đã tham gia điều tra -

3. 북한이탈주민 설문지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인식)

◆ 문화다양성 인식 수준

1. 귀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다양성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예술적 창작, 생산, 유통 및 향유방식 등의 다양성을 포함함.
·문화다양성 정책은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건강한 공존을 이루도록 추구하는 정책임.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3. 귀하께서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한국 환경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 다음은 우리 사회의 문화다양성 의식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1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1	2	3	4	5
4-2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	2	3	4	5
4-3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	2	3	4	5
4-4	한국은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1	2	3	4	5
4-5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1	2	3	4	5

◆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

5. [친밀도] 귀하께서는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느낀다 ② 느낀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느끼지 않는다 ⑤ 전혀 느끼지 않는다

6. [수용도]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수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6-1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할 때가 있다.	1	2	3	4	5
6-2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5
6-3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다.	1	2	3	4	5
6-4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문화 활동을 할 때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다.	1	2	3	4	5
6-5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 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	1	2	3	4	5

7. [포용도]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7-1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	1	2	3	4	5
7-2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7-3	우리사회는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할 대상'으로 간주한고 있다.	1	2	3	4	5
7-4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한다.	1	2	3	4	5
7-5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한다.	1	2	3	4	5

8. [만족도]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귀하의 생각에 √ 표시해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	정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2	3	4	5
8-2	한국은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1	2	3	4	5
8-3	정부는 나의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1	2	3	4	5
8-4	한국은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1	2	3	4	5
8-5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여가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	1	2	3	4	5
8-6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8-7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언어교육, 생활문화, 문화예술 등)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	1	2	3	4	5

응답자 기본정보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최종학력** ① 고졸미만 ② 고졸 ③ 전문대 졸 ④ 대졸 이상

⑤ 기타 교육기간 (________년)

■ **혼인상태** ① 기혼 ② 미혼 ③재혼 ④ 기타( )

■ **종교** ①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이슬람교 ⑤ 기타( ) ⑥ 없음

■ **거주지역**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 **직업**

① 전문직 ② 사무직 ③ 기능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농림어업 관련 직종 ⑦ 공무원 ⑨ 군인 ⑩ 주부 ⑪ 학생 ⑫ 무직 ⑬ 기타( )

■ **월 가구 총소득**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나 교육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회) ② 없다

■ **귀하께서는 지난 3년 간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권익보호운동, 캠페인 등)**

① 있다 (회) ② 없다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시도별 행정자료 수집양식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자료 수집

광역시도명	

작성자	성명		부서		직위	
	E-mail	@korea.kr	전화번호	(　　)	-	

* 모든 자료수집의 시간적 범위는 **2015~2016년**이며, 2015.01.01.부터 누적되어 2016.12.31. 기준 유효한 자료를 수집하여 주시면 됩니다.

* 조사 중인 모든 수집목록은 **조례·규칙/지원사업/예산/공공기관/민간단체** 부문 13개의 유형으로 각각 구분하여 수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개 유형 –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

---

1 조례·규칙

1. 2016년 12월 기준, 귀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다음 해당사항별 지원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 및 규칙의 총 개수를 기재해주십시오.

구분	광역시도 조례·규칙명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명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구분	광역시도 조례·규칙명	기초자치단체 조례·규칙명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		
문화다양성/종합		

✓ 조례·규칙의 이름이나 본문에 ‘문화예술분야 지원’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대상이 중복될 경우 중복 건수로 인정(예: 여성장애인 대상 조례의 경우 여성, 장애인 모두 해당)

2 지원사업

2. 2015~2016년(최근 2년) 동안 귀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다음 해당 사항별 지원을 위해 실시한 사업을 기재해주십시오. (※광역시도 사업과 기초지자체 사업 간 중복집계 불가, 여러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종합’란에 기재)

구분	2015년	2016년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		
종합		

✓ 지자체, 문화예술기관(문화원, 문화재단, 문예회관 등), 지역단체 등에서 추진한 사업을 모두 포함하여 집계

✓ 지원 사업에는 지자체 직접추진사업, 위탁추진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등이 모두 포함

✓ 대상이 중복될 경우 중복 건수로 인정(예: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의 경우 여성, 장애인 모두 해당)

3 예산

3. 2015~2016년(최근 2년) 동안 귀 광역시도(기초지자체 포함)에서 다음 해당사항별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 총액을 각각 기재해주십시오.

구분	2015년 (단위: 백만 원)	2016년 (단위: 백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		
문화다양성/종합		

✓ **당해 연도 세출예산 기준(문화분야만 포함)**
✓ 지원 사업 추진, 지원인력 운용, 기반시설 조성/운영 등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포함
✓ 해당지역 내 문화재단, 복지재단 등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에서 집행하는 지원 예산 모두 포함
✓ 대상이 중복될 경우 중복 건수로 인정(예: 여성장애인 대상 정책의 경우 여성, 장애인 모두 해당)

4 공공 기관

4. 2016년 12월 기준, 귀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에서 다음 해당사항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 및 정보를 기재해주십시오.

구분	광역시도 기관명 (담당부서, 인원 수)	기초자치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인원 수)
외국인근로자 지원		
결혼이주민여성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구분	광역시도 기관명 (담당부서, 인원 수)	기초자치단체 기관명 (담당부서, 인원 수)
성차별 근절		
성소수자 관련 사업		
장애인 문화지원		
세대 간 갈등 해소		
전통문화 보존		
지역문화 발전		
예술의 다양성 확보		
종교의 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저소득층 문화 지원		
기타		

- ✓ 집계대상기관은 문화다양성 진흥의 목적을 지닌 지역 내 문화(예술)시설에 한정
- ✓ 단,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관련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관/시설의 경우 집계대상에 포함(예: 여성/노인/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전수회관, 문화원, 여성문화센터 등)
- ✓ 대상이 중복될 경우 중복 건수로 인정(예: 여성장애인 대상 기관의 경우 여성, 장애인 모두 해당)

5. 통계표

[대국민 인식조사]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100)	1.8	8.7	40.9	40.5	8.1	100.0	10.5	40.9	48.6	3.44
성별	남자	(1068)	2.4	7.4	39.1	41.8	9.3	100.0	9.8	39.1	51.0	3.48
	여자	(1032)	1.2	10.0	42.7	39.1	7.0	100.0	11.1	42.7	46.1	3.41
연령별	만19~29세	(415)	1.9	8.9	37.6	42.4	9.2	100.0	10.8	37.6	51.6	3.48
	30대	(416)	1.7	8.7	42.1	38.7	8.9	100.0	10.3	42.1	47.6	3.44
	40대	(485)	2.5	9.7	42.7	38.8	6.4	100.0	12.2	42.7	45.2	3.37
	50대	(473)	1.9	7.6	42.3	40.8	7.4	100.0	9.5	42.3	48.2	3.44
	60세 이상	(311)	0.6	8.4	38.9	42.4	9.6	100.0	9.0	38.9	52.1	3.52
거주 지역별	서울	(418)	1.9	9.8	40.2	37.3	10.8	100.0	11.7	40.2	48.1	3.45
	경기/인천	(644)	2.0	7.6	39.0	44.6	6.8	100.0	9.6	39.0	51.4	3.47
	부산/울산/경남	(325)	2.5	9.5	44.9	36.0	7.1	100.0	12.0	44.9	43.1	3.36
	대구/경북	(207)	1.4	7.2	44.0	42.5	4.8	100.0	8.7	44.0	47.3	3.42
	광주/전북/전남	(201)	0.0	11.4	35.8	43.3	9.5	100.0	11.4	35.8	52.7	3.51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1.8	9.1	42.0	39.3	7.8	100.0	11.0	42.0	47.0	3.42
	강원/제주	(86)	2.3	3.5	45.3	33.7	15.1	100.0	5.8	45.3	48.8	3.56
학력별	고졸 미만	(37)	8.1	18.9	48.6	21.6	2.7	100.0	27.0	48.6	24.3	2.92
	고졸	(472)	2.3	11.7	46.6	34.1	5.3	100.0	14.0	46.6	39.4	3.28
	전문대 졸	(296)	2.4	10.8	45.3	37.2	4.4	100.0	13.2	45.3	41.6	3.30
	대졸	(1073)	1.0	7.1	37.8	44.3	9.8	100.0	8.1	37.8	54.1	3.55
	대학원 이상	(222)	2.7	5.4	36.5	43.2	12.2	100.0	8.1	36.5	55.4	3.57
혼인 상태	기혼	(1362)	1.5	8.2	42.4	40.2	7.7	100.0	9.8	42.4	47.9	3.44
	미혼	(698)	2.1	9.2	38.1	41.1	9.5	100.0	11.3	38.1	50.6	3.47
	재혼	(8)	0.0	25.0	25.0	50.0	0.0	100.0	25.0	25.0	50.0	3.25
	기타	(32)	6.3	12.5	43.8	37.5	0.0	100.0	18.8	43.8	37.5	3.13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2.2	8.2	33.3	47.5	8.8	100.0	10.3	33.3	56.3	3.53
	천주교	(232)	1.3	5.6	40.5	44.8	7.8	100.0	6.9	40.5	52.6	3.52
	불교	(351)	1.4	7.4	47.6	35.6	8.0	100.0	8.8	47.6	43.6	3.41
	이슬람교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5.00
	기타	(5)	0.0	20.0	60.0	0.0	20.0	100.0	20.0	60.0	20.0	3.20
	없음	(1046)	1.9	9.9	42.1	38.2	7.8	100.0	11.9	42.1	46.1	3.40
직업별	전문직	(225)	2.2	4.9	38.2	44.0	10.7	100.0	7.1	38.2	54.7	3.56
	사무직	(780)	.9	9.1	41.4	42.6	6.0	100.0	10.0	41.4	48.6	3.44
	기능직	(126)	4.0	8.7	38.1	42.9	6.3	100.0	12.7	38.1	49.2	3.39
	판매직	(56)	5.4	5.4	42.9	35.7	10.7	100.0	10.7	42.9	46.4	3.41
	서비스직	(140)	2.9	10.0	40.7	36.4	10.0	100.0	12.9	40.7	46.4	3.41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0.0	0.0	44.4	55.6	0.0	100.0	0.0	44.4	55.6	3.56
	공무원	(75)	2.7	4.0	32.0	41.3	20.0	100.0	6.7	32.0	61.3	3.72
	군인	(5)	0.0	20.0	20.0	40.0	20.0	100.0	20.0	20.0	60.0	3.60
	주부	(348)	.6	11.8	47.4	34.5	5.7	100.0	12.4	47.4	40.2	3.33
	학생	(150)	2.0	6.0	31.3	48.7	12.0	100.0	8.0	31.3	60.7	3.63
	무직	(153)	4.6	9.8	41.2	34.6	9.8	100.0	14.4	41.2	44.4	3.35
	기타	(33)	0.0	9.1	51.5	30.3	9.1	100.0	9.1	51.5	39.4	3.39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9.3	13.4	34.0	34.0	9.3	100.0	22.7	34.0	43.3	3.21
	100만원 미만	(86)	2.3	8.1	55.8	27.9	5.8	100.0	10.5	55.8	33.7	3.27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9	9.7	47.5	33.9	7.0	100.0	11.7	47.5	40.9	3.34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1.9	11.1	44.9	34.3	7.8	100.0	13.0	44.9	42.1	3.35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1.2	8.7	39.2	42.1	8.7	100.0	9.9	39.2	50.8	3.48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2.2	7.5	36.1	46.4	7.8	100.0	9.7	36.1	54.2	3.50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0.0	7.0	37.2	46.3	9.5	100.0	7.0	37.2	55.8	3.58
	600만원 이상	(313)	1.0	6.1	39.0	45.7	8.3	100.0	7.0	39.0	54.0	3.54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0.7	4.3	24.5	54.7	15.8	100.0	5.0	24.5	70.5	3.81
	없음	(1961)	1.9	9.0	42.1	39.5	7.6	100.0	10.9	42.1	47.1	3.4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0.4	4.1	29.4	54.7	11.4	100.0	4.5	29.4	66.1	3.73
	없음	(1855)	2.0	9.3	42.4	38.6	7.7	100.0	11.3	42.4	46.3	3.41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100)	0.5	2.2	21.2	60.9	15.3	100.0	2.7	21.2	76.1	3.88
성별	남자	(1068)	0.8	2.0	21.5	58.6	17.0	100.0	2.8	21.5	75.7	3.89
	여자	(1032)	0.1	2.4	20.8	63.2	13.5	100.0	2.5	20.8	76.6	3.88
연령별	만19~29세	(415)	0.5	2.4	17.6	62.2	17.3	100.0	2.9	17.6	79.5	3.93
	30대	(416)	0.2	3.8	21.6	57.5	16.8	100.0	4.1	21.6	74.3	3.87
	40대	(485)	0.6	1.6	24.7	58.8	14.2	100.0	2.3	24.7	73.0	3.84
	50대	(473)	0.6	1.3	18.8	65.5	13.7	100.0	1.9	18.8	79.3	3.90
	60세 이상	(311)	0.3	1.9	23.5	59.8	14.5	100.0	2.3	23.5	74.3	3.86
거주 지역별	서울	(418)	0.7	2.9	20.6	57.4	18.4	100.0	3.6	20.6	75.8	3.90
	경기/인천	(644)	0.5	1.7	21.6	62.0	14.3	100.0	2.2	21.6	76.2	3.88
	부산/울산/경남	(325)	0.3	2.2	24.9	58.8	13.8	100.0	2.5	24.9	72.6	3.84
	대구/경북	(207)	0.5	1.0	21.3	69.1	8.2	100.0	1.4	21.3	77.3	3.84
	광주/전북/전남	(201)	0.0	4.0	19.9	58.2	17.9	100.0	4.0	19.9	76.1	3.90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0.9	2.3	19.6	62.6	14.6	100.0	3.2	19.6	77.2	3.88
	강원/제주	(86)	0.0	1.2	14.0	59.3	25.6	100.0	1.2	14.0	84.9	4.09
학력별	고졸 미만	(37)	2.7	2.7	37.8	51.4	5.4	100.0	5.4	37.8	56.8	3.54
	고졸	(472)	0.6	3.2	25.6	58.7	11.9	100.0	3.8	25.6	70.6	3.78
	전문대 졸	(296)	1.0	2.4	23.0	63.5	10.1	100.0	3.4	23.0	73.6	3.79
	대졸	(1073)	0.2	1.4	19.2	62.3	17.0	100.0	1.6	19.2	79.2	3.94
	대학원 이상	(222)	0.5	3.6	16.2	56.8	23.0	100.0	4.1	16.2	79.7	3.98
혼인 상태	기혼	(1362)	0.4	1.9	21.5	61.7	14.4	100.0	2.3	21.5	76.1	3.88
	미혼	(698)	0.4	2.7	20.6	58.9	17.3	100.0	3.2	20.6	76.2	3.90
	재혼	(8)	0.0	0.0	25.0	75.0	0.0	100.0	0.0	25.0	75.0	3.75
	기타	(32)	3.1	3.1	18.8	62.5	12.5	100.0	6.3	18.8	75.0	3.78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0.4	2.2	21.1	61.1	15.3	100.0	2.6	21.1	76.3	3.89
	천주교	(232)	0.9	3.4	19.8	61.2	14.7	100.0	4.3	19.8	75.9	3.85
	불교	(351)	0.9	2.3	22.2	61.3	13.4	100.0	3.1	22.2	74.6	3.84
	이슬람교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기타	(5)	0.0	0.0	0.0	80.0	20.0	100.0	0.0	0.0	100.0	4.20
	없음	(1046)	0.3	1.9	21.3	60.4	16.1	100.0	2.2	21.3	76.5	3.90
직업별	전문직	(225)	0.4	5.8	17.3	56.9	19.6	100.0	6.2	17.3	76.4	3.89
	사무직	(780)	0.1	1.5	20.5	63.6	14.2	100.0	1.7	20.5	77.8	3.90
	기능직	(126)	1.6	4.8	27.0	57.1	9.5	100.0	6.3	27.0	66.7	3.68
	판매직	(56)	3.6	0.0	28.6	53.6	14.3	100.0	3.6	28.6	67.9	3.75
	서비스직	(140)	0.7	2.1	19.3	64.3	13.6	100.0	2.9	19.3	77.9	3.88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0.0	0.0	11.1	66.7	22.2	100.0	0.0	11.1	88.9	4.11
	공무원	(75)	0.0	1.3	13.3	54.7	30.7	100.0	1.3	13.3	85.3	4.15
	군인	(5)	20.0	0.0	20.0	0.0	60.0	100.0	20.0	20.0	60.0	3.80
	주부	(348)	0.3	2.0	25.3	62.6	9.8	100.0	2.3	25.3	72.4	3.80
	학생	(150)	0.0	1.3	12.0	65.3	21.3	100.0	1.3	12.0	86.7	4.07
	무직	(153)	0.7	0.7	26.8	53.6	18.3	100.0	1.3	26.8	71.9	3.88
	기타	(33)	0.0	3.0	30.3	51.5	15.2	100.0	3.0	30.3	66.7	3.79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1.0	0.0	28.9	56.7	13.4	100.0	1.0	28.9	70.1	3.81
	100만원 미만	(86)	0.0	3.5	27.9	55.8	12.8	100.0	3.5	27.9	68.6	3.78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2	2.7	26.1	58.0	12.1	100.0	3.9	26.1	70.0	3.77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0.6	2.2	24.9	57.6	14.7	100.0	2.8	24.9	72.3	3.84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0.7	2.4	19.4	64.5	13.0	100.0	3.1	19.4	77.5	3.87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0.3	3.1	19.0	60.7	16.8	100.0	3.4	19.0	77.6	3.91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0.0	1.7	19.0	64.0	15.3	100.0	1.7	19.0	79.3	3.93
	600만원 이상	(313)	0.0	1.3	15.0	62.3	21.4	100.0	1.3	15.0	83.7	4.04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1.4	0.7	10.8	62.6	24.5	100.0	2.2	10.8	87.1	4.08
	없음	(1961)	0.4	2.3	21.9	60.7	14.6	100.0	2.7	21.9	75.4	3.8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0.4	0.4	11.4	65.3	22.4	100.0	0.8	11.4	87.8	4.09
	없음	(1855)	0.5	2.4	22.5	60.3	14.3	100.0	2.9	22.5	74.6	3.86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2100)	0.6	3.9	21.7	56.6	17.2	100.0	4.5	21.7	73.8	3.86
성별	남자	(1068)	0.9	3.4	22.4	55.6	17.7	100.0	4.3	22.4	73.3	3.86
	여자	(1032)	0.3	4.4	21.0	57.6	16.8	100.0	4.7	21.0	74.3	3.86
연령별	만19~29세	(415)	0.5	3.9	19.3	52.0	24.3	100.0	4.3	19.3	76.4	3.96
	30대	(416)	1.4	3.8	20.7	53.6	20.4	100.0	5.3	20.7	74.0	3.88
	40대	(485)	0.4	3.7	23.5	56.9	15.5	100.0	4.1	23.5	72.4	3.83
	50대	(473)	0.4	3.0	20.1	63.0	13.5	100.0	3.4	20.1	76.5	3.86
	60세 이상	(311)	0.3	5.5	26.0	56.3	11.9	100.0	5.8	26.0	68.2	3.74
거주 지역별	서울	(418)	0.5	3.6	21.1	56.7	18.2	100.0	4.1	21.1	74.9	3.89
	경기/인천	(644)	0.8	3.6	22.2	56.5	16.9	100.0	4.3	22.2	73.4	3.85
	부산/울산/경남	(325)	0.0	5.8	24.3	51.7	18.2	100.0	5.8	24.3	69.8	3.82
	대구/경북	(207)	0.5	4.8	24.2	59.9	10.6	100.0	5.3	24.2	70.5	3.75
	광주/전북/전남	(201)	0.5	2.0	17.4	58.2	21.9	100.0	2.5	17.4	80.1	3.99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1.8	4.1	20.1	59.8	14.2	100.0	5.9	20.1	74.0	3.80
	강원/제주	(86)	0.0	1.2	19.8	54.7	24.4	100.0	1.2	19.8	79.1	4.02
학력별	고졸 미만	(37)	0.0	10.8	32.4	54.1	2.7	100.0	10.8	32.4	56.8	3.49
	고졸	(472)	1.3	4.9	24.6	56.6	12.7	100.0	6.1	24.6	69.3	3.75
	전문대 졸	(296)	0.7	4.1	25.0	54.7	15.5	100.0	4.7	25.0	70.3	3.80
	대졸	(1073)	0.4	3.2	20.1	57.3	19.0	100.0	3.5	20.1	76.3	3.91
	대학원 이상	(222)	0.5	3.6	17.1	55.9	23.0	100.0	4.1	17.1	78.8	3.97
혼인 상태	기혼	(1362)	0.4	3.9	22.2	59.0	14.5	100.0	4.3	22.2	73.5	3.83
	미혼	(698)	0.9	3.7	20.9	51.6	22.9	100.0	4.6	20.9	74.5	3.92
	재혼	(8)	0.0	12.5	12.5	50.0	25.0	100.0	12.5	12.5	75.0	3.88
	기타	(32)	3.1	3.1	21.9	62.5	9.4	100.0	6.3	21.9	71.9	3.72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0.4	5.2	24.1	53.8	16.6	100.0	5.6	24.1	70.3	3.81
	천주교	(232)	1.3	4.7	19.4	58.2	16.4	100.0	6.0	19.4	74.6	3.84
	불교	(351)	0.6	4.3	19.9	61.5	13.7	100.0	4.8	19.9	75.2	3.83
	이슬람교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5.00
	기타	(5)	0.0	0.0	20.0	40.0	40.0	100.0	0.0	20.0	80.0	4.20
	없음	(1046)	0.6	3.0	21.8	55.9	18.7	100.0	3.5	21.8	74.7	3.89
직업별	전문직	(225)	0.4	5.3	17.3	55.1	21.8	100.0	5.8	17.3	76.9	3.9
	사무직	(780)	0.4	2.9	20.3	59.7	16.7	100.0	3.3	20.3	76.4	3.9
	기능직	(126)	3.2	6.3	27.8	50.0	12.7	100.0	9.5	27.8	62.7	3.6
	판매직	(56)	1.8	5.4	32.1	44.6	16.1	100.0	7.1	32.1	60.7	3.7
	서비스직	(140)	1.4	3.6	19.3	57.9	17.9	100.0	5.0	19.3	75.7	3.9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0.0	0.0	22.2	55.6	22.2	100.0	0.0	22.2	77.8	4.0
	공무원	(75)	0.0	2.7	12.0	46.7	38.7	100.0	2.7	12.0	85.3	4.2
	군인	(5)	0.0	0.0	40.0	40.0	20.0	100.0	0.0	40.0	60.0	3.8
	주부	(348)	0.3	4.3	26.4	59.2	9.8	100.0	4.6	26.4	69.0	3.7
	학생	(150)	0.7	3.3	18.7	53.3	24.0	100.0	4.0	18.7	77.3	4.0
	무직	(153)	0.0	5.2	22.2	53.6	19.0	100.0	5.2	22.2	72.5	3.9
	기타	(33)	0.0	0.0	36.4	57.6	6.1	100.0	0.0	36.4	63.6	3.7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0.0	7.2	24.7	48.5	19.6	100.0	7.2	24.7	68.0	3.80
	100만원 미만	(86)	0.0	5.8	20.9	59.3	14.0	100.0	5.8	20.9	73.3	3.81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2	3.9	25.3	53.7	16.0	100.0	5.1	25.3	69.6	3.79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0.8	3.9	24.1	56.0	15.2	100.0	4.7	24.1	71.2	3.81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0.5	3.8	22.5	57.0	16.3	100.0	4.3	22.5	73.3	3.85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0.9	3.7	19.3	56.1	19.9	100.0	4.7	19.3	76.0	3.90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0.4	3.7	19.4	60.7	15.7	100.0	4.1	19.4	76.4	3.88
	600만원 이상	(313)	0.3	2.6	18.5	58.1	20.4	100.0	2.9	18.5	78.6	3.96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0.7	0.7	12.9	58.3	27.3	100.0	1.4	12.9	85.6	4.11
	없음	(1961)	0.6	4.1	22.3	56.5	16.5	100.0	4.7	22.3	73.0	3.8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0.4	2.0	12.7	61.6	23.3	100.0	2.4	12.7	84.9	4.05
	없음	(1855)	0.6	4.1	22.9	55.9	16.4	100.0	4.7	22.9	72.3	3.83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전체		(2100)	25.5	11.0	10.3	14.8	17.3
성별	남자	(1068)	24.3	11.5	11.5	15.7	17.8
	여자	(1032)	26.8	10.6	9.1	13.9	16.8
연령별	만19~29세	(415)	22.4	11.8	9.4	12.0	14.0
	30대	(416)	17.5	10.3	9.9	10.6	11.1
	40대	(485)	23.7	9.1	8.2	13.2	14.8
	50대	(473)	30.0	11.4	10.4	15.9	20.5
	60세 이상	(311)	36.3	13.5	15.4	25.1	28.9
거주 지역별	서울	(418)	22.2	8.9	10.0	12.9	17.5
	경기/인천	(644)	25.3	10.7	9.2	12.9	14.4
	부산/울산/경남	(325)	26.8	10.5	10.8	17.2	17.2
	대구/경북	(207)	28.0	13.5	10.6	16.9	21.3
	광주/전북/전남	(201)	27.4	10.9	13.9	17.4	19.9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25.6	14.2	11.9	16.4	17.8
	강원/제주	(86)	27.9	12.8	5.8	14.0	20.9
학력별	고졸 미만	(37)	32.4	18.9	24.3	29.7	35.1
	고졸	(472)	32.8	15.9	9.3	17.6	18.4
	전문대 졸	(296)	27.7	9.5	10.8	16.2	17.6
	대졸	(1073)	22.5	9.1	9.5	12.6	15.3
	대학원 이상	(222)	20.7	10.8	13.5	15.3	21.2
혼인 상태	기혼	(1362)	27.6	11.4	10.9	16.5	19.2
	미혼	(698)	21.1	10.7	9.5	11.7	13.8
	재혼	(8)	37.5	0.0	0.0	0.0	12.5
	기타	(32)	31.3	6.3	6.3	12.5	15.6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21.3	12.7	11.4	14.0	19.1
	천주교	(232)	23.7	9.1	14.7	14.7	13.4
	불교	(351)	35.9	13.1	15.1	22.8	23.4
	이슬람교	(1)	0.0	0.0	0.0	0.0	0.0
	기타	(5)	40.0	0.0	0.0	20.0	20.0
	없음	(1046)	24.3	10.1	7.4	12.5	15.3
직업별	전문직	(225)	24.4	12.0	12.4	15.6	16.0
	사무직	(780)	22.6	8.8	9.1	13.1	15.5
	기능직	(126)	23.0	14.3	13.5	16.7	20.6
	판매직	(56)	37.5	19.6	19.6	23.2	25.0
	서비스직	(140)	32.9	9.3	7.9	15.0	15.0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11.1	0.0	0.0	22.2	0.0
	공무원	(75)	16.0	9.3	10.7	10.7	24.0
	군인	(5)	20.0	20.0	20.0	40.0	40.0
	주부	(348)	32.8	11.8	10.6	17.8	21.0
	학생	(150)	24.0	13.3	9.3	11.3	14.7
	무직	(153)	22.2	13.1	11.1	14.4	16.3
	기타	(33)	33.3	15.2	6.1	18.2	15.2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18.6	8.2	5.2	8.2	15.5
	100만원 미만	(86)	29.1	17.4	11.6	12.8	19.8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23.7	10.9	10.5	16.0	16.3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29.9	11.4	12.5	17.2	16.3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23.6	12.1	10.6	16.3	18.0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26.5	9.3	10.9	12.8	17.1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25.2	14.0	9.1	16.5	18.6
	600만원 이상	(313)	24.9	8.0	8.9	12.5	17.3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29.5	14.4	12.9	16.5	28.1
	없음	(1961)	25.2	10.8	10.1	14.7	16.5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25.7	14.7	13.5	17.6	25.7
	없음	(1855)	25.5	10.6	9.9	14.4	16.2

[표 2-1. 구성원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top2%(매우 거리감을 느낀다+거리감을 느낀다)]

		사례수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전체		(2100)	42.9	41.9	21.9	62.8	16.0	16.8
성별	남자	(1068)	42.0	37.3	21.2	69.6	15.5	17.8
	여자	(1032)	43.7	46.6	22.7	55.8	16.6	15.7
연령별	만19~29세	(415)	46.7	46.0	21.0	44.6	15.7	18.8
	30대	(416)	52.4	53.1	27.6	60.8	20.7	19.5
	40대	(485)	44.1	44.9	21.9	65.4	18.1	17.9
	50대	(473)	37.8	34.2	19.9	72.3	14.0	13.5
	60세 이상	(311)	30.5	28.0	18.6	71.4	10.3	13.5
거주 지역별	서울	(418)	44.3	42.3	24.2	61.7	18.7	18.4
	경기/인천	(644)	44.9	42.7	21.0	63.5	15.7	16.6
	부산/울산/경남	(325)	38.5	40.6	20.6	60.6	12.6	13.5
	대구/경북	(207)	42.5	43.0	25.6	69.6	15.9	14.0
	광주/전북/전남	(201)	39.8	40.3	19.4	58.7	18.4	19.9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44.7	42.0	21.5	66.7	16.9	18.7
	강원/제주	(86)	40.7	38.4	20.9	54.7	11.6	16.3
학력별	고졸 미만	(37)	27.0	27.0	21.6	86.5	10.8	16.2
	고졸	(472)	39.0	39.0	20.3	61.4	14.4	15.3
	전문대 졸	(296)	37.5	41.9	22.3	56.4	15.2	17.9
	대졸	(1073)	47.5	44.5	22.5	64.7	17.8	17.3
	대학원 이상	(222)	38.3	37.8	22.1	61.3	13.1	15.8
혼인 상태	기혼	(1362)	40.9	40.1	21.1	68.9	15.5	15.7
	미혼	(698)	47.0	46.1	23.8	50.3	17.8	19.1
	재혼	(8)	25.0	25.0	25.0	75.0	0.0	25.0
	기타	(32)	40.6	28.1	15.6	71.9	6.3	9.4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38.9	35.1	19.4	70.1	13.8	15.3
	천주교	(232)	38.4	40.5	22.0	60.8	14.2	12.9
	불교	(351)	42.2	42.5	22.8	64.1	14.8	14.2
	이슬람교	(1)	100.0	100.0	100.0	100.0	0.0	0.0
	기타	(5)	40.0	20.0	20.0	80.0	20.0	20.0
	없음	(1046)	45.8	45.0	22.7	59.5	17.9	19.1
직업별	전문직	(225)	40.9	39.1	20.0	54.7	13.8	18.2
	사무직	(780)	44.5	44.4	22.1	66.2	18.1	15.3
	기능직	(126)	35.7	38.1	23.8	70.6	13.5	21.4
	판매직	(56)	41.1	26.8	19.6	69.6	14.3	23.2
	서비스직	(140)	40.0	45.0	21.4	58.6	20.7	18.6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55.6	44.4	33.3	77.8	22.2	33.3
	공무원	(75)	46.7	40.0	22.7	64.0	14.7	16.0
	군인	(5)	40.0	60.0	20.0	80.0	20.0	40.0
	주부	(348)	40.8	44.8	21.3	64.7	14.9	13.5
	학생	(150)	46.0	38.7	21.3	48.0	12.7	14.0
	무직	(153)	45.1	35.3	24.2	60.1	14.4	24.2
	기타	(33)	45.5	42.4	24.2	66.7	12.1	12.1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44.3	45.4	26.8	48.5	12.4	22.7
	100만원 미만	(86)	45.3	37.2	23.3	57.0	11.6	12.8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33.1	36.2	18.7	56.4	14.8	20.2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45.7	43.5	23.3	65.9	16.6	17.2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44.2	41.6	19.9	65.0	14.9	17.0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39.3	40.8	21.2	59.8	16.5	12.1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46.3	45.9	24.0	66.9	16.9	15.3
	600만원 이상	(313)	45.7	43.1	23.0	67.4	19.2	18.2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33.1	33.8	15.1	47.5	9.4	13.7
	없음	(1961)	43.5	42.4	22.4	63.9	16.5	17.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40.8	37.6	20.0	61.6	13.5	14.3
	없음	(1855)	43.1	42.4	22.2	63.0	16.4	17.1

[표 2-2.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_top2%(문제가 매우 심하다+문제가 있다)]

		사례수	성별 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 문화예술 독점	전통문화 위기	지방(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전체		(2100)	65.0	49.2	68.8	55.8	61.1	54.1	75.0
성별	남자	(1068)	55.2	55.9	69.7	55.0	57.7	50.8	71.6
	여자	(1032)	75.1	42.3	67.9	56.6	64.7	57.6	78.5
연령별	만19~29세	(415)	71.3	30.4	60.5	48.4	56.4	56.4	75.4
	30대	(416)	67.8	47.4	66.6	53.8	60.3	60.8	75.7
	40대	(485)	64.7	46.8	69.3	59.4	63.1	54.0	79.4
	50대	(473)	60.5	59.8	69.3	58.8	62.6	51.6	74.4
	60세 이상	(311)	60.1	64.6	81.4	57.9	63.3	46.3	67.5
거주 지역별	서울	(418)	60.8	45.9	68.9	54.3	58.1	47.1	76.6
	경기/인천	(644)	70.7	50.0	68.3	55.1	64.0	51.7	75.0
	부산/울산/경남	(325)	60.3	50.8	70.2	53.5	61.5	53.5	70.8
	대구/경북	(207)	58.0	47.3	65.2	54.1	57.5	54.1	68.6
	광주/전북/전남	(201)	64.2	51.7	72.6	59.7	56.2	66.7	78.1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67.6	50.7	65.8	58.0	63.5	60.3	79.0
	강원/제주	(86)	73.3	48.8	74.4	65.1	67.4	64.0	81.4
학력별	고졸 미만	(37)	48.6	59.5	73.0	54.1	45.9	43.2	73.0
	고졸	(472)	63.6	50.6	68.4	51.3	61.0	52.1	73.5
	전문대 졸	(296)	65.2	43.2	64.9	52.7	64.5	53.0	75.3
	대졸	(1073)	65.6	49.4	70.3	58.0	61.7	56.0	76.9
	대학원 이상	(222)	67.6	51.8	67.1	59.0	56.8	52.7	68.9
혼인 상태	기혼	(1362)	62.4	56.1	71.6	56.2	62.1	52.6	74.4
	미혼	(698)	69.9	35.1	62.8	54.4	58.7	57.4	75.8
	재혼	(8)	75.0	75.0	100.0	87.5	75.0	62.5	87.5
	기타	(32)	65.6	59.4	75.0	56.3	68.8	46.9	81.3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66.2	53.5	69.7	59.4	61.1	56.8	75.9
	천주교	(232)	68.1	51.7	75.4	55.2	65.1	57.3	76.7
	불교	(351)	59.3	52.7	72.1	55.8	67.5	57.8	74.1
	이슬람교	(1)	100.0	100.0	100.0	100.0	100.0	0.0	100.0
	기타	(5)	100.0	80.0	80.0	60.0	40.0	40.0	80.0
	없음	(1046)	65.5	45.4	65.8	54.2	58.2	51.1	74.5
직업별	전문직	(225)	65.8	50.7	73.8	57.3	64.9	55.1	76.9
	사무직	(780)	65.8	50.8	67.6	55.4	61.2	56.3	76.4
	기능직	(126)	57.9	57.9	65.9	49.2	58.7	54.0	64.3
	판매직	(56)	60.7	42.9	66.1	60.7	58.9	48.2	73.2
	서비스직	(140)	60.0	52.1	76.4	61.4	65.7	59.3	72.9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55.6	44.4	77.8	44.4	66.7	44.4	77.8
	공무원	(75)	66.7	53.3	76.0	65.3	57.3	60.0	80.0
	군인	(5)	40.0	20.0	40.0	20.0	40.0	60.0	80.0
	주부	(348)	67.2	48.9	68.1	56.3	61.2	49.1	75.0
	학생	(150)	68.0	26.7	58.0	44.0	52.7	52.0	75.3
	무직	(153)	65.4	51.6	70.6	57.5	63.4	48.4	73.2
	기타	(33)	60.6	60.6	81.8	72.7	66.7	63.6	75.8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75.3	38.1	63.9	52.6	58.8	49.5	79.4
	100만원 미만	(86)	65.1	47.7	64.0	50.0	53.5	46.5	68.6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68.1	44.7	64.6	53.7	59.1	57.2	75.9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64.3	50.1	64.0	56.8	64.3	58.2	74.8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60.0	49.9	68.6	53.9	60.3	53.4	75.2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66.4	48.0	74.5	57.6	63.2	51.7	75.1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68.6	57.0	74.4	59.5	61.2	57.4	79.3
	600만원 이상	(313)	62.6	50.2	70.9	56.5	61.0	51.4	71.2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64.0	52.5	72.7	53.2	61.2	50.4	67.6
	없음	(1961)	65.1	49.0	68.5	55.9	61.1	54.4	75.5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64.9	53.5	74.7	56.7	66.1	55.1	67.8
	없음	(1855)	65.0	48.7	68.0	55.6	60.5	54.0	76.0

[표 2-3-1.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가족	가까운 동료	동네 이웃	단순 지인	가족	가까운 동료	동네 이웃	단순 지인	가족	가까운 동료	동네 이웃	단순 지인
전체		(2100)	29.3	67.8	68.8	69.4	38.0	61.5	66.4	64.6	50.2	69.2	74.3	71.1
성별	남자	(1068)	34.2	70.0	71.6	72.5	47.5	66.4	71.3	70.2	55.9	71.8	76.9	74.2
	여자	(1032)	24.3	65.4	65.8	66.2	28.1	56.4	61.3	58.7	44.4	66.5	71.7	68.0
연령별	만19~29세	(415)	29.2	71.1	67.7	74.5	32.0	57.1	61.7	62.4	48.9	67.5	72.3	71.3
	30대	(416)	25.2	64.2	59.9	64.2	28.8	50.5	55.3	55.3	45.2	64.7	67.3	64.9
	40대	(485)	27.0	68.2	70.1	70.3	38.1	61.9	66.4	65.6	52.6	69.5	75.3	74.2
	50대	(473)	33.4	70.2	74.6	71.5	44.6	70.0	75.3	71.5	52.4	72.5	78.6	72.5
	60세 이상	(311)	32.5	63.7	71.1	65.0	47.6	68.5	74.0	67.8	51.8	72.0	78.5	72.3
거주 지역별	서울	(418)	32.8	67.9	68.4	70.1	39.7	58.1	64.6	66.3	51.7	68.7	73.7	70.8
	경기/인천	(644)	26.1	68.6	68.8	68.9	36.8	61.0	66.1	63.2	48.9	69.6	74.8	72.5
	부산/울산/경남	(325)	31.1	68.9	69.8	70.2	37.8	64.3	67.7	64.3	49.8	71.1	74.5	70.2
	대구/경북	(207)	26.1	65.7	67.6	68.6	37.2	60.9	64.7	59.9	43.5	64.3	70.5	65.2
	광주/전북/전남	(201)	29.4	70.1	69.2	69.7	37.8	61.2	67.2	66.7	52.2	68.2	73.6	71.1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29.7	61.2	66.2	65.8	35.6	62.6	67.6	64.4	52.1	68.9	75.3	72.1
	강원/제주	(86)	37.2	72.1	74.4	76.7	46.5	69.8	70.9	74.4	61.6	76.7	81.4	77.9
학력별	고졸 미만	(37)	32.4	56.8	70.3	54.1	48.6	59.5	67.6	62.2	54.1	59.5	73.0	62.2
	고졸	(472)	29.4	65.0	67.6	65.9	35.8	57.2	62.9	60.6	47.2	64.8	71.4	66.1
	전문대 졸	(296)	28.7	69.6	72.3	67.6	35.5	61.1	64.5	59.8	48.0	70.9	75.7	68.2
	대졸	(1073)	29.5	67.7	67.4	70.1	37.6	61.7	67.0	65.8	51.6	69.6	74.7	73.3
	대학원 이상	(222)	28.8	73.4	73.0	78.4	45.9	70.3	73.0	73.9	52.3	75.7	77.5	77.0
혼인 상태	기혼	(1362)	29.0	67.1	69.2	67.6	39.3	63.0	67.8	64.5	50.6	69.9	75.5	70.8
	미혼	(698)	29.8	68.8	66.9	72.9	34.5	57.9	63.0	64.3	49.0	67.3	71.8	71.6
	재혼	(8)	37.5	75.0	87.5	75.0	50.0	87.5	87.5	87.5	50.0	75.0	75.0	75.0
	기타	(32)	31.3	71.9	87.5	65.6	53.1	68.8	71.9	68.8	62.5	78.1	81.3	75.0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31.2	67.7	71.2	72.9	43.4	63.2	68.6	68.0	49.5	70.3	74.8	72.3
	천주교	(232)	31.9	66.8	65.5	65.5	40.1	63.4	68.1	65.9	49.6	70.7	72.0	71.1
	불교	(351)	32.5	69.8	71.5	70.1	39.6	61.0	68.4	64.7	53.8	69.5	78.6	70.9
	이슬람교	(1)	0.0	100.0	100.0	10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100.0
	기타	(5)	0.0	60.0	80.0	60.0	6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없음	(1046)	27.1	67.3	67.4	68.5	34.4	60.4	64.2	62.6	49.4	68.3	73.1	70.7
직업별	전문직	(225)	34.2	72.4	70.2	74.2	43.1	59.1	66.2	65.3	52.0	72.9	74.2	73.8
	사무직	(780)	29.2	69.7	70.1	72.6	37.7	64.0	69.1	66.3	48.7	70.6	75.9	73.1
	기능직	(126)	27.8	64.3	64.3	64.3	43.7	61.1	63.5	62.7	54.0	65.9	69.8	68.3
	판매직	(56)	16.1	62.5	62.5	64.3	37.5	62.5	67.9	58.9	42.9	66.1	75.0	62.5
	서비스직	(140)	38.6	68.6	70.7	66.4	43.6	61.4	65.0	62.1	59.3	67.1	74.3	67.9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33.3	44.4	55.6	55.6	22.2	33.3	33.3	66.7	44.4	22.2	66.7	66.7
	공무원	(75)	32.0	70.7	74.7	74.7	42.7	69.3	72.0	76.0	72.0	81.3	81.3	82.7
	군인	(5)	60.0	60.0	60.0	80.0	60.0	60.0	60.0	80.0	80.0	80.0	80.0	80.0
	주부	(348)	23.6	62.1	64.7	59.5	29.0	54.9	60.6	57.5	43.7	64.1	69.3	63.8
	학생	(150)	36.7	73.3	74.0	80.0	36.0	64.7	68.7	71.3	57.3	75.3	80.7	80.0
	무직	(153)	26.1	65.4	68.0	69.3	42.5	60.8	65.4	65.4	45.1	64.7	72.5	69.9
	기타	(33)	18.2	54.5	60.6	48.5	36.4	66.7	69.7	57.6	42.4	66.7	72.7	63.6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25.8	73.2	68.0	68.0	33.0	47.4	56.7	54.6	55.7	71.1	72.2	70.1
	100만원 미만	(86)	31.4	61.6	67.4	68.6	45.3	65.1	68.6	62.8	51.2	62.8	72.1	68.6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27.6	65.8	70.4	65.8	36.2	61.5	63.4	61.5	43.2	62.3	68.1	65.8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29.4	65.9	62.6	65.7	35.7	58.7	60.7	60.4	46.3	65.9	70.6	65.1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29.3	66.0	68.8	69.5	39.2	59.3	66.4	65.0	52.2	69.7	74.0	72.1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30.5	70.4	72.0	70.1	38.9	66.4	71.0	67.0	53.3	74.8	79.8	75.1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29.8	70.7	69.4	73.6	38.4	64.9	73.6	73.1	52.1	73.1	79.3	75.2
	600만원 이상	(313)	29.7	69.0	71.2	73.2	38.3	63.3	67.4	65.8	51.4	70.3	76.0	75.1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43.9	71.2	71.9	76.3	51.1	71.9	74.8	72.7	67.6	78.4	80.6	77.0
	없음	(1961)	28.3	67.5	68.5	68.9	37.0	60.7	65.8	64.0	49.0	68.5	73.9	70.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38.0	74.3	75.5	76.3	45.3	68.6	75.5	72.7	58.8	76.3	80.8	78.0
	없음	(1855)	28.2	66.9	67.9	68.5	37.0	60.5	65.2	63.5	49.1	68.2	73.5	70.2

[표 2-3-2.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성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가족	가까운 동료	동네 이웃	단순 지인	가족	가까운 동료	동네 이웃	단순 지인	가족	가까운 동료	동네 이웃	단순 지인
전체		(2100)	13.6	31.8	36.5	37.5	50.7	74.1	77.7	76.6	49.9	68.2	71.4	69.8
성별	남자	(1068)	9.8	25.0	30.2	32.5	57.5	76.4	78.5	77.9	51.1	67.4	69.7	67.9
	여자	(1032)	17.5	38.9	42.9	42.7	43.6	71.7	76.9	75.3	48.6	69.1	73.3	71.8
연령별	만19~29세	(415)	25.1	52.0	58.6	59.8	48.2	71.6	76.1	75.2	46.7	62.4	65.8	66.7
	30대	(416)	17.5	39.2	39.9	42.1	44.2	69.0	70.7	72.4	48.6	66.1	66.8	66.3
	40대	(485)	11.1	30.5	34.6	37.5	50.9	74.2	78.4	77.7	48.9	69.5	74.0	71.1
	50대	(473)	8.2	20.9	27.3	26.4	56.0	80.1	83.1	81.0	53.5	73.4	76.7	73.2
	60세 이상	(311)	5.1	13.5	19.3	18.6	54.0	74.9	80.1	75.9	52.1	69.1	73.0	71.4
거주 지역별	서울	(418)	13.6	34.2	37.6	40.9	49.0	71.8	74.9	73.7	52.2	69.4	73.2	72.7
	경기/인천	(644)	14.8	32.9	36.8	37.6	50.5	74.7	78.7	78.4	50.0	68.2	71.3	68.3
	부산/울산/경남	(325)	11.7	30.8	37.5	35.7	52.3	76.9	78.5	77.8	48.6	68.6	71.4	70.8
	대구/경북	(207)	11.1	25.1	32.4	31.9	48.8	75.4	77.8	73.4	49.3	67.6	72.0	69.6
	광주/전북/전남	(201)	10.9	31.3	32.8	35.3	50.7	68.7	75.6	74.1	44.8	65.2	68.2	66.2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17.8	31.1	37.0	39.3	52.1	73.1	78.1	77.2	51.6	67.6	69.9	69.4
	강원/제주	(86)	14.0	34.9	41.9	41.9	54.7	82.6	84.9	84.9	52.3	72.1	74.4	73.3
학력별	고졸 미만	(37)	8.1	13.5	16.2	13.5	51.4	70.3	75.7	70.3	56.8	62.2	62.2	59.5
	고졸	(472)	10.0	24.8	32.0	30.9	45.1	71.0	76.5	73.9	45.6	64.4	67.2	65.7
	전문대 졸	(296)	13.5	32.4	39.2	36.1	48.3	71.3	73.3	72.6	49.3	67.9	70.6	65.2
	대졸	(1073)	15.2	33.8	36.9	39.3	52.9	75.0	78.5	77.7	52.0	69.1	72.5	72.0
	대학원 이상	(222)	14.9	39.2	43.7	48.6	54.5	80.6	82.9	83.3	48.6	73.9	77.9	75.7
혼인 상태	기혼	(1362)	9.2	23.9	28.8	29.2	51.2	74.6	78.3	76.8	50.9	70.2	73.3	71.0
	미혼	(698)	22.3	47.4	51.4	53.6	48.6	72.2	75.8	75.5	47.6	64.0	67.5	66.9
	재혼	(8)	12.5	50.0	75.0	75.0	87.5	100.0	100.0	100.0	62.5	87.5	87.5	87.5
	기타	(32)	12.5	25.0	28.1	31.3	65.6	87.5	87.5	87.5	56.3	71.9	71.9	78.1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8.4	23.4	27.7	29.2	53.3	75.5	79.6	80.6	44.7	69.7	74.8	73.1
	천주교	(232)	15.9	33.6	42.7	43.5	54.7	75.9	81.0	78.4	56.0	76.3	78.4	76.3
	불교	(351)	10.5	24.5	27.1	28.8	55.0	77.8	79.5	77.5	50.4	69.8	72.1	70.9
	이슬람교	(1)	0.0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0.0	100.0	100.0	100.0
	기타	(5)	0.0	40.0	40.0	40.0	40.0	80.0	100.0	80.0	40.0	60.0	60.0	60.0
	없음	(1046)	16.5	37.5	42.1	42.7	47.2	71.8	75.4	74.1	50.8	65.3	68.2	66.5
직업별	전문직	(225)	18.7	35.6	36.9	41.3	55.6	79.6	81.3	82.7	48.0	68.0	71.1	68.4
	사무직	(780)	12.1	32.9	37.7	38.3	50.3	75.4	78.2	77.2	53.7	70.8	72.9	71.9
	기능직	(126)	9.5	19.0	25.4	23.8	52.4	70.6	71.4	72.2	45.2	61.9	58.7	57.9
	판매직	(56)	3.6	16.1	23.2	25.0	46.4	78.6	82.1	71.4	48.2	64.3	64.3	66.1
	서비스직	(140)	17.1	30.7	35.7	35.7	50.0	71.4	75.0	75.7	49.3	68.6	74.3	68.6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22.2	22.2	33.3	44.4	55.6	77.8	77.8	77.8	55.6	44.4	55.6	66.7
	공무원	(75)	13.3	38.7	45.3	53.3	60.0	82.7	82.7	84.0	58.7	82.7	85.3	85.3
	군인	(5)	20.0	40.0	20.0	40.0	60.0	40.0	80.0	60.0	60.0	40.0	80.0	80.0
	주부	(348)	9.8	25.9	30.2	28.4	44.8	68.7	74.4	72.1	46.6	68.7	75.0	71.6
	학생	(150)	28.7	50.7	61.3	62.7	54.0	76.7	82.7	82.0	50.0	66.7	70.7	72.0
	무직	(153)	13.1	30.7	32.0	35.3	52.9	69.9	75.2	73.9	42.5	58.2	62.1	60.8
	기타	(33)	6.1	27.3	30.3	27.3	42.4	72.7	81.8	72.7	42.4	66.7	66.7	63.6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20.6	42.3	43.3	46.4	50.5	74.2	80.4	79.4	38.1	62.9	69.1	67.0
	100만원 미만	(86)	23.3	37.2	46.5	41.9	50.0	69.8	77.9	74.4	54.7	66.3	66.3	64.0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2.5	31.5	35.8	36.2	44.4	68.5	72.4	70.4	42.8	60.3	61.9	60.3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13.3	31.6	33.5	35.7	44.6	71.7	73.4	72.3	44.0	62.6	66.5	64.0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12.1	28.8	35.7	36.2	53.0	73.0	76.8	76.6	52.2	68.1	70.7	70.7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13.7	32.4	39.6	37.7	54.2	76.6	80.1	79.1	54.2	72.6	75.4	73.2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15.3	31.8	36.0	38.8	57.4	80.2	83.9	82.2	52.9	74.4	78.5	75.6
	600만원 이상	(313)	10.9	31.0	33.9	37.4	51.1	76.7	80.2	79.6	55.0	74.4	78.6	77.6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21.6	43.9	46.0	46.0	59.7	80.6	83.5	82.0	59.0	76.3	77.7	75.5
	없음	(1961)	13.1	31.0	35.8	36.9	50.0	73.6	77.3	76.2	49.3	67.7	71.0	69.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15.1	34.7	40.4	39.2	61.2	83.7	87.8	87.3	55.9	74.3	78.0	74.7
	없음	(1855)	13.4	31.4	36.0	37.3	49.3	72.8	76.4	75.2	49.1	67.4	70.6	69.2

[표 2-4-1.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성별 불평등				독신 가구의 증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동료의 성별에 상관없다	동호회 활동을 할 때 구성원 들의 성별은 상관없다	대중매체 에서 보이는 남성상과 여성상은 차별이 없다	사회는 여성 입장을 지금 보다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가족 구성원 중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가까운 친구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해도 상관없다	내 이웃에 독신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도 상관없다	사회적 으로 독신가구 가 많이 늘어나 더라도 문제없다
전체		(2100)	81.8	79.4	33.7	51.8	61.0	71.3	70.0	38.1
성별	남자	(1068)	80.2	81.6	41.6	39.3	55.0	65.1	64.4	34.9
	여자	(1032)	83.3	77.2	25.6	64.6	67.2	77.7	75.9	41.4
연령별	만19~29세	(415)	81.0	81.7	22.9	41.7	76.1	85.1	83.1	54.7
	30대	(416)	76.4	74.8	28.6	51.7	66.3	76.2	75.7	44.7
	40대	(485)	80.2	77.1	30.1	52.6	59.8	71.5	70.3	33.6
	50대	(473)	87.5	81.6	41.0	55.6	53.1	63.4	60.7	30.4
	60세 이상	(311)	83.6	83.0	49.5	58.2	47.3	57.9	58.8	25.7
거주 지역별	서울	(418)	81.6	79.4	32.5	51.2	64.1	75.1	74.9	43.8
	경기/인천	(644)	82.5	80.1	32.5	54.0	63.8	73.3	71.7	40.2
	부산/울산/경남	(325)	81.8	78.2	35.4	47.4	56.0	65.8	64.3	31.4
	대구/경북	(207)	79.7	75.8	36.7	44.9	53.1	67.1	61.8	33.8
	광주/전북/전남	(201)	83.6	81.1	34.8	57.7	59.2	70.6	69.7	35.3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79.0	78.1	34.7	52.1	58.4	68.5	69.9	36.1
	강원/제주	(86)	84.9	87.2	30.2	55.8	72.1	76.7	76.7	41.9
학력별	고졸 미만	(37)	86.5	67.6	37.8	43.2	40.5	45.9	35.1	16.2
	고졸	(472)	82.8	80.9	36.2	51.3	59.1	67.8	67.2	34.7
	전문대 졸	(296)	81.1	78.7	32.4	58.8	62.2	73.0	73.0	36.8
	대졸	(1073)	80.9	79.8	33.5	50.9	62.3	72.9	71.7	40.4
	대학원 이상	(222)	83.8	77.5	30.6	49.1	59.9	73.0	70.3	39.2
혼인 상태	기혼	(1362)	82.5	79.6	37.7	55.1	53.6	65.3	64.0	30.8
	미혼	(698)	80.1	78.5	26.2	44.6	75.8	83.4	81.7	52.6
	재혼	(8)	75.0	100.0	12.5	75.0	25.0	62.5	75.0	0.0
	기타	(32)	87.5	87.5	34.4	59.4	59.4	65.6	71.9	40.6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80.6	77.4	34.8	53.1	51.4	63.4	62.8	30.8
	천주교	(232)	82.8	80.6	33.2	57.8	63.8	73.7	70.7	40.9
	불교	(351)	84.3	81.2	39.9	55.8	58.1	68.7	68.9	31.9
	이슬람교	(1)	100.0	100.0	0.0	100.0	100.0	100.0	100.0	0.0
	기타	(5)	80.0	100.0	60.0	100.0	60.0	80.0	80.0	40.0
	없음	(1046)	81.2	79.3	31.2	48.2	65.5	75.0	73.4	42.8
직업별	전문직	(225)	80.9	79.1	31.6	56.0	59.6	71.6	68.9	39.1
	사무직	(780)	81.8	80.8	34.2	51.3	61.9	72.3	71.7	38.2
	기능직	(126)	78.6	77.8	35.7	45.2	54.0	60.3	59.5	31.7
	판매직	(56)	87.5	87.5	50.0	50.0	57.1	69.6	66.1	30.4
	서비스직	(140)	82.1	82.1	43.6	50.0	58.6	62.9	61.4	37.9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77.8	77.8	55.6	55.6	66.7	77.8	77.8	22.2
	공무원	(75)	80.0	73.3	34.7	44.0	61.3	74.7	74.7	41.3
	군인	(5)	60.0	80.0	0.0	40.0	80.0	80.0	80.0	40.0
	주부	(348)	83.0	74.7	29.3	61.8	56.6	70.4	68.7	31.9
	학생	(150)	82.0	81.3	26.0	40.7	80.0	89.3	88.0	63.3
	무직	(153)	81.0	79.7	32.7	49.0	58.2	64.7	64.7	35.3
	기타	(33)	84.8	84.8	42.4	45.5	57.6	72.7	66.7	27.3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80.4	80.4	29.9	54.6	70.1	80.4	80.4	51.5
	100만원 미만	(86)	79.1	73.3	36.0	44.2	52.3	65.1	62.8	36.0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81.3	82.5	31.9	50.2	66.5	73.5	73.2	43.2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80.6	79.2	38.0	52.6	59.3	68.7	65.9	34.9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79.7	74.2	34.0	50.1	61.0	68.3	68.6	35.7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83.2	80.4	34.9	54.2	60.1	67.3	69.5	38.0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83.5	83.9	31.4	55.8	59.1	76.9	70.2	36.8
	600만원 이상	(313)	84.7	81.2	31.0	49.8	60.1	75.1	73.5	38.3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78.4	82.7	37.4	52.5	59.7	67.6	64.0	36.0
	없음	(1961)	82.0	79.2	33.5	51.7	61.0	71.5	70.5	38.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81.6	81.2	33.1	52.2	58.8	71.4	70.2	38.8
	없음	(1855)	81.8	79.2	33.8	51.7	61.2	71.3	70.0	38.0

[표 2-4-2.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세대 간 갈등				주류문화예술 독점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해도 문제없다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함께 취미생활을 해도 문제없다	세대차이 나는 사람들이 동네 이웃이어도 상관없다	세대차이 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움이 없다	독립문화예술을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동네에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독립문화예술을 공공기금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립문화예술은 발전시켜야할 가치와 의의가 충분하다
전체		(2100)	51.5	59.0	73.9	49.5	48.9	55.9	50.2	58.8
성별	남자	(1068)	54.3	62.0	74.8	52.5	48.6	57.6	51.9	58.3
	여자	(1032)	48.6	55.8	72.9	46.4	49.1	54.2	48.5	59.3
연령별	만19~29세	(415)	46.0	52.3	72.8	44.1	56.4	59.5	47.5	60.2
	30대	(416)	45.4	52.4	68.5	43.8	45.0	54.1	49.0	56.0
	40대	(485)	48.0	57.9	72.4	46.8	46.2	53.8	52.6	57.9
	50대	(473)	61.3	67.9	78.2	58.1	51.6	58.4	53.1	62.4
	60세 이상	(311)	57.6	64.6	78.1	55.6	44.1	53.1	47.6	56.6
거주 지역별	서울	(418)	51.9	58.4	71.8	50.0	52.4	60.3	55.0	62.7
	경기/인천	(644)	53.1	58.4	71.4	47.5	47.7	54.7	49.7	60.1
	부산/울산/경남	(325)	50.5	61.5	76.3	50.8	46.2	52.6	47.4	52.9
	대구/경북	(207)	51.7	59.9	76.3	52.2	43.0	50.7	45.4	55.6
	광주/전북/전남	(201)	50.2	58.7	77.1	49.3	50.7	57.7	55.2	60.2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46.1	54.3	72.1	47.9	48.9	54.8	46.6	56.6
	강원/제주	(86)	58.1	66.3	83.7	55.8	60.5	67.4	51.2	62.8
학력별	고졸 미만	(37)	48.6	48.6	64.9	35.1	27.0	45.9	32.4	40.5
	고졸	(472)	53.6	63.8	75.8	51.5	45.8	50.2	45.1	54.0
	전문대 졸	(296)	48.0	55.7	69.6	41.2	44.9	53.4	43.9	53.0
	대졸	(1073)	50.9	57.8	73.8	50.6	51.3	58.7	53.3	61.7
	대학원 이상	(222)	55.4	60.4	77.0	53.6	52.7	59.5	57.7	65.8
혼인 상태	기혼	(1362)	52.8	60.4	73.9	51.2	46.7	54.5	50.4	58.0
	미혼	(698)	48.4	55.3	73.8	45.4	53.0	58.5	50.1	60.2
	재혼	(8)	37.5	50.0	62.5	62.5	75.0	62.5	62.5	75.0
	기타	(32)	68.8	78.1	78.1	65.6	43.8	59.4	40.6	59.4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51.0	58.7	75.3	52.7	46.9	57.0	50.8	58.7
	천주교	(232)	56.0	59.5	78.0	53.9	52.6	58.6	56.0	64.2
	불교	(351)	52.4	59.8	70.7	53.6	53.3	59.0	53.0	60.1
	이슬람교	(1)	0.0	0.0	100.0	100.0	100.0	0.0	0.0	100.0
	기타	(5)	40.0	20.0	60.0	20.0	60.0	60.0	40.0	60.0
	없음	(1046)	50.6	58.9	73.4	45.9	47.3	53.8	47.9	57.2
직업별	전문직	(225)	52.0	53.8	72.0	49.3	51.1	63.1	57.8	63.6
	사무직	(780)	55.3	59.4	77.2	53.2	48.8	56.2	51.5	60.1
	기능직	(126)	47.6	61.9	66.7	46.0	46.0	53.2	46.8	50.8
	판매직	(56)	46.4	66.1	75.0	53.6	50.0	60.7	48.2	58.9
	서비스직	(140)	50.0	61.4	73.6	48.6	50.7	53.6	47.9	56.4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33.3	55.6	66.7	44.4	33.3	33.3	22.2	55.6
	공무원	(75)	48.0	57.3	76.0	38.7	52.0	60.0	56.0	65.3
	군인	(5)	80.0	40.0	100.0	80.0	60.0	100.0	40.0	60.0
	주부	(348)	49.1	59.2	70.7	50.3	44.0	50.9	48.0	57.5
	학생	(150)	48.7	58.0	74.7	45.3	62.7	66.7	54.0	66.7
	무직	(153)	47.1	59.5	69.9	41.2	45.1	49.0	41.8	49.7
	기타	(33)	57.6	57.6	75.8	45.5	36.4	39.4	36.4	42.4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49.5	57.7	73.2	40.2	41.2	55.7	46.4	60.8
	100만원 미만	(86)	41.9	62.8	75.6	41.9	46.5	54.7	44.2	50.0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49.4	55.6	72.0	50.2	42.8	46.3	40.9	51.4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46.3	59.8	72.9	47.1	45.4	54.6	47.9	53.2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55.3	57.4	73.3	49.4	45.4	53.2	48.2	58.2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52.3	57.3	72.6	48.9	52.0	60.1	54.8	61.4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53.3	62.8	78.1	52.1	54.5	59.9	55.0	65.7
	600만원 이상	(313)	55.3	60.7	75.1	55.6	57.8	62.0	57.8	66.1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51.8	60.4	73.4	55.4	63.3	70.5	66.9	77.0
	없음	(1961)	51.5	58.8	73.9	49.1	47.8	54.9	49.1	57.5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53.1	59.6	76.3	55.5	60.8	64.9	59.6	71.8
	없음	(1855)	51.3	58.9	73.5	48.7	47.3	54.7	49.0	57.1

[표 2-4-3.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전통문화 위기				지방(지역)문화에 대한 차별			
			전통문화를 즐기는 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동네에 전통문화 전용 공연장을 건립하는데 찬성한다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공공 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평소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지방문화를 즐기는데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지방문화 체험을 위해 휴일을 할애할 의향이 있다	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공공 기금이 쓰이는데 찬성한다	평소 지방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전체		(2100)	61.4	64.5	67.8	38.5	55.2	60.6	57.7	35.2
성별	남자	(1068)	61.2	66.1	66.1	41.1	58.0	59.9	56.9	39.5
	여자	(1032)	61.6	62.8	69.5	35.9	52.4	61.3	58.5	30.7
연령별	만19~29세	(415)	60.7	58.8	66.0	32.8	54.9	56.4	52.5	30.4
	30대	(416)	62.5	63.5	67.5	35.6	56.7	62.3	54.6	34.6
	40대	(485)	61.6	64.5	68.9	38.8	59.4	63.3	59.6	33.0
	50대	(473)	64.1	68.9	70.6	43.3	54.5	64.1	62.4	40.0
	60세 이상	(311)	56.6	66.6	64.3	42.4	48.2	54.7	58.8	38.6
거주 지역별	서울	(418)	63.2	66.0	68.4	41.1	57.2	58.1	58.1	36.8
	경기/인천	(644)	64.1	65.5	70.0	38.8	53.7	62.0	57.1	31.5
	부산/울산/경남	(325)	57.2	62.5	61.5	33.5	52.6	61.5	55.1	32.9
	대구/경북	(207)	56.5	59.4	62.8	34.8	54.6	59.9	58.9	36.2
	광주/전북/전남	(201)	57.7	62.2	66.7	41.3	58.2	62.2	63.2	43.3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61.6	64.8	69.9	39.3	57.1	60.3	57.1	35.2
	강원/제주	(86)	68.6	73.3	80.2	43.0	57.0	58.1	55.8	41.9
학력별	고졸 미만	(37)	37.8	56.8	48.6	37.8	32.4	37.8	35.1	27.0
	고졸	(472)	56.1	58.1	62.3	32.6	47.7	52.3	53.2	27.5
	전문대 졸	(296)	62.2	61.5	65.9	37.2	54.1	60.1	50.7	31.8
	대졸	(1073)	62.9	66.6	69.5	40.4	58.4	63.6	61.4	38.1
	대학원 이상	(222)	68.5	73.0	76.6	43.7	61.3	68.5	62.6	43.2
혼인 상태	기혼	(1362)	62.6	66.2	67.8	40.5	56.3	63.1	59.5	37.1
	미혼	(698)	59.5	60.7	67.6	34.8	53.6	56.0	54.0	31.4
	재혼	(8)	75.0	87.5	87.5	37.5	75.0	75.0	62.5	25.0
	기타	(32)	50.0	68.8	65.6	37.5	40.6	53.1	59.4	40.6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58.1	62.4	63.7	36.3	49.7	54.4	55.1	35.1
	천주교	(232)	63.8	68.5	73.3	41.4	54.7	62.1	58.6	37.1
	불교	(351)	65.2	70.9	71.2	45.9	59.3	67.0	65.0	44.2
	이슬람교	(1)	100.0	0.0	0.0	0.0	100.0	100.0	100.0	0.0
	기타	(5)	40.0	80.0	80.0	60.0	60.0	80.0	60.0	40.0
	없음	(1046)	61.2	62.3	67.2	36.3	56.4	60.8	56.2	31.8
직업별	전문직	(225)	67.6	67.1	72.0	46.7	56.0	63.1	60.4	40.0
	사무직	(780)	63.1	66.8	70.1	39.2	60.1	64.5	58.6	37.8
	기능직	(126)	61.9	66.7	66.7	38.1	54.0	56.3	53.2	35.7
	판매직	(56)	64.3	58.9	69.6	51.8	48.2	60.7	64.3	35.7
	서비스직	(140)	56.4	61.4	62.1	40.0	51.4	57.1	57.9	37.9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55.6	44.4	55.6	33.3	55.6	66.7	55.6	55.6
	공무원	(75)	73.3	76.0	80.0	49.3	74.7	77.3	74.7	45.3
	군인	(5)	40.0	60.0	60.0	60.0	40.0	20.0	60.0	20.0
	주부	(348)	58.3	61.2	64.4	32.2	48.6	59.5	58.0	29.3
	학생	(150)	62.7	62.7	70.7	34.7	57.3	52.7	52.0	30.0
	무직	(153)	51.6	58.2	55.6	31.4	43.8	48.4	47.1	26.8
	기타	(33)	45.5	57.6	63.6	30.3	39.4	54.5	57.6	24.2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47.4	48.5	55.7	26.8	48.5	49.5	51.5	22.7
	100만원 미만	(86)	53.5	65.1	59.3	29.1	44.2	44.2	46.5	30.2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51.4	58.4	61.5	32.7	42.0	51.0	49.0	28.0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57.3	58.4	64.5	34.6	50.7	56.8	51.2	32.4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60.5	63.1	68.1	37.8	56.7	60.8	56.7	33.3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69.8	75.1	73.5	44.2	64.2	66.7	64.5	41.7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69.0	70.7	74.4	42.1	59.5	68.6	67.8	38.0
	600만원 이상	(313)	67.7	67.4	71.2	46.3	62.0	68.4	63.9	43.1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71.2	73.4	74.8	59.0	69.1	74.8	66.2	54.0
	없음	(1961)	60.7	63.8	67.3	37.1	54.3	59.6	57.1	33.9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72.2	73.9	77.6	50.6	67.8	75.1	69.0	52.2
	없음	(1855)	60.0	63.2	66.5	36.9	53.6	58.7	56.2	32.9

[표 2-4-4.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소득에 따른 문화 소외			
			나는 평소 소외계층에 문화예술관람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다	즐겨 찾는 공연장에 저소득층을 위한 관람좌석을 할애하는데 찬성한다	저소득층 문화지원을 위한 모금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저소득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체		(2100)	27.0	56.9	40.4	55.8
성별	남자	(1068)	29.5	58.8	43.8	57.8
	여자	(1032)	24.3	54.9	36.9	53.7
연령별	만19~29세	(415)	27.2	58.8	41.4	56.6
	30대	(416)	23.6	51.7	34.6	53.1
	40대	(485)	25.2	56.5	39.6	56.3
	50대	(473)	28.5	60.7	45.9	57.9
	60세 이상	(311)	31.5	56.3	39.9	54.0
거주 지역별	서울	(418)	27.5	58.4	40.4	56.2
	경기/인천	(644)	26.1	57.1	38.2	56.5
	부산/울산/경남	(325)	23.7	56.0	39.1	53.2
	대구/경북	(207)	28.0	53.1	41.5	50.7
	광주/전북/전남	(201)	28.4	54.2	39.8	57.7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30.6	60.7	46.6	57.5
	강원/제주	(86)	27.9	57.0	45.3	60.5
학력별	고졸 미만	(37)	29.7	64.9	35.1	48.6
	고졸	(472)	24.2	56.1	39.0	53.2
	전문대 졸	(296)	23.0	52.4	34.8	50.0
	대졸	(1073)	27.8	57.0	41.1	57.6
	대학원 이상	(222)	33.8	62.6	48.6	61.3
혼인 상태	기혼	(1362)	26.7	55.5	40.0	54.1
	미혼	(698)	27.1	58.9	40.5	58.3
	재혼	(8)	50.0	87.5	75.0	87.5
	기타	(32)	28.1	65.6	46.9	62.5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32.3	61.1	43.2	59.1
	천주교	(232)	33.2	59.5	46.1	59.1
	불교	(351)	26.2	54.4	44.7	54.1
	이슬람교	(1)	100.0	0.0	0.0	0.0
	기타	(5)	20.0	60.0	40.0	40.0
	없음	(1046)	23.4	55.4	36.5	54.2
직업별	전문직	(225)	31.6	56.0	47.6	57.8
	사무직	(780)	26.0	58.6	41.4	57.2
	기능직	(126)	30.2	57.1	43.7	54.0
	판매직	(56)	37.5	57.1	39.3	55.4
	서비스직	(140)	30.7	61.4	41.4	60.0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11.1	55.6	33.3	55.6
	공무원	(75)	29.3	57.3	46.7	58.7
	군인	(5)	40.0	40.0	60.0	60.0
	주부	(348)	21.3	52.6	32.8	49.1
	학생	(150)	33.3	60.7	46.7	60.0
	무직	(153)	23.5	51.6	30.1	51.6
	기타	(33)	15.2	57.6	39.4	60.6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26.8	54.6	30.9	59.8
	100만원 미만	(86)	30.2	57.0	43.0	53.5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26.8	54.5	34.2	54.9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23.5	51.5	35.2	48.5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26.5	57.7	40.4	54.8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28.7	58.3	42.4	57.0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29.8	61.2	47.5	62.0
	600만원 이상	(313)	26.8	60.1	46.3	59.4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41.0	71.9	57.6	66.9
	없음	(1961)	26.0	55.8	39.2	55.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43.7	69.8	59.2	69.4
	없음	(1855)	24.7	55.2	38.0	54.0

[표 2-5. 구성원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인식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전체		(2100)	76.1	59.1	49.0	76.7	72.6	17.2
성별	남자	(1068)	74.1	56.7	46.8	75.2	70.5	18.5
	여자	(1032)	78.2	61.5	51.2	78.2	74.7	15.8
연령별	만19~29세	(415)	80.5	53.0	50.6	78.6	75.4	21.9
	30대	(416)	78.4	60.8	51.4	79.3	77.2	18.8
	40대	(485)	76.5	63.3	49.3	77.3	75.7	15.7
	50대	(473)	73.4	60.9	48.8	77.4	71.5	15.6
	60세 이상	(311)	70.7	55.6	43.1	68.5	59.5	13.5
거주 지역별	서울	(418)	81.1	61.0	55.7	78.9	73.2	17.7
	경기/인천	(644)	75.3	61.0	50.0	78.6	76.2	18.3
	부산/울산/경남	(325)	71.7	55.4	44.3	73.8	70.2	16.0
	대구/경북	(207)	71.0	50.2	38.6	69.6	65.7	15.0
	광주/전북/전남	(201)	76.6	60.2	46.8	72.6	71.6	16.4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79.0	61.2	49.3	79.5	69.9	17.8
	강원/제주	(86)	77.9	62.8	54.7	81.4	76.7	16.3
학력별	고졸 미만	(37)	67.6	54.1	40.5	73.0	64.9	18.9
	고졸	(472)	75.0	54.9	44.5	75.6	72.9	18.6
	전문대 졸	(296)	76.7	55.7	47.0	75.7	77.4	15.5
	대졸	(1073)	75.8	61.1	50.7	77.6	72.2	17.2
	대학원 이상	(222)	80.6	63.5	54.1	76.1	68.5	15.8
혼인 상태	기혼	(1362)	74.8	61.1	48.4	75.7	70.6	15.6
	미혼	(698)	78.4	55.2	49.7	78.4	76.6	20.1
	재혼	(8)	100.0	87.5	75.0	100.0	75.0	50.0
	기타	(32)	75.0	53.1	50.0	75.0	68.8	15.6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78.9	63.0	52.3	69.2	72.9	16.6
	천주교	(232)	80.2	65.9	55.2	82.8	74.1	15.1
	불교	(351)	72.9	56.7	44.4	74.6	68.7	16.2
	이슬람교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5)	60.0	60.0	80.0	80.0	80.0	60.0
	없음	(1046)	75.0	56.6	47.4	79.3	73.3	18.0
직업별	전문직	(225)	78.2	59.6	51.6	70.7	71.6	19.6
	사무직	(780)	76.9	61.2	50.5	78.6	75.5	16.3
	기능직	(126)	73.0	56.3	38.1	71.4	73.8	24.6
	판매직	(56)	78.6	62.5	50.0	73.2	71.4	17.9
	서비스직	(140)	71.4	54.3	44.3	75.0	71.4	17.1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66.7	33.3	44.4	77.8	66.7	11.1
	공무원	(75)	80.0	60.0	53.3	81.3	65.3	13.3
	군인	(5)	80.0	60.0	60.0	60.0	60.0	20.0
	주부	(348)	73.3	61.5	46.3	76.1	70.4	13.2
	학생	(150)	81.3	46.0	56.0	77.3	70.7	19.3
	무직	(153)	75.2	59.5	45.8	79.1	69.9	21.6
	기타	(33)	72.7	69.7	54.5	87.9	75.8	15.2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79.4	60.8	49.5	80.4	76.3	24.7
	100만원 미만	(86)	75.6	60.5	48.8	76.7	69.8	22.1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72.0	53.7	45.1	72.4	73.2	17.9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75.9	57.6	49.6	74.8	70.9	18.0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73.8	54.8	47.5	74.9	72.8	16.8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79.1	60.1	46.4	78.8	73.2	14.6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78.9	66.9	52.9	78.9	73.1	17.4
	600만원 이상	(313)	76.7	62.9	52.7	79.6	72.2	15.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80.6	64.7	58.3	84.2	69.8	25.2
	없음	(1961)	75.8	58.7	48.3	76.1	72.8	16.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79.2	62.0	59.2	81.6	73.1	18.0
	없음	(1855)	75.7	58.7	47.6	76.0	72.5	17.1

[표 2-6. 사회현상에 대한 개선 필요 정도_top2%(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개선되어야 한다)]

		사례수	성별 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문화예술 독점	전통문화 위기	지방(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전체		(2100)	70.4	54.4	71.6	60.7	68.6	63.1	73.1
성별	남자	(1068)	60.4	58.1	69.8	58.9	65.7	61.0	70.7
	여자	(1032)	80.7	50.5	73.4	62.5	71.6	65.3	75.7
연령별	만19~29세	(415)	74.0	37.1	66.5	54.2	64.6	61.4	73.5
	30대	(416)	71.9	52.2	68.5	59.6	68.8	65.4	72.8
	40대	(485)	70.7	57.1	72.2	63.7	71.5	63.7	76.1
	50대	(473)	67.9	61.5	72.9	64.3	70.6	63.2	73.4
	60세 이상	(311)	66.9	65.3	79.4	60.5	66.2	61.1	68.2
거주 지역별	서울	(418)	68.9	53.1	71.8	61.5	67.7	56.5	70.6
	경기/인천	(644)	73.4	55.7	71.3	61.0	72.8	64.4	76.2
	부산/울산/경남	(325)	67.1	57.8	73.8	56.9	66.8	64.0	69.5
	대구/경북	(207)	65.7	54.6	69.6	56.5	59.9	59.9	63.8
	광주/전북/전남	(201)	70.1	47.8	69.2	63.2	64.2	66.7	74.6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71.2	55.7	73.5	61.6	71.7	68.0	79.9
	강원/제주	(86)	76.7	48.8	69.8	69.8	72.1	68.6	77.9
학력별	고졸 미만	(37)	64.9	59.5	78.4	56.8	62.2	54.1	73.0
	고졸	(472)	68.0	55.3	69.5	55.3	64.0	58.9	73.9
	전문대 졸	(296)	73.3	52.0	70.9	57.4	70.6	64.2	71.3
	대졸	(1073)	71.4	54.3	72.4	64.0	70.0	65.5	74.0
	대학원 이상	(222)	67.6	55.0	71.6	60.8	70.3	60.4	69.8
혼인 상태	기혼	(1362)	69.6	60.6	74.0	61.7	69.9	63.6	72.8
	미혼	(698)	71.8	41.7	66.3	58.0	66.0	62.3	73.6
	재혼	(8)	87.5	62.5	87.5	100.0	100.0	100.0	87.5
	기타	(32)	68.8	65.6	78.1	62.5	62.5	50.0	75.0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67.5	59.1	73.3	63.0	68.8	64.9	73.1
	천주교	(232)	74.6	56.5	72.8	64.7	67.2	63.4	73.7
	불교	(351)	71.8	57.5	74.1	63.2	72.1	65.2	74.1
	이슬람교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5)	100.0	60.0	100.0	40.0	60.0	40.0	80.0
	없음	(1046)	70.1	50.7	69.5	57.9	67.7	61.6	72.7
직업별	전문직	(225)	68.9	54.7	74.2	63.1	72.0	62.7	69.8
	사무직	(780)	70.3	56.2	70.9	59.9	70.0	64.1	75.1
	기능직	(126)	61.9	62.7	66.7	57.9	71.4	65.9	72.2
	판매직	(56)	64.3	51.8	69.6	55.4	58.9	55.4	64.3
	서비스직	(140)	70.0	48.6	71.4	65.7	67.9	65.0	72.9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66.7	77.8	88.9	55.6	55.6	66.7	88.9
	공무원	(75)	72.0	57.3	80.0	62.7	68.0	72.0	68.0
	군인	(5)	80.0	40.0	20.0	40.0	60.0	60.0	60.0
	주부	(348)	77.0	57.2	74.1	61.2	67.0	61.2	75.9
	학생	(150)	73.3	36.0	62.0	56.0	63.3	58.7	70.0
	무직	(153)	66.0	52.3	74.5	62.7	66.0	60.1	69.9
	기타	(33)	60.6	60.6	78.8	66.7	81.8	69.7	78.8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71.1	41.2	71.1	61.9	62.9	63.9	82.5
	100만원 미만	(86)	72.1	54.7	72.1	62.8	72.1	64.0	73.3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72.8	45.9	69.6	58.8	65.8	61.5	77.0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64.3	56.2	68.4	59.3	68.4	63.7	72.3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69.7	56.0	70.4	59.6	66.2	59.8	71.6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72.6	53.6	72.9	62.9	73.2	65.1	73.8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76.9	62.0	76.9	64.5	70.7	65.3	75.2
	600만원 이상	(313)	68.4	55.9	72.8	59.1	69.0	63.9	67.7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77.7	59.0	79.1	66.9	74.8	67.6	77.7
	없음	(1961)	69.9	54.1	71.0	60.2	68.2	62.8	72.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75.5	60.4	81.2	69.4	75.9	69.8	76.7
	없음	(1855)	69.7	53.6	70.3	59.5	67.7	62.2	72.7

[표 2-7-1. 구성원에 대한 정부 지원 충분한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 종교인
전체		(2100)	17.9	36.1	23.6	10.6	28.4	21.4
성별	남자	(1068)	19.9	36.6	22.8	13.4	31.0	22.9
	여자	(1032)	15.9	35.6	24.4	7.7	25.7	19.8
연령별	만19~29세	(415)	21.9	44.3	25.5	12.0	26.5	23.6
	30대	(416)	19.2	40.6	27.6	10.8	23.1	24.0
	40대	(485)	17.3	33.8	23.9	9.1	27.6	20.8
	50대	(473)	15.6	31.9	21.6	9.9	30.7	20.3
	60세 이상	(311)	15.1	28.9	18.3	11.6	35.7	17.4
거주 지역별	서울	(418)	17.9	39.2	23.4	10.5	29.4	21.8
	경기/인천	(644)	18.6	35.2	22.4	9.5	26.2	21.6
	부산/울산/경남	(325)	15.1	33.8	21.8	8.3	23.1	18.2
	대구/경북	(207)	18.4	39.1	26.1	11.6	31.9	21.7
	광주/전북/전남	(201)	15.4	30.8	24.4	11.4	35.3	21.9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20.5	37.4	27.4	15.1	30.1	24.2
	강원/제주	(86)	20.9	37.2	23.3	11.6	30.2	20.9
학력별	고졸 미만	(37)	16.2	35.1	10.8	16.2	29.7	13.5
	고졸	(472)	17.2	34.3	22.2	9.5	25.4	19.3
	전문대 졸	(296)	17.9	34.1	25.0	8.1	24.7	22.3
	대졸	(1073)	18.3	38.0	23.6	10.3	29.3	21.7
	대학원 이상	(222)	18.0	33.3	27.0	16.2	35.1	24.3
혼인 상태	기혼	(1362)	16.5	32.8	22.0	10.1	28.8	20.3
	미혼	(698)	20.6	42.3	26.6	11.7	26.9	24.1
	재혼	(8)	25.0	25.0	37.5	0.0	25.0	0.0
	기타	(32)	15.6	43.8	25.0	6.3	43.8	15.6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15.9	33.3	23.7	15.1	31.2	19.4
	천주교	(232)	19.0	34.1	25.4	9.9	26.7	22.8
	불교	(351)	18.2	36.5	23.4	8.5	27.1	17.4
	이슬람교	(1)	100.0	100.0	0.0	100.0	0.0	100.0
	기타	(5)	20.0	40.0	20.0	0.0	60.0	0.0
	없음	(1046)	18.4	37.6	23.3	9.4	27.8	23.3
직업별	전문직	(225)	16.9	33.8	24.0	14.7	25.8	23.6
	사무직	(780)	18.6	35.8	24.2	9.5	26.9	22.6
	기능직	(126)	23.8	39.7	23.8	13.5	31.0	23.8
	판매직	(56)	10.7	33.9	19.6	7.1	30.4	8.9
	서비스직	(140)	17.9	36.4	24.3	11.4	30.0	22.1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0.0	0.0	0.0	11.1	22.2	0.0
	공무원	(75)	20.0	41.3	32.0	6.7	44.0	24.0
	군인	(5)	20.0	40.0	20.0	40.0	40.0	40.0
	주부	(348)	14.1	31.6	22.1	8.3	26.1	17.8
	학생	(150)	24.0	48.7	30.0	13.3	36.0	26.7
	무직	(153)	16.3	34.6	16.3	12.4	24.8	19.0
	기타	(33)	18.2	42.4	18.2	6.1	30.3	9.1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14.4	39.2	19.6	9.3	25.8	27.8
	100만원 미만	(86)	29.1	46.5	37.2	12.8	31.4	26.7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6.0	32.7	25.7	8.9	24.1	15.6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17.2	36.6	22.2	11.6	24.4	21.9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18.0	35.9	21.3	11.3	29.1	20.8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15.9	33.6	20.2	8.4	30.2	21.5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18.6	35.1	26.0	11.2	30.6	19.8
	600만원 이상	(313)	19.8	38.0	25.9	11.2	31.9	24.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23.0	41.0	34.5	10.8	42.4	20.9
	없음	(1961)	17.5	35.7	22.8	10.6	27.4	21.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19.2	38.0	30.2	11.4	36.3	22.0
	없음	(1855)	17.7	35.8	22.7	10.5	27.3	21.3

[표 2-8. 사회현상에 대한 정부 대책 충분한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성별 불평등	독신가구의 증가	세대 간 갈등	주류문화예술 독점	전통문화 위기	지방(지역) 문화에 대한 차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전체		(2100)	18.6	11.7	9.2	9.4	11.8	11.6	12.0
성별	남자	(1068)	24.8	14.0	10.9	11.0	13.5	13.4	13.0
	여자	(1032)	12.1	9.3	7.5	7.8	10.0	9.7	10.9
연령별	만19~29세	(415)	18.1	14.0	9.4	9.6	14.0	13.0	15.4
	30대	(416)	15.9	10.8	7.9	8.7	9.9	11.5	12.5
	40대	(485)	19.2	10.5	9.5	9.9	11.8	10.9	10.3
	50대	(473)	20.1	10.4	8.7	8.2	10.6	9.9	9.3
	60세 이상	(311)	19.6	13.5	10.9	10.9	13.2	13.2	13.2
거주 지역별	서울	(418)	21.3	14.8	10.8	11.7	13.9	13.9	14.8
	경기/인천	(644)	18.0	10.2	7.5	6.5	8.9	8.7	9.5
	부산/울산/경남	(325)	17.2	9.5	8.9	9.2	10.5	11.7	12.6
	대구/경북	(207)	15.5	10.6	9.2	11.1	13.5	13.5	12.6
	광주/전북/전남	(201)	18.4	13.9	10.0	9.0	11.9	13.4	10.9
	대전/세종/충북/충남	(219)	19.6	11.9	11.4	12.3	14.2	11.9	12.3
	강원/제주	(86)	19.8	11.6	8.1	9.3	17.4	11.6	14.0
학력별	고졸 미만	(37)	21.6	10.8	10.8	8.1	5.4	5.4	8.1
	고졸	(472)	19.3	12.7	9.3	10.6	11.7	13.1	12.5
	전문대 졸	(296)	13.9	8.1	7.8	7.1	11.5	11.1	9.1
	대졸	(1073)	18.4	11.6	8.8	8.9	11.1	10.3	12.3
	대학원 이상	(222)	23.9	14.4	12.6	12.6	16.7	15.8	13.5
혼인 상태	기혼	(1362)	18.7	11.3	8.9	9.3	11.4	11.2	11.5
	미혼	(698)	18.5	12.5	9.7	9.7	12.9	12.3	13.0
	재혼	(8)	25.0	12.5	25.0	25.0	12.5	12.5	0.0
	기타	(32)	12.5	9.4	6.3	3.1	3.1	9.4	12.5
종교	기독교(개신교)	(465)	20.6	12.7	9.9	9.9	12.3	11.8	13.3
	천주교	(232)	17.7	9.1	5.2	6.9	10.8	10.8	10.8
	불교	(351)	21.4	14.0	13.1	11.1	14.5	15.1	14.5
	이슬람교	(1)	0.0	0.0	0.0	100.0	100.0	100.0	100.0
	기타	(5)	40.0	0.0	0.0	0.0	0.0	0.0	20.0
	없음	(1046)	16.8	11.1	8.5	9.1	10.8	10.4	10.6
직업별	전문직	(225)	20.9	11.1	10.2	13.3	13.3	12.9	11.1
	사무직	(780)	17.3	10.9	8.1	7.3	9.2	9.6	9.6
	기능직	(126)	20.6	14.3	10.3	11.1	9.5	11.9	13.5
	판매직	(56)	21.4	8.9	12.5	12.5	19.6	16.1	10.7
	서비스직	(140)	18.6	13.6	10.7	8.6	13.6	15.7	13.6
	농림어업 관련 직종	(9)	11.1	0.0	22.2	22.2	22.2	22.2	22.2
	공무원	(75)	24.0	14.7	10.7	16.0	14.7	13.3	18.7
	군인	(5)	60.0	40.0	40.0	20.0	40.0	20.0	40.0
	주부	(348)	12.9	9.2	7.8	8.3	10.3	9.5	11.2
	학생	(150)	27.3	17.3	10.7	10.7	20.7	18.7	20.7
	무직	(153)	18.3	13.1	9.8	9.2	11.8	10.5	12.4
	기타	(33)	24.2	6.1	6.1	9.1	9.1	9.1	6.1
월 평균 가구소득	소득없음	(97)	18.6	14.4	11.3	8.2	14.4	14.4	15.5
	100만원 미만	(86)	20.9	15.1	14.0	17.4	16.3	19.8	17.4
	100만원~200만원 미만	(257)	12.8	8.2	6.2	6.2	8.2	7.4	7.4
	200만원~300만원 미만	(361)	17.2	11.9	8.9	7.2	9.7	10.0	12.5
	300만원~400만원 미만	(423)	22.0	11.6	10.4	12.5	14.2	13.5	13.7
	400만원~500만원 미만	(321)	15.6	11.5	7.5	6.9	9.7	9.3	7.2
	500만원~600만원 미만	(242)	16.5	9.9	8.3	9.5	12.8	13.2	13.6
	600만원 이상	(313)	24.3	14.1	10.9	10.9	13.1	12.1	13.7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139)	22.3	18.0	15.8	14.4	21.6	19.4	20.9
	없음	(1961)	18.3	11.2	8.7	9.0	11.1	11.0	11.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245)	20.8	17.1	13.5	11.0	15.9	18.4	17.1
	없음	(1855)	18.3	10.9	8.6	9.2	11.2	10.7	11.3

[외국인근로자 인식조사]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5.7	26.3	35.0	32.3	0.7	100.0	32.0	35.0	33.0	2.96
국적	중국	(75)	9.3	24.0	42.7	22.7	1.3	100.0	33.3	42.7	24.0	2.83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7.6	26.6	27.8	38.0	0.0	100.0	34.2	27.8	38.0	2.96
	베트남	(99)	4.0	29.3	30.3	35.4	1.0	100.0	33.3	30.3	36.4	3.00
	기타	(47)	0.0	23.4	44.7	31.9	0.0	100.0	23.4	44.7	31.9	3.09
성(性)	남자	(238)	7.1	28.2	34.0	29.8	0.8	100.0	35.3	34.0	30.7	2.89
	여자	(62)	0.0	19.4	38.7	41.9	0.0	100.0	19.4	38.7	41.9	3.23
연령	만19~29세	(60)	8.3	33.3	36.7	21.7	0.0	100.0	41.7	36.7	21.7	2.72
	30대	(94)	2.1	28.7	41.5	26.6	1.1	100.0	30.9	41.5	27.7	2.96
	40대	(66)	7.6	24.2	34.8	33.3	0.0	100.0	31.8	34.8	33.3	2.94
	50대	(60)	3.3	20.0	25.0	51.7	0.0	100.0	23.3	25.0	51.7	3.25
	60세 이상	(20)	15.0	20.0	30.0	30.0	5.0	100.0	35.0	30.0	35.0	2.90
학력	고졸 미만	(57)	5.3	38.6	21.1	33.3	1.8	100.0	43.9	21.1	35.1	2.88
	고졸	(161)	5.6	24.2	36.6	33.5	0.0	100.0	29.8	36.6	33.5	2.98
	전문대 졸	(28)	7.1	7.1	50.0	32.1	3.6	100.0	14.3	50.0	35.7	3.18
	대졸	(53)	5.7	30.2	37.7	26.4	0.0	100.0	35.8	37.7	26.4	2.85
	기타 교육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0.0	15.6	35.6	48.9	0.0	100.0	15.6	35.6	48.9	3.33
	천주교	(20)	0.0	40.0	45.0	15.0	0.0	100.0	40.0	45.0	15.0	2.75
	불교	(40)	2.5	27.5	10.0	60.0	0.0	100.0	30.0	10.0	60.0	3.28
	이슬람교	(16)	0.0	37.5	43.8	18.8	0.0	100.0	37.5	43.8	18.8	2.81
	기타	(8)	0.0	62.5	37.5	0.0	0.0	100.0	62.5	37.5	0.0	2.38
	무교	(171)	9.4	24.6	38.6	26.3	1.2	100.0	33.9	38.6	27.5	2.85
거주 지역	서울	(70)	4.3	28.6	37.1	30.0	0.0	100.0	32.9	37.1	30.0	2.93
	경기/인천	(170)	4.7	22.9	35.3	35.9	1.2	100.0	27.6	35.3	37.1	3.06
	부산/울산/경남	(14)	0.0	85.7	14.3	0.0	0.0	100.0	85.7	14.3	0.0	2.14
	대구/경북	(15)	0.0	13.3	33.3	53.3	0.0	100.0	13.3	33.3	53.3	3.40
	광주/전북/전남	(14)	0.0	21.4	28.6	50.0	0.0	100.0	21.4	28.6	50.0	3.29
	대전/세종/충북/충남	(17)	35.3	17.6	47.1	0.0	0.0	100.0	52.9	47.1	0.0	2.12
직업	전문직	(6)	33.3	16.7	50.0	0.0	0.0	100.0	50.0	50.0	0.0	2.17
	사무직	(7)	0.0	42.9	28.6	28.6	0.0	100.0	42.9	28.6	28.6	2.86
	기능직	(155)	5.2	29.7	36.1	29.0	0.0	100.0	34.8	36.1	29.0	2.89
	판매직	(27)	3.7	29.6	29.6	37.0	0.0	100.0	33.3	29.6	37.0	3.00
	서비스직	(67)	3.0	13.4	37.3	44.8	1.5	100.0	16.4	37.3	46.3	3.28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12.5	25.0	12.5	50.0	0.0	100.0	37.5	12.5	50.0	3.00
	학생	(1)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3.00
	무직	(13)	15.4	23.1	30.8	23.1	7.7	100.0	38.5	30.8	30.8	2.85
	기타	(16)	6.3	43.8	31.3	18.8	0.0	100.0	50.0	31.3	18.8	2.63
혼인 상태	기혼	(249)	4.8	24.9	35.7	34.1	0.4	100.0	29.7	35.7	34.5	3.00
	미혼	(47)	6.4	36.2	34.0	23.4	0.0	100.0	42.6	34.0	23.4	2.74
	기타	(4)	50.0	0.0	0.0	25.0	25.0	100.0	50.0	0.0	50.0	2.7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11.8	11.8	47.1	23.5	5.9	100.0	23.5	47.1	29.4	3.00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4.3	29.1	31.6	34.2	0.9	100.0	33.3	31.6	35.0	2.98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6.2	26.0	36.3	31.5	0.0	100.0	32.2	36.3	31.5	2.93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5.6	27.8	33.3	33.3	0.0	100.0	33.3	33.3	33.3	2.94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0	0.0	50.0	50.0	0.0	100.0	0.0	50.0	50.0	3.5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15.0	15.0	35.0	30.0	5.0	100.0	30.0	35.0	35.0	2.95
	없음	(280)	5.0	27.1	35.0	32.5	0.4	100.0	32.1	35.0	32.9	2.9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0.0	37.5	37.5	25.0	0.0	100.0	37.5	37.5	25.0	2.88
	없음	(284)	6.0	25.7	34.9	32.7	0.7	100.0	31.7	34.9	33.5	2.96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1.7	14.7	40.3	41.3	2.0	100.0	16.4	40.3	43.3	3.27
국적	중국	(75)	2.7	12.0	45.3	38.7	1.3	100.0	14.7	45.3	40.0	3.24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2.5	17.7	38.0	39.2	2.5	100.0	20.3	38.0	41.8	3.22
	베트남	(99)	1.0	15.2	40.4	42.4	1.0	100.0	16.2	40.4	43.4	3.27
	기타	(47)	0.0	12.8	36.2	46.8	4.3	100.0	12.8	36.2	51.1	3.43
성(性)	남자	(238)	2.1	15.1	40.3	39.9	2.5	100.0	17.2	40.3	42.4	3.26
	여자	(62)	0.0	12.9	40.3	46.8	0.0	100.0	12.9	40.3	46.8	3.34
연령	만19~29세	(60)	6.7	18.3	36.7	35.0	3.3	100.0	25.0	36.7	38.3	3.10
	30대	(94)	1.1	9.6	44.7	43.6	1.1	100.0	10.6	44.7	44.7	3.34
	40대	(66)	0.0	21.2	40.9	37.9	0.0	100.0	21.2	40.9	37.9	3.17
	50대	(60)	0.0	16.7	35.0	45.0	3.3	100.0	16.7	35.0	48.3	3.35
	60세 이상	(20)	0.0	0.0	45.0	50.0	5.0	100.0	0.0	45.0	55.0	3.60
학력	고졸 미만	(57)	0.0	7.0	50.9	40.4	1.8	100.0	7.0	50.9	42.1	3.37
	고졸	(161)	1.9	16.8	33.5	46.0	1.9	100.0	18.6	33.5	47.8	3.29
	전문대 졸	(28)	7.1	17.9	32.1	42.9	0.0	100.0	25.0	32.1	42.9	3.11
	대졸	(53)	0.0	15.1	54.7	26.4	3.8	100.0	15.1	54.7	30.2	3.19
	기타 교육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0.0	13.3	46.7	37.8	2.2	100.0	13.3	46.7	40.0	3.29
	천주교	(20)	0.0	15.0	45.0	35.0	5.0	100.0	15.0	45.0	40.0	3.30
	불교	(40)	0.0	22.5	27.5	47.5	2.5	100.0	22.5	27.5	50.0	3.30
	이슬람교	(16)	6.3	12.5	37.5	43.8	0.0	100.0	18.8	37.5	43.8	3.19
	기타	(8)	0.0	0.0	75.0	12.5	12.5	100.0	0.0	75.0	25.0	3.38
	무교	(171)	2.3	14.0	39.8	42.7	1.2	100.0	16.4	39.8	43.9	3.26
거주 지역	서울	(70)	0.0	12.9	42.9	42.9	1.4	100.0	12.9	42.9	44.3	3.33
	경기/인천	(170)	1.8	12.4	38.8	44.1	2.9	100.0	14.1	38.8	47.1	3.34
	부산/울산/경남	(14)	0.0	0.0	92.9	7.1	0.0	100.0	0.0	92.9	7.1	3.07
	대구/경북	(15)	0.0	0.0	40.0	60.0	0.0	100.0	0.0	40.0	60.0	3.60
	광주/전북/전남	(14)	0.0	28.6	21.4	50.0	0.0	100.0	28.6	21.4	50.0	3.21
	대전/세종/충북/충남	(17)	11.8	58.8	17.6	11.8	0.0	100.0	70.6	17.6	11.8	2.29
직업	전문직	(6)	16.7	66.7	16.7	0.0	0.0	100.0	83.3	16.7	0.0	2.00
	사무직	(7)	0.0	28.6	14.3	57.1	0.0	100.0	28.6	14.3	57.1	3.29
	기능직	(155)	0.6	14.8	38.7	43.2	2.6	100.0	15.5	38.7	45.8	3.32
	판매직	(27)	0.0	11.1	63.0	25.9	0.0	100.0	11.1	63.0	25.9	3.15
	서비스직	(67)	1.5	14.9	32.8	49.3	1.5	100.0	16.4	32.8	50.7	3.34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12.5	12.5	37.5	25.0	12.5	100.0	25.0	37.5	37.5	3.13
	학생	(1)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3.00
	무직	(13)	0.0	0.0	30.8	69.2	0.0	100.0	0.0	30.8	69.2	3.69
	기타	(16)	6.3	6.3	75.0	12.5	0.0	100.0	12.5	75.0	12.5	2.94
혼인 상태	기혼	(249)	0.8	16.1	38.2	43.0	2.0	100.0	16.9	38.2	45.0	3.29
	미혼	(47)	6.4	8.5	53.2	29.8	2.1	100.0	14.9	53.2	31.9	3.13
	기타	(4)	0.0	0.0	25.0	75.0	0.0	100.0	0.0	25.0	75.0	3.7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0.0	0.0	35.3	64.7	0.0	100.0	0.0	35.3	64.7	3.65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1.7	15.4	41.9	39.3	1.7	100.0	17.1	41.9	41.0	3.24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2.1	15.1	39.0	41.1	2.7	100.0	17.1	39.0	43.8	3.27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0.0	11.1	50.0	38.9	0.0	100.0	11.1	50.0	38.9	3.28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0	100.0	0.0	0.0	0.0	100.0	100.0	0.0	0.0	2.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5.0	45.0	20.0	25.0	5.0	100.0	50.0	20.0	30.0	2.80
	없음	(280)	1.4	12.5	41.8	42.5	1.8	100.0	13.9	41.8	44.3	3.3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6.3	43.8	18.8	25.0	6.3	100.0	50.0	18.8	31.3	2.81
	없음	(284)	1.4	13.0	41.5	42.3	1.8	100.0	14.4	41.5	44.0	3.30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1.7	11.7	39.7	39.7	7.3	100.0	13.3	39.7	47.0	3.39
국적	중국	(75)	6.7	10.7	40.0	36.0	6.7	100.0	17.3	40.0	42.7	3.25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0.0	12.7	41.8	38.0	7.6	100.0	12.7	41.8	45.6	3.41
	베트남	(99)	0.0	14.1	38.4	39.4	8.1	100.0	14.1	38.4	47.5	3.41
	기타	(47)	0.0	6.4	38.3	48.9	6.4	100.0	6.4	38.3	55.3	3.55
성(性)	남자	(238)	1.7	13.0	38.2	40.3	6.7	100.0	14.7	38.2	47.1	3.37
	여자	(62)	1.6	6.5	45.2	37.1	9.7	100.0	8.1	45.2	46.8	3.47
연령	만19~29세	(60)	3.3	15.0	33.3	38.3	10.0	100.0	18.3	33.3	48.3	3.37
	30대	(94)	2.1	10.6	47.9	31.9	7.4	100.0	12.8	47.9	39.4	3.32
	40대	(66)	1.5	15.2	36.4	39.4	7.6	100.0	16.7	36.4	47.0	3.36
	50대	(60)	0.0	8.3	40.0	46.7	5.0	100.0	8.3	40.0	51.7	3.48
	60세 이상	(20)	0.0	5.0	30.0	60.0	5.0	100.0	5.0	30.0	65.0	3.65
학력	고졸 미만	(57)	0.0	15.8	38.6	42.1	3.5	100.0	15.8	38.6	45.6	3.33
	고졸	(161)	3.1	11.8	39.8	39.1	6.2	100.0	14.9	39.8	45.3	3.34
	전문대 졸	(28)	0.0	3.6	35.7	42.9	17.9	100.0	3.6	35.7	60.7	3.75
	대졸	(53)	0.0	11.3	43.4	35.8	9.4	100.0	11.3	43.4	45.3	3.43
	기타 교육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0.0	15.6	44.4	35.6	4.4	100.0	15.6	44.4	40.0	3.29
	천주교	(20)	0.0	0.0	30.0	40.0	30.0	100.0	0.0	30.0	70.0	4.00
	불교	(40)	2.5	15.0	30.0	42.5	10.0	100.0	17.5	30.0	52.5	3.43
	이슬람교	(16)	0.0	25.0	31.3	43.8	0.0	100.0	25.0	31.3	43.8	3.19
	기타	(8)	0.0	25.0	62.5	12.5	0.0	100.0	25.0	62.5	12.5	2.88
	무교	(171)	2.3	9.4	41.5	40.9	5.8	100.0	11.7	41.5	46.8	3.39
거주 지역	서울	(70)	0.0	8.6	48.6	37.1	5.7	100.0	8.6	48.6	42.9	3.40
	경기/인천	(170)	0.0	5.9	33.5	50.6	10.0	100.0	5.9	33.5	60.6	3.65
	부산/울산/경남	(14)	0.0	64.3	35.7	0.0	0.0	100.0	64.3	35.7	0.0	2.36
	대구/경북	(15)	0.0	0.0	66.7	26.7	6.7	100.0	0.0	66.7	33.3	3.40
	광주/전북/전남	(14)	0.0	14.3	71.4	14.3	0.0	100.0	14.3	71.4	14.3	3.00
	대전/세종/충북/충남	(17)	29.4	47.1	17.6	5.9	0.0	100.0	76.5	17.6	5.9	2.00
직업	전문직	(6)	0.0	83.3	16.7	0.0	0.0	100.0	83.3	16.7	0.0	2.17
	사무직	(7)	14.3	28.6	14.3	28.6	14.3	100.0	42.9	14.3	42.9	3.00
	기능직	(155)	1.9	11.6	45.2	34.2	7.1	100.0	13.5	45.2	41.3	3.33
	판매직	(27)	0.0	0.0	33.3	55.6	11.1	100.0	0.0	33.3	66.7	3.78
	서비스직	(67)	0.0	4.5	37.3	53.7	4.5	100.0	4.5	37.3	58.2	3.58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0.0	25.0	25.0	25.0	25.0	100.0	25.0	25.0	50.0	3.50
	학생	(1)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3.00
	무직	(13)	0.0	0.0	30.8	61.5	7.7	100.0	0.0	30.8	69.2	3.77
	기타	(16)	6.3	31.3	37.5	18.8	6.3	100.0	37.5	37.5	25.0	2.88
혼인 상태	기혼	(249)	1.2	12.0	39.8	40.2	6.8	100.0	13.3	39.8	47.0	3.39
	미혼	(47)	4.3	10.6	40.4	34.0	10.6	100.0	14.9	40.4	44.7	3.36
	기타	(4)	0.0	0.0	25.0	75.0	0.0	100.0	0.0	25.0	75.0	3.7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0.0	0.0	41.2	52.9	5.9	100.0	0.0	41.2	58.8	3.65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3.4	16.2	37.6	37.6	5.1	100.0	19.7	37.6	42.7	3.25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0.7	10.3	41.1	39.0	8.9	100.0	11.0	41.1	47.9	3.45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0.0	5.6	38.9	50.0	5.6	100.0	5.6	38.9	55.6	3.56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0	0.0	50.0	0.0	50.0	100.0	0.0	50.0	50.0	4.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15.0	15.0	25.0	35.0	10.0	100.0	30.0	25.0	45.0	3.10
	없음	(280)	0.7	11.4	40.7	40.0	7.1	100.0	12.1	40.7	47.1	3.4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0.0	6.3	43.8	37.5	12.5	100.0	6.3	43.8	50.0	3.56
	없음	(284)	1.8	12.0	39.4	39.8	7.0	100.0	13.7	39.4	46.8	3.38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전체		(300)	41.3	32.0	29.3	34.0	37.3
국적	중국	(75)	40.0	30.7	24.0	32.0	37.3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25.3	22.8	22.8	41.8	36.7
	베트남	(99)	53.5	42.4	34.3	35.4	40.4
	기타	(47)	44.7	27.7	38.3	21.3	31.9
성(性)	남자	(238)	42.0	32.8	26.9	31.9	35.7
	여자	(62)	38.7	29.0	38.7	41.9	43.5
연령	만19~29세	(60)	41.7	28.3	33.3	31.7	31.7
	30대	(94)	53.2	34.0	34.0	35.1	34.0
	40대	(66)	39.4	36.4	30.3	39.4	47.0
	50대	(60)	25.0	30.0	20.0	31.7	38.3
	60세 이상	(20)	40.0	25.0	20.0	25.0	35.0
학력	고졸 미만	(57)	42.1	33.3	15.8	28.1	31.6
	고졸	(161)	38.5	31.7	26.7	39.8	38.5
	전문대 졸	(28)	39.3	42.9	35.7	28.6	50.0
	대졸	(53)	50.9	24.5	49.1	26.4	34.0
	기타 교육	(1)	0.0	100.0	0.0	0.0	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17.8	20.0	28.9	35.6	46.7
	천주교	(20)	45.0	25.0	60.0	20.0	20.0
	불교	(40)	32.5	42.5	20.0	40.0	45.0
	이슬람교	(16)	50.0	18.8	37.5	6.3	31.3
	기타	(8)	25.0	62.5	12.5	25.0	12.5
	무교	(171)	49.1	33.3	28.1	36.8	36.8
거주 지역	서울	(70)	52.9	40.0	35.7	38.6	41.4
	경기/인천	(170)	40.0	30.6	31.8	34.7	42.4
	부산/울산/경남	(14)	0.0	57.1	0.0	0.0	0.0
	대구/경북	(15)	60.0	20.0	20.0	60.0	40.0
	광주/전북/전남	(14)	50.0	28.6	42.9	35.7	28.6
	대전/세종/충북/충남	(17)	17.6	5.9	0.0	11.8	5.9
직업	전문직	(6)	16.7	0.0	0.0	0.0	0.0
	사무직	(7)	42.9	28.6	14.3	28.6	28.6
	기능직	(155)	46.5	29.0	30.3	36.8	39.4
	판매직	(27)	48.1	18.5	44.4	40.7	48.1
	서비스직	(67)	35.8	44.8	31.3	37.3	38.8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37.5	25.0	25.0	25.0	37.5
	학생	(1)	100.0	0.0	100.0	0.0	100.0
	무직	(13)	30.8	38.5	15.4	30.8	30.8
	기타	(16)	18.8	43.8	12.5	6.3	12.5
혼인 상태	기혼	(249)	40.6	33.7	26.9	36.1	37.3
	미혼	(47)	46.8	23.4	42.6	21.3	36.2
	기타	(4)	25.0	25.0	25.0	50.0	50.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47.1	23.5	35.3	41.2	41.2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40.2	29.1	28.2	31.6	32.5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38.4	33.6	30.1	32.2	38.4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72.2	44.4	27.8	55.6	61.1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0	50.0	0.0	50.0	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25.0	25.0	15.0	15.0	40.0
	없음	(280)	42.5	32.5	30.4	35.4	37.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18.8	50.0	18.8	31.3	43.8
	없음	(284)	42.6	31.0	29.9	34.2	37.0

[표 2-1.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0.3	22.0	36.7	37.3	3.7	100.0	22.3	36.7	41.0	2.78
국적	중국	(75)	0.0	24.0	38.7	34.7	2.7	100.0	24.0	38.7	37.3	2.84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0.0	30.4	32.9	29.1	7.6	100.0	30.4	32.9	36.7	2.86
	베트남	(99)	1.0	17.2	37.4	41.4	3.0	100.0	18.2	37.4	44.4	2.72
	기타	(47)	0.0	14.9	38.3	46.8	0.0	100.0	14.9	38.3	46.8	2.68
성(性)	남자	(238)	0.0	21.0	36.6	37.8	4.6	100.0	21.0	36.6	42.4	2.74
	여자	(62)	1.6	25.8	37.1	35.5	0.0	100.0	27.4	37.1	35.5	2.94
연령	만19~29세	(60)	1.7	20.0	38.3	36.7	3.3	100.0	21.7	38.3	40.0	2.80
	30대	(94)	0.0	16.0	35.1	43.6	5.3	100.0	16.0	35.1	48.9	2.62
	40대	(66)	0.0	27.3	33.3	36.4	3.0	100.0	27.3	33.3	39.4	2.85
	50대	(60)	0.0	26.7	38.3	31.7	3.3	100.0	26.7	38.3	35.0	2.88
	60세 이상	(20)	0.0	25.0	45.0	30.0	0.0	100.0	25.0	45.0	30.0	2.95
학력	고졸 미만	(57)	0.0	26.3	40.4	31.6	1.8	100.0	26.3	40.4	33.3	2.91
	고졸	(161)	0.6	21.7	34.2	40.4	3.1	100.0	22.4	34.2	43.5	2.76
	전문대 졸	(28)	0.0	7.1	50.0	35.7	7.1	100.0	7.1	50.0	42.9	2.57
	대졸	(53)	0.0	26.4	34.0	34.0	5.7	100.0	26.4	34.0	39.6	2.81
	기타 교육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2.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0.0	24.4	40.0	31.1	4.4	100.0	24.4	40.0	35.6	2.84
	천주교	(20)	0.0	15.0	40.0	45.0	0.0	100.0	15.0	40.0	45.0	2.70
	불교	(40)	0.0	20.0	40.0	37.5	2.5	100.0	20.0	40.0	40.0	2.78
	이슬람교	(16)	0.0	12.5	43.8	43.8	0.0	100.0	12.5	43.8	43.8	2.69
	기타	(8)	0.0	25.0	62.5	12.5	0.0	100.0	25.0	62.5	12.5	3.13
	무교	(171)	0.6	23.4	32.7	38.6	4.7	100.0	24.0	32.7	43.3	2.77
거주 지역	서울	(70)	0.0	20.0	40.0	38.6	1.4	100.0	20.0	40.0	40.0	2.79
	경기/인천	(170)	0.6	21.8	31.2	41.8	4.7	100.0	22.4	31.2	46.5	2.72
	부산/울산/경남	(14)	0.0	14.3	85.7	0.0	0.0	100.0	14.3	85.7	0.0	3.14
	대구/경북	(15)	0.0	13.3	26.7	60.0	0.0	100.0	13.3	26.7	60.0	2.53
	광주/전북/전남	(14)	0.0	35.7	50.0	14.3	0.0	100.0	35.7	50.0	14.3	3.21
	대전/세종/충북/충남	(17)	0.0	35.3	35.3	17.6	11.8	100.0	35.3	35.3	29.4	2.94
직업	전문직	(6)	0.0	0.0	33.3	66.7	0.0	100.0	0.0	33.3	66.7	3.67
	사무직	(7)	14.3	28.6	57.1	0.0	0.0	100.0	42.9	57.1	0.0	2.43
	기능직	(155)	3.9	36.1	36.1	23.9	0.0	100.0	40.0	36.1	23.9	2.80
	판매직	(27)	3.7	48.1	29.6	18.5	0.0	100.0	51.9	29.6	18.5	2.63
	서비스직	(67)	1.5	46.3	38.8	13.4	0.0	100.0	47.8	38.8	13.4	2.64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25.0	12.5	37.5	25.0	0.0	100.0	37.5	37.5	25.0	2.63
	학생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무직	(13)	0.0	38.5	23.1	30.8	7.7	100.0	38.5	23.1	38.5	3.08
	기타	(16)	0.0	25.0	50.0	25.0	0.0	100.0	25.0	50.0	25.0	3.00
혼인 상태	기혼	(249)	0.4	20.1	39.0	37.3	3.2	100.0	20.5	39.0	40.6	2.77
	미혼	(47)	0.0	29.8	25.5	38.3	6.4	100.0	29.8	25.5	44.7	2.79
	기타	(4)	0.0	50.0	25.0	25.0	0.0	100.0	50.0	25.0	25.0	3.2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5.9	41.2	23.5	29.4	0.0	100.0	47.1	23.5	29.4	3.24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0.0	23.9	31.6	41.0	3.4	100.0	23.9	31.6	44.4	2.76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0.0	19.2	39.7	36.3	4.8	100.0	19.2	39.7	41.1	2.73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0.0	11.1	55.6	33.3	0.0	100.0	11.1	55.6	33.3	2.78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100.0	50.0	50.0	0.0	3.5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0.0	30.0	25.0	35.0	10.0	100.0	30.0	25.0	45.0	2.75
	없음	(280)	0.4	21.4	37.5	37.5	3.2	100.0	21.8	37.5	40.7	2.7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0.0	50.0	12.5	31.3	6.3	100.0	50.0	12.5	37.5	3.06
	없음	(284)	0.4	20.4	38.0	37.7	3.5	100.0	20.8	38.0	41.2	2.76

[표 2-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수용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일상생활 속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불편함을 느낌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에서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불공정 또는 불평등한 대우를 받음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작품 또는 행동의 폄하를 느낌	여가/문화 활동할 때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음을 느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스스로 불편해 피할 때가 있음
전체		(300)	47.7	40.3	33.7	37.0	43.0
국적	중국	(75)	26.7	33.3	28.0	32.0	38.7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36.7	32.9	21.5	36.7	43.0
	베트남	(99)	64.6	45.5	42.4	39.4	46.5
	기타	(47)	63.8	53.2	44.7	40.4	42.6
성(性)	남자	(238)	48.3	41.6	33.6	35.7	42.9
	여자	(62)	45.2	35.5	33.9	41.9	43.5
연령	만19~29세	(60)	58.3	45.0	51.7	46.7	45.0
	30대	(94)	67.0	43.6	37.2	44.7	48.9
	40대	(66)	33.3	37.9	27.3	25.8	43.9
	50대	(60)	31.7	41.7	23.3	35.0	40.0
	60세 이상	(20)	20.0	15.0	15.0	15.0	15.0
학력	고졸 미만	(57)	47.4	35.1	31.6	31.6	43.9
	고졸	(161)	41.6	39.1	30.4	35.4	42.2
	전문대 졸	(28)	53.6	57.1	32.1	46.4	53.6
	대졸	(53)	64.2	41.5	45.3	41.5	37.7
	기타 교육	(1)	0.0	0.0	100.0	100.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31.1	17.8	22.2	31.1	40.0
	천주교	(20)	90.0	60.0	55.0	45.0	50.0
	불교	(40)	45.0	42.5	37.5	25.0	52.5
	이슬람교	(16)	75.0	50.0	62.5	31.3	37.5
	기타	(8)	75.0	12.5	12.5	62.5	100.0
	무교	(171)	43.9	43.9	31.6	39.8	38.6
거주 지역	서울	(70)	35.7	40.0	25.7	27.1	32.9
	경기/인천	(170)	50.0	37.6	32.4	36.5	42.9
	부산/울산/경남	(14)	71.4	35.7	35.7	50.0	85.7
	대구/경북	(15)	53.3	53.3	40.0	66.7	40.0
	광주/전북/전남	(14)	42.9	42.9	50.0	28.6	35.7
	대전/세종/충북/충남	(17)	52.9	58.8	58.8	52.9	58.8
직업	전문직	(6)	83.3	83.3	83.3	100.0	83.3
	사무직	(7)	14.3	42.9	57.1	42.9	42.9
	기능직	(155)	47.7	36.1	33.5	33.5	40.0
	판매직	(27)	55.6	44.4	22.2	44.4	33.3
	서비스직	(67)	44.8	53.7	35.8	37.3	46.3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75.0	50.0	50.0	62.5	50.0
	학생	(1)	0.0	0.0	100.0	0.0	0.0
	무직	(13)	30.8	7.7	0.0	15.4	15.4
	기타	(16)	50.0	25.0	31.3	37.5	81.3
혼인 상태	기혼	(249)	43.8	41.0	31.7	34.1	43.4
	미혼	(47)	68.1	38.3	46.8	53.2	44.7
	기타	(4)	50.0	25.0	0.0	25.0	0.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35.3	17.6	23.5	29.4	23.5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44.4	38.5	42.7	40.2	44.4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52.7	43.2	26.7	34.9	43.8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44.4	50.0	38.9	33.3	44.4
	400만원~500만원 미만	(2)	0.0	50.0	50.0	100.0	5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50.0	45.0	45.0	40.0	60.0
	없음	(280)	47.5	40.0	32.9	36.8	41.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56.3	43.8	25.0	43.8	68.8
	없음	(284)	47.2	40.1	34.2	36.6	41.5

[표 2-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	'나'를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	주변인들은 내가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
전체		(300)	45.3	34.3	32.3	34.3	41.0
국적	중국	(75)	29.3	26.7	32.0	36.0	36.0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38.0	31.6	21.5	29.1	41.8
	베트남	(99)	57.6	40.4	37.4	37.4	43.4
	기타	(47)	57.4	38.3	40.4	34.0	42.6
성(性)	남자	(238)	43.7	32.4	32.4	35.3	39.9
	여자	(62)	51.6	41.9	32.3	30.6	45.2
연령	만19~29세	(60)	56.7	43.3	48.3	40.0	48.3
	30대	(94)	48.9	37.2	29.8	30.9	38.3
	40대	(66)	48.5	28.8	28.8	40.9	40.9
	50대	(60)	33.3	33.3	25.0	28.3	46.7
	60세 이상	(20)	20.0	15.0	30.0	30.0	15.0
학력	고졸 미만	(57)	38.6	40.4	21.1	31.6	35.1
	고졸	(161)	42.9	29.8	33.5	36.0	45.3
	전문대 졸	(28)	53.6	42.9	35.7	25.0	39.3
	대졸	(53)	54.7	37.7	37.7	35.8	35.8
	기타 교육	(1)	100.0	0.0	100.0	100.0	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22.2	22.2	24.4	22.2	37.8
	천주교	(20)	85.0	55.0	50.0	40.0	50.0
	불교	(40)	45.0	30.0	37.5	30.0	47.5
	이슬람교	(16)	87.5	43.8	37.5	37.5	50.0
	기타	(8)	75.0	62.5	25.0	0.0	12.5
	무교	(171)	41.5	33.9	31.0	39.2	39.8
거주 지역	서울	(70)	40.0	22.9	31.4	35.7	25.7
	경기/인천	(170)	42.4	33.5	28.8	34.7	44.1
	부산/울산/경남	(14)	78.6	78.6	0.0	0.0	35.7
	대구/경북	(15)	60.0	53.3	33.3	26.7	60.0
	광주/전북/전남	(14)	42.9	35.7	85.7	28.6	42.9
	대전/세종/충북/충남	(17)	58.8	35.3	52.9	64.7	58.8
직업	전문직	(6)	83.3	66.7	83.3	83.3	83.3
	사무직	(7)	42.9	14.3	57.1	42.9	14.3
	기능직	(155)	43.9	31.6	26.5	33.5	43.2
	판매직	(27)	33.3	33.3	44.4	25.9	37.0
	서비스직	(67)	52.2	35.8	41.8	38.8	43.3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62.5	62.5	25.0	25.0	37.5
	학생	(1)	100.0	0.0	0.0	0.0	0.0
	무직	(13)	15.4	7.7	30.8	23.1	7.7
	기타	(16)	50.0	62.5	6.3	31.3	43.8
혼인 상태	기혼	(249)	43.4	34.5	31.3	34.1	41.8
	미혼	(47)	57.4	36.2	38.3	36.2	40.4
	기타	(4)	25.0	0.0	25.0	25.0	0.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23.5	23.5	29.4	35.3	23.5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44.4	36.8	34.2	37.6	43.6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47.9	32.9	29.5	31.5	39.7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44.4	33.3	44.4	27.8	44.4
	400만원~500만원 미만	(2)	100.0	100.0	50.0	100.0	10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50.0	35.0	50.0	50.0	40.0
	없음	(280)	45.0	34.3	31.1	33.2	41.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37.5	18.8	37.5	43.8	37.5
	없음	(284)	45.8	35.2	32.0	33.8	41.2

[표 2-4.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만족함
전체		(300)	37.7	31.3	31.3	34.7	36.0	33.3	32.3
국적	중국	(75)	34.7	33.3	22.7	34.7	28.0	37.3	32.0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9)	30.4	17.7	26.6	38.0	41.8	25.3	29.1
	베트남	(99)	44.4	37.4	35.4	37.4	43.4	37.4	32.3
	기타	(47)	40.4	38.3	44.7	23.4	23.4	31.9	38.3
성(性)	남자	(238)	34.9	31.9	31.1	35.3	36.1	33.2	31.1
	여자	(62)	48.4	29.0	32.3	32.3	35.5	33.9	37.1
연령	만19~29세	(60)	48.3	26.7	36.7	38.3	41.7	26.7	36.7
	30대	(94)	39.4	35.1	33.0	26.6	33.0	39.4	28.7
	40대	(66)	34.8	33.3	30.3	37.9	36.4	28.8	33.3
	50대	(60)	30.0	28.3	28.3	45.0	45.0	33.3	36.7
	60세 이상	(20)	30.0	30.0	20.0	20.0	5.0	40.0	20.0
학력	고졸 미만	(57)	31.6	28.1	21.1	28.1	31.6	36.8	26.3
	고졸	(161)	33.5	31.7	30.4	36.6	37.9	29.8	33.5
	전문대 졸	(28)	50.0	42.9	46.4	28.6	35.7	39.3	50.0
	대졸	(53)	50.9	28.3	35.8	37.7	34.0	35.8	24.5
	기타 교육	(1)	0.0	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45)	24.4	17.8	26.7	48.9	40.0	31.1	33.3
	천주교	(20)	70.0	35.0	35.0	40.0	30.0	35.0	35.0
	불교	(40)	22.5	35.0	25.0	30.0	32.5	32.5	22.5
	이슬람교	(16)	43.8	12.5	50.0	12.5	12.5	12.5	12.5
	기타	(8)	25.0	25.0	0.0	0.0	0.0	12.5	12.5
	무교	(171)	40.9	35.7	33.3	35.1	40.4	36.8	36.8
거주 지역	서울	(70)	38.6	51.4	40.0	38.6	47.1	42.9	42.9
	경기/인천	(170)	42.4	25.9	33.5	38.8	37.6	33.5	32.9
	부산/울산/경남	(14)	7.1	0.0	0.0	0.0	14.3	7.1	7.1
	대구/경북	(15)	33.3	26.7	20.0	33.3	33.3	26.7	33.3
	광주/전북/전남	(14)	28.6	50.0	35.7	28.6	21.4	35.7	14.3
	대전/세종/충북/충남	(17)	23.5	17.6	5.9	11.8	5.9	17.6	17.6
직업	전문직	(6)	16.7	0.0	16.7	16.7	0.0	16.7	0.0
	사무직	(7)	14.3	28.6	57.1	57.1	28.6	42.9	42.9
	기능직	(155)	37.4	30.3	32.3	36.8	40.6	30.3	34.8
	판매직	(27)	70.4	18.5	25.9	44.4	48.1	33.3	29.6
	서비스직	(67)	40.3	50.7	38.8	32.8	32.8	46.3	38.8
	농림어업 관련 직종	(8)	25.0	12.5	25.0	12.5	50.0	25.0	37.5
	학생	(1)	0.0	0.0	0.0	100.0	100.0	0.0	100.0
	무직	(13)	23.1	7.7	23.1	23.1	7.7	23.1	0.0
	기타	(16)	12.5	25.0	6.3	18.8	12.5	25.0	12.5
혼인 상태	기혼	(249)	37.3	31.3	31.7	35.3	37.8	33.7	33.3
	미혼	(47)	38.3	31.9	29.8	34.0	29.8	31.9	29.8
	기타	(4)	50.0	25.0	25.0	0.0	0.0	25.0	0.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7)	41.2	11.8	23.5	35.3	17.6	29.4	23.5
	100만원~200만원 미만	(117)	34.2	29.9	23.1	29.9	30.8	30.8	32.5
	200만원~300만원 미만	(146)	37.7	30.1	37.0	36.3	39.0	33.6	30.1
	300만원~400만원 미만	(18)	55.6	72.2	44.4	50.0	66.7	55.6	61.1
	400만원~500만원 미만	(2)	50.0	0.0	50.0	50.0	0.0	0.0	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20)	30.0	40.0	25.0	25.0	20.0	45.0	40.0
	없음	(280)	38.2	30.7	31.8	35.4	37.1	32.5	31.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6)	18.8	25.0	25.0	25.0	25.0	62.5	31.3
	없음	(284)	38.7	31.7	31.7	35.2	36.6	31.7	32.4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5.0	26.0	39.3	28.7	1.0	100.0	31.0	39.3	29.7	2.95
국적	중국	(105)	3.8	21.0	45.7	27.6	1.9	100.0	24.8	45.7	29.5	3.03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4.2	25.4	29.6	39.4	1.4	100.0	29.6	29.6	40.8	3.08
	베트남	(124)	6.5	30.6	39.5	23.4	0.0	100.0	37.1	39.5	23.4	2.80
성(性)	남자	(40)	7.5	35.0	27.5	27.5	2.5	100.0	42.5	27.5	30.0	2.83
	여자	(260)	4.6	24.6	41.2	28.8	0.8	100.0	29.2	41.2	29.6	2.97
연령	만19~29세	(70)	7.1	27.1	42.9	22.9	0.0	100.0	34.3	42.9	22.9	2.81
	30대	(117)	5.1	32.5	39.3	22.2	0.9	100.0	37.6	39.3	23.1	2.81
	40대	(59)	0.0	18.6	49.2	28.8	3.4	100.0	18.6	49.2	32.2	3.17
	50대	(33)	6.1	21.2	24.2	48.5	0.0	100.0	27.3	24.2	48.5	3.15
	60세 이상	(21)	9.5	14.3	23.8	52.4	0.0	100.0	23.8	23.8	52.4	3.19
학력	고졸 미만	(66)	9.1	21.2	28.8	39.4	1.5	100.0	30.3	28.8	40.9	3.03
	고졸	(155)	5.2	25.8	38.7	29.7	0.6	100.0	31.0	38.7	30.3	2.95
	전문대 졸	(19)	5.3	21.1	36.8	36.8	0.0	100.0	26.3	36.8	36.8	3.05
	대졸	(60)	0.0	33.3	53.3	11.7	1.7	100.0	33.3	53.3	13.3	2.82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0.0	28.6	55.4	16.1	0.0	100.0	28.6	55.4	16.1	2.88
	천주교	(3)	0.0	66.7	33.3	0.0	0.0	100.0	66.7	33.3	0.0	2.33
	불교	(41)	0.0	19.5	51.2	29.3	0.0	100.0	19.5	51.2	29.3	3.10
	기타	(6)	0.0	83.3	16.7	0.0	0.0	100.0	83.3	16.7	0.0	2.17
	무교	(194)	7.7	24.2	33.0	33.5	1.5	100.0	32.0	33.0	35.1	2.97
거주 지역	서울	(79)	3.8	22.8	30.4	41.8	1.3	100.0	26.6	30.4	43.0	3.14
	경기/인천	(159)	6.9	27.0	41.5	23.9	0.6	100.0	34.0	41.5	24.5	2.84
	부산/울산/경남	(15)	0.0	73.3	26.7	0.0	0.0	100.0	73.3	26.7	0.0	2.27
	대구/경북	(15)	0.0	0.0	53.3	46.7	0.0	100.0	0.0	53.3	46.7	3.47
	광주/전북/전남	(15)	0.0	40.0	46.7	13.3	0.0	100.0	40.0	46.7	13.3	2.73
	대전/세종/충북/충남	(17)	5.9	0.0	52.9	35.3	5.9	100.0	5.9	52.9	41.2	3.35
직업	사무직	(4)	0.0	50.0	50.0	0.0	0.0	100.0	50.0	50.0	0.0	2.50
	기능직	(71)	5.6	22.5	42.3	28.2	1.4	100.0	28.2	42.3	29.6	2.97
	판매직	(28)	7.1	32.1	32.1	25.0	3.6	100.0	39.3	32.1	28.6	2.86
	서비스직	(54)	3.7	27.8	42.6	25.9	0.0	100.0	31.5	42.6	25.9	2.91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0.0	75.0	25.0	0.0	0.0	100.0	75.0	25.0	0.0	2.25
	주부	(129)	4.7	24.0	39.5	31.0	0.8	100.0	28.7	39.5	31.8	2.99
	무직	(9)	11.1	22.2	22.2	44.4	0.0	100.0	33.3	22.2	44.4	3.00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혼인 상태	기혼	(292)	5.1	26.7	39.4	27.7	1.0	100.0	31.8	39.4	28.8	2.93
	기타	(8)	0.0	0.0	37.5	62.5	0.0	100.0	0.0	37.5	62.5	3.6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10.5	31.6	10.5	47.4	0.0	100.0	42.1	10.5	47.4	2.95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8.8	21.1	36.8	33.3	0.0	100.0	29.8	36.8	33.3	2.95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3.8	28.1	41.3	25.6	1.3	100.0	31.9	41.3	26.9	2.93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4.0	22.0	46.0	28.0	0.0	100.0	26.0	46.0	28.0	2.98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0.0	33.3	33.3	25.0	8.3	100.0	33.3	33.3	33.3	3.08
	500만원~600만원 미만	(2)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3.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3.9	21.6	37.3	37.3	0.0	100.0	25.5	37.3	37.3	3.08
	없음	(249)	5.2	26.9	39.8	26.9	1.2	100.0	32.1	39.8	28.1	2.9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0.0	20.0	26.7	46.7	6.7	100.0	20.0	26.7	53.3	3.40
	없음	(285)	5.3	26.3	40.0	27.7	0.7	100.0	31.6	40.0	28.4	2.92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0.3	16.7	39.7	40.0	3.3	100.0	17.0	39.7	43.3	3.29
국적	중국	(105)	0.0	16.2	41.9	40.0	1.9	100.0	16.2	41.9	41.9	3.28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1.4	15.5	36.6	39.4	7.0	100.0	16.9	36.6	46.5	3.35
	베트남	(124)	0.0	17.7	39.5	40.3	2.4	100.0	17.7	39.5	42.7	3.27
성(性)	남자	(40)	0.0	12.5	37.5	50.0	0.0	100.0	12.5	37.5	50.0	3.38
	여자	(260)	0.4	17.3	40.0	38.5	3.8	100.0	17.7	40.0	42.3	3.28
연령	만19~29세	(70)	0.0	24.3	45.7	28.6	1.4	100.0	24.3	45.7	30.0	3.07
	30대	(117)	0.9	14.5	39.3	41.9	3.4	100.0	15.4	39.3	45.3	3.32
	40대	(59)	0.0	23.7	33.9	35.6	6.8	100.0	23.7	33.9	42.4	3.25
	50대	(33)	0.0	6.1	48.5	45.5	0.0	100.0	6.1	48.5	45.5	3.39
	60세 이상	(21)	0.0	0.0	23.8	71.4	4.8	100.0	0.0	23.8	76.2	3.81
학력	고졸 미만	(66)	0.0	3.0	36.4	59.1	1.5	100.0	3.0	36.4	60.6	3.59
	고졸	(155)	0.6	16.8	41.3	38.7	2.6	100.0	17.4	41.3	41.3	3.26
	전문대 졸	(19)	0.0	15.8	21.1	47.4	15.8	100.0	15.8	21.1	63.2	3.63
	대졸	(60)	0.0	31.7	45.0	20.0	3.3	100.0	31.7	45.0	23.3	2.95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0.0	32.1	42.9	23.2	1.8	100.0	32.1	42.9	25.0	2.95
	천주교	(3)	0.0	0.0	66.7	33.3	0.0	100.0	0.0	66.7	33.3	3.33
	불교	(41)	0.0	4.9	39.0	53.7	2.4	100.0	4.9	39.0	56.1	3.54
	기타	(6)	0.0	0.0	83.3	16.7	0.0	100.0	0.0	83.3	16.7	3.17
	무교	(194)	0.5	15.5	37.1	42.8	4.1	100.0	16.0	37.1	46.9	3.35
거주 지역	서울	(79)	1.3	16.5	26.6	51.9	3.8	100.0	17.7	26.6	55.7	3.41
	경기/인천	(159)	0.0	20.1	40.3	36.5	3.1	100.0	20.1	40.3	39.6	3.23
	부산/울산/경남	(15)	0.0	0.0	73.3	26.7	0.0	100.0	0.0	73.3	26.7	3.27
	대구/경북	(15)	0.0	0.0	33.3	60.0	6.7	100.0	0.0	33.3	66.7	3.73
	광주/전북/전남	(15)	0.0	20.0	53.3	26.7	0.0	100.0	20.0	53.3	26.7	3.07
	대전/세종/충북/충남	(17)	0.0	11.8	58.8	23.5	5.9	100.0	11.8	58.8	29.4	3.24
직업	사무직	(4)	0.0	25.0	25.0	50.0	0.0	100.0	25.0	25.0	50.0	3.25
	기능직	(71)	0.0	25.4	35.2	39.4	0.0	100.0	25.4	35.2	39.4	3.14
	판매직	(28)	0.0	17.9	46.4	35.7	0.0	100.0	17.9	46.4	35.7	3.18
	서비스직	(54)	1.9	11.1	37.0	40.7	9.3	100.0	13.0	37.0	50.0	3.44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0.0	0.0	75.0	25.0	0.0	100.0	0.0	75.0	25.0	3.25
	주부	(129)	0.0	14.7	41.1	40.3	3.9	100.0	14.7	41.1	44.2	3.33
	무직	(9)	0.0	11.1	44.4	44.4	0.0	100.0	11.1	44.4	44.4	3.33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혼인 상태	기혼	(292)	0.3	17.1	39.7	39.4	3.4	100.0	17.5	39.7	42.8	3.28
	기타	(8)	0.0	0.0	37.5	62.5	0.0	100.0	0.0	37.5	62.5	3.6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5.3	5.3	26.3	57.9	5.3	100.0	10.5	26.3	63.2	3.53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0.0	8.8	43.9	45.6	1.8	100.0	8.8	43.9	47.4	3.40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0.0	23.8	42.5	31.9	1.9	100.0	23.8	42.5	33.8	3.12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0.0	10.0	36.0	46.0	8.0	100.0	10.0	36.0	54.0	3.52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0.0	0.0	16.7	75.0	8.3	100.0	0.0	16.7	83.3	3.92
	500만원~600만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100.0	50.0	50.0	0.0	2.5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0.0	19.6	37.3	39.2	3.9	100.0	19.6	37.3	43.1	3.27
	없음	(249)	0.4	16.1	40.2	40.2	3.2	100.0	16.5	40.2	43.4	3.3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0.0	6.7	33.3	60.0	0.0	100.0	6.7	33.3	60.0	3.53
	없음	(285)	0.4	17.2	40.0	38.9	3.5	100.0	17.5	40.0	42.5	3.28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0.7	16.0	32.7	43.3	7.3	100.0	16.7	32.7	50.7	3.41
국적	중국	(105)	1.9	17.1	30.5	46.7	3.8	100.0	19.0	30.5	50.5	3.33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0.0	12.7	32.4	46.5	8.5	100.0	12.7	32.4	54.9	3.51
	베트남	(124)	0.0	16.9	34.7	38.7	9.7	100.0	16.9	34.7	48.4	3.41
성(性)	남자	(40)	2.5	12.5	30.0	50.0	5.0	100.0	15.0	30.0	55.0	3.43
	여자	(260)	0.4	16.5	33.1	42.3	7.7	100.0	16.9	33.1	50.0	3.40
연령	만19~29세	(70)	0.0	25.7	35.7	31.4	7.1	100.0	25.7	35.7	38.6	3.20
	30대	(117)	1.7	15.4	31.6	42.7	8.5	100.0	17.1	31.6	51.3	3.41
	40대	(59)	0.0	13.6	39.0	37.3	10.2	100.0	13.6	39.0	47.5	3.44
	50대	(33)	0.0	12.1	21.2	66.7	0.0	100.0	12.1	21.2	66.7	3.55
	60세 이상	(21)	0.0	0.0	28.6	66.7	4.8	100.0	0.0	28.6	71.4	3.76
학력	고졸 미만	(66)	0.0	9.1	25.8	62.1	3.0	100.0	9.1	25.8	65.2	3.59
	고졸	(155)	0.6	11.0	35.5	44.5	8.4	100.0	11.6	35.5	52.9	3.49
	전문대 졸	(19)	5.3	0.0	26.3	47.4	21.1	100.0	5.3	26.3	68.4	3.79
	대졸	(60)	0.0	41.7	35.0	18.3	5.0	100.0	41.7	35.0	23.3	2.87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0.0	42.9	32.1	21.4	3.6	100.0	42.9	32.1	25.0	2.86
	천주교	(3)	0.0	0.0	33.3	66.7	0.0	100.0	0.0	33.3	66.7	3.67
	불교	(41)	0.0	17.1	22.0	56.1	4.9	100.0	17.1	22.0	61.0	3.49
	기타	(6)	0.0	66.7	33.3	0.0	0.0	100.0	66.7	33.3	0.0	2.33
	무교	(194)	1.0	6.7	35.1	47.9	9.3	100.0	7.7	35.1	57.2	3.58
거주 지역	서울	(79)	0.0	11.4	41.8	41.8	5.1	100.0	11.4	41.8	46.8	3.41
	경기/인천	(159)	0.0	16.4	28.9	44.0	10.7	100.0	16.4	28.9	54.7	3.49
	부산/울산/경남	(15)	0.0	66.7	20.0	13.3	0.0	100.0	66.7	20.0	13.3	2.47
	대구/경북	(15)	0.0	0.0	13.3	86.7	0.0	100.0	0.0	13.3	86.7	3.87
	광주/전북/전남	(15)	0.0	6.7	60.0	33.3	0.0	100.0	6.7	60.0	33.3	3.27
	대전/세종/충북/충남	(17)	11.8	11.8	29.4	41.2	5.9	100.0	23.5	29.4	47.1	3.18
직업	사무직	(4)	0.0	50.0	0.0	25.0	25.0	100.0	50.0	0.0	50.0	3.25
	기능직	(71)	1.4	21.1	45.1	31.0	1.4	100.0	22.5	45.1	32.4	3.10
	판매직	(28)	0.0	10.7	35.7	42.9	10.7	100.0	10.7	35.7	53.6	3.54
	서비스직	(54)	0.0	7.4	35.2	44.4	13.0	100.0	7.4	35.2	57.4	3.63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0.0	50.0	25.0	25.0	0.0	100.0	50.0	25.0	25.0	2.75
	주부	(129)	0.0	16.3	26.4	49.6	7.8	100.0	16.3	26.4	57.4	3.49
	무직	(9)	11.1	11.1	22.2	55.6	0.0	100.0	22.2	22.2	55.6	3.22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혼인 상태	기혼	(292)	0.7	16.4	32.5	42.8	7.5	100.0	17.1	32.5	50.3	3.40
	기타	(8)	0.0	0.0	37.5	62.5	0.0	100.0	0.0	37.5	62.5	3.6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0.0	5.3	15.8	73.7	5.3	100.0	5.3	15.8	78.9	3.79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1.8	7.0	31.6	54.4	5.3	100.0	8.8	31.6	59.6	3.54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0.0	23.1	38.1	34.4	4.4	100.0	23.1	38.1	38.8	3.20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2.0	12.0	28.0	42.0	16.0	100.0	14.0	28.0	58.0	3.58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0.0	0.0	16.7	58.3	25.0	100.0	0.0	16.7	83.3	4.08
	500만원~600만원 미만	(2)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3.9	3.9	23.5	51.0	17.6	100.0	7.8	23.5	68.6	3.75
	없음	(249)	0.0	18.5	34.5	41.8	5.2	100.0	18.5	34.5	47.0	3.34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0.0	6.7	13.3	73.3	6.7	100.0	6.7	13.3	80.0	3.80
	없음	(285)	0.7	16.5	33.7	41.8	7.4	100.0	17.2	33.7	49.1	3.39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우리나라는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우리나라는 결혼이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우리나라는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전체		(300)	53.7	37.0	32.0	34.7	28.7
국적	중국	(105)	49.5	39.0	31.4	34.3	19.0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53.5	33.8	31.0	35.2	35.2
	베트남	(124)	57.3	37.1	33.1	34.7	33.1
성(性)	남자	(40)	47.5	35.0	37.5	42.5	27.5
	여자	(260)	54.6	37.3	31.2	33.5	28.8
연령	만19~29세	(70)	50.0	34.3	35.7	31.4	31.4
	30대	(117)	53.0	31.6	31.6	35.9	26.5
	40대	(59)	54.2	47.5	32.2	33.9	28.8
	50대	(33)	57.6	42.4	27.3	39.4	33.3
	60세 이상	(21)	61.9	38.1	28.6	33.3	23.8
학력	고졸 미만	(66)	43.9	43.9	33.3	39.4	31.8
	고졸	(155)	52.3	38.1	29.0	36.8	32.3
	전문대 졸	(19)	63.2	31.6	26.3	31.6	36.8
	대졸	(60)	65.0	28.3	40.0	25.0	13.3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67.9	26.8	37.5	32.1	10.7
	천주교	(3)	66.7	33.3	100.0	33.3	0.0
	불교	(41)	43.9	39.0	24.4	24.4	26.8
	기타	(6)	0.0	0.0	0.0	0.0	0.0
	무교	(194)	53.1	40.7	32.0	38.7	35.6
거주 지역	서울	(79)	69.6	51.9	48.1	54.4	49.4
	경기/인천	(159)	52.2	30.8	25.8	27.0	17.0
	부산/울산/경남	(15)	0.0	20.0	0.0	0.0	0.0
	대구/경북	(15)	60.0	40.0	26.7	40.0	53.3
	광주/전북/전남	(15)	40.0	20.0	33.3	33.3	26.7
	대전/세종/충북/충남	(17)	47.1	52.9	47.1	41.2	47.1
직업	사무직	(4)	100.0	50.0	50.0	25.0	0.0
	기능직	(71)	62.0	42.3	36.6	42.3	32.4
	판매직	(28)	60.7	42.9	32.1	46.4	39.3
	서비스직	(54)	46.3	27.8	31.5	38.9	31.5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0.0	0.0	25.0	0.0	0.0
	주부	(129)	51.9	35.7	30.2	27.9	26.4
	무직	(9)	44.4	55.6	22.2	22.2	11.1
	기타	(1)	0.0	100.0	0.0	100.0	0.0
혼인 상태	기혼	(292)	53.8	36.3	32.5	34.6	28.8
	기타	(8)	50.0	62.5	12.5	37.5	25.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78.9	31.6	26.3	42.1	26.3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56.1	36.8	31.6	38.6	40.4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53.8	38.1	37.5	35.0	29.4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44.0	40.0	24.0	28.0	18.0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50.0	16.7	8.3	33.3	16.7
	500만원~600만원 미만	(2)	0.0	50.0	0.0	0.0	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35.3	29.4	23.5	21.6	21.6
	없음	(249)	57.4	38.6	33.7	37.3	30.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53.3	26.7	33.3	40.0	26.7
	없음	(285)	53.7	37.5	31.9	34.4	28.8

[표 2-1.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그렇지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2.3	21.7	33.7	39.0	3.3	100.0	24.0	33.7	42.3	2.81
국적	중국	(105)	3.8	27.6	30.5	34.3	3.8	100.0	31.4	30.5	38.1	2.93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2.8	14.1	28.2	49.3	5.6	100.0	16.9	28.2	54.9	2.59
	베트남	(124)	0.8	21.0	39.5	37.1	1.6	100.0	21.8	39.5	38.7	2.82
성(性)	남자	(40)	0.0	15.0	45.0	37.5	2.5	100.0	15.0	45.0	40.0	2.73
	여자	(260)	2.7	22.7	31.9	39.2	3.5	100.0	25.4	31.9	42.7	2.82
연령	만19~29세	(70)	0.0	21.4	42.9	34.3	1.4	100.0	21.4	42.9	35.7	2.84
	30대	(117)	3.4	21.4	35.0	35.9	4.3	100.0	24.8	35.0	40.2	2.84
	40대	(59)	1.7	27.1	27.1	40.7	3.4	100.0	28.8	27.1	44.1	2.83
	50대	(33)	0.0	12.1	30.3	57.6	0.0	100.0	12.1	30.3	57.6	2.55
	60세 이상	(21)	9.5	23.8	19.0	38.1	9.5	100.0	33.3	19.0	47.6	2.86
학력	고졸 미만	(66)	3.0	16.7	40.9	37.9	1.5	100.0	19.7	40.9	39.4	2.82
	고졸	(155)	1.3	23.2	36.1	37.4	1.9	100.0	24.5	36.1	39.4	2.85
	전문대 졸	(19)	15.8	26.3	15.8	36.8	5.3	100.0	42.1	15.8	42.1	3.11
	대졸	(60)	0.0	21.7	25.0	45.0	8.3	100.0	21.7	25.0	53.3	2.60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0.0	19.6	23.2	46.4	10.7	100.0	19.6	23.2	57.1	2.52
	천주교	(3)	0.0	0.0	33.3	66.7	0.0	100.0	0.0	33.3	66.7	2.33
	불교	(41)	2.4	17.1	31.7	48.8	0.0	100.0	19.5	31.7	48.8	2.73
	기타	(6)	0.0	0.0	66.7	33.3	0.0	100.0	0.0	66.7	33.3	2.67
	무교	(194)	3.1	24.2	36.1	34.5	2.1	100.0	27.3	36.1	36.6	2.92
거주 지역	서울	(79)	5.1	11.4	27.8	55.7	0.0	100.0	16.5	27.8	55.7	2.66
	경기/인천	(159)	1.3	30.2	30.8	32.1	5.7	100.0	31.4	30.8	37.7	2.89
	부산/울산/경남	(15)	0.0	0.0	60.0	40.0	0.0	100.0	0.0	60.0	40.0	2.60
	대구/경북	(15)	6.7	26.7	53.3	13.3	0.0	100.0	33.3	53.3	13.3	3.27
	광주/전북/전남	(15)	0.0	13.3	26.7	60.0	0.0	100.0	13.3	26.7	60.0	2.53
	대전/세종/충북/충남	(17)	0.0	11.8	52.9	29.4	5.9	100.0	11.8	52.9	35.3	2.71
직업	사무직	(4)	0.0	25.0	25.0	50.0	0.0	100.0	25.0	25.0	50.0	3.25
	기능직	(71)	4.2	32.4	46.5	16.9	0.0	100.0	36.6	46.5	16.9	2.76
	판매직	(28)	3.6	42.9	35.7	17.9	0.0	100.0	46.4	35.7	17.9	2.68
	서비스직	(54)	1.9	50.0	25.9	16.7	5.6	100.0	51.9	25.9	22.2	2.74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0.0	50.0	50.0	0.0	0.0	100.0	50.0	50.0	0.0	2.50
	주부	(129)	3.1	38.0	28.7	27.1	3.1	100.0	41.1	28.7	30.2	2.89
	무직	(9)	11.1	22.2	44.4	22.2	0.0	100.0	33.3	44.4	22.2	2.78
	기타	(1)	0.0	100.0	0.0	0.0	0.0	100.0	100.0	0.0	0.0	2.00
혼인 상태	기혼	(292)	2.4	21.6	33.6	39.0	3.4	100.0	24.0	33.6	42.5	2.80
	기타	(8)	0.0	25.0	37.5	37.5	0.0	100.0	25.0	37.5	37.5	2.88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10.5	21.1	26.3	36.8	5.3	100.0	31.6	26.3	42.1	2.95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1.8	17.5	35.1	42.1	3.5	100.0	19.3	35.1	45.6	2.72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1.9	22.5	31.9	40.0	3.8	100.0	24.4	31.9	43.8	2.79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2.0	18.0	44.0	34.0	2.0	100.0	20.0	44.0	36.0	2.84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0.0	50.0	25.0	25.0	0.0	100.0	50.0	25.0	25.0	3.25
	500만원~600만원 미만	(2)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2.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2.0	33.3	27.5	33.3	3.9	100.0	35.3	27.5	37.3	2.96
	없음	(249)	2.4	19.3	34.9	40.2	3.2	100.0	21.7	34.9	43.4	2.7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0.0	20.0	26.7	53.3	0.0	100.0	20.0	26.7	53.3	2.67
	없음	(285)	2.5	21.8	34.0	38.2	3.5	100.0	24.2	34.0	41.8	2.81

[표 2-2. 결혼이주민에 대한 국민수용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느낌	모임 등에서 불공정 또는 불평등을 느낌	행동 또는 작품에서 폄하 당한 느낌	여가/문화 활동시 시선이 곱지 않음 느낌	스스로 불편함을 느낌
전체		(300)	50.7	41.7	34.7	33.0	36.0
국적	중국	(105)	51.4	44.8	41.0	35.2	39.0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57.7	40.8	29.6	25.4	32.4
	베트남	(124)	46.0	39.5	32.3	35.5	35.5
성(性)	남자	(40)	60.0	35.0	22.5	42.5	37.5
	여자	(260)	49.2	42.7	36.5	31.5	35.8
연령	만19~29세	(70)	51.4	40.0	32.9	35.7	42.9
	30대	(117)	46.2	42.7	34.2	34.2	32.5
	40대	(59)	61.0	45.8	37.3	32.2	37.3
	50대	(33)	51.5	36.4	30.3	33.3	33.3
	60세 이상	(21)	42.9	38.1	42.9	19.0	33.3
학력	고졸 미만	(66)	45.5	31.8	30.3	30.3	34.8
	고졸	(155)	40.0	43.2	32.3	28.4	34.8
	전문대 졸	(19)	42.1	36.8	47.4	47.4	47.4
	대졸	(60)	86.7	50.0	41.7	43.3	36.7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85.7	50.0	41.1	35.7	37.5
	천주교	(3)	33.3	33.3	0.0	33.3	33.3
	불교	(41)	34.1	41.5	41.5	24.4	41.5
	기타	(6)	50.0	50.0	50.0	16.7	50.0
	무교	(194)	44.3	39.2	31.4	34.5	34.0
거주 지역	서울	(79)	35.4	38.0	26.6	26.6	31.6
	경기/인천	(159)	59.7	42.1	38.4	41.5	39.0
	부산/울산/경남	(15)	53.3	53.3	53.3	20.0	53.3
	대구/경북	(15)	66.7	53.3	20.0	6.7	33.3
	광주/전북/전남	(15)	53.3	33.3	13.3	26.7	26.7
	대전/세종/충북/충남	(17)	17.6	41.2	52.9	23.5	23.5
직업	사무직	(4)	75.0	50.0	50.0	25.0	25.0
	기능직	(71)	53.5	33.8	36.6	33.8	42.3
	판매직	(28)	42.9	35.7	35.7	35.7	28.6
	서비스직	(54)	44.4	40.7	29.6	25.9	27.8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25.0	25.0	25.0	25.0	25.0
	주부	(129)	54.3	48.1	35.7	34.9	38.0
	무직	(9)	44.4	44.4	33.3	33.3	44.4
	기타	(1)	0.0	0.0	0.0	100.0	0.0
혼인 상태	기혼	(292)	51.0	42.1	35.3	33.2	36.3
	기타	(8)	37.5	25.0	12.5	25.0	25.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52.6	31.6	21.1	21.1	31.6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31.6	24.6	29.8	35.1	36.8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62.5	46.3	33.1	31.9	34.4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40.0	52.0	46.0	40.0	42.0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25.0	41.7	41.7	33.3	33.3
	500만원~600만원 미만	(2)	50.0	0.0	100.0	0.0	5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31.4	51.0	37.3	27.5	37.3
	없음	(249)	54.6	39.8	34.1	34.1	35.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6.7	20.0	13.3	13.3	20.0
	없음	(285)	53.0	42.8	35.8	34.0	36.8

[표 2-3. 결혼이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사회시선이 평등하지 않음	나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함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간주함	방송 및 언론에서 그들만의 잣대로 판단함	주변인들은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함
전체		(300)	49.7	50.3	44.7	45.0	48.0
국적	중국	(105)	54.3	53.3	41.9	49.5	45.7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49.3	38.0	42.3	31.0	39.4
	베트남	(124)	46.0	54.8	48.4	49.2	54.8
성(性)	남자	(40)	50.0	50.0	30.0	40.0	32.5
	여자	(260)	49.6	50.4	46.9	45.8	50.4
연령	만19~29세	(70)	51.4	52.9	44.3	42.9	55.7
	30대	(117)	47.9	48.7	43.6	47.0	45.3
	40대	(59)	54.2	50.8	44.1	45.8	45.8
	50대	(33)	48.5	51.5	39.4	42.4	39.4
	60세 이상	(21)	42.9	47.6	61.9	42.9	57.1
학력	고졸 미만	(66)	43.9	45.5	43.9	43.9	37.9
	고졸	(155)	40.0	43.2	41.9	41.3	47.7
	전문대 졸	(19)	31.6	68.4	47.4	63.2	57.9
	대졸	(60)	86.7	68.3	51.7	50.0	56.7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89.3	71.4	53.6	57.1	57.1
	천주교	(3)	33.3	33.3	66.7	33.3	33.3
	불교	(41)	36.6	46.3	46.3	39.0	53.7
	기타	(6)	66.7	66.7	50.0	0.0	50.0
	무교	(194)	40.7	44.8	41.2	44.3	44.3
거주 지역	서울	(79)	32.9	35.4	29.1	38.0	34.2
	경기/인천	(159)	60.4	61.0	55.3	52.8	56.6
	부산/울산/경남	(15)	53.3	53.3	46.7	6.7	46.7
	대구/경북	(15)	33.3	40.0	40.0	46.7	40.0
	광주/전북/전남	(15)	33.3	46.7	20.0	46.7	33.3
	대전/세종/충북/충남	(17)	52.9	29.4	41.2	35.3	52.9
직업	사무직	(4)	75.0	100.0	50.0	50.0	75.0
	기능직	(71)	52.1	43.7	35.2	50.7	42.3
	판매직	(28)	53.6	46.4	50.0	46.4	32.1
	서비스직	(54)	38.9	40.7	40.7	42.6	42.6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50.0	50.0	25.0	50.0	25.0
	주부	(129)	51.9	55.0	53.5	43.4	57.4
	무직	(9)	44.4	77.8	11.1	33.3	44.4
	기타	(1)	0.0	100.0	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292)	50.0	50.0	45.5	45.2	48.6
	기타	(8)	37.5	62.5	12.5	37.5	25.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31.6	52.6	36.8	31.6	36.8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35.1	38.6	36.8	40.4	40.4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59.4	53.1	48.1	46.9	50.6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46.0	56.0	44.0	48.0	50.0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33.3	41.7	50.0	41.7	58.3
	500만원~600만원 미만	(2)	50.0	50.0	50.0	100.0	5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51.0	43.1	54.9	56.9	58.8
	없음	(249)	49.4	51.8	42.6	42.6	45.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20.0	6.7	40.0	33.3	20.0
	없음	(285)	51.2	52.6	44.9	45.6	49.5

[표 2-4.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정부는 동등한 수준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함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음	여가활동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불편함 없음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함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만족함
전체		(300)	37.7	33.0	33.3	40.0	35.7	39.0	42.3
국적	중국	(105)	37.1	30.5	31.4	41.9	33.3	36.2	46.7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71)	46.5	42.3	36.6	31.0	31.0	39.4	25.4
	베트남	(124)	33.1	29.8	33.1	43.5	40.3	41.1	48.4
성(性)	남자	(40)	42.5	32.5	30.0	37.5	25.0	42.5	30.0
	여자	(260)	36.9	33.1	33.8	40.4	37.3	38.5	44.2
연령	만19~29세	(70)	37.1	27.1	34.3	41.4	31.4	47.1	41.4
	30대	(117)	35.0	32.5	31.6	36.8	39.3	30.8	39.3
	40대	(59)	45.8	35.6	35.6	44.1	30.5	45.8	45.8
	50대	(33)	30.3	36.4	27.3	45.5	36.4	39.4	51.5
	60세 이상	(21)	42.9	42.9	42.9	33.3	42.9	38.1	38.1
학력	고졸 미만	(66)	22.7	36.4	28.8	27.3	37.9	31.8	27.3
	고졸	(155)	41.3	34.2	36.8	43.9	36.8	43.9	41.3
	전문대 졸	(19)	47.4	31.6	36.8	47.4	36.8	57.9	63.2
	대졸	(60)	41.7	26.7	28.3	41.7	30.0	28.3	55.0
종교	기독교(개신교)	(56)	39.3	30.4	28.6	41.1	23.2	26.8	58.9
	천주교	(3)	66.7	33.3	33.3	66.7	66.7	0.0	33.3
	불교	(41)	41.5	36.6	26.8	41.5	36.6	48.8	46.3
	기타	(6)	0.0	0.0	0.0	0.0	16.7	0.0	0.0
	무교	(194)	37.1	34.0	37.1	40.2	39.2	42.3	38.1
거주 지역	서울	(79)	39.2	45.6	46.8	54.4	49.4	51.9	50.6
	경기/인천	(159)	34.6	26.4	27.0	34.6	26.4	32.1	43.4
	부산/울산/경남	(15)	6.7	6.7	6.7	6.7	33.3	0.0	0.0
	대구/경북	(15)	60.0	53.3	46.7	40.0	46.7	46.7	53.3
	광주/전북/전남	(15)	33.3	33.3	33.3	26.7	40.0	66.7	20.0
	대전/세종/충북/충남	(17)	70.6	41.2	41.2	64.7	47.1	47.1	41.2
직업	사무직	(4)	25.0	50.0	0.0	50.0	25.0	50.0	75.0
	기능직	(71)	45.1	29.6	35.2	54.9	35.2	46.5	45.1
	판매직	(28)	25.0	32.1	42.9	39.3	35.7	39.3	35.7
	서비스직	(54)	42.6	42.6	33.3	38.9	44.4	48.1	35.2
	농림어업 관련 직종	(4)	0.0	0.0	0.0	25.0	25.0	25.0	25.0
	주부	(129)	37.2	31.0	33.3	31.8	33.3	31.8	45.7
	무직	(9)	11.1	44.4	22.2	44.4	33.3	33.3	33.3
	기타	(1)	100.0	0.0	0.0	100.0	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292)	38.0	32.5	33.6	39.7	35.3	38.7	42.5
	기타	(8)	25.0	50.0	25.0	50.0	50.0	50.0	37.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9)	15.8	36.8	52.6	31.6	31.6	42.1	31.6
	100만원~200만원 미만	(57)	31.6	40.4	36.8	45.6	29.8	38.6	35.1
	200만원~300만원 미만	(160)	43.1	33.1	33.1	43.1	35.0	37.5	46.9
	300만원~400만원 미만	(50)	42.0	24.0	28.0	28.0	44.0	42.0	46.0
	400만원~500만원 미만	(12)	8.3	25.0	16.7	33.3	41.7	33.3	16.7
	500만원~600만원 미만	(2)	50.0	50.0	0.0	50.0	50.0	100.0	5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51)	41.2	25.5	25.5	35.3	41.2	45.1	41.2
	없음	(249)	36.9	34.5	34.9	41.0	34.5	37.8	42.6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15)	26.7	33.3	60.0	46.7	40.0	40.0	33.3
	없음	(285)	38.2	33.0	31.9	39.6	35.4	38.9	42.8

[북한이탈주민 인식조사]

[표 1-1. 문화다양성의 개념 및 의미 인지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2.0	5.3	27.7	43.0	22.0	100.0	7.3	27.7	65.0	3.78
성별	남자	(72)	0.0	5.6	30.6	45.8	18.1	100.0	5.6	30.6	63.9	3.76
	여자	(228)	2.6	5.3	26.8	42.1	23.2	100.0	7.9	26.8	65.4	3.78
연령별	20대 이하	(22)	4.5	0.0	36.4	36.4	22.7	100.0	4.5	36.4	59.1	3.73
	30대	(68)	4.4	7.4	35.3	33.8	19.1	100.0	11.8	35.3	52.9	3.56
	40대	(88)	0.0	5.7	29.5	43.2	21.6	100.0	5.7	29.5	64.8	3.81
	50대	(66)	0.0	6.1	22.7	47.0	24.2	100.0	6.1	22.7	71.2	3.89
	60세 이상	(56)	3.6	3.6	17.9	51.8	23.2	100.0	7.1	17.9	75.0	3.88
학력별	고졸 미만	(65)	6.2	3.1	13.8	55.4	21.5	100.0	9.2	13.8	76.9	3.83
	고졸	(154)	0.0	8.4	31.8	39.6	20.1	100.0	8.4	31.8	59.7	3.71
	전문대 졸	(42)	2.4	0.0	33.3	38.1	26.2	100.0	2.4	33.3	64.3	3.86
	대졸 이상	(38)	2.6	2.6	28.9	39.5	26.3	100.0	5.3	28.9	65.8	3.84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혼인 상태	기혼	(181)	2.2	6.1	28.7	44.2	18.8	100.0	8.3	28.7	63.0	3.71
	미혼	(89)	1.1	3.4	28.1	36.0	31.5	100.0	4.5	28.1	67.4	3.93
	재혼	(16)	0.0	0.0	37.5	43.8	18.8	100.0	0.0	37.5	62.5	3.81
	기타	(14)	7.1	14.3	0.0	71.4	7.1	100.0	21.4	0.0	78.6	3.57
종교	기독교	(125)	2.4	4.0	21.6	56.0	16.0	100.0	6.4	21.6	72.0	3.79
	천주교	(19)	0.0	0.0	15.8	42.1	42.1	100.0	0.0	15.8	84.2	4.26
	불교	(21)	0.0	4.8	38.1	28.6	28.6	100.0	4.8	38.1	57.1	3.81
	없음	(135)	2.2	7.4	33.3	33.3	23.7	100.0	9.6	33.3	57.0	3.69
거주 지역별	서울	(42)	2.4	2.4	21.4	52.4	21.4	100.0	4.8	21.4	73.8	3.88
	경기/인천	(154)	1.9	1.3	23.4	43.5	29.9	100.0	3.2	23.4	73.4	3.98
	부산/울산/경남	(28)	0.0	3.6	17.9	71.4	7.1	100.0	3.6	17.9	78.6	3.82
	대구/경북	(27)	0.0	11.1	51.9	33.3	3.7	100.0	11.1	51.9	37.0	3.30
	광주/전북/전남	(28)	3.6	32.1	57.1	3.6	3.6	100.0	35.7	57.1	7.1	2.71
	대전/세종/충북/충남	(21)	4.8	0.0	14.3	47.6	33.3	100.0	4.8	14.3	81.0	4.05
직업별	전문직	(16)	0.0	0.0	18.8	56.3	25.0	100.0	0.0	18.8	81.3	4.06
	사무직	(17)	0.0	0.0	23.5	52.9	23.5	100.0	0.0	23.5	76.5	4.00
	기능직	(43)	0.0	2.3	39.5	41.9	16.3	100.0	2.3	39.5	58.1	3.72
	판매직	(14)	0.0	21.4	28.6	28.6	21.4	100.0	21.4	28.6	50.0	3.50
	서비스직	(44)	0.0	15.9	22.7	43.2	18.2	100.0	15.9	22.7	61.4	3.64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0.0	16.7	16.7	50.0	16.7	100.0	16.7	16.7	66.7	3.67
	공무원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5.00
	주부	(68)	2.9	2.9	35.3	36.8	22.1	100.0	5.9	35.3	58.8	3.72
	학생	(14)	0.0	0.0	14.3	50.0	35.7	100.0	0.0	14.3	85.7	4.21
	무직	(77)	5.2	2.6	23.4	45.5	23.4	100.0	7.8	23.4	68.8	3.79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3.7	1.5	19.4	44.8	30.6	100.0	5.2	19.4	75.4	3.97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1.1	9.6	30.9	42.6	16.0	100.0	10.6	30.9	58.5	3.63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0.0	9.8	41.2	33.3	15.7	100.0	9.8	41.2	49.0	3.55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0.0	0.0	38.5	53.8	7.7	100.0	0.0	38.5	61.5	3.69
	400만원 이상	(8)	0.0	0.0	25.0	62.5	12.5	100.0	0.0	25.0	75.0	3.88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2.7	2.7	30.7	40.0	24.0	100.0	5.3	30.7	64.0	3.80
	없음	(225)	1.8	6.2	26.7	44.0	21.3	100.0	8.0	26.7	65.3	3.7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1.5	1.5	24.6	46.2	26.2	100.0	3.1	24.6	72.3	3.94
	없음	(235)	2.1	6.4	28.5	42.1	20.9	100.0	8.5	28.5	63.0	3.73

[표 1-2.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동의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0.3	5.0	24.7	43.3	26.7	100.0	5.3	24.7	70.0	3.91
성별	남자	(72)	0.0	8.3	25.0	48.6	18.1	100.0	8.3	25.0	66.7	3.76
	여자	(228)	0.4	3.9	24.6	41.7	29.4	100.0	4.4	24.6	71.1	3.96
연령별	20대 이하	(22)	0.0	4.5	22.7	27.3	45.5	100.0	4.5	22.7	72.7	4.14
	30대	(68)	1.5	5.9	22.1	48.5	22.1	100.0	7.4	22.1	70.6	3.84
	40대	(88)	0.0	5.7	29.5	38.6	26.1	100.0	5.7	29.5	64.8	3.85
	50대	(66)	0.0	4.5	25.8	47.0	22.7	100.0	4.5	25.8	69.7	3.88
	60세 이상	(56)	0.0	3.6	19.6	46.4	30.4	100.0	3.6	19.6	76.8	4.04
학력별	고졸 미만	(65)	0.0	4.6	21.5	46.2	27.7	100.0	4.6	21.5	73.8	3.97
	고졸	(154)	0.0	5.2	26.0	44.2	24.7	100.0	5.2	26.0	68.8	3.88
	전문대 졸	(42)	0.0	7.1	23.8	38.1	31.0	100.0	7.1	23.8	69.0	3.93
	대졸 이상	(38)	2.6	2.6	26.3	39.5	28.9	100.0	5.3	26.3	68.4	3.89
	기타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혼인 상태	기혼	(181)	0.6	5.5	23.2	48.1	22.7	100.0	6.1	23.2	70.7	3.87
	미혼	(89)	0.0	4.5	25.8	36.0	33.7	100.0	4.5	25.8	69.7	3.99
	재혼	(16)	0.0	0.0	31.3	37.5	31.3	100.0	0.0	31.3	68.8	4.00
	기타	(14)	0.0	7.1	28.6	35.7	28.6	100.0	7.1	28.6	64.3	3.86
종교	기독교	(125)	0.8	4.8	24.0	46.4	24.0	100.0	5.6	24.0	70.4	3.88
	천주교	(19)	0.0	5.3	21.1	36.8	36.8	100.0	5.3	21.1	73.7	4.05
	불교	(21)	0.0	9.5	14.3	28.6	47.6	100.0	9.5	14.3	76.2	4.14
	없음	(135)	0.0	4.4	27.4	43.7	24.4	100.0	4.4	27.4	68.1	3.88
거주 지역별	서울	(42)	0.0	2.4	23.8	42.9	31.0	100.0	2.4	23.8	73.8	4.02
	경기/인천	(154)	0.0	1.9	12.3	48.1	37.7	100.0	1.9	12.3	85.7	4.21
	부산/울산/경남	(28)	0.0	0.0	50.0	50.0	0.0	100.0	0.0	50.0	50.0	3.50
	대구/경북	(27)	0.0	11.1	48.1	37.0	3.7	100.0	11.1	48.1	40.7	3.33
	광주/전북/전남	(28)	0.0	28.6	46.4	21.4	3.6	100.0	28.6	46.4	25.0	3.00
	대전/세종/충북/충남	(21)	4.8	0.0	23.8	38.1	33.3	100.0	4.8	23.8	71.4	3.95
직업별	전문직	(16)	0.0	0.0	12.5	43.8	43.8	100.0	0.0	12.5	87.5	4.31
	사무직	(17)	0.0	5.9	29.4	41.2	23.5	100.0	5.9	29.4	64.7	3.82
	기능직	(43)	0.0	4.7	41.9	41.9	11.6	100.0	4.7	41.9	53.5	3.60
	판매직	(14)	0.0	7.1	28.6	35.7	28.6	100.0	7.1	28.6	64.3	3.86
	서비스직	(44)	0.0	4.5	29.5	43.2	22.7	100.0	4.5	29.5	65.9	3.84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0.0	16.7	0.0	50.0	33.3	100.0	16.7	0.0	83.3	4.00
	공무원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주부	(68)	0.0	4.4	20.6	52.9	22.1	100.0	4.4	20.6	75.0	3.93
	학생	(14)	0.0	0.0	14.3	28.6	57.1	100.0	0.0	14.3	85.7	4.43
	무직	(77)	1.3	6.5	20.8	39.0	32.5	100.0	7.8	20.8	71.4	3.95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0.7	2.2	19.4	44.8	32.8	100.0	3.0	19.4	77.6	4.07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0.0	8.5	25.5	40.4	25.5	100.0	8.5	25.5	66.0	3.83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0.0	5.9	39.2	35.3	19.6	100.0	5.9	39.2	54.9	3.69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0.0	0.0	15.4	76.9	7.7	100.0	0.0	15.4	84.6	3.92
	400만원 이상	(8)	0.0	12.5	25.0	50.0	12.5	100.0	12.5	25.0	62.5	3.63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0.0	4.0	16.0	56.0	24.0	100.0	4.0	16.0	80.0	4.00
	없음	(225)	0.4	5.3	27.6	39.1	27.6	100.0	5.8	27.6	66.7	3.88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0.0	4.6	15.4	53.8	26.2	100.0	4.6	15.4	80.0	4.02
	없음	(235)	0.4	5.1	27.2	40.4	26.8	100.0	5.5	27.2	67.2	3.88

[표 1-3.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국내 환경에 필요한 정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300)	0.3	4.7	19.7	45.7	29.7	100.0	5.0	19.7	75.3	4.00
성별	남자	(72)	0.0	4.2	29.2	43.1	23.6	100.0	4.2	29.2	66.7	3.86
	여자	(228)	0.4	4.8	16.7	46.5	31.6	100.0	5.3	16.7	78.1	4.04
연령별	20대 이하	(22)	0.0	4.5	13.6	40.9	40.9	100.0	4.5	13.6	81.8	4.18
	30대	(68)	1.5	8.8	19.1	44.1	26.5	100.0	10.3	19.1	70.6	3.85
	40대	(88)	0.0	3.4	22.7	42.0	31.8	100.0	3.4	22.7	73.9	4.02
	50대	(66)	0.0	3.0	22.7	50.0	24.2	100.0	3.0	22.7	74.2	3.95
	60세 이상	(56)	0.0	3.6	14.3	50.0	32.1	100.0	3.6	14.3	82.1	4.11
학력별	고졸 미만	(65)	0.0	6.2	15.4	47.7	30.8	100.0	6.2	15.4	78.5	4.03
	고졸	(154)	0.0	3.9	21.4	46.1	28.6	100.0	3.9	21.4	74.7	3.99
	전문대 졸	(42)	0.0	4.8	16.7	45.2	33.3	100.0	4.8	16.7	78.6	4.07
	대졸 이상	(38)	2.6	5.3	21.1	42.1	28.9	100.0	7.9	21.1	71.1	3.89
	기타	(1)	0.0	0.0	100.0	0.0	0.0	100.0	0.0	100.0	0.0	3.00
혼인 상태	기혼	(181)	0.6	5.5	21.0	47.0	26.0	100.0	6.1	21.0	72.9	3.92
	미혼	(89)	0.0	3.4	18.0	39.3	39.3	100.0	3.4	18.0	78.7	4.15
	재혼	(16)	0.0	6.3	25.0	43.8	25.0	100.0	6.3	25.0	68.8	3.88
	기타	(14)	0.0	0.0	7.1	71.4	21.4	100.0	0.0	7.1	92.9	4.14
종교	기독교	(125)	0.8	4.0	14.4	52.0	28.8	100.0	4.8	14.4	80.8	4.04
	천주교	(19)	0.0	0.0	31.6	26.3	42.1	100.0	0.0	31.6	68.4	4.11
	불교	(21)	0.0	0.0	19.0	42.9	38.1	100.0	0.0	19.0	81.0	4.19
	없음	(135)	0.0	6.7	23.0	43.0	27.4	100.0	6.7	23.0	70.4	3.91
거주 지역별	서울	(42)	0.0	7.1	21.4	35.7	35.7	100.0	7.1	21.4	71.4	4.00
	경기/인천	(154)	0.0	0.6	12.3	46.1	40.9	100.0	0.6	12.3	87.0	4.27
	부산/울산/경남	(28)	0.0	3.6	21.4	71.4	3.6	100.0	3.6	21.4	75.0	3.75
	대구/경북	(27)	0.0	3.7	25.9	59.3	11.1	100.0	3.7	25.9	70.4	3.78
	광주/전북/전남	(28)	0.0	28.6	50.0	17.9	3.6	100.0	28.6	50.0	21.4	2.96
	대전/세종/충북/충남	(21)	4.8	0.0	19.0	47.6	28.6	100.0	4.8	19.0	76.2	3.95
직업별	전문직	(16)	0.0	6.3	25.0	31.3	37.5	100.0	6.3	25.0	68.8	4.00
	사무직	(17)	0.0	5.9	17.6	52.9	23.5	100.0	5.9	17.6	76.5	3.94
	기능직	(43)	0.0	7.0	27.9	48.8	16.3	100.0	7.0	27.9	65.1	3.74
	판매직	(14)	0.0	0.0	28.6	50.0	21.4	100.0	0.0	28.6	71.4	3.93
	서비스직	(44)	0.0	6.8	20.5	38.6	34.1	100.0	6.8	20.5	72.7	4.00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0.0	0.0	33.3	50.0	16.7	100.0	0.0	33.3	66.7	3.83
	공무원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주부	(68)	0.0	5.9	19.1	48.5	26.5	100.0	5.9	19.1	75.0	3.96
	학생	(14)	0.0	0.0	14.3	28.6	57.1	100.0	0.0	14.3	85.7	4.43
	무직	(77)	1.3	2.6	13.0	48.1	35.1	100.0	3.9	13.0	83.1	4.1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0.7	1.5	16.4	46.3	35.1	100.0	2.2	16.4	81.3	4.13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0.0	6.4	24.5	37.2	31.9	100.0	6.4	24.5	69.1	3.95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0.0	11.8	21.6	49.0	17.6	100.0	11.8	21.6	66.7	3.73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0.0	0.0	15.4	69.2	15.4	100.0	0.0	15.4	84.6	4.00
	400만원 이상	(8)	0.0	0.0	12.5	75.0	12.5	100.0	0.0	12.5	87.5	4.0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0.0	5.3	22.7	40.0	32.0	100.0	5.3	22.7	72.0	3.99
	없음	(225)	0.4	4.4	18.7	47.6	28.9	100.0	4.9	18.7	76.4	4.00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0.0	6.2	18.5	41.5	33.8	100.0	6.2	18.5	75.4	4.03
	없음	(235)	0.4	4.3	20.0	46.8	28.5	100.0	4.7	20.0	75.3	3.99

[표 1-4. 문화다양성 구현 수준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한국은 문화적 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	한국은 북한이탈주민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한국은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한국은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잘 확산되는 중이다.
전체		(300)	73.3	55.0	44.7	64.0	58.0
성별	남자	(72)	70.8	52.8	48.6	62.5	52.8
	여자	(228)	74.1	55.7	43.4	64.5	59.6
연령별	20대 이하	(22)	100.0	90.9	40.9	72.7	63.6
	30대	(68)	61.8	45.6	36.8	55.9	55.9
	40대	(88)	70.5	50.0	36.4	58.0	47.7
	50대	(66)	71.2	54.5	56.1	68.2	63.6
	60세 이상	(56)	83.9	60.7	55.4	75.0	67.9
학력별	고졸 미만	(65)	76.9	61.5	55.4	72.3	64.6
	고졸	(154)	72.1	53.9	40.9	59.1	53.2
	전문대 졸	(42)	76.2	61.9	54.8	76.2	64.3
	대졸 이상	(38)	68.4	42.1	31.6	55.3	60.5
	기타	(1)	100.0	0.0	0.0	100.0	0.0
혼인 상태	기혼	(181)	71.3	50.8	40.9	61.9	56.9
	미혼	(89)	82.0	65.2	52.8	66.3	65.2
	재혼	(16)	75.0	50.0	50.0	68.8	50.0
	기타	(14)	42.9	50.0	35.7	71.4	35.7
종교	기독교	(125)	72.0	52.8	44.0	60.8	50.4
	천주교	(19)	84.2	63.2	63.2	73.7	63.2
	불교	(21)	71.4	66.7	61.9	71.4	57.1
	없음	(135)	73.3	54.1	40.0	64.4	64.4
거주 지역별	서울	(42)	81.0	64.3	52.4	69.0	73.8
	경기/인천	(154)	83.8	55.8	45.5	65.6	61.7
	부산/울산/경남	(28)	42.9	25.0	46.4	57.1	39.3
	대구/경북	(27)	74.1	74.1	51.9	81.5	63.0
	광주/전북/전남	(28)	25.0	32.1	17.9	28.6	10.7
	대전/세종/충북/충남	(21)	85.7	76.2	47.6	76.2	81.0
직업별	전문직	(16)	100.0	87.5	50.0	75.0	62.5
	사무직	(17)	41.2	35.3	47.1	58.8	47.1
	기능직	(43)	74.4	48.8	44.2	62.8	55.8
	판매직	(14)	71.4	64.3	57.1	57.1	57.1
	서비스직	(44)	59.1	47.7	36.4	61.4	54.5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66.7	83.3	66.7	66.7	66.7
	공무원	(1)	100.0	100.0	100.0	100.0	100.0
	주부	(68)	72.1	45.6	42.6	60.3	54.4
	학생	(14)	85.7	64.3	21.4	64.3	64.3
	무직	(77)	81.8	62.3	49.4	68.8	63.6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78.4	53.7	44.8	66.4	61.9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71.3	62.8	45.7	64.9	55.3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60.8	43.1	43.1	54.9	51.0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76.9	69.2	38.5	84.6	61.5
	400만원 이상	(8)	87.5	37.5	50.0	37.5	62.5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77.3	48.0	36.0	61.3	54.7
	없음	(225)	72.0	57.3	47.6	64.9	59.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76.9	49.2	41.5	60.0	50.8
	없음	(235)	72.3	56.6	45.5	65.1	60.0

[표 2-1.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사례수	전혀 느끼지 않는다	별로 느끼지 않는다	보통이다	느낀다	매우 느낀다	계	【느끼지 않는다】	【보통】	【느낀다】	[5점 평균]
전체		(300)	4.7	25.3	32.0	30.0	8.0	100.0	30.0	32.0	38.0	3.11
성별	남자	(72)	2.8	29.2	30.6	27.8	9.7	100.0	31.9	30.6	37.5	3.13
	여자	(228)	5.3	24.1	32.5	30.7	7.5	100.0	29.4	32.5	38.2	3.11
연령별	20대 이하	(22)	18.2	31.8	22.7	22.7	4.5	100.0	50.0	22.7	27.3	2.64
	30대	(68)	4.4	23.5	35.3	29.4	7.4	100.0	27.9	35.3	36.8	3.12
	40대	(88)	3.4	29.5	30.7	31.8	4.5	100.0	33.0	30.7	36.4	3.05
	50대	(66)	1.5	24.2	34.8	27.3	12.1	100.0	25.8	34.8	39.4	3.24
	60세 이상	(56)	5.4	19.6	30.4	33.9	10.7	100.0	25.0	30.4	44.6	3.25
학력별	고졸 미만	(65)	3.1	16.9	38.5	32.3	9.2	100.0	20.0	38.5	41.5	3.28
	고졸	(154)	5.2	26.6	32.5	29.2	6.5	100.0	31.8	32.5	35.7	3.05
	전문대 졸	(42)	0.0	26.2	35.7	26.2	11.9	100.0	26.2	35.7	38.1	3.24
	대졸 이상	(38)	10.5	34.2	15.8	34.2	5.3	100.0	44.7	15.8	39.5	2.89
	기타	(1)	0.0	0.0	0.0	0.0	100.0	100.0	0.0	0.0	100.0	5.00
혼인 상태	기혼	(181)	5.0	29.3	30.4	29.3	6.1	100.0	34.3	30.4	35.4	3.02
	미혼	(89)	5.6	22.5	31.5	31.5	9.0	100.0	28.1	31.5	40.4	3.16
	재혼	(16)	0.0	12.5	50.0	25.0	12.5	100.0	12.5	50.0	37.5	3.38
	기타	(14)	0.0	7.1	35.7	35.7	21.4	100.0	7.1	35.7	57.1	3.71
종교	기독교	(125)	4.0	25.6	25.6	36.0	8.8	100.0	29.6	25.6	44.8	3.20
	천주교	(19)	0.0	10.5	52.6	26.3	10.5	100.0	10.5	52.6	36.8	3.37
	불교	(21)	9.5	19.0	23.8	28.6	19.0	100.0	28.6	23.8	47.6	3.29
	없음	(135)	5.2	28.1	36.3	25.2	5.2	100.0	33.3	36.3	30.4	2.97
거주 지역별	서울	(42)	7.1	23.8	23.8	38.1	7.1	100.0	31.0	23.8	45.2	3.14
	경기/인천	(154)	4.5	23.4	34.4	29.2	8.4	100.0	27.9	34.4	37.7	3.14
	부산/울산/경남	(28)	0.0	25.0	21.4	46.4	7.1	100.0	25.0	21.4	53.6	3.36
	대구/경북	(27)	3.7	29.6	44.4	14.8	7.4	100.0	33.3	44.4	22.2	2.93
	광주/전북/전남	(28)	0.0	35.7	35.7	21.4	7.1	100.0	35.7	35.7	28.6	3.00
	대전/세종/충북/충남	(21)	14.3	23.8	23.8	28.6	9.5	100.0	38.1	23.8	38.1	2.95
직업별	전문직	(16)	12.5	18.8	31.3	25.0	12.5	100.0	31.3	31.3	37.5	3.06
	사무직	(17)	5.9	23.5	35.3	35.3	0.0	100.0	29.4	35.3	35.3	3.00
	기능직	(43)	2.3	32.6	34.9	20.9	9.3	100.0	34.9	34.9	30.2	3.02
	판매직	(14)	7.1	14.3	50.0	28.6	0.0	100.0	21.4	50.0	28.6	3.00
	서비스직	(44)	2.3	29.5	29.5	31.8	6.8	100.0	31.8	29.5	38.6	3.11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0.0	33.3	16.7	50.0	0.0	100.0	33.3	16.7	50.0	3.17
	공무원	(1)	0.0	0.0	0.0	100.0	0.0	100.0	0.0	0.0	100.0	4.00
	주부	(68)	4.4	23.5	30.9	30.9	10.3	100.0	27.9	30.9	41.2	3.19
	학생	(14)	7.1	42.9	35.7	14.3	0.0	100.0	50.0	35.7	14.3	2.57
	무직	(77)	5.2	20.8	29.9	33.8	10.4	100.0	26.0	29.9	44.2	3.23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4.5	23.9	32.1	29.9	9.7	100.0	28.4	32.1	39.6	3.16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5.3	22.3	33.0	34.0	5.3	100.0	27.7	33.0	39.4	3.12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3.9	33.3	35.3	19.6	7.8	100.0	37.3	35.3	27.5	2.94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0.0	30.8	30.8	30.8	7.7	100.0	30.8	30.8	38.5	3.15
	400만원 이상	(8)	12.5	25.0	0.0	50.0	12.5	100.0	37.5	0.0	62.5	3.25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5.3	17.3	40.0	33.3	4.0	100.0	22.7	40.0	37.3	3.13
	없음	(225)	4.4	28.0	29.3	28.9	9.3	100.0	32.4	29.3	38.2	3.11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3.1	18.5	40.0	30.8	7.7	100.0	21.5	40.0	38.5	3.22
	없음	(235)	5.1	27.2	29.8	29.8	8.1	100.0	32.3	29.8	37.9	3.09

[표 2-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수용 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회사, 학교 등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편해 할 때가 있다.	모임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할 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불공정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나의 행동이나 작품을 폄하당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문화 활동을 할 때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때가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가 있을 때나 스스로가 그 자리가 불편해 피할 때가 있다.
전체		(300)	41.3	33.3	27.3	34.7	33.3
성별	남자	(72)	44.4	33.3	29.2	44.4	33.3
	여자	(228)	40.4	33.3	26.8	31.6	33.3
연령별	20대 이하	(22)	18.2	0.0	4.5	9.1	13.6
	30대	(68)	29.4	22.1	19.1	20.6	25.0
	40대	(88)	46.6	35.2	22.7	35.2	34.1
	50대	(66)	48.5	51.5	47.0	48.5	47.0
	60세 이상	(56)	48.2	35.7	30.4	44.6	33.9
학력별	고졸 미만	(65)	52.3	35.4	33.8	40.0	52.3
	고졸	(154)	38.3	33.1	26.6	35.1	27.3
	전문대 졸	(42)	42.9	38.1	23.8	23.8	31.0
	대졸 이상	(38)	31.6	26.3	23.7	36.8	28.9
	기타	(1)	100.0	0.0	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181)	38.7	32.6	23.2	33.7	32.0
	미혼	(89)	43.8	30.3	32.6	31.5	34.8
	재혼	(16)	56.3	25.0	31.3	43.8	43.8
	기타	(14)	42.9	71.4	42.9	57.1	28.6
종교	기독교	(125)	49.6	36.8	30.4	40.8	39.2
	천주교	(19)	57.9	47.4	36.8	47.4	36.8
	불교	(21)	42.9	28.6	38.1	28.6	28.6
	없음	(135)	31.1	28.9	21.5	28.1	28.1
거주 지역별	서울	(42)	54.8	42.9	31.0	38.1	45.2
	경기/인천	(154)	39.0	29.2	26.0	33.8	28.6
	부산/울산/경남	(28)	57.1	53.6	39.3	50.0	67.9
	대구/경북	(27)	51.9	48.1	40.7	37.0	25.9
	광주/전북/전남	(28)	7.1	14.3	14.3	17.9	14.3
	대전/세종/충북/충남	(21)	42.9	23.8	14.3	33.3	33.3
직업별	전문직	(16)	37.5	18.8	6.3	18.8	18.8
	사무직	(17)	52.9	47.1	41.2	29.4	29.4
	기능직	(43)	39.5	32.6	34.9	37.2	37.2
	판매직	(14)	28.6	14.3	21.4	28.6	28.6
	서비스직	(44)	31.8	36.4	31.8	38.6	27.3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16.7	0.0	16.7	0.0	16.7
	공무원	(1)	0.0	0.0	0.0	0.0	0.0
	주부	(68)	45.6	41.2	23.5	35.3	44.1
	학생	(14)	14.3	0.0	0.0	7.1	7.1
	무직	(77)	51.9	37.7	32.5	44.2	36.4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44.0	35.1	27.6	40.3	34.3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38.3	30.9	27.7	28.7	30.9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37.3	27.5	27.5	29.4	27.5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38.5	46.2	15.4	30.8	38.5
	400만원 이상	(8)	62.5	50.0	37.5	50.0	75.0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40.0	33.3	32.0	37.3	33.3
	없음	(225)	41.8	33.3	25.8	33.8	33.3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40.0	38.5	32.3	36.9	29.2
	없음	(235)	41.7	31.9	26.0	34.0	34.5

[표 2-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 포용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평등하지 않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나의 다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사회는 나를 '더불어 사는 대상'이 아니라, '도와줘야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방송과 언론은 나를 그들만의 잣대로 규정하거나 표현하곤 한다.	나의 가족이나 친구는 내가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받을까 걱정스러워 한다.
전체		(300)	29.7	36.7	32.0	31.0	34.0
성별	남자	(72)	41.7	36.1	36.1	34.7	30.6
	여자	(228)	25.9	36.8	30.7	29.8	35.1
연령별	20대 이하	(22)	9.1	4.5	22.7	0.0	18.2
	30대	(68)	25.0	30.9	23.5	22.1	29.4
	40대	(88)	27.3	36.4	29.5	28.4	35.2
	50대	(66)	43.9	56.1	39.4	47.0	43.9
	60세 이상	(56)	30.4	33.9	41.1	39.3	32.1
학력별	고졸 미만	(65)	38.5	52.3	32.3	36.9	44.6
	고졸	(154)	27.3	33.1	31.8	27.9	29.2
	전문대 졸	(42)	21.4	28.6	28.6	35.7	35.7
	대졸 이상	(38)	31.6	34.2	36.8	28.9	34.2
	기타	(1)	100.0	0.0	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181)	27.6	38.1	29.3	28.7	30.9
	미혼	(89)	30.3	31.5	39.3	29.2	37.1
	재혼	(16)	37.5	43.8	37.5	37.5	37.5
	기타	(14)	42.9	42.9	14.3	64.3	50.0
종교	기독교	(125)	33.6	38.4	31.2	37.6	42.4
	천주교	(19)	36.8	42.1	31.6	31.6	31.6
	불교	(21)	33.3	42.9	52.4	23.8	23.8
	없음	(135)	24.4	33.3	29.6	25.9	28.1
거주 지역별	서울	(42)	31.0	33.3	33.3	38.1	40.5
	경기/인천	(154)	27.9	35.7	37.0	26.6	29.9
	부산/울산/경남	(28)	42.9	50.0	25.0	60.7	64.3
	대구/경북	(27)	40.7	51.9	18.5	44.4	37.0
	광주/전북/전남	(28)	14.3	21.4	17.9	14.3	17.9
	대전/세종/충북/충남	(21)	28.6	33.3	38.1	14.3	28.6
직업별	전문직	(16)	25.0	37.5	31.3	18.8	25.0
	사무직	(17)	29.4	35.3	41.2	47.1	70.6
	기능직	(43)	30.2	41.9	41.9	44.2	32.6
	판매직	(14)	21.4	35.7	7.1	21.4	28.6
	서비스직	(44)	20.5	31.8	25.0	27.3	29.5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33.3	16.7	16.7	16.7	16.7
	공무원	(1)	0.0	0.0	100.0	0.0	0.0
	주부	(68)	33.8	44.1	30.9	29.4	41.2
	학생	(14)	14.3	7.1	21.4	0.0	0.0
	무직	(77)	36.4	37.7	36.4	35.1	33.8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29.9	35.1	36.6	27.6	31.3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28.7	38.3	25.5	35.1	37.2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21.6	31.4	23.5	27.5	31.4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46.2	46.2	46.2	38.5	30.8
	400만원 이상	(8)	62.5	62.5	62.5	50.0	62.5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25.3	38.7	38.7	37.3	33.3
	없음	(225)	31.1	36.0	29.8	28.9	34.2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26.2	32.3	36.9	36.9	38.5
	없음	(235)	30.6	37.9	30.6	29.4	32.8

[표 2-4.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정도_top2%(매우 그렇다+그렇다)]

		사례수	정부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은 일상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정부는 나의 자유로운 문화/여가 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은 문화/여가 생활 속 차별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내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여가활동을 하거나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제공하는 문화프로그램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 만족한다.
전체		(300)	51.0	54.0	51.0	52.7	49.7	55.0	52.0
성별	남자	(72)	45.8	52.8	43.1	45.8	48.6	48.6	43.1
	여자	(228)	52.6	54.4	53.5	54.8	50.0	57.0	54.8
연령별	20대 이하	(22)	59.1	63.6	68.2	59.1	63.6	77.3	59.1
	30대	(68)	44.1	50.0	36.8	44.1	50.0	47.1	41.2
	40대	(88)	45.5	43.2	45.5	51.1	43.2	51.1	50.0
	50대	(66)	56.1	63.6	56.1	56.1	47.0	47.0	57.6
	60세 이상	(56)	58.9	60.7	64.3	58.9	57.1	71.4	58.9
학력별	고졸 미만	(65)	58.5	52.3	56.9	55.4	47.7	58.5	60.0
	고졸	(154)	50.6	56.5	51.9	53.2	49.4	55.2	51.3
	전문대 졸	(42)	57.1	66.7	52.4	54.8	59.5	61.9	59.5
	대졸 이상	(38)	34.2	34.2	34.2	44.7	42.1	42.1	34.2
	기타	(1)	0.0	0.0	100.0	0.0	100.0	0.0	0.0
혼인 상태	기혼	(181)	49.7	50.3	47.0	49.7	45.9	49.7	48.1
	미혼	(89)	53.9	66.3	56.2	60.7	59.6	68.5	59.6
	재혼	(16)	56.3	31.3	43.8	43.8	37.5	50.0	56.3
	기타	(14)	42.9	50.0	78.6	50.0	50.0	42.9	50.0
종교	기독교	(125)	46.4	50.4	46.4	48.8	51.2	55.2	54.4
	천주교	(19)	68.4	57.9	57.9	57.9	31.6	63.2	52.6
	불교	(21)	57.1	61.9	76.2	47.6	71.4	57.1	47.6
	없음	(135)	51.9	55.6	50.4	56.3	47.4	53.3	50.4
거주 지역별	서울	(42)	61.9	61.9	64.3	59.5	59.5	66.7	64.3
	경기/인천	(154)	58.4	59.7	55.8	53.9	50.0	59.7	58.4
	부산/울산/경남	(28)	7.1	10.7	17.9	32.1	25.0	39.3	35.7
	대구/경북	(27)	33.3	48.1	40.7	63.0	66.7	48.1	40.7
	광주/전북/전남	(28)	28.6	39.3	21.4	21.4	21.4	14.3	3.6
	대전/세종/충북/충남	(21)	85.7	81.0	85.7	85.7	76.2	81.0	81.0
직업별	전문직	(16)	75.0	75.0	62.5	62.5	81.3	81.3	68.8
	사무직	(17)	35.3	35.3	41.2	47.1	35.3	47.1	41.2
	기능직	(43)	46.5	51.2	53.5	48.8	55.8	58.1	53.5
	판매직	(14)	35.7	50.0	28.6	42.9	35.7	35.7	35.7
	서비스직	(44)	40.9	43.2	40.9	52.3	36.4	38.6	47.7
	농림어업 관련 직종	(6)	83.3	83.3	66.7	66.7	66.7	66.7	66.7
	공무원	(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부	(68)	52.9	51.5	45.6	50.0	45.6	47.1	44.1
	학생	(14)	57.1	50.0	35.7	35.7	64.3	50.0	50.0
	무직	(77)	54.5	62.3	64.9	59.7	51.9	68.8	61.0
월 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134)	54.5	59.0	58.2	53.7	50.7	64.9	58.2
	100만원~200만원 미만	(94)	59.6	61.7	53.2	55.3	53.2	50.0	55.3
	200만원~300만원 미만	(51)	29.4	35.3	29.4	45.1	43.1	41.2	29.4
	300만원~400만원 미만	(13)	46.2	38.5	61.5	53.8	30.8	38.5	61.5
	400만원 이상	(8)	37.5	25.0	25.0	50.0	62.5	62.5	37.5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및 교육 참여 경험	있음	(75)	57.3	58.7	56.0	50.7	49.3	54.7	56.0
	없음	(225)	48.9	52.4	49.3	53.3	49.8	55.1	50.7
문화다양성 관련 활동 경험	있음	(65)	58.5	55.4	50.8	47.7	47.7	47.7	49.2
	없음	(235)	48.9	53.6	51.1	54.0	50.2	57.0	52.8

연 구 진

연구책임

김 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송철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차석전문원)

연구원

허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김서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발 행 일 2017년 12월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전화 044-203-2000 팩스 044-203-3447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연구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인 쇄 처 더크리홍보 주식회사